

군선교 신학

4

| 한국군선교신학회 편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및 한국 교회 군선교 사역 10대 중보기도 제목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 : 3)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60만 국군 장병들을 믿음의 군대로 만들며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21세기 기독교 운동을 실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인교회를 통해 조국의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
십자가의 군병으로 변화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꿈이 담긴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기도문은 군·민족·인류복음화를 소원하는 사명자들을 위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 1999년 2월 26일 제정한 공동기도문입니다.
군복음화로 민족 복음화와 인류 복음화를 위한 모든 예배·회의 등 군선교사역과 관련된 각종 행사 시 공식 순서에 포함하여 함께 낭독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 생명력 있는 군선교 사역 합심기도 제목

-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 비전2020실천운동 사역의 결실을(방해세력 결박)
 2.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 이상 복음화를(3,700만 기독교 신자 국가 건설)
 3. 매년 진중세례(침례) 목표 인원 20만 명 결실을
 4. 매년 20만 명 군인신자 결연과 1천여 군인교회의 한 생명 살리기 5대 프로그램 실천을
 5.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군선교 사역(군복음화)의 책임 있는 기도 실천을
 6. 280여 군종목사, 350여 군선교교역자, 기독교인(MCF) 회원들과 가족들의 군선교 사역 헌신을
 7. 병영 내 사고 예방, 사기 진작, 명랑한 생활 등 기독교 문화 창달을
 8. 모범국민육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군종병과의 발전을
 9. 군선교 회원교회의 후원과 사랑의 양육 및 VIP(귀빈)가족 전도 등 10대 프로그램 실천을
 10. 기독교 청년들의 정체성 확립 및 군선교사 훈련(군입대자 비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삶(군복무/직장/결혼/가정/교회)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소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머리말

한국 교회 군선교 사역은 1951년 군종목사 제도가 창설된 후 군대라는 특수 사회 속에서 국가와 민족을 향한 선교적 비전을 고취함으로써 장병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갖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사고 예방과 건전한 병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듯 군종 활동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실로 대단하다. 하지만 21세기를 맞이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은 결코 밝은 전망을 예견할 수 없는 많은 도전과 위기가 있다. 지난 3월 24일 원불교 군종장교 병적 편입이 결정된 것은 앞으로 국방부의 소수 종교에 대한 군종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으로, 이는 앞으로 군대 내에서도 종교 다원화 사회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분명한 대책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감하게 한다

또한 ‘작지만 빠르고 강한 군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국방개혁 2020은 경량화, 과학화, 정보화 군으로 탈바꿈할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간부 중심의 인적구조 개편과 군복무 단축이 예상된다. 미래전은 공·해군의 역할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육군 중심의 군선교 전략을 크게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당면 문제 중 특히 청소년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 현대사회가 물질문명을 바탕으로 하여 도시화되어 가는 데 따라서 빈부 격차가 심화되고, 부부 이해 관계로 이혼 증가에 따른 가정 붕괴 현상과 기성세대의 부정부패와 퇴폐문화는 청소년들을 가일층 자극하고 있으며 급기야 반항적, 비판적 가치관이 포악화, 집단화, 폭력화, 불신화를 자극하고 있어 군복무중인 청년들에 대한 인성관리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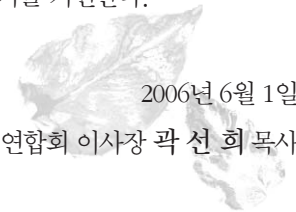
이런 변화와 도전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본질적 치유 대책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인식 전환이 없다면 한국 교회와 군선교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와 군대의 변화 및 군선교 환경의 변화는 군종 활동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감사할 부분은 한국군선교신학회가 조직되어 성경과 신학을 바탕으로 군선교 사역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 금년 한국군선교신학회 심포지엄은 ‘진중에서의 소수종교 정책’, ‘국방개혁 2020과 군선교 비전 2020’, ‘21세기 군종병과 패러다임의 전환’ 등 21세기 군선교의 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주제들로 편성되어 있어 매우 값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군선교연합회 설립 34주년을 기념하면서 발간하는 군선교 신학 논문 제4권은 특집 발제 논문 3편과 연구위원 논문 8편, 일반 공모 당선작 논문 2편 등 주옥 같은 논문이 실린다. 아무쪼록 국내 군선교 신학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귀중한 연구도서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란다.

군선교신학회 회장 되시는 이종윤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연구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책이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콤팩출판사 이형규 장로님과 사무처 사역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군종목사님들과 독자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원한다.

2006년 6월 1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곽 선 희** 목사



발간사 - 주께서 아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모르는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첫째, 주께 묻지 않고 하는 일은 주님의 아실 바 아니다.

사울 왕의 패인은 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요, 다윗 왕의 승리 비결은 그는 하나님께 매사에 묻기를 잘했기 때문이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모독행위다. 비전2020운동을 통한 군복음화와 민족 복음화 운동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주님이 모르는 일이라면 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없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께 기도로 그분의 뜻을 묻고 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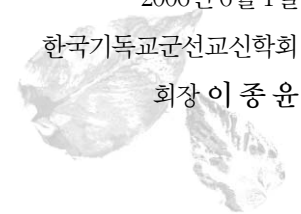
둘째, 주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일은 주님의 아실 바 아니다. 물음과 허락은 다르다. 주님께 물은 일이라 해서 허락도 없는 일을 함부로 손대어서는 안 된다. 물음은 통고와 달라서 상대방의 대답을 전제로 한다. 사도 바울은 전하는 일까지도 주의 허락 여부에 따랐으며 다윗 왕은 성전 짓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지시에 따랐다. 좋은 일이니까 허락하시겠지 하고 속단하는 것은 탈선을 범하게 만든다. 좋은 일이라고 다 주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며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비록 더디더라도 주의 허락을 기다려서 행동해야 한다.

셋째, 주님의 방법대로 되지 않은 일은 주님의 아실 바 아니다. 하나님

께 묻고 허락을 받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의 과정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는 준공검사에서 합격이 되지 못한다. 문제는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했느냐에 있다. 세속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주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주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이것이 군선교신학회가 감당해야 할 분야이다. 우리가 받은 비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방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궤도를 설정하고 제시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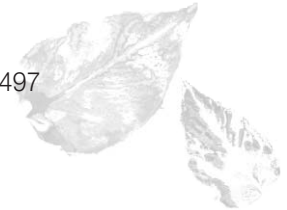
세계 유일의 한국군선교신학회가 대한민국 군선교 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군선교의 지침이 되고 나침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바쁘신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허락받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군선교를 할 수 있도록 계시된 말씀과 지혜를 부어 엮은 이 학술지에 투고해 주신 학자와 목회자 그리고 현역 군종목사님들께 독자와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신학 잡지가 햇빛을 볼 수 있도록 편집해 주신 편집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군선교를 위해 기도로 몸과 물질로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2006년 6월 1일
한국기독교군선교신학회
회장 이종윤



Contents

- 2 | 비전2020실천운동 공동기도문
 4 | 머리말
 6 | 발간사
- 11 |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곽선희 목사)
 19 | 교회 공동체와 국가(國家)(이종윤 목사)
 43 |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 전략
 - 가나안 비전 성취를 중심하여 - (이종윤 목사)
 80 | 진중에서의 소수 종교 정책(우기식 군종목사)
 105 | “진중에서의 소수 종교 정책”에 대한 논찬(전호진 목사)
 112 | 군 개혁 2020에 따른 군선교 2020의 전략
 - 누가 군대의 이웃인가? - (허영식 군종목사)
 130 | “군 개혁 2020에 따른
 군선교 2020의 전략”에 대한 논찬(김성봉 목사)
 135 | 21세기 군종병과 패러다임의 전환(주연종 군종목사)
 159 | “21세기 군종병과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논찬(박종화 목사)
 162 |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구약 성서적 이해(김사문 목사)
- 205 | 진중세례에 대한 선교신학적 이해(장승권 군종목사)
 235 | 중세를 적신 어거스틴(이규철 군종목사)
 265 | 조나단 에드워즈와 구원과 성화(오덕교 목사)
 306 | 변화하는 세계와 기독교인의 윤리(임성빈 목사)
 327 | 군소(群小) 이교(異敎)와
 이단종파(異端宗派)들 고찰(考察)(박영관 목사)
 369 |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한 군선교 전략 연구
 - 민간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민상기 군종목사)
 404 | 청중예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설교를 중심으로 - (최석환 군종목사)
 435 | 기독 장병의 신앙 정도에 따른 자살 위험성 예측(박기영 목사)
 465 | 우리나라 군내(軍內)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침투 포교(布敎)와 예방론(豫防論)고찰(김광호 목사)
- 부록
- 군선교가 1(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 497
 - 군선교가 2(비전 2020을 이루라) / 498
 - 군선교가 3(아, 비전 2020이여!) / 499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곽선희 목사

몇 년 전 캄보디아에 있는 교회 요청으로 교회당 건축 기념 부흥사경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요코미라는 일본군은 태평양 전쟁이 끝난 사실을 모르고 총 하나 어깨에 메고 굴속으로 들어갔었습니다. 무려 27년 동안 비행기가 떴다, 내렸다 할 때마다 그는 아직도 전쟁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간과 만나게 되자 그는 거기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가 입고 있던 옷, 녹슨 총은 박물관에 보

■ 곽선희 목사

- 미국 플러신학교 선교신학대학원 선교신학 박사(D. Miss.)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이사장
- 소망교회 원로목사

관해 놓았습니다. 그는 전쟁이 끝났다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27년을 굴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농아 학교 교장선생님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혀, 입의 구조, 기능은 완전하고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데, 듣지 못하면 병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못해 말을 못 배웠고, 그러니 당연히 못하는 것입니다. 입은 완전해도 듣지 못하면 병어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북한에 갈 때마다 늘 마음이 아픕니다. 복음을 어떻게 들려줄까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한번은 새벽에 낚시질을 하는 사람이 있기에 “그래 뭐 잘 잡힙니까?” 하고 한마디 했더니, 떡 쳐다보더니 저더러 컷마다가 꼭 목사님이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느냐니까 새벽마다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음성이 낮아서 얼굴은 못 봤지만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듣지 못한 복음을 어찌 믿겠습니까. 전하는 자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꼭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에게 조금 잘못된 견해가 있습니다. 가만히 관찰을 보고 ‘이 사람은 전해도 안 믿을 사람이다’ 하고 자기가 먼저 진찰해 버립니다. 듣느냐 안 듣느냐, 믿든 안 믿든 그건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 나팔수가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지 않아 그만 전쟁을 준비하지 못해 다 죽었다고 하자. 그럴 경우 나팔수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나팔수가 잠들어 적이 올 때에 나팔을 불지 않아 멸망했다면 그 핏값을 나팔수에게서 찾으리라” 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마음대로고,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

받지 못했다면 그건 우리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전한 다음에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마음대로이고,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건 우리 책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온 국민이 복음을 들어야 하며,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고, 가난한 자를 돌보아 주라.” 저는 그런 말씀을 읽어 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오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광야에 있는데, 아니, 사줄 것도 없고 떡도 없는데 못 먹일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문둥병자가 있다고 합시다. 문둥병자들은 가정에서 살지 않고 따로 저 산 속, 굴 속에 수용을 합니다. 영화 「벤허」를 보면, 주인공 벤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문둥병자가 되어서 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계속해서 두레박에 음식을 담아서 달아 내려서 계속 음식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문둥병으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굶어 죽는 것은 백성의 뜻입니다. 백성의 책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다 믿게 하고, 다 구원받게 하고, 다 천국 가게 하고 뭐 거기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20년 전, 한경직 목사님께서 군선교를 조직해서 14년 동안 맡아서 일하시다가 제 사무실에 오셔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중한 일이니 제발 이것을 맡아 달라고 간곡히 권고했습니다. 제 사무실에 두 번을 직접 찾아 오셔서 이 일을 맡아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빠서 못한다며 처

음에는 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 친히 찾아 오셔서 이것은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한 일이요, 선교 중에 가장 우선적인 선교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귀중한 일이니까 제발 이것을 맡아 달라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간곡한 권고로 제가 이 일을 맡은 것이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걸 꼭 해야겠다고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데 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군선교라는 데 착안한 것입니다. 전심전력을 다 쏟았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들어야 하고,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야 하고, 또 하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옳습니다. 한 목사님의 지론은 그렇습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낚시를 통해서 유도해서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낚아 올리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물을 가지고 나가서 물고기가 많이 모인 곳에 가서 그물을 쳐서 잡아들이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선교는 그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한 명 한 명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군 대리는 곳에 다 모아 놓고 전도하라면 세상에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런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온 세계 온 역사에 군인들을 모아 놓고 전도하라고 문을 열어 준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미국을 자유롭게 생각하지만 미국도 군인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못 합니다. 왜? 종교는 자유니까. 이것은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군 생활을 하고 나온 사람 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적어도 여러 번 들었고, 교회에도 나가 보았고, 초코파이 하나 얻어먹고 전도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걸 세상에 없는 거예요. 전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선교는 은총적 계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중요한 은총적 계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회를 열어 주었고,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이쪽으로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물고기 있는 곳으로 가라!” 그것입니다. 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라! 가서 그물을 던져라.”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밤새껏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물도 다 씻어 놓았습니다. 이제 밤이나 되어야 또 나갈 겁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지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 설명이 없습니다. “던지려면 던져, 가려면 가는 거야. 지금까지는 실패했더라도 같은 일이지만 지금은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말씀에 의해서 하는 거야” 라고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밤새껏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생각하고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체면을 봐서 한 것 같습니다. 못 잡을 것이 뻔하죠. 왜?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목수가 어부에게 “그물을 내려라.” 이것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순종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상식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그저 밤새껏 수고해 잡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팔호하고 한 자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못 잡을 거 뻔합니다만 그러나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렸더니 가득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하고 깜짝 놀랐으면 베드로가 그물 끌어올리는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의심하면서 순종했으니까 죄인이라고 진지하게 고백하지 않습

니까…….

자 여러분, 이제 전도가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요, 후속 결과를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가라면 가고 전도하라면 전도해야 합니다. 그물을 내리라면 내려야 합니다. 실패할 것 같은 일을 반복하라고 해도 해야 됩니다.

어제까지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전도하라고 하면 해야 합니다. 왜? 오늘은 어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군선교란 마치 깊은 데 물고기가 많이 모여 있는 데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경험은 있지만 말씀하시니 해야 합니다. 이의를 달지 마시다. 왜냐고 묻지도 마시다.

전도하라 말씀하시면 해야 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다면 던져야 합니다. 그것뿐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할 때, 말씀의 능력이 함께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사회학적 방법으로, 무슨 경영학적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를 해보겠다고 몸부림치지만, 그건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전도하라~’하시면 하면 됩니다. 이의를 달지 마세요. 이 군선교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역사입니다.

꽤 오래 전 얘기입니다. 제가 33세 때 영락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월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 일주일 동안 참 부흥회 길게 했습니다. 그렇게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에, 한 목사님이 사회를 맡으셨는데 같이 일 주일을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언젠가 조용한 시간에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전 이 질문과 이 대답이 제 일생 동안 목회에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기초가 되었고, 원리가 되었고,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 저희 젊은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께 불평이 많습니다. 그것

은 그 때에 자유당이냐 뭐니 해서 정치가 아주 부패할 때입니다. 영락교회 강단에서 대통령도 좀 욕하고, 정치도 비판하고, 사회 문제도 좀 다루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한 목사님은 정치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면 청와대까지 들어갈 것 같은데……. 나야 인천에서 목회하니까 뭐 구석에서 말해도 안 들어가니까 그것은 하나하나하지만, 여기서 말을 하면 청와대까지 들어가겠는데, 왜 안 하십니까? 답답합니다.” 그랬더니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아, 그러니 할 말이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청와대가 들을 말은 청와대 가서 해야지 왜 우리 교인들 앞에 놓고 하나. 교인들하고 정치하고 이간 붙이는 일은 해서는 안 되지. 청와대가 들을 말은 청와대에 가서 하고, 정치가가 들을 말은 정치가에게 해야지, 왜 순진한 교인들 앞에 놓고 해야 되느냐고. 난 그래서 오로지 복음만 전합니다. 내가 그런 말 많이 듣고 있지만, 아니야…….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오로지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또 순수한 복음을 전할 때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이야. 인간적인 정치 강연이라는 건 그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부득이 이 길을 갑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 후로 오늘까지 저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구나 현재만도 국회의원이 15명인데, 여당 야당 다 있습니다. 어느 쪽을 대고 내가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분들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복음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만 성령이 함께합니다. 진리를 말할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선교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 해서 하고, 주님이 말하라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동안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켜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을 만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군에 복음을 전하시고, 이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려고 하는 큰 경륜과 섭리와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붙들려진 지혜, 건강, 재물, 능력, 사업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기회, 이 열린 문! 이곳으로 들어가서 군선교에 전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한경직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온 민족, 온 세계를 항상 마음에 두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로 목회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우리 교회, 교회의 사업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사역에 작은 기구일 뿐입니다. 우리의 대상은 전 민족, 전 세계입니다. 온 젊은이, 온 국민, 온 군인 다 앞에 놓고 늘 기도하면서 군선교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협력하여 함께 이루어 가서, 한경직 목사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군선교의 정열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본 설교 내용은 2006년 4월 19일(수) 영락교회에서 드린 (고)한경직 목사 6주기 추모 예배 시 박선희 목사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제목으로 전하신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국가(國家)



이종윤 목사



I. 정치이데올로기(Political Ideology) 가 '국가관'인가?

외람되지만 저는 목사이자 신학자로서 자기 민족 유대인을 신앙적으로 사랑했던 '모세'와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왜냐하면 히브리인의 지도자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중보기도' (출 33:13)를 드렸으며,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형제

■ 이종윤 목사

- 영국 성 앤드류스대학교(Ph. D.), 독일 튀빙겐대학교 수석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 실천운동 위원장
-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한국군선교신학회장
- 서울교회 담임목사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다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지라도(롬 9:3)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참된 것을 증언하기 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모두 저와 같은 심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와 국가'에 관하여 논하기에 앞서, 인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그릇된 '정치 이데올로기'가 '국가관'을 형성하여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던 사례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근대 제1,2차 세계 대전을 발발시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온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A. Hitler)'의 '국가 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 국민의 위대함'을 강조하면서, '지상에 살기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히틀러 제3공화국의 통치 이념은, 자국민에게는 희망을 주고, 흩어져 있는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데 유익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연약한 피-정복 민족에게는 '침략전쟁 이론'이 되었기 때문이다.

19세기 히틀러가 세계 전쟁을 도발할 당시,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적 사조는 찰스 다윈(Ch. Darwin, 1809~1882)의 진화론에 기초하여 새롭게 등장한 '신 칸트주의(Neo Kantianism)'¹⁾와 그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의 리츨과 신학, 곧 '신 프로테스탄트주의(Neo Protestantism)'²⁾였다. 이들의 핵심적인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은 '도덕적 혹은 윤리적 지상 천국 건설'이었다. 그들은 '기독교의 주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

1) '신 칸트주의'의 중심지는 독일의 마부르크(Marburg) 대학이었고, 그 사상은 헤르만 코오엔(Hemman Cohen, 1842~1918)과 파울 나토르프(Paul Natorp, 1851~1924)에 의해서 주장되었다.

2) '신 개신교주의'는 리츨(Albrecht Benjamin Ritschl), 헤르만(W. Hemmann), 하르낙(Adolf v. Hamack)에 의해서 계승 발전된다. 칼 바르트(K. Barth)는 자기 스승이었던 하르낙에 반대하여 '말씀의 신학', 곧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전개한다.

도를 통한 인간의 죄 용서와 화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칸트적 의미에서 윤리학의 실현'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리츨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 사랑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조직된 인류 사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

그런데 이러한 '신 칸트주의'와 '신 프로테스탄트주의'의 뿌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루트비히 포이에르바하(Ludwig Feuerbach, 1804~1872)와 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의 공산주의 이론이다. 왜냐하면 포이에르바하는 "신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신에 대한 절망이 국가를 설립했다"; "우리의 주(主)는 언제나 인간이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실재의 총괄개념(Inbegriff)이며, 가장 새로운 실재적인 존재(ens realissimum)이며, 보편적인 존재요, 인간의 섭리이다"라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⁴⁾ 이러한 '포이에르바하'의 '무신론적 휴머니즘'을 수용하여 '칼 마르크스'는 허구적인 '공산주의 비전'을 만들어 냈다. 그것은 '모든 인민(人民)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는 절대 평등한 대우를 받는 계급이 없는 지상천국에서 산다'는 것이다.⁵⁾ 막스의 이러한 유물론적 공산주의 사상을 신 칸트 학파의 '코오엔(Hemman Cohen)'이 받아들여 '사회주의적 휴머니즘(Sozialhumanismus)'으로 만들었고, '헤르만(W. Hermann)'은 '종교사회주의'를 만들어 독일 히틀러의 '종교적 지상 천국 건설'과 세계 1,2차 대전의 철학적,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였던 것이다.⁶⁾

이와 유사하게 일본은 '일왕(日王)' 한 개인을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3) Albrecht Benjamin Ritschl, *Die christliche Lehre von der Rechtfertigung und Versöhnung*, 3.Aufl., 1888, p. 12.

4) Johannes Hirschberger, *Geschichte der Philosophie*, 강성위 역, 「서양 철학사」상(上)권 · 고대와 중세, (대구: 이문출판사, 1996), p. 669.

5) 아직도 이러한 '허구적인 비전'을 가지고 한국 백성을 기만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북한 김정 일 일인(一人) 독재체제의 공산주의이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소위 진보적인 학자들도 이러한 허구적 비전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

하늘의 황제'라는 '천황(天皇)' 종교를 만들어 국가 통치의 이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를 또한 전쟁 이데올로기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듯 일본은 일본인 이외에는 이 세상 어느 국가, 어느 누구도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는 일본식 우상숭배를 통하여 국가 그 자체를 우상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식 우상숭배나 독일식 휴머니즘의 배후에는 사실상 '민족주의적 국수주의'가 '정치적 이념'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국가관'을 형성하면, 히틀러의 '제3공화국'이나, 일본의 '제국주의(Imperialismus)'처럼 '국가 자체'가 악마의 시녀가 되어 다른 민족을 학살하는 침략 전쟁을 도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잘못된 국가관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자국민에게까지 '학살과 파괴'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점에서 바른 국가관을 갖는다는 것은, 백성들이 나라를 사랑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 전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아래 논문(강연) 제II장에서는 우선 먼저 전통적인 국가관을 알아보고, 제III장에서는 국가와 '교회 공동체'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제IV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국가의 정치적 통치권과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V장에서는 그릇된 '세속적 국가'의 통치권을 바로 잡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개혁 방법을 모색해 보면서, 마지막 장 제VI장에서는 '국가'와 '교회 공동체'가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국가'와 '교회 공동체'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

6) 이러한 '종교사회주의'에 기초한 제국주의 이상에 반대하여, 칼 바르트(Karl Barth)는 1934년 5월 29일 '바르멘 선언(Barmen Deklaration)'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규범이며, 교회의 사명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역, 곧 설교와 성례전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Joachim Beckmann, *Die Theologische Erklärung von Barmen. Eine Auslegung für die Gemeinde*, 1947.

천하는 서로 다른 '섬김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II. 위임된 총체적 '권세'의 허구적 상징으로서의 세속 국가

플라톤(Platon)에 의하면, '국가'는 '독재자와 자체 제도의 권력의지에 반대하여 하나의 보다 높은 결정 기관' 혹은 '보다 높은 통치 체제'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었다(법률, 859d. ff.)⁷⁾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보다 하나 더 높은 통치 체제로서의 '국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유기체적 실체'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플라톤에게 있어서 '국가(도시국가)는 하늘을 배경으로 하고 확대된 하나의 인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⁸⁾ 그래서 플라톤은 '국기는 나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사람은 국가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국가관은 플라톤의 국가관과 약간 다르다. 그는 국가의 기원을 보다 현실적인 면에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개인', '가족' 그리고 가족들로 구성된 '씨족 공동체'들이 고립되어 살면, 한편으로는 외부 침입이 있을 때 대항할 힘이 없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교역 등 경제적인 면에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하여 하나의 보다 큰 규모의 '시민 공동체', 즉 '국가'로 결합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의 본래적인 과제'도 국민들로 하여금 '선하고 안전한 생활', 곧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εὐδαιμόνως καὶ καλῶς ζῆν)"을 영유하도록 돕는 데 있다(정치학 3,9, 1281 a).⁹⁾ 그래서 그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도 역시 단순히 '공리적

7) Johannes Hirschberger, *op. cit.*, p. 177에서 재인용.

8) Sterling P. Lamprecht, *Our Philosophical Traditions. A Brief History of Philosophy in Western Civilization*, 김태길 외 2인 역, 「서양철학사」(을유문화사, 1963), p. 66.

9) Johannes Hirschberger, *op. cit.*, p. 290에서 재인용.

(公利的) 차원에서 인간의 자의적 계약에 의해 국가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 근본에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말한다(정치학 1권 2장 1235 a 2).¹⁰⁾ 그래서 그도 역시, 백성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영유하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주권’, 혹은 ‘통치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리적 국가관’ 역시 ‘국가 주권’을 ‘개인 주권’ 혹은 ‘씨족 주권’보다 높은 곳에 두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으로 고양(高揚)될 여지가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1274)도 국가의 기원을 인간의 본성에 두고 있다. 왜냐하면 그도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존재’라고 보기 때문이다.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질서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공동의 질서는 가족으로부터 지역사회 질서 그리고 국가 질서로까지 이르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따라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있어서도 ‘국가 질서’는 모든 다른 사회 질서 위에 있는 최고의 질서가 된다.¹¹⁾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의 질서를 이 지상의 질서보다 위에 있는 최고의 질서로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국가 질서를 신격화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런데 근대에 이르러 영국의 제임스 1세에 의해서 ‘절대주의 국가론’이 등장하게 됨으로써, 국가는 ‘최고의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소위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곧 모든 국가 권력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군주에게 주어졌다고 주장하게 되었

다. 그 후 각양각색의 ‘국가관’이 등장하지만, 그 근본정신에 있어서 고대 및 중세의 전통적인 ‘국가관’과 제임스 1세의 ‘절대 왕권’, 혹은 ‘위임된 총체적 최고 권세로서의 국가관’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 예컨대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는 자신의 「시민론」에서 소위 ‘사회계약론(Staatsvertrag)’에 의거하여 국가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의 ‘계약 국가론’ 역시 시민의 권력이 위임된 ‘최고 권력’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국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개인적인 자연권(Naturrecht)을 포기하고, 개인들의 자유로운 협정에 의해서 질서, 법률, 관습, 도덕 등을 만들어 낸 것, 그것이 바로 사회, 곧 국가이다.”(시민론 Kap.7 §14) 그래서 그는 “국가는 전능해야 하며, 모든 것을 그저 스스로 규정해도 좋다. 국가의 최고 권력을 가진 자는 그 누구에게도 계약에 의해 구속받지 않으며, ……국가는 가장 높은 것이며, 아니 그 신하들에게 절대적으로 군림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는 법률과 도덕 그리고 종교의 유일한 원천”(시민론 Kap.7 §14)이라고 주장한다.¹²⁾

홉스의 ‘최고 권력’으로서의 ‘국가’에 상응하게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도 ‘국가는 자연히(von Natur, Ψύσει) 생성된 것이 아니라, 오직 개인들의 의지와 자유롭고 개성 있는 의견에서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것들의 총화’라고 규정하고 있다.¹³⁾ 그리고 비록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가 홉스의 절대주의 국가론과 몽테스키외(Joseph Francois de Montesquieu, 1689~1755)의 입헌왕정에 반대하여,¹⁴⁾ 「사회계약설 - 정치적인 법률의 원리(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1762)」에서 급진적인 민주주의 ‘국민 주권’을 주장하

10) *Ibid.*, p. 291에서 재인용.

11) 토마스 아퀴나스는 질서 사상에 기초하여 국제법, 곧 ‘만민법(ius gentium)’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는 국가들과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이성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모든 민족들에게서 준수되어야 하는 그런 원칙들이 있다고 주장한다(신학대전 I, II, 91, 2 ad 3; 90,4).

12) Johannes Hirschberger, *op. cit.*, p. 302에서 재인용.

13) *Ibid.*, p. 328에서 재인용.

14) 몽테스키외의 주저는 1748년에 출판한 *Esprit des lois*(법의 정신)이다. 그는 ‘입법을 할 때는 언제나 국민의 행복과 시민의 자유가 국가 생활의 최고 원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지만, 여전히 ‘국민 주권’도 개개인의 주권보다 상위에 있는 권세이다. 이렇듯 “인간은 인간에게 이리(homo homini lupus)”라고 주장한 홉스의 사회 투쟁 이론 위에서 형성된 근대의 ‘국가관’, 혹은 ‘군주’는 마키아벨리(Niccolo Macchiavelli, 1469~1527)에게서는 “사자와 여우”(군주론 18장)로, 니체(Friedrich Nietzsche, 1844~1900)에게 있어서는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는 지도하는 동물”(권력에로의 의지, 격언 933)로, 그리고 니체의 권력의 의지를 야수화(野獸化)한 슈펜글러(Oswald Spengler, 1880~1936)에게 있어서는 “높은 곳에서 고독하게 살고 있는 맹금(猛禽: 육식하는 새)으로”¹⁵⁾, 그리고 테오도르 뢰팅에게 있어서는 “육식하는 원숭이”로 표징된 ‘국가’는 스스로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개인으로부터 위임된 총체적 권력의 허구적 상징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 그 자체를 살아 있는 생명체로 보는 ‘유기체적 국가관’은 사실상 ‘국가관’을 가장 쉽게 ‘정치 이데올로기’로 만들어 ‘국가’를 ‘우상화’할 수 있는 가장 사변적인(spekulative) ‘국가관’입니다. 즉 ‘유기체적 국가관’은 민족주의, 심하게는 국수주의(國粹主義) 혹은 제국주의(帝國主義)로 변형되어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악용될 여지가 많다.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은 ‘애국’이라는 미명 아래 수 많은 백성의 생명과 재산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애국’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상숭배’이다. 그래서 ‘에릭 프롬(E. Fromm)’은 고전적 전통적인 ‘민족주의 국가관’은 “인간과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관념”¹⁶⁾, 곧 ‘우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제기된다: 세속적 국가 통치권과 하나님의 주권 사이

15) 이점에 관하여: Oswald Spengler, *Untergang des Abendlandes*(서구의 몰락). 이 저서는 현대 역사 철학의 커다란 계열에 삽입될 수 있다. 예컨대 비코(G. B. Vico)로부터 뢰팅(Lessing), 헤르더(Herder), 헤겔(Fr. Hegel), 칼 마르크스(K. Mark) 등을 걸쳐 토인비(A. Toynbee)와 칼 야스퍼스(C. Jaspers)에 이르는 역사 철학 계열에 들어간다.

16) E. Fromm, *You shall be as God*, 김상일 역, 『挑戰받는 絶對者』(진영사, 1976), p. 58.

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하나님의 주권(Herrschaft) 아래있는 ‘국가 통치권’

플라톤 이후뿐만 아니라, 근대 철학자들의 ‘국가관’에는 이 세상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국가관에서는 이 세상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Theokratie)’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증언하고 있다(참고 롬 13:1-5).¹⁷⁾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 예수 그리스도)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요 19:10)고 말하였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 하나님, 필자 주)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요 19:11a)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네(= 다윗)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 하리라”(삼하 7:16). 심지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파라오’의 마음도 강박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출 7:3).¹⁸⁾

17)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나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롬 13:1-5).

18) 출 7:3-4,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지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러나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기독교의 ‘국가관’과 이 세상의 ‘철학자들의 국가관’, 곧 ‘세속적 국가관’과의 차이점이 있다. 기독교적 국가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로 구성된 ‘구원 공동체’이다(출 13:11-16). 다시 말하면, 구약성경의 국가관은 이스라엘의 족장 아브라함의 자손을 중심으로 구원 사건을 경험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계약 신앙 공동체’(출 19:5-6)이다.¹⁹⁾ 따라서 기독교적 측면에서 볼 때, 왕권, 곧 국가 권력은 개인의 권력을 ‘계약’ 혹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국가’ 혹은 ‘통치자’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의미의 ‘왕권신수설’은, 영국의 제임스 1세가 주장하듯, 세속적 무소불위의 ‘국가 혹은 통치자의 권력’을 영원히 보증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그의 뜻에 상응하게 통치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국가나 통치자의 권력이 제한되거나 찬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두드러진 실례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다윗’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שאול)은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다.²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정치적 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각 지파는 자치적으로 유지되었다. 단지 공통의 사안이 있으면, ‘실로’ 산당을 중심으로 각 지파의 장로들의 모여서 공동의 사안을 처리하였다(삼상 1-3). 그때에 ‘암몬(Ammon)’ 사람들이 기르앗 야베스를 쳐들어 왔다. 그래서 연합

19) 출 19:5-6,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20)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그의 통치 연한은 대략 B.C. 11세기 중반부터 후반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사무엘상 13장 1절에 그의 통치 연한이 생략되어 있어서 그의 정확한 통치 연한을 결정할 수 없다. 단지 사도행전 13장 21절에 의하면 대략 40년 정도 통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과 화친조약을 맺고 그들을 섬기고자 한다(삼상 1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삼상 11:2)고 위협한다. 마침 밭에서 소를 몰고 오던 ‘사울’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된다’(삼상 11:6-7). 그 후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아가 크게 승리한다(삼상 11:11).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은 아예 한 지도자를 세워서 외부 침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왕을 세운다. 이렇게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계기가 되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삼상 12:12-13).²¹⁾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건 간에,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이 강력한 지도자를 필요로 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는 체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로 사울은 ‘자기 본분’ 이상의 것을 원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종’만이 드러야 할 제물을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사울은 군사적으로 긴급한 상황 속에서 블레셋과의 최초의 결전을 치르어야 할 상황에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제사장의 직무를 대행하였다. 이러한 왕권의 남용에 대하여 제사장 사무엘은 사울 왕을 심히 책망하고(삼상 13:13),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왕의 ‘위(位)’가 끊어질 것이라고 선언한다. “지금은 왕

21)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유를 같은 ‘사무엘상’ 내부에서도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예컨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에 의해서 사적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사무엘상 10장 17-24절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 장로들 가운데서 체비뿔기에 의해서 선발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 팔레스틴의 정치적 상황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였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삼상 13:14).

그 후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통치를 계속한다.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전공(戰功)을 세웠지만, 자신이 내린 ‘금식령’ 을 어기자(삼상 14:27-28), 비록 자기 아들 이지만, 전투의 기강과 ‘왕의 권위’ 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 한다. 그러나 ‘사울’ 왕은 백성들의 만류로 어쩔 수 없이 요나단의 목숨을 살려 준다(삼상 14:45).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 노획물에 손을 대는 죄를 범하게 된다(삼상 15:9). 그러나 전쟁 노획물에 손을 댄 일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삼상 15:3)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백성들의 이러한 명령 불복종으로 인하여 ‘사울’ 왕은 왕위 찬탈(篡奪)에 관한 결정적인 예언을 듣는다. “왕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삼상 15:23b).

반면에 ‘다윗’ 왕은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짓고자 하자(참고 삼하 7:1-2, 5)²²⁾,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다. “내가 네 앞에서 물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 다윗의 아들, 필자 주)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다윗)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삼하 7:15-16).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한 이러한 증언으로 명백히 드러난 것은, 이스라엘의 ‘왕권’, 곧 ‘국가 권력’

22) 삼하 7:1-2,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불지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다.” 삼하 7:5,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국가’ 혹은 ‘왕권’, 곧 ‘국가 권력’ 은 인간이 자기의 개별적인 권한을 ‘국가’ 혹은 ‘통치자’ 에게 위임함으로써 생성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롬 13:1-5)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국가관’ 은 어느 ‘국가’, 어떠한 ‘국가 권세’, 혹은 ‘왕권’ 을 막론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거나, 그 뜻에 상응하게 통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권력’ 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권세’ 이다.

그러므로 “국가와 교회는 두 개의 서로 아주 다른 권위의 영역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 두 기관은 둘 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상호 보충적인 기관이고, 궁극적으로 두 기관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즉 하나님께서 국가도 다스리시고 교회도 다스리신다.”²³⁾ 그래서 화란(Holland)의 신학자이자 정치가인 카이퍼(A. Kuyper)도 “국가와 교회는 둘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국가가 교회의 위에 있거나 교회가 국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밑에 국가가 있고 교회가 있다”²⁴⁾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고 말씀하고 계시며, 사도 바울도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롬 13:7)고 권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자국민만을 위한 민족주의자가 결코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주권주의자’ 라고 할 수 있다.²⁵⁾ 그렇다면 교회와 국가 사이에는 어떠한 권세적

23) 이종윤, “성경에서 본 교회와 국가”, 김명혁 편, 「현대교회와 국가」(도서출판 엠마오 1988), p. 70.

24) 손봉호, ‘현대적 상황에서 본 교회와 국가’, 「현대교회와 국가」, p. 97.

25) 반면에 ‘요나’ 는 유대적 민족주의자라고 볼 수 있다.

긴장 관계가 있는가?

IV. 세속적 국가의 영적 실체로서의 '교회 공동체'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Socrates)는, 국가가 자기에게 부당한 사형 선고를 내린다 하더라도 '악법도 법' 이기 때문에, 국가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면서 '사약(死藥)'을 받음으로써 국가의 무소불위의 절대적 권력을 인정하였다(변명, 29d). 그러나 요한 칼빈(J. Calvin)은, 이 세상의 모든 '국가'가 그리스도 안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강조한다.²⁶⁾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듯이(엡 1:22, 5:23; 골 1:18)²⁷⁾ '국가'와 '교회 공동체'의 관계도 '유비적(analogisch)'으로 우리 '몸'의 '육(肉)'과 '영(靈)'의 관계로 보았다. 왜냐하면 칼빈은 우리의 '육신'이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참고 갈 5:19-21), '국가'도 그릇된 '국가 정신' 혹은 '국가관'에 의해서 통치되면, 국가의 근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을 탄압하는 폭력 집단이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국가'는 총체적인 악의 집단으로 '악마의 시녀'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선한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으면(참고 갈 5:22-23)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행을 하게 되는 것처럼, '국가'도 올바른 '국가 정신' 혹은 '국가관'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친다는 것이다.²⁸⁾

26) Corpus Reformatorum, Calvin Opera, p. 13, 17

27)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됴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됴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28) 이종윤, "성경에서 본 교회와 국가", p. 67.

이와 상응하게 일찍이 플라톤도 "정의가 국가의 기초(justitia fundamentum regnorum)"이기 때문에, 한 국가의 멸망 원인은, "모든 방면에 널리 퍼져 있는 윤리적 퇴폐함"(법률, 688c)에 있다고 주장하였다.²⁹⁾ 그는 말하기를, "신이 아니라, 죽어버릴 인간을 통치자로 받들고 있는 국가는 불행과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 안에 있는 죽지 않는 것을, 개인 생활을 위해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공적인 생활을 위한 지도자로 삼아야 한다"(법률, 713c)³⁰⁾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본래 '정치기관, 법과 법칙을 가장 잘 지키는 대표자'라는 뜻임을 전제하면서, 정치가는 누구보다도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¹⁾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정(壓政)을 국가의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들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행해지면 의롭지 못하고, 견딜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할 그런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행할 때는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 같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문제 될 때는 정의로운 정부가 지배해야 한다고 하고, 남들이 문제 될 때는 조금도 정의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정치학 7권 2장, 1324 b 32)³²⁾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타국에 대한 모든 폭력 정치를 반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430)도 '정의를 내 동맹이친 권력 국가는 이미 강도들의 집단과 다를 바 없다'고 증언하였다(「신국론」, XIX, 24). 그에 의하면 세계사에 있어서 '국가'라는 사회 형태는 '신국', 곧 하나님의 나라이거나 '지상의 나라'였다고 말하면서, 이 두 나라는 '교회'와 '세속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

29) Johannes Hirschberger, *op.cit.*, p. 185에서 재인용.

30) *Ibid.*, p. 185에서 재인용.

31) *Ibid.*, p. 294.

32) *Ibid.*, p. 294에서 재인용.

르는 사회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회, 질서가 있는 사회나 아니면, 혼돈된 사회나 로 구분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교회’도 이러한 구분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³³⁾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지상의 나라’는 곧 ‘악마의 나라(societas diaboli)’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곧 ‘신국(civitas Dei)’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도, “법은 단순 권력을 휘두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성의 질서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⁴⁾

그러므로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홉스와는 달리 ‘국가 권력은 개인들이 언제든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특징짓고 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인권은 양도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오로지 개인과 개인의 공통적인 복지에 이바지할 사명만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가라도 개인의 동의없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빼앗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한다.³⁵⁾ 오히려 국가는 언제나 시민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봉사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³⁶⁾ 물론 이러한 로크의 소위 ‘야경국가(Nachtwächterstaat)’ 개념이 21세기 오늘날의 사회구조 속에서 가지는 타당성은 정치학자들에 의해서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분명한 것은 어떠한 정치 구조 속에서도 국가 권력으로 선량한 시민의 사유재산을 힘으로 착취할 수 없다는 것은 오늘날의 자본주의 경제체제 속

33) 이점에 관하여: B. Wendorff, *Die Staatlehre des Aur. Augustinus nach De civ. Dei*, 1926. 후대에 와서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는 사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인간의 ‘자연적 욕구(cupiditas naturalis)’에 따르게 될 때, 국가의 여러 가지 가치는 모두 환상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34) 『신학대전』1, II, 91,2 ad 3; 90,4. Johannes Hirschberger, *op. cit.*, p. 606에서 재인용.

35) *Ibid.*, p. 329.

36) 사실은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도 한 나라 안에서 재산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사유재산 제도 그 자체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절제하게 일하지 않고 돈을 벌고, 무절제하게 소유하는 데 그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점에 관하여 Johannes Hirschberger, 강성위, 『서양 철학사』상(上)권, p. 294.

에서는 더욱 자명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은 일종의 ‘국가적 우상’이다. 왜냐하면 에릭 프롬은 “우상은 인간의 심중 내면에서 일어나는 열정이 목표하는 바를 표상화한 것, 즉 재산, 권력, 명예 등을 갖고 싶어하는 열망으로써, 인간의 누추한 자리로 되 돌아가고자 하는 것을 표출한 것”³⁷⁾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어떠한 ‘국가 통치권’도 ‘사유재산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혹은 ‘국가 권력’은 라이프니츠(Gottfried Wilhelm Leibniz, 1646~1716)가 주장하듯, 강자의 힘 그 이상의 힘, 곧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제한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법이고, 이 영혼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서 자유로운 것이다. 이것은 또 하나님의 법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물체와 영혼에 대한 최고의 주인이고, 이런 하나님 아래에서는 군주도 노예도 똑 같은 시민이고, 노예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군주와 같은 시민권을 누린다”고 그는 주장하기 때문이다.³⁸⁾ 그래서 예수회원이었던 스페인의 마리아나(Mariana)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통적인 군주가 자기의 권력을 백성들을 억압하는 데 잘못 사용했을 때에는, 국민들은 폭력을 써서 이 폭군으로부터 풀려나도 좋다”고 말하였다.³⁹⁾

그런데 성경은 국민을 억압하는 왕권이나 국가 권력은 엄밀한 의미에서 ‘마귀의 권세’라고 특징짓고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

37) E. Fromm, *op. cit.*, p. 56.

38) Gottfried Wilhelm Leibniz, 「정의의 일반적인 개념에 관한 성찰」Mollat, S. 68 = B-C. II, 516(Johannes Hirschberger, *op. cit.*, p. 306에서 재인용).

39) Mariana, *De rege et regis institutione*, 1599. Johannes Hirschberger, *Ibid.*, p. 121에서 재인용.

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 4:8-10)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화(詞話)를 분석하여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를 경배하면, 그가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거스틴에게서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나라가 ‘악마의 연맹체(societas diaboli)’ 이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civitas Dei)’, 혹은 ‘교회 공동체’ 라면, 지상에서의 부귀영화를 꿈꾸는 ‘지상의 나라’ 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명백하다.⁴⁰⁾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적 왕국과 세속적 악마의 왕국이 대립해 있는데, 이 두 왕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주장하였다.⁴¹⁾ 따라서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엡 6:12) 이라면, 교회 공동체는 이 지상나라의 통치자들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필연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그리스도인)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마 5:13)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

40)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또한 ‘국가 권력 및 이 세상 통치자들’ 과 ‘어두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 들을 구별해야 할 것이다.

41) 이점에 관하여 W. D. J. Cargill Thompson, “The ‘Two Kingdom’ and the ‘Two Regiments’ : Some Problems of Luther’s Zwei-Reiche-Lehre”, *Journal of Theological Studies*, 20(1969), p. 174를 참고하라.

라”(마 5:14, 16)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 주관자들과 어떠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

V. 세속적 국가를 개혁할 영적 실체로서의 ‘하나님 나라’ - ‘하나님 나라’ 의 세속적 실존 양식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세속적 국가를 개혁하는 것은 우선 이 지상에 있는 ‘교회 공동체’ 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이 세상의 세속적인 나라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국가관’, ‘신앙관’ 에 대한 ‘부정(否定)’, 곧 ‘아니요(No)’ 가 선행되어야 한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과 ‘국가관’, ‘신앙관’ 에 대한 ‘긍정(肯定)’, 곧 ‘예(Yes)’ 가 전제되어야 한다.

세속적 국가를 개혁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가 최우선적으로 ‘거부’, 곧 ‘아니요’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기적인 ‘민족주의 혹은 국수주의’ 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결코 이기적 ‘민족주의’ 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앗수르의 하나님이시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한 나라, 한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둘째로 거부되어야 할 것은 ‘상대주의(Relativism)’, 더 자세히 말하면 ‘종교다원주의(Religions Pluralism)’ 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지만 계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내(= 여호와 하나님)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렘 31:33),

그러므로 너희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갚다)”(출 20:3-5)고 약속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거부되어야 할 것은, 배금(拜金)사상에 기초한 ‘물질주의(Materialism)’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돈은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현대 ‘국가’들이 서로 다투어 커다란 주식회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대 국가의 특징은 민족이나 정치적 자주권 행사보다, 경제적 이익집단으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EEC). 우리나라의 행정조직도 ‘외무부’가 ‘외교통상부’로 바뀌었다. 이것은 우리의 의식 구조가 물질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이미 자국민의 경제적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 이기적 단체로 변형되었다. 심지어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중국도 사회 자본주의적 경제 체제로 바꾸어 가고 있다. 대학생들도 형이상학(인문과학)보다는 형이하학적, 혹은 돈 잘 벌 수 있는 학과에 관심이 많다. 심지어는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는 데도 ‘재력’이 제일차적인 결혼 조건이 된다. 넷째로 거부되어야 할 것은, ‘세속화된 인본주의(Humannism)’이다. 왜냐하면 ‘세속주의(Secularism)’란 Saeculum(Latin-age, world)의 합성어로서, 세상적 견해(가치관)를 갖고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속주의’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동경 혹은 기대가 없다. ‘세속주의’는 현재 이 세상의 보이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사는 것이다. 따라서 ‘세속주의자’들에게는 ‘하나님’도, ‘천국’도, ‘죄’도, ‘심판’도 안중에 없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회개하

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고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세속적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더 중시하게 된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 중심에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세속적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기독교 역사관에 위배된다.

그런데 이상 앞에서 언급한 이 지상 국가의 네 가지 ‘가치관’에 대한 ‘거부’ 혹은 ‘아니요’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한 ‘긍정’, 곧 ‘예’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국가의 ‘부정성(Negativität)’에 대한 ‘부정(No)’은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긍정(Yes)’이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4가지 사상은 오늘날 ‘국가’뿐만 아니라, ‘국가’의 영적 실체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이 시대적 조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 지상의 ‘세속적 국가’의 위기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막 1:24; 눅 4:34)라고 외쳤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교회 공동체’라는 실존 양식으로 이 세속적 국가 가운데 현존해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국가’와 ‘교회 공동체’ 사이에는 항상 긴장관계가 있다. 즉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세속적 국가에 대하여 항상 ‘아니요’를 말해야 하는 영적 과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함께 협력, 곧 ‘긍정’해야 할 과제도 있다. 그것이 바로 백성을 위한 ‘교회 공동체’의 ‘국가와 백성’을 위한 ‘섬김’이다.

VI 백성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와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개인’, ‘가족’, ‘사회’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제1실체’이고, ‘국가’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결합된 ‘제2실체’이다. 마치 제2실체가 제1실체에 의해서 그 명맥을 유지하듯이, 국가도 이러한 제1실체에 의해서 그 명맥을 유지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본래적인 과제는……선하고 완전한 생활, 즉 윤리적, 정신적으로 개발된 고귀한 인간성이다. ……즉 국가의 의미는 순수한 공리성이나, 피비린내나는 권력도 아니며, 아름다운 행동, 즉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εὐδαιμόνως καὶ καλῶς ζῆν)을 영유하도록 하는 데 있다.”⁴²⁾ 그래서 그는 바람직한 국가 형태도, “통치가 민중 백성을 위해 행해질 때, 그 국가 형태가 가장 좋은 국가 형태”라고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통치가 통치자 자신들만을 위해서 행해질 때, 그러한 통치는 가장 사악하고 타락한 국가 통치이며, 그러한 통치를 구조적으로 인정한 국가 형태 역시 가장 나쁜 통치 형태라고 말한다(정치학 4권 3장 이하).

토마스 아퀴나스도 “국가의 최고 목적이자 인간의 영원한 목표는 하나님 곁에서 정복(淨福)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국가는 이 땅 위에서만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선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들이 추구하는 것을 단지 방해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 생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국가’의 과제가 ‘교회 공동체’의 과제와 별개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교회도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시는 바를 선포하는 과업에 헌신해야 하고, 모

든 개인과 단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도록 이끌어 주고 지도해 주며, 또 길을 열어 주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⁴³⁾ 결국 ‘국가’의 과제나 ‘교회 공동체’의 과제는 모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을 섬기는 일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오심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애국’은 ‘국가 권력에 대한 맹목적인 굴복’이나 형이상학적 허구적 ‘나라’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랑이듯이, 참된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며, 동시에 고난 받는 백성에 대한 이웃 사랑인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눅 10:27)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곧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애국이다. 즉 진정한 애국은 곧 참된 이웃 사랑이다. 나라를 위해 일하고 희생하고 세금내고 법을 지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결국 그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백성에 대한 사랑의 표현 이외에 다른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듯 ‘국가’나 ‘교회 공동체’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은 우선 일차적으로 국민이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도 바울도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다가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롬 9:3)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참된 것을 증언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42) 그의 「정치학」 3권 9장, 1281 a 2, Johannes Hirschberger, *op. cit.*, p. 290f에서 재인용.

43) 이종윤, *op. cit.*, p. 70.

그러나 ‘오늘날 과연 바울과 같은 애국자가 우리나라에 있는가?’ 하고 반문해 본다. 과연 현 정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경제, 국민을 위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이나 하고 있는가?’ 묻고 싶다. 동시에 오늘날 한국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국민의 영혼을 위해서, 국민의 영적 평안을 위해서, 국민의 구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가?’ 라고 묻고 싶다. 이제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는 잘되고 다른 나라는 못 되어도 괜찮다는 배타적 애국심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평화의 나라’ 곧 범 세계적 ‘하나님의 나라’ 를 사랑하는 ‘애국심’ 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별히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 먹을 것이 없어서 고귀한 생명이 죽어가는 일, 자연 재해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이 한 순간에 이 땅에서 사라지는 일, 불치의 병마로 그리고 죄로 인하여 속수무책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in Christus)’ 함께 관심을 갖고 헌신적인 봉사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섬김에 ‘국가’ 와 ‘교회 공동체’ 가 결코 별개일 수 없다. 북한의 인권에 대하여,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에 대하여, 국군 장병들의 병든 영혼에 대하여, ‘국가’ 와 ‘교회 공동체’ 가 결코 별개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조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하여도 ‘국가’ 과 ‘교회 공동체’ 가 결코 별개일 수 없다. 왜냐하면 교육이 잘못되면 국가의 비전이 없고, 국민의 마지막 양심의 보루인 ‘교회 공동체’ 가 부패하면, 국가는 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 와 ‘교회 공동체’ 는 진정한 ‘애국’ 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2020운동 실천에 협력해야 하며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 본 글은 2006년 6월 15일 “제6회 군선교 신학 심포지엄” 기조강연 원고입니다.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 전략

- 가나안 비전 성취를 중심으로 -



이종윤 목사



1. 들어가는 말

20세기의 괄목할 만한 한국 교회 성장의 요인 가운데 특기할 만한 것으로 20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군선교운동을 들 수가 있다. 군선교사역의 역사를 돌아보면 1950년대에는 6·25 전쟁 중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 군목제도가 창설되었고, 1960년대에는 한신 장군에 의해 전군신자화운동이 있었고, 1970년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신앙전력화운동이 일어났고, 1980년대에는 한국 교회 100주년을 맞으면서 군복음화운동을 위해 종단별 창구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전반적인 한국 교회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제2차 진중세례운동이 일어나고 3군본부 교회당을 건축하는 등 한국 교회 성장을 이끌어 갔다. 2000년대에는 ‘비전

2020실천운동'에 박차를 가함으로 2020년 3,700만의 성도 -전 국민의 75% 성도화-를 목표로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모으는 중이다¹⁾. 이 '비전2020실천운동'은 북한의 100만 장정들도 그리스도에게로 전도하여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하나님의 전략이요, 전술인 것이다.

복음전도의 황금어장인 군복음화운동을 촉진시키는 것이 민족복음화의 지름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사역을 위해서 전국의 교회와 성도들은 다섯 가지의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연합을 해야 한다. 연합은 우리의 증거를 강하게 한다. 개인주의나 개교회주의를 참회하고 불필요한 중복은 피하며 진리와 예배, 거룩과 선교에서 깊은 연합을 찾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복음의 가전성을 드러내야 한다. 개인적인 삶과 교회의 지역과 사회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야 한다. 셋째는 복음의 절대적 명료성을 증거함으로 상대주의나 다윈주의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넷째로, 복음사역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군복음화를 통한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복음증거자들은 겉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세상을 섬기는 자로 나서야 한다²⁾.

그러나 '비전2020실천운동' 추진 10년을 맞으면서 과거를 회상해 볼 때, 일부의 문제점들이 노출됨으로 군선교회 기관들이 이 운동의 성공여부에 대해 다소간의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³⁾. 군교회 내부적인

문제점들로서 첫째, 진중세례자의 소수만이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군인교회와 군선교회 그리고 민간교회와의 연계성이 미비하다든지 하는 지적이다. 셋째, 진중세례를 받는 장병들의 숫자가 다소 감소하고 질적으로 퇴보하였다는 지적이요, 넷째, 군목 등 지도자가 부족하여 군인교회의 체계적인 양육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군교회 외부적인 문제점들로서는 첫째, 군 구조개편과 병역자원 감소 등 군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독교의 진중세례가 타종교의 선교 및 포교에 동기 부여와 거센 도전을 유발하였다는 지적이다. 셋째, 이단 및 소수종교가 군내 침투와 군중 파송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여러 종교와 종단들이 군 선교 과열현상으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섯째로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기독교 관련기관을 배제한 군부대 장병 설문조사로 기독교 종교 활동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점들을 직시하며 '비전2020실천운동'의 목적달성을 위한 성경적인 전도전략을 찾아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데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비전 성취 과정인 홍해 작전, 여리고 작전, 가나안 정벌 작전, 그리고 갈렙의 지도력이라는 4개의 단원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교훈과 원리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이 성경적인 교훈과 원리를 '비전2020실천운동'에 적용하고 실천하였다.

III. 홍해작전과 '비전 2020실천 운동'

출애굽기 14-15장에 나타난 홍해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 행위이다. 서론에서 제시한 군선교의 대내외적인 문제점

1)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미래출석교인 양육 및 VIP(귀빈) 가족전도」(2005), p. 17.
 2) 이종윤, "21세기를 향한 한민족 교회의 사명", 군선교신학연구회편, 「군선교신학 1」(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4), pp. 48-55.
 3) 비전2020실천운동에 대한 문제점들은 여러 자료에 산재되어 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사역 10년차 선교보고대회 특강", 김경우, "모범국민 육성을 위한 21세기형 군선교와 군중정책", 주연중, "진중세례운동의 회고와 전망", 군선교신학위원회편, 「군선교신학 1」, pp. 185-217. 군복음화보(2004.12.25; 2005.6.30) 등을 참고하라.

들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비전2020실천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 홍해 작전의 성경적 근거를 고찰해 보고 이에 따른 성경적인 전도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1. 홍해 작전의 성경적 고찰

1.1. 하나님의 인도와 이스라엘의 위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면 어리석은 길이었으나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갔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 또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출애굽 여정 동안 내내 여호와와의 임재의 상징이었다⁵⁾.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바라보고 따라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진을 친 바알스본은 지형적으로 완전히 막힌 곳이고, 지정학적으로 진을 치기에 가장 위험한 곳이었다. 마음이 다시 강퍽해진 바로는 애굽 정예부대를 이끌고 뒤에서 이스라엘을 추격했다. 앞은 바다요 뒤는 군대이니, 빠져죽든지 아니면 다시 붙잡혀가 종살이를 하든지 할 수 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위기상황에 빠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들의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하였다.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모세도 기도하였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함

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백성들의 불평을 평정하였다.⁶⁾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

1.2. 홍해 작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첫째, 방어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움직이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였으나, 이제 경계가 필요한 뒤쪽으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옮기심으로 그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 방어벽을 만드셨다(출 14:19-20). 이 방어벽으로 인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하지 못하였다.

둘째, 바다 속에 길을 내신 하나님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보낸 동풍으로 인하여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난 길로 통과하였다. 그 길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길이었으나 바로에게는 치명적인 길이었다⁷⁾.

셋째, 애굽 군대와 싸우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⁸⁾.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 바로는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⁹⁾.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모두 수장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성공적으로 건너게 되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구원사건이었다.

4) C. F. KEIL and F.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6), p. 143.

5) Trent C Butler, *World Bible Commentary* (Texas: Word Incorporated, 1987), p. 193.

6) John. Calvin, 「칼빈성경주석-출애굽기」, 김영진 역(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995), p. 234. 칼빈은 '나는 그 거룩한 사람이 그 백성들의 반란 중에 따로 기도드렸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라고 주석하였다.

7) *Ibid.*, p. 196.

8) R. A. Cole, 「출애굽기 주석」, 장도선 역(서울: CLC, 1990), p. 175.

9) John. Calvin, *op. cit.*, p. 236.

1.3. 홍해 작전이 주는 교훈

첫째, 이 작전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전2020실천운동'의 비전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비전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둘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거룩한 계획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와 믿음과 순종이 요구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셋째, 홍해의 승리는 고난 속에서의 승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연상케 하며, 이스라엘 뿐 아니라 애굽과 주변국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였다.

2.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위한 제안

2.1. 기도작전

기도는 여러 가지 대 내외적인 장애물들을 능히 극복하고 '비전2020실천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위기 중에 부르짖은 것처럼, 군 부대 안의 기독교신자들, 군인교회 그리고 군선교연합회 및 후원교회가 모두 합심 전력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일으킬 작전 중에 기도작전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작전은 없다¹⁰⁾.

2.1.1 특별 새벽기도회

매년 사순절 기간 동안이나 현충일(6월 6일)을 시작으로 6.25전쟁기념

10) 부흥운동에는 기도가 선행되지 않고 일어난 예는 한 번도 없다. 1906년 평양을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의 대 부흥운동도, 영국 웨일즈부흥운동도, 18세기와 19세기의 미국의 1, 2차 영적 대 각성운동도 모두 기도가 선행되었다.

일까지 기간을 정하여 1,000여 군인교회 및 후원교회 그리고 기독교신자들이 홍해작전특별새벽기도회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하루를 군 선교의 날로 정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방안과 전국 교회가 함께 '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해 기도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2.1.2 중보기도 회원 확보에 총력 경주

군인교회와 후원교회 그리고 전국의 모든 교회가 '비전2020실천운동'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로 협력하고 후원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중보기도 회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홍보 활동과 책자 발간, 기독교신문에 게재, 회원교회 방문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비전 전파에 힘써서 22만 명의 중보기도 회원을 확보하고 모든 '비전2020실천운동' 모임에서 군 선교사역 10대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¹¹⁾

2.2. 말씀작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¹²⁾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가 주도한 수문 앞 광장의 유대인 부흥운동도 말씀운동으로 시작되었다(느 8장).

2.2.1. 소그룹 성경공부의 활성화

현재 한국 교회의 구역조직과 같은 소그룹 성경공부반을 각 군인교회를 중심으로 내무반 및 소초별 소그룹 성경공부반을 편성하여 말씀을 공

11)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미래출석교인양육 및 (VIP)쿠빈가족전도」, p. 4. 군선교 사역 10대 중보 기도제목은 다음과 같다. 1. 비전2020실천운동의 앞장 결실을 위하여(방해세력 결박) 2. 2020년까지 전 국민의 75% 이상 복음화를 위하여 3. 매년 진중세례(침례) 목표 인원 22만 명 결실을 위하여 4. 22만 명 중보기도사역자 확보와 기도 실천을 위하여 5. 매년 22만 명 군인신자 결연과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을 위하여 6. 300여 군종목사, 350여 군선교 민간교역자, 1천여 군인교회의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을 위하여 7. 기독교인회원(MCF) 및 가족들의 신앙성장과 군선교 헌신을 위하여 8. 일반 군선교회원교회의 원활한 후원과 헌신을 위하여 9. 기독교 청년들의 군선교사 훈련(비전캠프) 참여와 생명력 있는 군복무를 위하여 10. 사고예방, 사기진작, 명량한 병영생활 등, 병영 내 기독교문화 창달을 위하여 등이다.

12) 이종윤, 「사도행전」(서울: 펠그림출판사, 2001), p. 52.

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운동을 일으켜야 하겠다. 이에 대해 군선교연합회 이필섭 장로는 5만 개의 십부장교회를 세워 교회와 내무반과 소초 등에서 1주일마다 1회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¹³⁾. 다소 차이는 있으나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실시되고 있는 QT 모임을¹⁴⁾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소그룹 성경공부반을 통하여 불신군인을 전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2.2. 소그룹 성경공부반 지도자 양육

군중병 및 성경공부 지도자를 양육하여 소그룹 성경공부반의 리더로 활용해야 하겠다. 아울러 지도자 육성을 위한 양육시스템을 도입하고 개발해 나가야 한다.

3. 결론

‘비전2020실천운동’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거룩한 비전이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비전이다. ‘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성경적인 전도 전략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매년 일정 기간 동안 흥해 작전 특별새벽기도회를 갖고 중보기도 후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과, 둘째는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일으키고 지도자의 양육시스템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 온 교회가 기도하고 말씀작전을 일으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13)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op. cit.*, p. 163.

14) 박영철, 군선교 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천안기독신학대학원, 2001), p. 23.

III. 여리고 작전과 ‘비전 2020실천 운동’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견고하게 축조된 성읍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성이었다. 가나안 정복의 첫 관문인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승리하시는 거룩한 전쟁¹⁵⁾임을 보여주고 있다.

군 선교의 대내외적 강한 도전과 선교 환경이 변화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비전2020실천운동’ 추진 목표¹⁶⁾ 달성을 위해 이스라엘의 여리고 전투를 고찰해 봄으로써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여리고 전투의 성경적 고찰

1.1.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준비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서 야영을 하였다. 이곳은 요단강과 여리고성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써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공격하는 기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음과 같이 철저히 준비케 하셨다¹⁷⁾.

15) 레이먼드 딜러드, 트럼퍼 통맨, 「최신구약개론」, 박철현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p. 173.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전투할 때 지켜야 할 거룩한 전쟁의 원리들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신 7:1-26, 20:1-20, 21:10-14, 25:17-19). 여호수아서는 여리고 및 아이성의 정복에 대한 기사(수 2, 6, 8, 10, 11장)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성을 첫 번째 공격했을 때와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을 때 이러한 원리들을 따르는데 실패한 것(수 7, 9장)을 통해서 이러한 거룩한 전쟁의 원리들을 예시하고 있다.

16)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편, 「미래출석교인 양육 및 귀빈가족전도」(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출판부, 2005), p. 27. 군인교회에서 진중세례운동의 결실로 매년 군인신자 25만 명을 군 선교 회원교회로 연결, 사랑의 양육을 통해 다가오는 2020년 3,700만(전 국민의 75%) 정도의 나라를 만들어 군, 민족, 인류 복음화에 기여한다는 운동이다.

17) 이종윤, 「크리스찬 지도자들-여호수아」(서울: 펴그림 출판, 2000), pp. 53-54.

첫째는 모든 남자에 대한 할례(수 5:2-9)¹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표징으로 삼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수 5:10)을 다시 지키게 함으로써 택한 백성으로서의 구별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셨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던 만나가 중단되고 가나안 땅의 소산과 열매를 먹게 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수 5:10-12).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밭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수 5:15)”고 하심으로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되심과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확인케 했다.

이상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전쟁을 하도록 철저하게 준비시켰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영적 무장을 한 여호수아 군대의 여리고성 전투 승리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1.2.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정복 전략

가나안 땅은 지형상으로 보면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중간 지점은 높은 고원지대로 되어 있다. 여호수아의 전략은 가나안 땅의 중간 지역의 가장 중요한 거점을 공략함으로써 남과 북의 부족들을 분리시키는 작전¹⁹⁾이었다. 이 전략에 의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공격하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강력한 장애물이 여리고성이다.

18) Chester K. Lehman, 「성경신학-구약」, 김인환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9), p. 286. 광야에서 할례를 소홀히 하였던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치 아니 하였기 때문이었다(수 5:6).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 책임을 완수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수 5:9)

19) 노병천, 「하나님의 병법」(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3), p. 83. 손자병법에 ‘공기소필구(攻其所必求) 즉 반드시 구해야 할 급소를 공격하라는 말이 있다. 이는 상대방이 가장 중요시 하는 곳, 또는 타격을 받으면 급격히 쓰러지는 급소를 골라 치라는 말이다.

여리고 전투를 위해 여호수아는 자신이 총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령관의 사령관 되시며 최고 전략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작전 지침²⁰⁾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작전 명령²¹⁾을 수령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달하였다. 어찌 보면 전략이나 전술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들의 전쟁 놀이 같은 이상한 공격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되었다²²⁾. 그러나 잘 살펴보면, 이같이 지혜로운 작전이 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맨 앞에 군사를 세웠다는 것은 용맹을 의미한다. 그 다음으로 일곱 제사장의 양각나팔은 시내산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으며(출 19:16-17), 나팔소리는 승리와 전진을 상징하는 것으로써²³⁾ 이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승리의 나팔을 불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한 언약궤의 역할이 전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민 10:35, 14:44; 삼상 4:3)되거나 단순히 율법을 넣어두는 장소(신 10, 31장) 등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와의 지도권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⁴⁾.

흥미로운 것은 이와같은 여호수아의 전략이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 야전군 사령관인 에드먼드 H. 알렌비(Edmund. H. Allenby)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6-11장까지의 전략을 그대로 사용하여 성공한 전례가 있다²⁵⁾.

20) 개역개정판 「성경」 수 6:2,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후의 성경본문은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모두 개역개정판이다.

21) 수 6:3-5,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며 셋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22) 이종윤, 「크리스찬 지도자들-여호수아」, p. 52.

23) 김윤희, 「누가 이 전쟁을 싸우는가?」(서울: 순출판, 2002), p. 73.

24) Trent C. Butler, 「WBC 성경주석-여호수아」, 정일호 역(서울: 솔로몬출판, 2004), pp. 158-159.

25) J. M. Boice, 「여호수아 강해」 김덕천 역 (서울: 연합출판, 1990), p. 76.

이처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시 24:8)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 여호수아 군대를 가나안 중심부로 진입시켜 여리고성을 점령케 함으로써 가나안의 허리 부분을 절단하는 전략을 사용하신 것이다.

1.3. 인내와 순종의 여리고 작전

1.3.1. 일곱째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라²⁶⁾.

‘하나님의 면전에서 입을 다물라.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라’ (수 6:10)는 것이 하나님의 1단계 작전명령²⁷⁾이다.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명령은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행동하였다. 여리고 사람들은 여호수아 군대가 떼를 지어 성을 둘 때 병어리처럼 침묵시위를 하는 것을 보고 기가 찼을 것이다. 아울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면 돌수록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판단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은 7일간을 기다리며 매일 반복된 행동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 군대에게 철저한 인내와 순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어떠한 참여도 배제하고 있다. 종국에 이것은 심리적 긴장감과 함께 일곱째 날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외침의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다 주었다²⁸⁾.

1.3.2. 최후의 순간까지 순종하라²⁹⁾.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6일을 돌고 7일째 되는 날엔 일곱 바퀴를 돌되 나팔소리와 함께 합성을 지르라’ (수 6:3-5)는 것

이 하나님의 2단계 작전명령이다.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성을 하루 한 바퀴 돌고는 다시 진중으로 돌아오는 행진만 6일 동안 순종하여 반복했다. 그러나 7일째 되는 날 일곱 번 성을 돌고 이어서 나팔소리와 함께 합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 성은 무너져 버렸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칠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히 11:30)라고 기록하였다. 또한 우리는 여호수아 군대들이 여리고성을 오직 7일간 돌았던 사건과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오직 7번 몸을 담근 사건(왕하 5:10-14)을 통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여야 완전한 승리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³⁰⁾이다.

1.4. 여리고 작전이 이스라엘에 미친 영향

1.4.1. 거룩한 전쟁에 대한 확신

여리고성 전투 승리는 이스라엘의 전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큰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준 사건이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는 앞으로 어떠한 전쟁에 직면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대한 열정을 소유하게 하였다. 또한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그들의 멸망이 임박하였다는 두려움을 더욱 생생히 실감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여리고의 적들을 멸절시킨 여리고성 전투 승리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정복의 첫 전과였다. 그리고 이 전과는 장차 가나안 정복 및 정착을 보증하는 전리품이기도 하였다.

1.4.2.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교두보 마련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함께 가나안 땅

26) 이종윤, 「크리스찬 지도자들-여호수아」, pp. 54~55.

27) *Ibid.*, p. 54.

28) 김윤희, *op. cit.*, p. 74.

29) 이종윤, *op. cit.*, pp. 55~57.

30)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삼상 15:22-23).

의 주요 거점을 장악하여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각 족속을 고립시키고 군사적 우위권을 확보하여 정복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이런 면에서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는 지역이었다³¹⁾.

여리고성 함락의 소식을 접하자 가나안은 즉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부 가나안 연합전선을 형성하였고, 또한 하솔을 중심으로 북부 가나안 연합전선을 구축하였다³²⁾. 그러나 이러한 연합전선의 형성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보다 성경적인 작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셈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곳에 모여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 성읍을 상대로 하나씩 각개격파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2.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 전략을 위한 제안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전투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였던 것처럼, '비전2020실천운동' 추진의 지난 10년은 다가오는 2020년 3,700만(전 국민의 75%) 성도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여호수아의 여리고 작전을 바탕으로 '비전2020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도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2.1. '비전2020실천운동' 목표달성을 위한 의지와 한국 교회의 연합 촉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복음(Whole Gospel)을 모든 사람(Whole

31) 테오도르 P. H. 에프,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여호수아」(서울: 바울서신사, 1996), p. 230.

32) 노병진, *op. cit.*, p. 85.

People)에게 모든 교회(Whole Church)가 힘을 다하여 전함으로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목표이다³³⁾. 이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2020년까지 “민족 75%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민간 교회 전도가 현상 유지 내지 감소되어 가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복음 전도의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군복음화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민족 복음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침묵하고 순종함으로써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을 교훈 삼아 전 교회 사명자들이 교단 및 개교회 중심에서 탈피하여 오직 주어진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2020년까지 순종하는 한국 교회의 연합 및 일치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군인교회는 전도와 세례, 일반교회는 기도와 물질 후원, 그리고 군선교연합회는 연결과 관리를 하는 등 함께 역할 분담을 하여 추진한다면 '비전2020실천운동' 목표는 성취된다고 확신한다.

2.2. 진중세례운동 활성화

진중에서의 세례는 군대가 선교 현장이라는 것과 시급성을 요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믿음의 고백이 확인되면 즉시 세례를 베푸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진중세례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점³⁴⁾들이 노출되어 기독교 내부는 물론 타종교에서의 도전과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민족복음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진중세례운동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역이다.

여리고 전투가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였듯이 군인교회

33) 군선교신학연구위원회 편, 「군선교신학 제1집」(서울: 쿤란출판사, 2004), pp. 48-50.

34) *Ibid.*, pp. 190-217. 여기서의 주 문제점은 1. 세례식에 치중하여 양육과 신자 관리 소홀, 2. 세례식의 과사용 행사(이벤트화)로의 변질 우려, 3. 부실신자 양산 우려, 4. 타종파와의 갈등 및 경쟁 초래 등이다.

와 민간교회가 협력하여 ‘비전2020실천운동’ 목표 달성의 교두보가 되는 진중세례운동을 더욱더 활기차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4개 진중세례 전략부대 교회³⁵⁾를 활성화시켜 진중세례를 더 많이 베풀어 많은 청년들이 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³⁶⁾이 진중세례운동에 있다는 것을 아래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다.

최근 10년간 진중세례 결실 현황

단위 : 천명

연도	'04	'03	'02	'01	'00	'99	'98	'97	'96	'95
인원	162	156	182	187	187	216	208	177	190	186

(출처: 제34차 MEAK 정기총회 보고서)

3. 결론

여호수아의 여리고성 전투가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정복 정착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였던 것처럼, 비전2020실천운동 추진 지난 10년은 다가오는 2020년 3,700만 명(전 국민의 75%) 성도의 나라로 만들어 나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10년을 반면교사로 삼아 남은 15년을

35)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34차 정기총회 보고서 회의안」(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5), pp. 190~217. 44개 진중세례 전략부대는 각군 학교기관(9) 및 신병 훈련소(4), 31개 신병교육부대 등이다.

36) 한국기독교장교연합회, 「군전도방법과 21C 군선교전략」(1997), pp. 8~12.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은 군에서 매년 22만 명의 새로운 신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기존세례신자를 포함하여 매년 25만 명을 사회로 환원시켜 25년 후인(1995년 기준) 2020년까지 총 625만 명의 신자를 확보하여 이들의 가정까지 복음화하고 국민의 75%인 3,700만의 그리스도인을 가진 기독교국가로 변화시킨다는 전략이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게 추진하여 ‘비전2020실천운동’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여호수아의 여리고 작전을 바탕으로 ‘비전2020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도 전략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침묵과 순종을 하였던 것처럼 2020년까지 “민족 75%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는 비전을 향해 한국 교회는 연합(인내와 순종으로)해야 한다.

둘째는 비전2020실천은 진중세례운동을 통한 22만 명의 장병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다. 따라서 진중세례는 어떠한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군인교회와 민간교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진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비전2020실천운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므로 목표 달성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을 위하여 군 선교를 위하여 주님만 바라보면서 2020년을 향하여 한국 교회가 인내와 순종함으로 정진해 나가야 하겠다.

IV. 가나안 정벌과 ‘비전 2020실천 운동’

여호수아를 중심한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해 왔다. 가나안 정복의 원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가나안 정복은 성공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수 1:8)³⁷⁾.

이스라엘의 여리고성 점령 후에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성경 본문을 통하여 고찰하고 이 성경적 교훈을 ‘비전2020실천운동’에 적용시키고자

37) 에드워드 J. 영, 「구약총론」, 홍반식·오병세 역(서울: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 1981), p. 177.

한다.

1. 가나안 정복에 대한 성경적 고찰

가나안 정복은 전 이스라엘이 일치하여 총력을 기울였고, 또 불의의 혈전을 벌인 끝에 완수되었다.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린 뒤, 세 차례의 진격적인 작전, 즉 가나안의 중앙부를 석권하고(수 7-9장), 남부를 진격한 다음(수 10장), 다시 방향을 북부로 돌려(수 11-12장) 정복한 작전으로 전 가나안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오고, 그 후에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³⁸⁾.

1.1. 가나안 남방 정벌

여호수아 10장 중반까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면서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 언덕에서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다.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 왕을 포함한 아모리 다섯 왕이 동맹을 맺어 자기들의 배신자 기브온을 공격해 왔다. 이 때 길갈에 진치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사람들이 원병을 요청하고 이에 전쟁을 벌인 여호수아 군대는 기브온 언덕에서 승리한 것을 기점으로 가나안 정벌에 나선 것이다. 여호수아 10장은 남부 가나안의 정복 기사를 기록하고 있다. 여호수아는 벤호른에 있는 다섯 왕을 치고 그 후 남부 여러 도시를 점령했다. 본문의 10장 12-14절은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표적으로 낮 시간이 연장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³⁹⁾ 이 전무후무한 사건은 여호와와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세워주며, 성전(聖戰, the holy war)에 대한 자세를 제시해 주는데, 여호수아 10장 42절에 결론적으로 나온 것처럼 “누가 이 전쟁

38) 존 브라이언트, 『이스라엘의 역사(상)』, 김윤주 역 (서울: 분도출판사, 1983), p. 191.

을 싸우는가?”의 분명한 신학적 교훈, 즉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인다고 해야 할 것이다.

1.2. 가나안 북방 정벌

여호수아 11장 1-15절은 북방 가나안의 정복을 기록하고 있다. 메롬 물가에서 여호수아는 야빈을 두목으로 한 연합군을 격파시키고, 그의 도성을 점령한 것이다. 본장의 6절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승리를 약속하심으로써 다시 한 번 더 누가 이 전쟁을 싸우는가(?)를 묻고 있다.⁴⁰⁾ 이 하나님의 약속과 절대적인 순종이 승리의 요인이 되고 있다.

1.3. 가나안 정복 완료

여호수아 11장 16절-12장 24절은 정복 완료와 물리친 왕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11장 16절에서 온 땅을 점령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여호수아 군대는 하솔을 점령함으로써 가나안 땅 전체를 우선적으로 그리고 개략적으로 점령했음을 알 수가 있다.⁴¹⁾ 이는 가나안의 정복이 여호수아 당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

39) F. A. Schaeffer, *Joshua and the Flow of Biblical History* (Downers Grove, Ill.: IVP, 1975), p. 142. 본장의 이적이 참된 이적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연구 논문으로 E. W. Maunder, “Joshua’s Long Day”, in *Journal of Transaction of Victoria Institute*, Vol. LIII, 1921, p. 120-148. R. D. Wilson, “What does ‘the Sun Stood Still’ Mean”, PTR, Vol. 16, 1918, p. 4-54 등이 있다.

40) 김윤희, *op. cit.*, p. 122. 본문 11장 6a절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는 여호와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의 약속에 근거한다. 즉 전투력을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말씀이다.

Trent C. Butler, WBC 7 - Joshua (Waco: Word Books, 1983), p. 117, p. 127. 여호수아는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격려하기보다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약속을 지키시며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내용을 강조한다.

41) 이것을 전제로 해야만 여호수아 13장 1절의 “언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라는 말씀이 설명될 수 있다.

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서 아낙 자손의 패배를 공포함으로서 “전쟁이 그쳤더라”고 말한다. 이는 신명기 9장 1-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것이요⁴²⁾, 여호수아 앞에서 아낙 자손들마저 멸절되었다면 누가 감히 이스라엘 군대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이다. 12장에서는 요단 동편과 서편에 걸쳐 모세가 정벌한 두 왕들과 여호수아가 정벌한 31명의 왕들의 명단이 나온다. 이런 왕들의 명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나타내주는 찬양의 노래라고 할 것이다. 이런 모든 정복의 역사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2.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비결과 여호수아의 지도력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의 승리 비결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승리의 원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믿음 때문이다(수 10:42)⁴³⁾.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다는 언급은 없으나 “그들로 인해 두려워 말라”고 한 구절을 보면 약간의 두려움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에 여호수아는 대승을 거둔 것이다.

42)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 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라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신 9:1-3).

Joshua, The Anchor Bible - introduction and commentary by Robert G. Boling and G. Ernest Wright (New York: Double Day and Company, Inc., 1982), pp. 316-317. 본 주석도 아낙자손의 멸절은 여호수아군대가 남부 가나안의 통제력을 얻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43) 김윤희, 「누가 이 전쟁을 싸우는가?」, p. 118. 본문의 11장 11절, 14절은 모두 멸절시켰다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완전한 것임을 나타낸다.

둘째, 여호수아는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전투에 임한 것(수 11:6)이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다.

셋째, 여호수아는 선제공격을 하였다(수 11:7). 여호와와의 개입으로 말미암는 승리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최선의 적극적인 공격을 한 것이다.

넷째, 여호수아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수 11:9, 15)⁴⁴⁾.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입법자라기보다는 율법의 준수자로 나타난다. 철저한 순종이 승리의 전략임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가나안 정벌전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호수아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현재를 결단한 지도자였다(10:26-27). 여호수아가 남방의 5왕을 굴에 가두었다가 후에 시체를 나무에 매달고 그 후에 매장을 한 것은 가나안 정복이라는 미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둘째, 여호수아는 백성의 필요를 이해한 지도자였다(10:24-25).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격려를 전해 주고 승리를 백성들에게 돌리기 위하여 사로잡은 왕들의 목을 밟게 한 것이다.

셋째, 여호수아는 인내와 성숙함의 과정을 거쳐 정복을 이루었다. 여호수아는 편법이나 미숙한 태도로 전쟁에 임한 것이 아니라 정도를 걸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전진을 추구한 지도자였다. 여호수아 10-12장에 기록된 가나안의 정복사는 7년에 걸쳐 일어난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충분한 시간과 그에 따른 과정도 필요한 것이다.

넷째, 여호수아는 한 번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말씀만을 따라 계속 전진한 지도자였다. 아이성 공격이나 기브온 사람들과의 화친은 그의 경

44) 이종윤, 「크리스찬 지도자들 - 여호수아서 느헤미야서 강해」, pp. 100-105. 이 여호수아의 순종은 본문의 11장 12절, 15절에 나타난 대로 모세에게서 배운 것이다. Trent C. Butler, *op. cit.*, p. 128-129.

솔한 실수에 속한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또다시 실수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갔다.

다섯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믿음대로 행한 지도자였다. 그러했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직접 간섭하시고 승리를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여섯째,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본장 11장 15절에서는 여호와와 명령이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로 전수되면서 모든 것을 순종하여 행하였다고 한다. 순종이 여호수아를 승리의 장수가 되게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도력을 행사하는 요인이 된 것을 보게 된다.

3. '비전2020실천운동'⁴⁵⁾의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위한 제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나안 정벌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취와도 같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전을 바탕으로 '비전2020실천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3.1. 대대단위 교회 설립

전국의 교회가 실제 병력이 배치된 전 대대급에 교회를 설립함으로써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구별된 공간을 확보하는

45) 이종윤, "비전2020운동전략과 신학적 조명"을 시도하면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미래출석교인 양육 및 VIP(귀빈) 가족전도」, pp. 159~160. 군선교신학위원회에서는 비전2020운동의 목표를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건설에 두고 이를 위하여 (1) 주님의 명을 따라 A.D. 2020년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군인이 한 사람도 없게 할 것이며, (2) 진중세례식을 통해 매년 22만 명 이상의 장병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세례를 베풀며, (3) 민족복음화를 기본목표로 하고 세계복음화에 기여하도록 하며, (4) 복음의 능력으로 휴전선이 무너지고, 북한의 100만 인민군 장정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군선교를 통해 이룩하며, (5) 통일신학, 비전2020운동 전도신학 그리고 양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것이다. 왜냐하면 대대급 교회는 진중세례를 받고 부대에 배치된 장병들을 교인화시키기 위한 이삭줍기, 양육, 부대주소 수집 등의 주현장이 되기 때문이다⁴⁶⁾. 이를 위해 대대별로 교회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강당이 있는 대대는 그 장소를 다목적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지만 교회 설립이 꼭 필요한 곳을 중심으로 현 1천여 개의 군인교회의 배가운동을 전개하여 매년 50개의 교회를 설립하도록 군인교회건축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위한 건축현금을 전국적으로 모금하여야 할 것이다.⁴⁷⁾

3.2. 군선교 일반교역자 양성 및 파송

현 1천여 개가 되는 대대급 교회에 비해 현 군목의 숫자는 약 300여 명 정도이다 보니 장병들의 세례 후 교회생활이나 신앙관리가 어렵다. 따라서 '비전2020실천운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인 목회자 중에서 군선교에 전임으로 헌신할 일꾼을 선발하여, 교육시킨 후에 목회자가 없는 군교회에 목회자로 파송하여 군선교에 헌신케 함으로 세례 받은 초신자들의 신앙을 잘 양육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3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군선교에 헌신할 일반 교역자를 매년 100명씩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이수케 한 후, 대대급 교회에 파송하는 것이다.

46) 주연중, "진중세례운동의 회고와 전망", pp. 209~215. '비전2020실천운동'은 진중세례와 세례 받은 젊은이를 후원교회와의 연결시키는 것으로 크게 집약할 수 있다. 그러나 진중세례를 받는 장병들 중에서 신앙적인 동기는 불과 4%에 지나지 않는다는 조사를 접하면 개선방안을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군선교정책이 세례 행사 위주보다는 복음전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대규모 훈련소 세례식보다는 소규모로 대대 단위급의 세례정책이 성경적이라는 보고는 깊이 생각해야 할 제안이라고 본다.

47)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34차 정기총회 보고서/회의안」, p. 42. 2004년도에는 26개 교회를 기공하였고, 22개 교회를 헌당하였으며, 2개 교회의 채무금을 지불하였다. 건축사업의 총계는 53억 6천 7백 50만 9천 9백 3십 1원이었다. 교회건축을 위해서라면 현재보다 배가 이상의 예산과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주연중, p. 204. 주연중의 논문에 의하면 지난 1991년에서 2000년까지 10년 동안의 진중 교회당의 건축현황은 386동을 신축하고, 173동을 개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군선교 일반 사역자들을 위한 전문 훈련 과정이나 군선교훈련학교를 설립하여,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다. 이들이 훈련을 받아 군선교사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익히고 나서 군교회나 유관기관으로 파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군선교 일반 교역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로 월 100만 원을 제공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것을 위한 기준으로는 2005년부터 시작된 예장 통합측 미자립교회 교역자생활비평준화 시책에 매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총회가 책임지도록 한다는 규정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연결망을 형성하여 군교회와 후원 민간교회를 전담으로든, 협력으로든 연결하여 지원해야 한다⁴⁸⁾.

3.3. 군선교 지도자 육성

가나안 정복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과 순종의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호수아 같은 군선교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한다.

3.3.1. 군종목사를 위한 재교육

현 군종목사를 대상으로 질적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도력이 탁월한 군목들을 대상으로 성지순례와 해외선교연수, 학위과정 수학 및 장학 혜택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3.3.2. 군선교신학 프로그램의 개발

군선교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는 군선교 신학 발전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군목의 복음주의적 신학적 성향과 구령적 열정이 군선교의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군선교의 야전군 역할을 해야 할 군선교사역자들의 사명고취를 위한 신앙적 재무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선교 신학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군선교 신학연구 논문집 등을 발간하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이다.

3.3.3. MCF 조직 및 활동 활성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같은 ‘비전2020실천운동’ 목표 달성을 위해 대대급 부대교회에 목회자(군목 및 군선교일반교역자)를 세우는 것과 더불어, 평신도 지도자 그룹으로 MCF조직을 편성하고 활용하여 군인신자의 신앙을 지도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3.4. 미래의 군선교 지도자를 양성

이를 위해서는 군선교 비전 캠프 교육을 통해 미래 군선교의 청지기를 양성하는 것이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꿈나무 청소년 비전캠프를 전국적인 규모로 더 확대하고 개편하여 군인자녀들의 영성훈련을 강화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청년복음화 비전캠프를 통해서도 준비된 군선교사를 양성하는 것이다⁴⁹⁾.

4. 결론

이상으로 가나안 정복과 ‘비전2020실천운동’을 위한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2020실

48)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10주년 회고 - 비전2020운동 발전 방안”, pp. 16-17. 현재의 군선교일반교역자들은 약 350명에서 6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나 사역자의 자질이나 신세대장병들과의 세대차이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적으로 선발하는 군선교 일반 교역자에게는 월 100만 원 수준의 선교비를 지원하고, 능력 범위 내에서 세례식 및 전도 소요 예산을 지원토록 권장하는 것이다. 이런 지원을 위하여 민간교회와 대대급교회가 1:1 결연을 맺음으로 선교비를 전담으로 후원토록하는 방안과 대대급교회를 2~3개의 민간교회가 결연을 맺음으로 지원토록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군선교연합회에서는 1차 목표로 300명의 군선교민간교역자를 선발하여 군교회에 파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군선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목과 군선교 일반 교역자를 합하여 2,000여 명 이상이 되어야 전군장병의 전도와 신앙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49) *Ibid.*, p. 7.

천운동'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성경적 전도전략으로 첫째는 실제 병력이 밀집된 대대급에 군인교회를 설립하는 것인데, 부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되 현재 약 1,000여 개에 이르는 부대교회를 2020년까지 배가시키는 운동이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한 해 약 50여 개의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둘째로, 각 대대단위 교회에 군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이들이 영적인 여호수아가 되어 군선교를 지휘해야 한다. 현 군목의 숫자로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전도와 양육을 할 수가 없기에 연간 약 100여 명의 일반군선교사역자를 모집하여 훈련과정을 이수케 한 후, 각 군부대에 파송하여 전도와 진중세례 그리고 신앙양육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여호수아 같은 군선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앙무장 프로그램을 세우는 것이다. 넷째는 MCF조직을 활성화하여 군선교 목회자들과 장병들의 신앙 양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이런 사역들의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말미암아 '비전2020실천운동'의 목표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리라고 본다.

V. 갈렙의 지도력과 비전2020실천운동'

갈렙은 여호수아에 이어 이스라엘 군대의 2인자로서 성경에 매우 짧게 나타난다. 그의 지도력은 중간지도자로서 투철한 역사 의식과 온전한 믿음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주제를 통해서 갈렙의 지도력을 분석하고 이를 '비전2020실천운동'에 적용해 보려고 한다⁵⁰⁾.

50) 갈렙의 지도력의 두 주제, '투철한 역사 의식'과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는 이종윤, 「크리스찬 지도자들 - 여호수아서 · 느헤미야서강해」, pp. 115~122을 보라. 다만 본서의 "뚜렷한"보다 의미가 강하고 군사적인 용어인 "투철한"으로 바꾸었다.

1. 갈렙의 지도력에 대한 성경적 고찰

1.1. 투철한 역사 의식을 가진 지도자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신다는 의식을 지닌 지도자.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하신다는 역사 의식을 가진 지도자라면 아무리 강한 적 앞에서도 끝내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군인들에게 주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당성을 부여함으로 무형전력이 증대될 것이다⁵¹⁾.

둘째, 주님이 주실 땅에 대한 비전을 품은 지도자.

갈렙의 땅에 대한 비전은 헤브론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다⁵²⁾. 원래 이방인이었던 갈렙⁵³⁾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 자신을 동일시하게 된 이후 유대인의 혼이 깃든 헤브론 땅을 보기를 원했고, 자신이 그 땅을 상속받고 싶어 했다⁵⁴⁾. 이것은 영적인 영토인 60만 국군 장병들의 마음을 얻어 믿음의 군대로 만들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건설한다는 비전을 결코 잃지 않는 것과 같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지도자.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하였기에 정탐 45년 후(수 14:7-10)에도 그의 용기와 자신감이 조금도 약하여지지 않아

51)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발간한 교육용 교재, 「미래출석교인 양육 및 VIP(귀빈)가족전도」, p. 17에 설명하고 있는 군선교가 정신전력측면과 무형전력증대에 성경적이라는 내용과 부합한다.

52) 헤브론은 다윗이 나발에게서 얻은 땅이며, 나중에 왕으로 등극한 땅이다. 또 압살롬이 자기 부친을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된 곳이기도 하다. 헤브론의 장막은 초창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정치적 요충지였다. Trent C. Butler, *JOSHUA, WBC*, Vol.7, pp. 170~171.

53) 갈렙은 원래 에돔 족속 중 그니스인으로 유대로 편입이 된 사람이다. 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이다.

54) 이종윤, *op. cit.*, pp. 117~118. 그곳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지내려고 샀던 땅으로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이 매장되었고, 요셉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기 뼈를 가져다가 묻어달라고 부탁했던 곳이다.

약속의 땅을 점령할 기회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였다⁵⁵⁾.

1.2. 온전한 믿음을 가진 지도자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담대한 지도자.

갈렙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성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 어떠한 유혹도 받지 않았고, 아무런 흔들림도 없었다⁵⁶⁾. 여호수아서 16장 이하에는 많은 지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거나 쫓아내지 않는 기록이 있다⁵⁷⁾. 반면에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었다. 현재는 ‘비전2020실천운동’을 전개하기에 상황이 열악하다. 그러나 갈렙의 신앙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매진하게 되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갈렙의 담대함은 정탐 후의 자세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탈취해서 빼앗아야 할 땅’으로 보았다(민 13:30-33). 이런 담대함은 모세의 ‘담대하라’는 말에서 왔다(민 13:20; 비교. 수 14:6).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갈렙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55)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수 14:11-12).

56) J.M.보이스, 「여호수아 우리는 주님을 섬기리라」, 김덕천 역 (서울: 연합, 1990), p. 160.
57) 수 13:13, 15:63, 16:10, 17:12; 삿 1:19, 1:21, 1:27, 1:29, 1:30, 1:31-32, 1:33 등은 각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하였거나 쫓아내지 않은 원주민들이다. 특히 요셉 족속,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큰 지파로 분배된 땅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였다(수 17:14). 그렇지만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다(수 17:12-13; 삿 1:27-29).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보다 가나안인의 철병거를 보았고, 둘째, 지도자 여호수아와 동족으로 특혜를 바라는 사교가 있었으며, 셋째, 가나안인을 쫓아내기보다는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거나 조공을 받으려는 순수치 못한 동기가 있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도전한 지도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아와 “여호와께서……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수 14:6, 14:10a, 14:12b)을 언급한다. 특히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는 모세가 한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며(수 14:9; 비교. 민 14:24; 신 1:36) 기업을 요청한다. 이처럼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였다⁵⁸⁾.

아낙 지손(민 13:32-33), 장구한 기다림, 85세의 고령, 다른 지역에서 수많은 점령 실패, 거인들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 산지의 요새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거침이 없다. 평지를 요구하지 않고 그 지역을 점령하기를 원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에서 도전정신이 나온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도 문제가 될 수 없었다.

셋째, 섬기는 지도자.

갈렙의 섬김은 헤브론의 산지를 도전하는 등의 남이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자원하는 자세이며, 대접받지 못하는 참모나 이인자의 자리를 기꺼이 감당하는 자세에서 나타난다. 이런 자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면전 의식(Coram Deo)’이 있기에 가능하다⁵⁹⁾.

2.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 전략을 위한 제안

갈렙의 투철한 역사 의식과 온전한 믿음을 바탕으로 ‘비전2020실천운동’에 적용할 성경적인 전도 전략을 이곳에서 제안코자 한다.

58) 김윤희, 「누가 이 전쟁을 싸우는가」, pp. 152~153.

59) 민 14:24, 32:12; 신 1:36에서 갈렙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평가받는다.

2.1. 비전부흥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의 부흥을 통해 2020년까지 3,700만이 주께로 돌아와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건설한다는 비전을 주셨다. 그리고 ‘비전2020실천운동’의 세 주체인 군선교연합회, 군인교회와 회원교회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이 운동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운동의 성경적인 홍보와 동원을 위해 일일비전부흥회를 제안한다. 일일비전부흥회는 군선교의 저변을 확대⁶⁰⁾시키기 위해서 회원교회 목사들로 이루어진 강사진으로 아직 ‘비전2020실천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교회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비전부흥회를 위한 각 주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2.1.1. 군선교연합회

군선교연합회에서는 비전부흥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회원교회 목사들⁶¹⁾을 권하여 낱연보⁶²⁾를 하게 하여 이 분들로 하여금 ‘비전2020실천운동’의 비전을 전국의 교회들에게 알리고 동참하도록 도전하는 것이다. 군선교연합회는 회원교회의 목사들을 낱연보 부흥강사로 섭외하고 적절한 교회에 파송하며 또 필요에 부합하는 각종 강사를 적극 확보한다.

2.1.2 군인교회

군인교회에서는 진중세례운동의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낱연보 부흥회 강사들을 초청하여 복음전도 집회를 연다. 전도집회를 통

60)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10주년 회고 - 비전2020운동 발전 방안”, 현재 군선교에 참가하는 교회는 3,000여 교회 정도이다.

61) 회원교회의 목사들 중에는 한국에서 유명한 분들이 많다. 이분들은 특정한 교회에서 부흥회 강사로 모시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분들이 특정한 교회의 예배에 강사로 가신다고 하면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비전부흥회란 아직 ‘비전2020실천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교회에 이분들을 부흥회 강사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운동을 홍보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다.

62) 1907년, 한국의 대부흥 기간에 나타났던 특이현상으로 헌금하지 못한 교인들이 일주일에 하루, 혹은 열흘에 하루를 십일조하여 그들의 시간을 바쳐서 전도 사업에 투신한 것이다. 이 기간 ‘낱연보’ 낱(田) 수는 10만 일이 넘었다. 사경회 중 서약한 날에는 보수를 받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 나섰고, 필요한 비용도 본인이 부담했다. 김인수, 「한국기독교교회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p. 265.

해 구원의 확신을 심어 주고, 세례를 베풀어 10단계 사랑의 양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1.3. 회원교회

회원교회의 역할은 강사를 제공하고 일일 비전부흥회를 개최할 만한 교회를 발굴하여 연합회에 알린다. 또 회원교회와 관련을 맺고 있는 교회들에 비전부흥회를 소개하여 비전부흥회가 끊임없이 확산되도록 한다.

2.2. 군선교 지도자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지도력 세미나 개설

‘비전2020실천운동’은 지금 선교 환경의 변화와 타종교의 공세 등으로 약간의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운동을 지속시키고 오히려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군선교에 앞장선 지도자들의 확신이 중요하다.

현재 ‘비전2020실천운동’ 중, 특히 진중세례운동은 최근 세례 인원 감소 현상과 선교 현장 여건 악화를 이유로 목표 달성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고 있으며 세례 목표를 하향 조정해야 된다는 등의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⁶³⁾. 이것은 현 상황을 보면 목표 달성의 가능성에 회의가 생기고 때문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갈렙의 온전한 믿음에서 나타나는 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수치화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⁶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비전2020실천운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임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특별히 ‘비전2020실천운동’의 약속의 말씀⁶⁵⁾으로 돌아가서 군복음화를 통해 민족과 인류

63)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10주년 회고-비전2020운동 발전 방안”, p. 8.

64) 주연중, *op. cit.*, pp. 190-217.

65)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슥 13:9).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후 6:16).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고전 3:6).

를 복음화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고 이 말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담대함으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갈렙의 섬김의 정신은 '비전2020실천운동'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연합과 일치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다.

군선교 지도자를 위한 지도력 과정을 개설하여 갈렙과 같은 지도자를 배출하여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취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필자는 갈렙의 연구를 통해서 갈렙이 투철한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이며,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갈렙의 역사 의식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고, 주님이 주실 땅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또 갈렙의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담대함,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도전 정신, 그리고 섬김이라는 내용을 갖는다.

이러한 갈렙의 지도력을 이용한 '비전2020실천운동'의 지속과 확산을 위한 방침으로 비전부흥회를 제안하였다. 군선교지도자들의 의식개혁과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지도력 세미나를 개설함으로 말씀에 근거한 비전을 재확인하며, 닥쳐오는 위기와 도전에 소극적으로 목표를 수정하기보다는 갈렙의 지도력으로 '비전2020실천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지속시켜 나가기를 제안하였다.

VI. 나가는 말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 전략에 대해서 구약의 가나안 땅 비전을 성취키 위해 시행되었던 홍해 작전, 여리고

작전, 가나안 정벌 작전, 갈렙의 지도력을 중심으로 성경적 고찰을 한 후에 그 적용점을 바탕으로 전도 전략을 찾아보았다.

1. 내용 요약

홍해 작전은 담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홍해와 같은 당면한 문제들을 기도 작전으로 극복해 나가며, 말씀 작전을 일으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비전을 통하여 '비전2020실천운동'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적용을 하였다.

여리고 작전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및 정착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였던 것처럼, 향후 '비전2020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도 전략으로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 침묵과 순종을 하였던 것처럼 한국 교회는 연합(인내와 순종으로)해야 하며, 둘째는 '비전2020실천운동'은 진중세례운동을 통해 매년 22만 명의 불신 군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고 하였다.

가나안 정벌 작전에서는 우리의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성경적 전도 전략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실제 병력이 밀집된 대대급에 군인교회를 설립하는 것이다. 현재 약 1,000여 개에 이르는 부대교회를 2020년까지 배가시키기 위해 한 해 약 50여 개의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둘째, 각 대대 단위교회에 군선교 일반 사역자를 파송하는 것이다. 매년 약 100여 명의 군선교 일반 사역자를 모집하여, 각 군부대에 파송하여 전도와 진중세례 그리고 신앙 양육을 하게 함으로 전도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다. 셋째는 군선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 사명 고취를 위한 집회나 구령의 열정을 뒷받침하는 신학세미나나 미래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캠프조직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갈렙의 지도력은 투철한 역사 의식과 온전한 믿음이였다. 이 갈렙의 역사 의식은 하나님 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심, 주님이 주실 땅에 대한 비전, 인내심이라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또 갈렙의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담대함,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도전 정신, 그리고 섬김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갈렙의 지도력을 이용한 ‘비전2020실천운동’의 지속과 확산을 위한 방침으로 비전부흥회를 제안하였다. 또한 지도력 세미나를 개설함으로 군선교지도자들의 긍정적이고 확고한 성취 의식을 고취시킴으로, ‘비전2020실천운동’을 확산시키고 지속시켜 나가기를 제안하였다.

2. 결론적 제안

본 논문이 성경적 접근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전도의 원리는 말씀 작전과 기도작전이다. 이 원리를 적용하여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경적 전도 전략으로 한국 교회의 연합과 일치, 특별기도회, 소그룹 성경 공부, 진중세례의 활성화, 대대급 단위의 교회 설립, 군선교 일반 사역자 파송 및 교육 훈련 과정 개설, ‘비전부흥회’ 그리고 지도력 세미나를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정책이 균형 있게 시행되어야 하지만 실제 병력이 밀집된 군 대대 단위로 복음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 군선교연합회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주안점을 진중세례와 세례 받은 장병들을 후원교회와 연계시키는 것에 두고 있다. 그러나 본 필자는 서론에서 살핀 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비전2020실천운동’의 주안점을 대대급 단위 교회 설립과 대대급 단위로 군선교 일반교역자를 파송하는 것에 두어서 대대급 단위로 수세자를 확보하여 세례를 주고, 또 세례 받은 초신자 장병들을 양육해야만 ‘비전2020실천운동’의 목표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안하

는 바이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제시한 것처럼⁶⁶⁾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취를 위해 매일 기도하기, 모든 교회가 참여하기, 모든 성도가 이 운동의 홍보와 후원을 위해 헌신하기 등에 적극 참여해야만 복음화된 통일조국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 본 글은 2005년 11월 17일 비전2020운동 10주년 기념 특강 원고입니다.

참고문헌

- 군복음화보(2005.9.30, 2004.12.25, 2005.6.30)
 군선교신학연구위원회 편, 「군선교신학 제1집」. 서울: 쿤란출판사, 2004.
 김윤희, 「누가 이 전쟁을 싸우는가?」. 서울: 순출판, 2002.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노병천, 「하나님의 병법」.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3.
 박영철, 「군선교 전략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천안대기독신학대학원, 2001.
 이종윤, 「사도행전」. 서울: 필그림출판사, 2001.
 이종윤, 「크리스찬 지도자들-여호수아」. 서울: 필그림출판, 2000.

66)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34차 정기총회 보고서 회의안」, 11.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사역 10년차 선교보고 대회 특강”.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10주년 회고 비전2020운동 발전 방안」. 미간행자료집, 2005.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34차 정기총회 보고서 회의안」.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출판, 2005.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편. 「미래출석교인 양육 및 귀빈가족전도」.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출판부, 2005

한국기독교장교연합회. 「군전도방법과 21C 군선교전략」. 1997.

C. F. KEIL and F.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6.

Chester K. Lehman, *Biblical Theology Vol. I. Old Testament*. PA: Herald, 1971. (본서는 김인환에 의해서 「성경신학 - 구약」이라는 제목으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1999〉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E. W. Maunder “Joshua’s Long Day”, in *Journal of Transaction of Victoria Institute*. Vol. LIII, 1921.

Edward J. Young,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Michigan: Grand Rapids, 1974. (본서는 홍반식/오병세에 의해서 「구약총론」이라는 제목으로 한국개혁주의신행협회〈1981〉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F. A. Schaeffer, *Joshua and the Flow of Biblical History*. Downers Grove, III.: IVP, 1975.

J. M. Boice, *Joshua, We Will Serve The Lord*. New Jersey: Fleming H. Revell Company, 1989. (본서는 고광자에 의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바울서신사〈1987〉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John Bright, *A History of Israel*, 2nd. ed. Philadelphia: Westminster,

1972. (본서는 김윤주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분도출판사〈1983〉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John, Calvin, *Commentary - Exodus*. Michigan: Grand Rapids, 1970. (본서는 김영진에 의하여 「칼빈성경주석-출애굽기」라는 제목으로 성서교재간행사〈1995〉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Matthew, Henry. *Commentary - Exodus*. Grand Rapids: Eerdmans, 1967. (본서는 이기문에 의하여 「매추헨리주석 - 출애굽기」라는 제목으로 Christian Literature Press〈1985〉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Mendenhall, “The Hebrew Conquest of Palestine,” *BAR* 3 .1970.

R. A. Cole, *Commentary - Exodus*. Grand Rapids: Eerdmans, 1970. (본서는 장도선에 의하여 「출애굽기 주석」이라는 제목으로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1990〉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R. D. Wilson, “What does ‘the Sun Stood Still’ Mean”, *PTR*, Vol. 16, 1918.

R. P. Carroll, “The Hebrew Bible as Literature: A Misprision?”, *ST Th* . 1993.

Raymond B. Dillard, Tremper Longman,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Michigan: Grand Rapids, 1994. (본서는 박철현에 의해 「최신 구약개론」이라는 제목으로 크리스찬 다이제스트〈2001〉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Theodore H. Epp, *Joshua - Victorious by Faith*. California: Eerdmans, 1980.

Trent C Butler, *World Bible Commentary*. Texas: Word Incorporated, 1987.

진중에서의 소수 종교 정책



우기식 군종목사



1. 들어가는 말

현대 국제사회는 갈수록 종교 간 갈등이 심하여 미국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톤(Samuel Huntington)이 1993년에 발표한 “문명 충돌론”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¹⁾ 종교 다원사회로서의 한국은 국가 내에 많은 종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심각한 종교 간의 갈등 없

■ 우기식 목사

-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Th. M.)
- Fuller Theological Seminary(D. Min.)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국방부 군종정책팀 선도담당관

이 공존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수 종교에 대한 군중 정책으로 인한 갈등이 군 내외에서 표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비교적 평화롭게 잘 지켜온 다원화 사회가 파괴될 수 있다는 극단적 우려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서는 그동안 진중에서 행해진 소수 종교 정책을 다양한 사례와 비교하며 소개하면서 나름대로의 갈등 해결에 대한 집착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 있어서 전제되는 조건이 있다. 그것은 군대는 일반사회와는 확실히 다른 공동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중에서의 소수 종교 정책은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의 이해 속에서 연구가 되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모든 종교에 대한 이해 역시 특수상황 속에서 되어야 한다. 그러면 군대란 무엇인가?

2. 군대와 군안에서의 종교 이해

군에 대한 공식 정의는 법에 의하여 규명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군의 존립 목적은 국내외적인 도전과 위협에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다. ²⁾ 그러므로 헌법 제5조에서는 국군의 사명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며, 외부의 침략이나 내외의 폭력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를 방위하는 신성한 의무를 완성하는 데 있다’고 규명하고 있다.

1) 전호진, 「문명 충돌 시대의 선교」(서울 :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pp. 166~167.

21세기에는 로마 가톨릭의 남미문명권, 러시아 정교회의 러시아 문명권, 신도의 일본, 유교적 중국, 힌두교의 인도, 이슬람 문명권, 아프리카의 문명권, 서구의 기독교 문명권이 서로 충돌 혹은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2) 장옥상, “군대 문화가 조직 물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1995), p. 14.

또한 대통령령 제13240호로 제정된 규율³⁾에서는 ‘국군의 이념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군대 조직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먼저 그 대외적인 목적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억제하되, 전쟁이 발발하면 적을 분쇄하고 반드시 승리하여 국외적인 안전보장을 확립하는 데에 있다. 대내적인 목적은 나라의 영토나 조직적인 면에서 국가 전복의 기도나 국가를 약체화시키고 파괴하려는 노력을 무력화시키려는 국내적인 안전 보장 역시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군대가 갖는 집단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첫째, 집단 의사에 대한 개인 의사의 귀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주의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둘째, 군은 어느 집단보다 국가 의식을 강조하는 집단이며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특별히 강조한다.

셋째, 군은 항상 안전에 대한 위협의 대규모성, 긴박성을 강조하는 특성을 갖는다.

또한 군은 세 가지의 가치 규범을 가지고 있다.⁵⁾

첫째, 국가와 군대에 관계된 것으로서 충성심이다.

둘째, 조직적인 측면으로 조직은 법규, 규정, 수칙, 명령에 의하여 유지된다.

셋째, 개인적인 수준의 규범적 가치 체계가 있는데 이는 개개인의 임

3) 1992년 1월 5일에 제정되었다.

4) 이동희, 「한국군사 제도론」(서울: 일조각, 1982), p. 144.

5) 조승욱, “군대 윤리: 문민 통제, 복종, 개인의 가치 문제 중심으로”, 육사 논문집 제27집(1984.12), pp. 63-64.

무와 관련된 태도와 행위에 연관된다.

그러므로 군은 매일 빈틈없는 일과가 상급자로부터 일방적으로 결정되며 임무도 각 개인의 능력이나 적성과는 거의 무관하게 부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업무의 수행은 집단성원 상호간의 협동 및 유대강화 등 팀에 의한 수행 방법을 채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일반사회와 다른 조직과 가치 규범을 가지고 있는 군대라고 하는 특수한 집단의 생활 양식의 총합으로서의 군대 문화는 일반 사회 문화와 다른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장옥상은 군대 문화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⁶⁾

첫째, 권위주의이다. 이는 강자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이고 복종된 태도를 취하지만 약자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자세로 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복종하게끔 하려는 성향이 있다.

둘째, 보수안정주의이다.

셋째, 순응주의이다. 상사의 지시에 얼마나 잘 순응하는지의 여부로 군 조직의 우열과 군기 확립 여부를 판단하기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려는 경향이 있다.

넷째, 의식주의이다. 조직의 가치가 공식적인 행위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폐쇄주의이다.

여섯째, 임무 완수주의이다. 전쟁의 승리를 목표로 하는 군은 이를 종합적인 힘의 결속 결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라도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소홀히 하면 조직이

6) 장옥상, *op. cit.*, pp. 97-98.

추구하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기에 임무 완수주의의 경향이 있다.⁷⁾

그러므로 군은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최대의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일시 귀속시키는 특성을 위시하여 다양하고도 독특한 강제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군종장교가 소속되어 있는 종단과 종교인의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군에서 생각하는 종교의 기능도 위와 같은 군의 특성, 가치규범, 군대 문화라고 하는 범주 안에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별히 군에서 종교가 가지는 위상은 전시 군인이 가지는 독특한 심리적 상태에 기인한다.⁸⁾

즉 전장에서의 군인은 극도의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어 절대자에게 의존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한다. 이것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비의도적이고 이상 행동을 드러내 보여 전체적으로 전투력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특히 전장 경험이 풍부한 국가의 군에서는 종교 문제를 신중하고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시를 대비하고 있는 평시에도 종교 활동, 교육 활동, 선도 활동 및 기타 활동을 통하여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강화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더 나아가 이들을 건전한 모범시민으로 육성하는 목적 하에 군에서 군종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⁹⁾

군에서의 군종제도 도입도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다. 1950년 3월, 육군의 일부 간부들이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위해 군종제도 도입을

7) 국방부, 「국군정신교육교본」(1993. 11), p. 514.

8) 이종인, 최광현, “장병 종교활동 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국방연구원논문, 한국국방연구원, 2003), p. 31.

9) 참조. 국방부 훈령 제572호(1997.10.27), “군종 업무에 관한 규정령”.

건의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고 한국전쟁 발발 후 기독교, 천주교의 건의와 한국인 카투사 병사의 진정서를 통해 무보수 촉탁문관 신분으로 군종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1952년 6월 16일, 국민명 제58호에 의거 무보수 촉탁문관에서 유급무관으로, 1954년 12월 13일, 유급문관에서 현역장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 이후 불교도 월남전 파병을 앞두고 파병 환경을 고려하여 1968년 5명의 법사를 군종법사로 군에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군 안에서의 군종장교의 기능은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군의 목표를 이루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종교의 기능 역시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종장교가 수행하는 군종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¹⁰⁾

첫째, 종교 활동을 통하여 장병의 사생관을 확립하고, 필승의 신념을 배양한다.

둘째, 장병의 국가관과 병영생활에 대한 가치관 및 윤리관을 확립한다.

셋째, 건전한 병영생활과 정신 전력 극대화에 기여한다.

넷째, 장병 사기 진작, 부대 사고 예방, 작전 지역 내 주민들과의 유대 강화 등 군종 활동에 대해 지휘관을 보좌한다.

그리고 군종에 관한 각급 부대 지휘관의 책무도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 있다.

첫째, 각급 지휘관은 군종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대 내 편향되지 않은 종교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각급 지휘관은 군종장교가 주관하는 종교예(의)식과 종교 행사

10) Ibid.

에 참석하고자 하는 장병에게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각급 지휘관은 장병 신앙생활을 위한 종교 소개 교육 신자 파악 신앙상담에 대한 안내를 할 책임이 있으며, 개종이나 특정 종교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넷째, 군종장교가 없는 부대의 각급 지휘관은 종교 행사를 위하여 상급부대 또는 인접부대의 군종장교나 민간교역자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군에서는 군에 공식적으로 군종장교가 임관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종교의 기준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통념상 종교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성직자 양성교육이 제도화되어 있는 단체.

둘째, 교리의 내용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 도덕심 함양, 정신전력 강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 수를 고려한다.

넷째, 관련 종교 활동이나 의식 등이 불법이나 공공정책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어야 한다.

다섯째, 성직을 승인 및 취소할 수 있는 종교적 권위를 보유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군 안에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바에 근거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상기에서 논한 바와 같이 군은 법에 의하여 특수한 목적 수행을 완수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개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군 안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군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의 자유라고 할 수 있으며 군종장교의 기능과 종교의 기능도 동일한 차원에서 요구

되고 있는 것이다.

3. 군과 소수 종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를 배경으로 군에서도 최대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2005년 12월 현재 군 안에는 3개 종교를 제외한 34개의 각기 다른 종교를 가진 장병들이 복무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이들의 종교생활을 군의 목표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고 있다.¹¹⁾ 또한 대한민국에는 종교나 종파에 관련하여 신고, 등록 후 허가하는 제도가 없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종교법인체는 약 506개에 달한다.¹²⁾ 이중 군 안에 군종장교를 파송하여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3개 종교 외에는 2005년까지 허용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소수 종단에서는 끊임없이 자신들의 종교를 군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해 줄 것과 자신들의 성직자를 군종장교로 받아들여 줄 것을 요청해 왔었다. 이에 군은 헌법의 정신에 의거 병역법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병역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장영달 의원의 발의(2002.10.31)로 인해 병역법이 개정(2002. 12. 26)되었다. 그 내용으로 기존 군종장교 선발 기준에서 제시한 목사, 신부, 승려 항목 이외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첨부되었고 병적 편입 대상 종교 선정을 위하여 국방부에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 시행령

11) 물론 군의 목적과 부합되어야 하며 적절한 기준에 의거 관리되고 있다.

12) 문화관광부 법인등록부(2005. 7. 31 기준)에 근거하며 기독교 239, 천주교 83, 불교 137, 유교 21, 기타 26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문광부에서 2002년도 발표한 '한국의 종교 현황' 을 보면 한국의 종교는 235개로 파악되어 있다.

도 개정(2003.9.15)되어 병적 편입 대상 종교 선정을 위한 기준이 신설¹³⁾되었고 이를 심사하기 위한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항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을 제정(2005.10.11, 국방부령 제585호)하였다.

이와 같은 법 개정 과정 속에서 나타난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군에 들어올 수 있는 성직 자격이 목사, 신부, 승려에서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사실상 모든 종교의 성직자에게 문호가 개방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군종사관선발 규정에 의해 군종장교 허용 최소 종단 기준이 군내 신자 수 2만 명에서 구체적인 신자 수 개념이 사라진 것이다. 본래 군내 신자 수 2만 명은 군종장교 배치 최소 단위인 사단급을 기준으로 사단 내에 최소 400명의 신자가 있을 때 종교 시설을 건립하고 군종장교를 배치하여 원활한 군종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여 정해진 기준이었다.¹⁴⁾

이에 비해 외국인 군종 분야의 전훈을 분석하여 볼 때 군종장교의 최적 기준은 장병 570명당 1명이나 현재 군에서는 장병 전체 기준으로 약 1,500명당 1명이, 신자 수로는 약 1,000명당 1명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국방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할 때 최적 기준은 현재로서는 산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소수 종단은 미군이 군내 신자 장병의 0.1%가 신도인 소수 종단에 군종활동을 허용하는 것을 예로 들어 최소 신자가 0.1%이상인 종교에 군종장교를 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

13) 기준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첫째, 사회통념상 종교로 인정되는 교리/조직을 갖추고, 성직자 양성교육제화 되어 있는 단체이고 둘째, 교리의 내용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 도덕심 함양, 정신전력 강화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셋째, 국민 전체 및 군내 신자 수를 고려한다.

14) 이종인·최광현, *op. cit.*, pp. 54~55.

런 요구의 결과로 2006년 4월에 시행된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에서는 병적 편입 대상 종교 선정을 위한 기존의 기준에 두 가지를 첨부¹⁵⁾하고, 신자 수 고려시 국민 전체 신자 수 2%, 군내 신자 수 1%를 기준으로 세우되 종교 편입이 결정된 종교에 한하여는 군내 신자 수가 미달될 시 의무적으로 1명의 군종장교를 배정하도록 하고 있어 2007년부터는 소수 종교 군종장교가 임관될 예정이다. 이런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시도되었던 소수 종교의 군에 대한 청원의 노력은 다음과 같다.

〈표1〉 소수 종교 청원 현황

종교	청원연도	접수기관	청원요지	처리경과(회신)
천도교	1968	국방부	군종장교 참여 청원	제도상 참여 불가
진각종	1996	국방부	종단 위덕대학교를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 대상학교로 지정 청원	조계종의 교리/의식과 다른점이 많아 지정 불가
	2001			조계종과 상호협의 후 요청 회신
	2002			
안식교	1996	국방부	종단 삼육대학교를 군종사관 후보생 선발 대상학교로 지정 청원	군내 신자 수 미비로 지정 불가
	2005			군종장교 운영심사 위원회에서 부결
천태종	2004	국방부	군종장교 파송 종단 지정 청원	조계 종단과 협의중

15) 두 가지의 기준이 첨부되었다. 첫째, 관련 종교 활동이나 의식 등이 불법이나 공공정책에 반하는 행위가 아닌 단체이고 둘째, 성직을 승인 및 취소할 수 있는 종교적 권위를 보유해야 하는 것이다.

〈표2〉 원불교 청원 현황

종교	청원연도	접수기관	청원요지	처리경과(회신)
원불교	1975	청와대 국회 국방부	불교의 1종파로 인정 군중활동 허가	· 문광부 및 조계종 조희 결과 신흥종교로 회신 · 국회 국방위 심의 - 신흥종교의 무분별한 군 내 유입 우려 감안 보류 결정
	1979	국방부	군종장교 임용 및 군중활동 허가	· 김재식 의원 등 4명 차 관 방문 - 보류 양해 구함
	1980- 1983(3회)	청와대 국보위 국방부		군의 제반 여건을 고려, 피요시 요청 회신
	1984 (5회)	국방부 정부합동 민원실 국무총리 실 민정당		· 원불교측 군내 신자 수 계시: 1,087명 - 실사 결과 신자 수 351명 - 군내 신자 수 미비로 군 종장교 임용 불가
	1999	국방부		· 원불교 서울교구장 등 4인 장관 면담 - 군내 실정 및 현행법상 수용 불가
	2001	국민고충 처리위원 회		현행법규 및 군내 제반 여건 고려시 수용 불가 (신 자 수 197명)
		국회		국방위원장 대면 - 유연한 사고로 검토
	2003	국방부		종법사 장관 면담 - 현 시점에서 수용 불가 - 신자 수 증대시 재검토
	2005	국방부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 부결
	2006	국방부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 가결

그러나 이러한 소수 종교의 병적 편입 대상 종교 선정 요구와 군종장교 임용 및 군중 활동 요구는 기존의 3개 종교와는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¹⁶⁾ 즉, 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군의 필요성에 의해 요청되는 측면보다는 소속 종단의 교세 확장의 장으로 군중 활동을 인식한다는 우려이며 이와 같은 우려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다.

군에서의 군중 활동과 군종장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특수한 조직과 문화체계 안에서의 활동이다. 그러므로 군종병과의 모든 기능은 국가와 군이 추구하는 목적에 먼저 부합되어야 한다. 이런 군종병과가 자기 종교의 선교의 장이 되고 교세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하려 한다면 군복을 입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¹⁷⁾

4. 외국군의 군종제도 및 군내에서의 종교정책

세계 국가 중 군종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45개국이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다. 또한 군종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으나 군내에서 종교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는 17개국¹⁸⁾에 이르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16) 참조, 군복음화보 제204호(2006.2).

17) 전호진, 「문명 충돌 시대의 선교」, p. 182.

18) 이집트,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모로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닌, 볼리비아, 르완다, 카메룬, 부르키나파소, 도미니카 등이다.

〈표3〉 군종제도 채택 국가

구분	주요 국가
아시아(9개국)	한국, 태국, 이란, 네팔, 필리핀, 파키스탄, 스리랑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유럽(18개국)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스페인, 스위스,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벨기에, 몰타, 그리스, 이스라엘
미주(11개국)	미국, 캐나다, 브라질, 파라과이,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트리니다드토바고
아프리카(7개국)	남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 케냐, 마다카스칼, 시에라리온, 부룬디, 잠비아

4.1 미국군

미국 군종제도는 남북전쟁 당시 양군이 전쟁 경험을 통해 군종목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군종목사를 임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¹⁹⁾ 이후 군종장교 제도가 발전되어 오다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기독교, 천주교, 동방정교 3개 종교가 군종장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유대교, 안식교, 이슬람교, 예수 재림교, 힌두교, 불교의 신자 수가 증대됨에 따라 군내 신자 수가 0.1%가 되는 소수 종교의 성직자도 군종장교로 임명하여 군종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군은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에서의 종교활동을 군의 필요성 원칙과 군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제한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부대 준비 태세, 부대응집력, 표준과 관행, 군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병의 종교활동과 종교 신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래서 미군은 1985년에 시행된 종교 합동집단연구를 통해 종교활동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다.²⁰⁾ 즉, 종교활동이 군의 요구에 우선할 수 없으며, 종교활동이 군의 임무수행 능력에 지장을 주지 않고, 질서, 군기, 사기에 방해되지 않으며, 건강, 복지, 안전을 촉진할 때 허용된다. 그리고 종교적 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는 국민의 종교적 구성을 반영하여야 하며, 군의 복장은 부대정신, 사기, 군기, 응집력, 공공 이미지 등에 명백히 중요하므로 허용 당사자, 다른 구성원, 군 외의 인원들의 심리적 효과, 안전과 건강, 부대임무수행 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종교적 복장 허용은 안전, 건강,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을 때에 한해서 허용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미군은 종교의식 허용 시

첫째, 개인 및 부대 준비 태세에서 군소요의 중요성

둘째, 종교의식 활동의 종교적 중요성

셋째, 당해 및 유사 종교 활동의 누적 효과

넷째, 대체 수단의 가용성

다섯째, 동일, 유사 사례의 선례 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군은 비록 종교 신행의 자유가 ‘군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제한이 가능’ 하나 많은 지휘관들은 ‘장병의 권리’로 인식하고 있으며, 군은 장병과 가족들의 종교를 최대한 지원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현재 220여 개의 종교와 종파를 가진 장병들이 군 복무를 하고 있다.

미군 작전에 있어서 군종활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1978년에 그 이전의 전쟁을 분석하여 군종과 관련된 교리를 정립하였고, 1984년과 1989년 등 지속적으로 교리를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미군은 수

19) 전호진, 「문명 충돌 시대의 선교」, p. 184.

20) 이종인 · 최광현, *op. cit.*, p. 35.

차례의 병력 감축에도 불구하고 군종장교는 증강²¹⁾하였고 이를 통해 군종 활동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미군의 군종장교 선발은 네 단계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첫째는 군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종교단체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둘째, 국방군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군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군내 진입종교를 선정한다. 셋째, 각 군성에서 정원을 책정하여 각 군별 모집 인원을 결정한다. 이 과정을 통과한 각 종교단체에서 군종장교를 추천하고 각 군성에서 군종장교를 선발하고 있다.

4.2 독일군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종제도가 운영되지 않다가 1957년 독일 정부와 독일 기독교협회와 군종 협약을 맺어 국가와 교회가 군복무 중장병들의 원활한 종교생활 여건을 보장해 주고 있다. 독일군은 국방부 법무실 산하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군종성직자 제도를 운영²²⁾하고 있으며 220명의 군종성직자와 다수의 민간지원 성직자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군 군종성직자는 계약직 연방공무원 신분으로 국가에서 보수를 지급하며 만 50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최대 12년까지 복무가 가능하다. 독일군 안에는 이슬람, 유대교, 동방정교 등²³⁾의 소수 종교인이 있으며 군내 신자 수 부족으로 군종성직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여건이 허락되면 민간종교시설을 이용하여 종교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군 사병들의 주말 외출은 자유로운 형편이어서 종교활동

및 상담 등의 군종활동은 주중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군의 군종활동은 교회가 주관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 부대장은 협력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4.3 프랑스군

프랑스군 군종은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3개 종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각 종교별로 군종감을 임명하여 각 종교 군종감 산하에 종교별로 군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²⁴⁾ 군종감은 민간인이며, 지위는 차관급 대우를 하고, 급여는 현역 중령급 급여를 받고 있으며, 민간 종단에서 추천된 사람을 군당국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전원 민간인 성직자로 구성된 프랑스군 군종은 정부에서 120명의 정원을 배정해 주고 3개 종교 군종감 협의에 의해서 종교별 군종성직자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개의 경우 각 종교별 신자 수에 의해 군종장교 배정 인원이 결정된다.

또한 7개 지역 사령부에 군종실을 운영할 때 통합군종실이 아닌 각 종교별 군종사무실을 운영하여 각 종교별로 군종활동을 시행하고 중요한 현안은 상호협의를 통하여 협력,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성직자의 군에서의 복무는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군내 이슬람 신자 수 증가로 이슬람 군종성직자를 임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군내 종교 활동은 부대가 격오지에 있는 경우는 영내에서 이루어지나 대부분의 경우 민간 종교시설을 이용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위의 연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인 전투 경험이 있는 군대²⁵⁾, 특히 미군의 경우는 성직자를 현역 군종장교로 임관시켜 군의 기본 목표

21) 미 육군의 경우 걸프전 이후 병력 25% 감축시 군종장교는 900명에서 1,200명으로 증강하였다.

22) 참조. 정부와 종교계 간의 민감한 법적인 사항들을 조절하기 위해 법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음. 국방부 여행 귀국보고서(2005. 10)

23) *Ibid.*, 군내 신자 수는 이슬람 20명, 유대교 5명, 동방정교 200명임.

24) 참조. 국방부 국외여행 귀국보고서(2005. 10).

25) 영국군의 경우도 303명의 현역 군종장교를 운영하고 있다.

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전투 경험이 없는 그 외의 국가들은 민간인 신분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군 목표 달성에 적극적인 기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민간인 군중성직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최대 복무 기간이 10년 내외인 이유로 민간으로의 복귀 문제로 인해 젊고 우수한 인력이 군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군중성직자가 일반 군인에 비해 고령화되어 원활한 활동에 제약이 예상된다.

그리고 군중성직자들은 군 지휘권을 보좌하는 참모기능 수행보다는 성직자로서의 비관 기능을 군중활동의 중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어서 군의 작전 시 군중 성직자의 효율적인 참모 역할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의 군중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군대 모두가 소수 종교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 군대는 장병 개개인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소수 종교 활동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으며 허용 시 군내 신자 수를 반드시 고려하고 있다.

5. 다종교 사회로서의 한국과 한국 군대 이해

한국 갤럽 옴니버스 조사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시된 종교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민이 57%로 비종교인 4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자세한 연도별 변화는 아래와 같다.²⁶⁾

〈표4〉 종교인과 비종교인

구분	1984년	1989년	1998년	2004년
믿고 있다	43.8	49.0	52.8	57.0
믿고 있지 않다	56.2	51.0	47.2	43.0
계(N=6,280)	100.0	100.0	100.0	100.0

한국은 1998년 이래로 종교인 수가 비종교인 수보다 많은 국가이며, 종교가 가지는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이다. 그러면서도 어느 특정한 종교를 국교로 지정하지 않은 종교 다원사회이다. 종교 다원사회에서는 종교 간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 관계 설정에 있어서 기독교의 입장은 크게는 배타주의(exclusivism), 포용주의(inclusivism), 다원주의(pluralism) 세 가지로 나뉘어지나 1930년대에 진보적 신학자들과 신교학자들이 아시아 종교를 연구하면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의 부족을 보충하여 준다는 성취설(fulfilment)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²⁷⁾ 배타주의는 초대교회로부터 19세기까지 복음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타종교에 대하여 배타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래서 타종교는 정복의 대상으로 이해하고 정복하려고 노력하였다. 포용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이다.²⁸⁾ 그래서 지옥은 존재하지 않고 사람들이 들어갈 천국만 존재한다고 하며 신정통주의 신학이나 일부 WCC 신학자들이 선호한다. 다원주의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으며 다른 종교도 동일한 구원에 이르고 하는 사상이며 기독교와 타종교를 동등하게 생각한다.

27) 전호진, 「선교학」(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2004), pp. 189~190.

28) 성경적인 근거로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라는 로마서 5장 18절에 기인한다.

26) 한미준-한국 갤럽, 「한국 교회 미래 리포트」(서울: 두란노서원, 2005), p. 62.

이 사상의 구원의 이론적 근거는 만인 구원론으로 타종교와 문화에도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남을 믿으며 교회 밖에도 익명의 신자(Anonymous Christian)가 있음을 믿는다. 칼 라너(Karl Rahner)는 비기독교 종교에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타종교인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익명의 신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한다.²⁹⁾ 이 사상과 유사한 입장에서 한스 쾅(Hans Küng)은 “신자 이전의 신자”³⁰⁾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잠재적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성취설은 기독교가 타종교를 진리와 거짓으로보다는 우월과 열등으로 보는 사상이며 기독교가 타종교의 부족을 채운다는 사상이다.³¹⁾ 성취설은 20세기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기독교와 타종교의 연속성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첫째, 비기독교 종교와 문화에 나타난 계시, 둘째, 타종교에도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로고스의 존재, 셋째, 비기독교 종교의 신(神)·영(靈)·생(生)·사(死) 등의 용어 사용을 들고 있다.³²⁾

국민 전체가 자유롭게 다양한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다종교 사회로서의 한국에 있어서 종교간의 바른 관계 설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종교의 부흥과 이데올로기화는 불가피하게 종교간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³³⁾ 이와 같은 현상은 인도 카슈미르에서 전개되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종교전쟁, 중동에서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와 회교 간의 충돌, 스리랑카에서의 기독교 탄압, 수단에서의 이슬람과 기독교의 전쟁 등 이루 말할 수 없고 한

29) *Ibid.*, p. 198.
 30) *Ibid.*, p. 199. 사람은 그의 역사적 정황에서 그가 믿는 종교 안에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며 기독교 선교는 무례한 개종이 아닌 신자 이전의 신자들을 참 영적 중심인 그리스도에게 초청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1) *Ibid.*, pp. 193-197.
 32) 성경적인 근거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밖에서 자연과 양심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성경을 제시한다(행 14:15, 17; 롬 17:23-29, 2:11-15).
 33) 전호진, 「문명 충돌 시대의 선교」, pp. 166-168.

스 쾅(Hans Küng)은 “종교의 평화가 없이는 세계의 평화가 없다”고 호소하며 종교간의 대화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부조직 내 중무실을 설치하여 이와 관련한 업무를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 군에서의 종교 이해 역시 종교 다원사회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군이 가지고 있는 목표의 특수성, 즉 종교에 관계없이 건장한 젊은이들을 군에 입대시켜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근본적으로 군이 가지는 목표에 비추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군은 군내의 종교가 배타적이고 공세적이고 편협적인 종교가 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군 안에서는 기독교가 가지는 배타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전호진은 그의 저서³⁴⁾에서 기독교의 배타주의에서 “신학적(교리적) 배타주의”와 “사회적 배타주의”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신학적 배타주의는 기독교에 근간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며 이는 기독교를 이루는 핵심사상이다. 이것은 사회적 배타주의와는 구별이 되어야 하며 신학적 배타주의는 사회에 순기능을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그 순기능을 전호진은 그의 저서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³⁵⁾

건설적이고도 건전한 종교적 확신은 사회에도 생명력을 제공한다. 문화인류학의 재생설 이론(revitalization theory)에 의하면 사회는 생성, 발전, 쇠퇴,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쇠퇴의 단계에서 재생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소멸한다는 것이다. 혼란과 쇠퇴기에 재생운동은 종교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재생운동은 자기 종교에 대한 강한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34) *Ibid.*, p. 192.
 35) *Ibid.*, p. 178.

신학적 배타주의와 사회적 배타주의는 혼돈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종교도 교리적인 확신은 양보하지 않는다. 교리적 확신을 수용하지 않고 문제제기하기만 한다면 이는 종교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리적 확신을 비판하기보다는 교리적 확신이 생산적으로 표출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는 것이다.³⁶⁾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타종교인을 정죄하고 정복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소망을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사회생활에 있어서 신앙인 어느 누구에게도 배타적인 자세를 가질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³⁷⁾ 그러나 한국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의 신학적 배타주의가 사회적 배타주의로 나타난 경우가 분명히 있다. 이런 자세는 이제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교간의 협력이 종교 통합이나 종교 혼합이라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 신앙 본질의 훼손이 없다는 가정하에 혼합주의를 옹호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지만 이는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다. 나이로비 총회에서는 “혼합주의란 다른 종교의 요소들로 구성된 새로운 종교를 창조하려는 인간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시도”³⁸⁾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러한 시도는 바른 시도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에는 두 가지의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특정 문화 상황을 위해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또는 대화에 참여하는 다른 종교에 접근하면서 너무 지나치게 그리스도교적 신앙과 삶의

확실성을 절충하려는 위험이 있다. 둘째, 종교를 그 자신의 용어가 아닌 다른 종교의 용어로 해석하려는 경우이다. 이러한 시도는 바람직한 시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종교간의 협력이란 각 종교의 본질적인 고백은 분명히 하되 그 종교의 본질이 사회 속으로 펼쳐질 때 배타적으로 되지 않도록 상호 존중하는 태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한 군 내외의 폭넓은 연구와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6. 소수 종교 청원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1975년 이후 소속 종단의 성직자를 군에 군종장교로 받아들여 줄 것과 군종활동을 하게 해 달라는 청원은 마침내 2006년 4월 군대 내 종교의 자유 보장과 소수 종교를 믿는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취지 아래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³⁹⁾ 이런 우려는 아래와 같다.

첫째, 건전한 신앙생활을 통해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사고 예방을 통한 신앙 전력화에 기여하기 위해 청원을 한 것보다는 소수 종단의 포교활동을 위해서 청원하였다는 우려이다.

둘째, 기존 종단의 군종장교들이 군대 신자 수 약 2%당 1명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에 특수 종교만 1%에 1명을 운영하는 데서 오는 종교간 불공평성에 대한 우려이다. 이로 인해 기존 종단도 군대 신자 수 1%당 1명의 군종장교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한국국방연구원이 제시한 자료⁴⁰⁾에 의하면 군에 소수종교가 진

36) *Ibid.*

37) 이는 성경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즉,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38) 윤병상, 「종교간의 대화」(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pp. 313-314.

39) 군복음화보 제204호(2006년 2월) 발췌.

40) 이종인·최광현, *op. cit.*, p. 23.

입시 각 종교의 원활한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10명이 임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진입 요청을 받아들여 향후 전개될 인력 운영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이다.

넷째, 소수 종교의 군내 진입시 기준이 국민 전체 수 2%인데 2006년 결정시 2006년 전반기에 발표될 정부공식통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1995년에 발표된 통계를 기준으로 결정하여 결정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우려이다.

다섯째, 상기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의 종교 진입은 자칫 이단, 사이비 종교의 진입도 허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대 혼란에 대한 우려이다.

군종장교 운영심사위원회에서 소수종교 진입 결정은 군종제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핵심적인 것은 철저한 군종장교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요구일 것으로 예측된다. 군에서는 미래 전장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⁴¹⁾ 전쟁에서의 비인간화 현상은 가속화되어 전쟁에 임하는 장병들이 엄청난 전투 스트레스, 가치와 윤리의 혼란, 자아 상실감, 심리적 균형 상실, 전쟁 후유증, 사회 부적응 등 다양한 병리 현상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래서 향후 군은 군종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군종장교에게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요구할 것이다.⁴²⁾

첫째, Care-giver team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장병과 육체적·정서적 일체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직접 및 일반 종교 지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휘관의 참모

역할에 충실하고, 문제 상담, 인격지도, 분노 조절, 자살 예방 및 사고 예방 등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종교간 상호협력을 통해 원숙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더더욱 군종장교가 종단 대표가 아닌 군종참모가 되도록 군은 요구를 할 것이며 아울러 여성 군종장교의 진입도 가까운 장래에 결정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7. 맺는 말

군종제도는 군에서 필요로 할 때 존립이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활동과 종교간 협력의 중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외국군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독교, 천주교, 유대교 및 이슬람교를 같은 “아담”의 후손으로 통칭하는 등의 공통점을 찾아 협력하여 군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군 안의 군종병과는 군이 필요로 하는 활동을 증대하고 있으며, 배타주의를 극복하고 성숙된 종교 활동 및 상호 존중에 입각한 군종 활동을 펼치고 있고, 군에 기여하는 군종상 확립이라는 공통점을 찾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에 군 안에서 소수 종교의 진입 및 활동 역시 제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기독교도 교리적 확신 위에서 다른 종교와 협력하고 군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활발히 연구하여야 할 것이며 기독교 장병들의 병영생활이 사회적 배타주의로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도 군의 필요성 원칙과 요구에 철저히 부응함과 동시에 그 신앙이 사회적 배타주의로 나타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협력하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그리고 군종 정책을 결정하는 국가도 신학적 배타주의와 사회적 배타

41) *Ibid.*, pp. 51-52.

42)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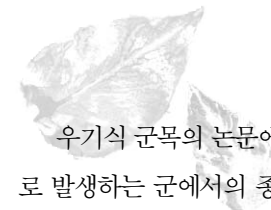
주의를 혼동하여 잘못된 정책을 수립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 소수 종교 진입 시 모든 관계자가 동의할 수 있도록 분명한 원칙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본 글은 2006년 6월 15일 "제6회 군선교 신학 심포지엄" 발제 논문입니다.

“진중에서의 소수 종교 정책”에 대한 논찬



전호진 목사



우기식 군목의 논문에 감사 드린다. 현역으로서 소수종교를 포용함으로 발생하는 군에서의 종교 갈등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군종병과에 기독교 독점의 시대는 사실상 월남전 때 군승 파송으로 종결된 것이다. 그때부터 종교전쟁이 본격화되었다고 본다. 1974년도에는 합동세례식이 한때 중단되기도 하였다. 물론 타종교의 항의가 중요한 원인

■ 전호진 목사

- 미국 플러신학교 선교학 박사
- 영국 웨일즈대학교 철학박사
- 전 고신대학교 학장, 고신 교단 총무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법인이사 /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한반도국제대학원 교수

이라고 생각한다. 우 군목은 군중병과의 성격 설명, 군대사회 분석, 군과 소수 종교, 외국의 군중제도, 소수 종교 청원의 문제점과 전망을 정확하고도 예리하게 설명하였다. 특히 소수 종교의 청원 사항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 만약 그 많은 소수 종교와 이단마저도 군중 파송을 고집한다면 군대는 종교 전쟁터가 될 것이다. 특히 소수 종교의 동기를 잘 파악해 보면 국가적, 사회적 목적보다도 포교 목적이 주요 동기인데, 과연 파생적 종교가 보편적 가치관, 이념, 윤리를 제공하느냐를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불행한 것은 사회 분위기와 정부 정책이 반기독교 정책으로 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금치 못한다. 기존의 이념과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 이것을 흔들 수 있는 주체가 정부나 기관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목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에 적절한 균형과 고도의 지혜가 요구된다. 국가가 요구하는 충성에 이념적으로, 신앙적으로 배치된다면 할 수 없이 할말은 해야 될 것이다. 물론 불이익은 예상해야 한다. 체험자로서 말하는 것이다.

1.질문

우 군목은 서구 군중제도를 잘 소개하였다. 미국이나 독일 등에는 이슬람 군목까지 있다. 그러나 서구 군대에서 종교 갈등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만약 우리 군의 갈등을 말한다면 안 믿는 자들이 서양은 잘 공존하는데, 한국은 “별나냐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가 ‘뽀죽하여’ 종교전쟁이 난다고 기독교에 덮어 씌운다. 1998년도 소령급 이상 군종장교 대상 종교 갈등 세미나에서 서울대학교 종교학 교수, 불교, 심지어 천주교 발표자까지 기독교를 공격하였다. 기독교가 갈등의 주범이라고. 그래서 필자가 기독교를 대표하여 사회적 구원론과 신학적 구원론으로 응수하였다. 그리고 모든 종교도 다 자

기 종교는 절대라는 것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2. 종교의 도전 상황

타종교의 도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가치관 도전: 유교

유교 군목은 없으나 아직도 조상 제사 문제가 신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짐이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무서운 도전은 유교적 가치관 논리이다. 1990년대 경제 성장은 도리어 아시아 가치관(Asian Value)이 부각되면서, 유교가 경제 성장에 원천이라는 이론이 서구학자들에게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유교의 경제적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다. 허만 칸(Herman Kahn)은 아시아의 소위 ‘5용(五龍)’을 Neo-Confucian Cultures로 정의한다. 영국 다윈주의 신학자 존 힉은 불교와 신도적 일본은 경제선진국으로 말하면서 이들 종교를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식으로 학문적 차원에서 전통 종교를 치켜세우는 것은 기독교에 엄청난 도전이다. 지성인들을 빼앗아 갈 소지가 너무 강하다. 개신교만 근대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한다는 막스 베버의 이론이 도전받고 있다.

2) 불교의 학문적 도전

불교는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공격한다. 1990년대 기독교 부흥과 성장에 불안을 느낀 불교계는 비디오를 제작하여 기독교는 불교에서 배워 간 종교로 가르친다. 예수님이 인도에 와서 불교를 배워서 산상보훈 같은 교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서구 사람들이 쓴 기독교를 폄하하고 불교를 높이는 이론적 서적들을 번역하여 배포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을 들면 로이 아모르의 「성서 속의 붓다」, 라다 크리슈난의 「석가와 예수의 대화」, 오소 라즈니쉬의 「기독교와 선」 등의 저서들이

다. 이 저서들은 기독교의 절대성을 거부하거나 도리어 불교에서 배우거나 공통된 것이라는 식으로 기독교를 폄하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몇몇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산상수훈을 읽을 때면 누구나 그것이 불교의 범구경을 요약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붓다의 도덕적인 가르침과 산상수훈은 대단히 닮았다.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려라, 미운 자에게 선을 베풀고 원뺨을 때리면 오른 뺨을 내밀어라. 겉옷을 요구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어라……예수의 이러한 가르침은 붓다의 가르침일 뿐 아니라 붓다의 제자들에게 의해서 엄격히 실현된 덕목들이다.

로이 아모르 지움, 류시화 옮김, 「성서 속의 붓다」(정신세계사, 1996), p. 24.

라다 크리슈난은 힌두교 사상가이지만 서구 기독교 문명을 공격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학자이다. 그는 노골적으로 인도 사상이 서구와 기독교에 미친 영향을 주장할 정도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산상보훈을 인용하면서 불교 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간디 역시 영국의 감리교 신자의 가정에서 식객 노릇을 하고 역지로 교회도 출석하였으나 신자는 되지 않고 산상보훈에서만 은혜를 받았다고 자서전에서 말한다. 불교는 신학적으로 폴 킬리히 같은 신학자의 말이나 용어를 이용하여 기독교를 역공한다. 즉 폴 킬리히 같은 미국 신학자도 하나님을 절대적 인격자로 말하지 않고 절대적 존재, 궁극적 실제 등 불교적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불교적 신관에 굴복한 것

으로 해석한다. 종교다원주의 신학자 존 힉은 인도의 힌두교에서 배우고 감화를 받아 종교다원주의 신학을 발전시켰다.

그런데 한국 불교는 군승들이 기독교의 적극적 선교를 배워 도리어 자기들의 종교를 공격적 불교로 전환시키고 말았다. 기독교가 가르쳐준 셈이다.

3) 종교다원주의 신학의 도전

전통종교의 도전에서 가장 무서운 도전은 아마도 종교다원주의 신학의 위협일 것이다. 종교다원주의 신학은 서구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기독교의 절대성을 포기하고 아시아 전통 종교에 손을 들어주는 기독교의 항복문서나 다름없다고 본다. 대표적인 신학자는 영국의 장로교 목사인 존 힉이다. 이것은 아시아인들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 주는 이론이다.

4) 관용이 우상이 되는 시대

타종교의 도전보다 더 무서운 것은 ‘관용’이라는 우상이다. 현대는 다원주의적 관용(tolerance)이라는 언어가 종교적 우상이 되어 배타주의는 독선주의로 정죄 당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타적 기독교는 결코 인간관계에서는 배타적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배타적이란 어디까지나 신학적 개념으로서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의미에서 배타이지 인간을 무조건 배타하라는 뜻은 아니다. 현대 기독교 교회 성장이 정체되는 현실에서 기독교 신자들은 더욱 겸손과 사랑과 지혜로 처신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기독교 신자들이나 선교의 잘못된 처신으로 인하여 복음주의 선교운동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부당한다—기독교 선교운동은 종교적 제국주의로서, 서구 식민주의와 우월성의 부산물이며, 기독교 선교는 토착문화를 파괴한다는 것이다.

3. 군대에서 바람직한 선교는?

먼저 싸워서 안 된다. 그러나 양보할 수는 없다. 배타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배타적 모델에 근거하여 선교를 해야 한다. 우 군목께서 필자의 저서를 참고하여 감사드린다. 타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메카니즘이 없고 오직 기독교는 선교를 통한 회심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믿는다. 회심이란 인간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는 종교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다. 만약 기독교가 성령의 역사를 통한 중생을 무시한다면 종교로서 사회적 가치와 기여를 상실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아시아의 사람들은 종교에서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고 기대한다. 그러므로 방법은 가장 부드럽게 해야 한다. 그러나 사상은 강해야 한다.

둘째로 종교에서 회심의 거부하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종교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종교의 자유가 없을 때 그 사회는 출판, 언론, 교육,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기 어렵다.

셋째로 기독교는 비관용이라고 말하는데, 종교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 결과를 가지고 적절하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제안한다. 먼저 기독교는 배타적 종교라고 말하지만 아시아는 전통 문화와 종교의 보존이라는 명분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더욱 배타적이다. 기독교적 서구가 도리어 이민을 받고 있다. 지금 미국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타종교 이민으로 비기독교 국가가 되었다고 설교할 수 있다.

넷째로 기독교인들은 아시아 종교의 희생자라고 말해야 한다. 만약 불교, 유교 등 전통 종교가 좋았다면 왜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가?

다섯째로 기독교를 서양 종교로, 비애국 종교로 말하는 자들이 많다. 기독교가 도리어 동양종교이고 힌두교, 불교는 아리안 종교이다. 인도학자가 말한다. 그런데 아리안은 서양에 속한다. 히틀러는 아리안 인종 우월

주의를 외치면서 유대인 학살을 자행하였고 이란에 협력을 구하였다. 같은 아리안인으로 손을 잡자고.

마지막으로 소수 종교와 불교에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제의해야 할 것이다. 종교의 결과가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말이다. 이것은 윤리, 태도, 봉사, 희생, 충성 등에서 생각해 볼 일이다.

군 개혁 2020에 따른 군선교 2020의 전략

- 누가 군대의 이웃인가? -



허영식 군종목사

환자는 자신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증세가 어떠한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 환자가 병원에 갔다면 자신의 병명을 의사에게 듣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또한 의사는 환자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는 것보다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켜서 자신의 병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도록 믿음을 주어야 한다. 나는 종군목사로 15년을 사역하는 동안 방문하는 선교단체나 교회가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사의 의견을 물어 온 적이

■ 허영식 목사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해군사관학교 해사교회 담임목사

거의 없다. 대부분 이런식이다. ‘본 교회가 중창단을 데리고 위문을 간다. 얼마 가지고 간다. 그리고 그지역 방문이나 구경할 곳 좀 준비해 달라, 우리 교회에 예비역 장성이 있으니 지휘관과의 면담을 주선해 달라’는 것이 군부대 방문자들의 거의 통일되어 있는 각본이다. 군 현장을 진단하고 있는 종군목사의 의견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성경에서 강도를 만난 자의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나?’ 아무리 명분이 있는 이유가 있어도 강도를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은 그의 어려움을 돌아봐 준 그 사람일 것이다. 군선교 환경이 군 개혁 2020에 의해 많이 바뀌게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 선교의 시작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군대가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될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일까?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우리일까? 아니면 젊은 자매들이 날마다 중창을 해주는 단체일까? 나는 부산의 한 선교회가 목사의 한 해 선교 계획을 듣고 싶다는 말에 큰 감명을 받았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 그 선교회를 나는 신뢰하고 있다.

과거의 군대는 배가 고프고 저변의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 시대에는 배를 채워주고 손을 잡아 준다면 어떤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 마음을 열었다. 군인들은 종교에 상관없이 모두 교회를 그리워했다. 기독교의 이미지는 군대에 커다란 긍정성을 갖게 되었다. 예배 때는 줄고 찬양 때는 고향을 지르고 정말 신자인가 점점이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분명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부대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 기독교를 무조건 싫어한다. 이유는 배타적이고 타종교를 무시하고 너무 요란하고 등등이다. 왜 그렇까? 예전에는 더 신앙에 대해 무지했는데 50%의 기독교 종교 활동자를 자랑하는 지금은 왜 더 나빠지고 있나? 군선교를 통해 2020년에 이 나라에 도움을 주겠다고 온 교회가 다 나뉘었다. 그러나 군대는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은 것을 느낀다. 우리 기독교의 고향소리를 좀 줄이면 군대의

소리가 들릴 것 같다. 군대의 소리가 들리는가? 소비자의 소리가 무엇인지 듣지 않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현명하지 않은 것이다.

군대에서는 군 개혁 2020이란 소리를 내고 있다. 이것은 군의 비전을 담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는 군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군 변화에 우리의 새로운 기독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에 귀를 기울여 주고 다가가야 한다. 그 행동만으로도 우리를 이웃이라고 말해주는 우리의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첫 단추로 현장의 변화와 기독교의 갈등을 다루고 두 번째 단추에 우리 기독교의 새 방향과 우리의 비전을, 그리고 셋째 단추에서 군 환경 변화로 인한 고민과 결단, 네 번째 단추에서 우리의 결단, 구체적인 방법을 원론적인 수준에서 제시하고 마무리를 하겠다.

본인은 이 작은 작업이 종군목사로 사역한 내 자신의 성찰이며 동료 선후배간의 비전 나눔이 되기를 기원한다.

첫 번째 단추: 현장의 변화의 소리(군 개혁 2020)

1. 현장의 변화

국방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 1) 정보,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쟁 양상이 급속히 변화
- 2) 우리 군은 아직, 병력 위주의 대군 체제를 유지
- 3)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속에서 우리 군의 작전 기획, 수행 능력 발전 소홀
- 4) 국방 운영 전반에 비효율성 잔존
- 5) 전 근대적 병영 문화의 지속, 대군 신뢰 저하로 보고 있다.

국방 개혁 2020의 주된 요지는 다음과 같다.

21세기 장군을 만들기 위해서 2020년 군을

- 1) 정보 지식 중심의 첨단 정보과학군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바꾸고
- 2)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군으로 효율적인 국방력 건설 및 운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성 있는 군으로 만들며
- 3) 선진 한국의 위상에 부합되는 국방운영체제를 구축하고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운영 체제를 구축
- 4)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군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새로운 병영 문화를 정착시킨다.

이를 위해 2020년을 목표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법제화를 통해 일관되게 국가적 과업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군이 자발적으로 개혁을 주도할 것이며, 이는 국민의 지지와 참여가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군의 전체적인 규모는 현 68만여 명에서 50만 명 수준으로 줄게 될 것이다. 각 군은 전문화된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와 운용의 중요성이 증가될 것이다. 이 전문화된 인적 자원이 군에 남게 되고 군은 능력 있는 인재를 초청해야 한다. 이런 인력은 국민의 공감대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민군의 긴밀함을 유지해야 개혁 추진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 1) 국방부의 공무원 직위를 확대하고
- 2) 국방 민간 인력을 확대하고
- 3) 국방 주요 직위지는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국방 주요 직위자에게 이제는 능력뿐 아니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현대화된 무기의 획득과 국방 업무는 규모가 무척 커질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 획득의 투명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국방 예산도 많이 필요로 하는데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통해 국민에게 공감대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전문성은 신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개된 국방 관리 체계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목적과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객관적인 과정과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모든 개혁에는 민군의 관계와 현대화된 군 안에서 사람의 관리와 인간성이 중요한 문제로 점점 대두될 것이다.

이제는 군대도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는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 국방 개혁에서 군대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삶의 장으로 혁신하려고 한다. 나는 더 적극적으로 군 자체가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우리의 열정

이런 군의 변화는 군선교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은 앞으로 만들어 갈 군대의 모습이며 이 군대의 비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군대가 수적으로 줄어서 목표한 인원을 가지적으로 보여주지 못할 것이라 군선교의 내적 고민을 가지게 된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과 군목과 그리고 가능하고 필요한 조직에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 이제는 열정을 가지고 요구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군대의 진정한 관심거리는 종교계에 혁신을 요구했을 때 종교계에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인가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적 구호와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군 개혁의 현장에서 기독교가 신뢰와 공감대를 갖기도 전에 우리는 75% 기독교 신자화를 외치고 있다. 이로 종단간의 갈등과 부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접촉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전 병력의 75%이상을 접촉하여야 하는데 지금은 타 종단에서도 자

신의 신도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세례 숫자가 줄면서 생기는 목표의 하향화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한 묘수를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의 소리를 듣고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군에 더 많은 요구를 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소비자의 필요를 듣기도 전에 우리 물건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이해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우리는 좀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소비자의 욕구와 변화 그리고 그들의 관심들을 민감히 살펴야 한다.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현역 중심의 선교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군대의 민감한 변화에 가장 빠르게 접촉하고 있고 느낄 수 있는 군교회와 그곳의 중군목사의 소리가 잘 수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비역들은 울타리요 후원자가 되어야 한다.

군목들도 군 현장의 전문성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군선교는 전문 사역자다. 군대의 목표를 가지고 집합된 단체이며 군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들은 민간과 구별된 생활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관리하고 양육하는 사람은 준비된 사역자이어야 한다. 또한 군 개혁 2020의 새로운 환경에서 군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신실한 사역자로는 부족하다. 군을 알고, 군인과 대화가 되고, 그들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군목의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민간인 사역자를 채우면 된다는 발상도 전문성을 무시한 발상이다. 군의 새로운 요구에 따른 군교회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는 군선교가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이제는 선교 시 장병들을 겸손히 이해하고 그들에게 들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시스템을 통해 일하지 않고 개인의 역량을 통해 일하다 보니 선교의 굴곡이 심하다.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따라 일하는 가운데 서로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군 현장의 변화에 각각 다른 반응은 군대에 기독교의 이미지와 역량을 드러내는 데 강력하지 못하게 한다. 또한 군의 변화에 따라 일관된 교회의 모습과 지속성을 가지고

현장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러 소리와 다른 반응은 군이란 조직에 확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없다. 민간 교회는 교회의 지도자를 보고 모여 있는 공동체다. 그러나 군은 부대의 특성과 군교회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 군목사가 파송되는 형국이다. 따라서 군목은 부대의 특성에 맞는 목회를 해야 하며 또한 그 목회는 인수 인계되어야 한다. 각 군교회는 목사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청중과 신뢰의 관계가 없으면 효과는 약해진다. 지금 선교의 현장은 기독교의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먹을 것을 많이 주는 종단에 참석을 하던 시절에는 긍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단순 명확했다. 빵을 많이 주면 그들은 교회로 나왔고 그 덕에 세례도 많아졌다. 이때 한국 교회는 이 모인 자들을 가르쳐 성숙시키려 하지 않고 모으는 일에 대해서만 타당성을 논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질적인 성숙의 문제를 들고 나왔다. 예수님도 빵을 먹이시면서 자신을 이해시키셨듯이 우리는 군인, 그중에서도 불신자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약해졌다. 군에 많은 신자들이 있다 보니 이제는 선교적 설교보다 성화적인 설교가 많아지는 추세가 아닌가 한다. 군교회도 이제는 새신자가 들어오는 것보다 전출입을 통해 이동하는 교인들로 운영되고 있다. 기독교 신자가 많아지면서 언제부터인가 군을 위해 봉사하는 이미지에서 기독교의 주장을 하는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지 못하면 부대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지는 이야기는 우리의 활력 있는 사역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군선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모습이 있다. 각 교단과의 화합과 군목 상호간의 동역자 의식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복음에 대한 진실성을 드러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3. 우리의 고민

부대는 점점 대국민 관계가 강조되고 긴밀해야 하는 이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독교의 75% 기독교신자운동을 반길 수만은 없다. 국민의 다수가 타종교의 화합을 언급하고 있으며 불교와 천주교의 화합의 행보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강하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사업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산행과 같다.

한국 군교회는 그간에 모아 놓는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 숫자적으로는 50%가 되어가고 있지만 신앙 성숙도는 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신도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또한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분위기도 증가해서 말씀을 개인의 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신도들 중에 상당수가 부담되는 선교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군목들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군선교 현장에 군사역의 전문적인 사역에 대한 부족도 우려가 된다. 군의 특성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사역이 되지 않고 자신의 사역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부대와의 갈등이 부정적인 요소로 나타나기도 한다.

민간교회와 선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관심과 이제는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부대 대부분의 견학은 관광을 겸하여 일부 부대에 집중되면서 부대 일정과 상관없이 자교회의 예비역을 통해 교회의 교세와 성도의 즐거움을 채우는 순서로 일관되고 있다. 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인의 군함 승조에 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이다.

75%의 신자를 만들려면 장병 100%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군선교를 위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군목들의 단순한 열심과

헌신으로 선교하기보다 선교의 시스템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불신자들의 눈에 보이는 교단적인 복잡함이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 13개 교단의 상호이해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전이라는 것은 내용과 장차 변화의 기대를 공감해야 하는데 75%라는 결과만을 요구하면 그것은 힘을 극대화할 수 없다. 개혁주의 그룹의 신학의 큰 테두리를 형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군 가족들은 이동이 많다. 군목도 이동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군교회의 양육의 통일성을 이룰 수 있는 양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군대교회의 빈번한 이동에 강한 통일된 양육 프로그램이 없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군목의 목회적 협력과 결단이 필요하다. 성도들의 체계적인 양육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군 선교에서 어려운 일들은 외부적으로 볼 때 군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 내부의 문제가 에너지를 잃게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군목들 상호간에 동역자로서의 관계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두 번째 단 주: 우리의 할 일

1. 출발점

그렇다 하더라도 부대의 개혁과 변화의 움직임에 종교계가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이 변화의 시작은 군의 소리를 듣는 것부터 해야 한다. 교회가 군의 개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부터 찾아야 한다. 우리는 군선교 2020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신앙이 없는 자들, 다시 말하자면 미래에 75%의 신자 안에 들어올 잠재인들이 기독교에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목표가 전국민의 75%라면 불교와 천주교

와 이단과 무속에서도 다 와야 하는데 그들의 귀에 들어 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좋은 이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힘 있는 단체가 부대 행사를, 그것도 종교행사를 자주한다는 인식에서는 열심을 낼 수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를 수 없다. 지금 우리의 전도는 신자 그룹을 중심으로 조금 더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다. 군선교 방문의 대부분은 교회의 위문을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면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이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운동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신자들의 성숙을 이루는 데는 유익하지만 타종교자들과의 구분점은 되어도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는 어렵다.

선교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먼저 부대와 좋은 이웃으로 관계를 열어야 한다. 타종교도 이제는 군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포교의 목표나 종교적 요구를 부대에 드러내지 않고 있다. 그들의 요구에 부대가 부담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오히려 기독교의 말에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부대에 편안한 종교인으로 부대와 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대의 파트너로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대의 개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 아쉬운 부분들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위해 몰아치는 듯한 요구는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불신양인들의 눈에는 교회의 극성으로 보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를 강조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우리의 목표를 따뜻하게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와 부대가 편안하게 접촉할 수 있는 선교 양태를 만들어야 한다.

군교회가 부대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미지도 약하다. 특히 초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목사에 따라 교회마다 맛이 달라서 새롭게 적응해야 하고 새로운 양육을 받는 느낌을 갖게 된다. 군목이 각자가

알아서 하는 양육이 아닌 군 신자들에게 적합한 양육 시스템을 세우고 전 군교회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받아온 양육을 지속적으로 받고 군목들도 그들을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성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신도들도 이제는 모여 주는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고 군대 생활 속에서 신앙이 적용되어야 하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 그래서 군내에 기독교인의 삶의 흐름과 문화를 만들어서 군 안에서 신앙의 삶도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목표에 빠르게 가려다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과장된 거짓말을 할 때도 있다. 기독교의 배타성이 왜 문제가 될까? 소비지는 유일하게 먼저 만들었다는 가전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정말 자신에게 유익하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더욱 사려고 한다. 신자들이 정말 신앙 때문에 행복해 하는 모습이 불신양자들에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복음에 화가 나 있는 것이다. 급하다고 다 익지 않은 빵을 내놓을 수는 없다.

각 교단의 파송 군목은 군선교에 실제로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군선교에 통일성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신실하다는 것만으로는 군선교를 할 수 없다. 군선교의 비전과 은사가 있는 사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개발하고 가르쳐서 군선교의 현장이 전문 사역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군에서 느끼는 군교회의 선명한 이미지와 군교회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을 때 군에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필요로 할 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군인교회는 목사의 영성과 열심과 아울러서 각 부대의 특성과 각 부대의 역할에 따른 목양의 형태와 비전이 달라야 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각 부대와 각 교회의 비전에 따른 각 군교회 목회 메뉴얼을 작성하였으면 한다. 군목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수행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군목이 새로운 아이템을 군 목회에 적용하고자 하지만 전문 인력이 없

다. 부대의 환경의 변화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현장의 사역자들이 말하지 않아도 쏟아져 들어가야 한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는 기관을 통해 군목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부대의 생활과 동떨어진 하늘의 신앙을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군인들의 생활과 마음을 알아주고 부대의 일정과 교회의 설교와 기도가 함께 가는 군인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의 군선교는 각 기관이 다 주체가 되어 있다. 각 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의 체계를 고려해 보면 좋겠다. 우리의 군선교 기관들은 아주 커졌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군선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있는 머슴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군선교의 일선에 있는 군목들에게 과업을 맡기지 말고 먼저 돌아봐 주어야 한다. 군의 현장을 이해하는 노력, 이미지, 군목의 전문소양 훈련, 군교회로서 각 교회의 비전과 군목의 헌신, 그리고 공감, 각 선교 기관들의 역할 분담과 하나 됨, 무엇보다도 조용한 선교가 중요하다.

2. 우리가 가진 것(기독교의 장점)

기독교의 비전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교의 열정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숙은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이 기도를 통해 영적 감성이 형성되었다. 이 마음은 불쌍한 이웃과 상한 심령을 끌어안을 수 있다. 그렇기에 한국 교회는 선교의 현장에서 자발적인 헌신을 쏟고 있다. 이 풍성한 감성 위에 하나님의 군선교 비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확히 그리고 정돈된 지도를 받는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 비전의 핵심은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군 신자가 몇 %인가는 열매요 그 결과이다. 몇 %를 달성했는가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지, 목표가 될 수 없다. 우리가 만나 본 생생한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복음에 대

한 열정이 한국 교회에 풍성하다는 것이다.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하나의 성과와 업적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확신과 성숙함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더 큰일도 보게 하실 줄로 믿는다.

우리 한국 교회는 군선교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군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성직자도 많다. 일단 장병들의 인식에 교회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도 긍정적이다. 한 번이라도 들리보고 싶어하고 인지도가 타종교에 비해 높다. 또한 청년들의 선교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타종교에 비해 청년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

각 군마다 교회의 건물이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다. 따라서 이 자원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비전과 역할을 제대로 분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꿈은 기도만 한다면 분명하게 찾을 수 있겠지만,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교단의 헌신과 자신의 포기가 있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많은 선교적 프로그램과 교육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군 현장에 맞는 것으로 발전시키기만 하면 된다.

3. 우리의 꿈(성취)

이 나라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은 꼭 이루어질 것이다. 군교회를 통해 이 나라의 젊은 영혼을 구하실 것이다. 한국 교회에 군선교와 세계 선교의 영적 기도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도 꿈의 성취 과정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다. 이 가운데 우리 선교의 대상인 군의 여러 환경의 변화는 그들의 요구이며 우리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역할을 체계화하여서 일관되게 군 개혁에 도움을 주는, 그리고 군의 이웃으로 동반자가 될 것이다. 이제 군은 교회에서 전하는 말을 친구의 말에 믿음을 가지고 대하듯 마음을 열 것이

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복음도 기쁨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호응을 지속한다면 기독교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순교자적인 헌신과 결단의 용기가 필요하다.

군대는 우리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에 고민과 아픔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말하기 전에 그들은 교회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비록 교회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많은 장병들은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나라에 많은 사찰들이 경매에 나올 것이다. 왜냐면 각 사찰을 유지할 신도가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 주: 군 환경 변화로 인한 고민과 결단

1. 자세의 전환

군의 개혁이 정보 지식을 중심으로 한 기술 집약형 군으로 간다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숫자적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선교를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숫자적 의미를 강조하다 보면 군대 내의 분위기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진행되게 될 것이다. 소수 종교자들도 이제는 훈련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군대에서는 군종의 선교에 대해 일정 부분 제한하는 법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제는 결단의 강요는 문제가 되고 있다. 세례는 중요하다. 그러나 교회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세례를 받고자 자청하는 장병들이 넘쳐야 한다.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성과이지만 이제 그들을 위한 교회의 사명이 강조되어야 한다. 신입 자원들의 변화와 성숙의 증거가 없다면 계속되는 새 생명의 역사는 어려울 것이다.

기존의 신자들에게도 신앙과 삶의 일체감을 갖기 위한 헌신이 필요하다. 성도의 헌신이 부대에 보여질 때 그것이 선교의 권위가 될 것이다. 생활의 경건과 절제가 없이 선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이제 부대의 개혁을 통해 군이 더욱 투명해지면 이런 모습을 더욱 또렷하게 나타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부대의 갈등을 낳을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힘써야 할 분야가 있다. 군이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군 운영체제의 시스템화를 말한다. 따라서 군중도 제도권 내에서 선교를 해야 하고 군의 제도를 보강하고 긍정적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 관리 운영의 시스템 없이 방문 위문 협조를 하는 선교의 방법은 이제 많이 제동이 걸리게 될 것이다.

국민과의 공감대를 중요시하게 되므로 사회의 분위기와 이미지가 중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기독교와 사회의 공감대와 잘 협력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하나님의 개입과 방법

우리는 군선교 역사에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셨음을 보고 있다. 한국 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이 모든 선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았다. 하나님은 선교를 이루시기 위해 사건과 환경을 주도하셨다. 군 개혁 2020도 준비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새로운 군선교의 장을 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구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특징	군종목사 창설	전군신자화 운동	신앙전력화 운동	군복음화 운동	제2차 진중세례운동	비전2020 실천운동
기록	해군 1950.11.10 육군 1951.2.7 공군 1952.2.10 OCU설립 1956.12.8.	1인 1종교 갖기 운동 육군 1군은 대대급까지 군종목사보직	제1차 진중세례운동. 군선교연합회 설립 신앙전력화회 호 하달(박정희 대통령)	진중교회당 건축 세계기독교대회 (1984) 한국군종목사단 설립(1986)	제2차진중세례운동 육.해.공군본부교회 건축(1996) 군인신자연결양육(1998) 21세기 기독교 운동선언 (1998)	민족 복음화 실현, 기독교화 창달, 기독교 신앙의 강군육성, 건강한 국가 건설, 한국 군선교를 모델로 세계 군선교를 통해 인류복음화에 기여, 세계 기독교인대회
특기 사항			기독교인 수 :300만 명	기독교인 수 :764만 명	기독교인 수 :1,200만 명	기독교인 수 :1,500만 명

네 번째 단 주: 우리의 결단

1. 동참 촉구

우리의 군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시대와 사건에 따른 의견 차이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도 한 생명이라도 더 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다. 이 명령을 위한 지혜 가운데 군의 젊은 생명을 위해 전력하지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환경은 늘 변화하였다. 그때마다 선교의 현장에는 눈물을 뿌리며 헌신과 희생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 21세기의 우리는 시대의 흐름이 급속하게 바뀌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의 열정을 가슴에 담되 겸손하고 순전함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 시대의 발을 닦을 줄 알아야겠다.

2. 구체적인 방법

국방 개혁 2020은 군의 비전이자 각계 각층에 대한 새로운 요청이다. 또한 이에 따라 군 현장에서는 종교계와 선교기관에도 더 성숙한 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독교의 당위성과 우리의 계획을 군대에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 1) 군대는 청중이다. 이들을 이해하고 군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 2) 국민의 75% 선교를 목표로 한다면 불신자뿐 아니라 불교나 천주교 신자도 기독교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한 타종파도 수용할 수 있는 기독교의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
- 3) 군목은 군선교의 현장 사역의 전문 사역을 위해 군목 지원자들에 대한 연수에 따른 군선교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것은 군현장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이다.
- 4) 성도들 양육을 철저히 하여 생활을 통해 신앙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군에 나타내야겠다. 이를 위해 부대의 평신도 양육자를 위한 맞는 양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초신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새신자의 변화는 군에 새로운 문화와 신뢰를 갖게 한다. 또한 평신도들은 군의 일선에서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고백하고 전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 5) 군선교를 위한 각 기관의 역할 분담과 하나 됨이 필요하다. 군선교의 주체는 현역이며,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있는 군목이다. 이들이 군의 현장에서 잘 뿔 수 있도록 선교 단체와 교단은 군 현장과 군목의 군선교에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여러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 기구를 두고 이로부터 서로 긴밀한 선교의 연구와 헌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각 선교 기구와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자신의 방법으로 선교하지 말고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자제해야 한다.

새 시대의 새 결단으로 얻을 기독교의 미래

하나님은 도시락 하나에 5,000명의 도시락을 숨겨 놓으셨다. 하나의 밀알에 30 - 100개의 밀알을 열게 하신다. 생명력 있는 헌신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세운 계획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한다. 인생이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조마조마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겨 싸여도 하나님의 비전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가? 이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자.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군대 현장의 변화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의 지혜가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에게 철저한 헌신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다. 신앙을 가진 자들이 결단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다가 보니 되어지더라, 세월이 약이라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우리가 비전의 시작부터 결단하고 달려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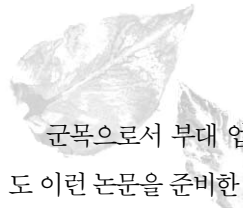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과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과 그 신앙이 생활에서 열매 맺고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자. 그리고 이 좋은 것을 정말 만났다면 드러낼 용기를 가져 보자.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멋진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이다.

※ 본 글은 2006년 6월 15일 "제6회 군선교 신학 심포지엄" 발제논문입니다.

“군 개혁 2020에 따른 군선교 2020의 전략 - 누가 군대의 이웃인가?”에 대한 논찬



김성봉 목사



군목으로서 부대 업무만 해도 수월치 않은 격무일 텐데, 그 와중에서도 이런 논문을 준비한 그 열정과 성의에 격려를 보낸다.

1. 긍정적인 면

매우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게 논지를 발전시켰다. 국방 개혁에 의한

■ 김성봉 목사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B. A.)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M. Div.),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Th. M.)
- 독일 뮌스터 대학교 신학부(Th. D.)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 신반포중앙교회 담임목사

군 현실 변화에 따라 군선교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하였다. 군 개혁 2020에 따라 비전 2020 군선교 전략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논지는 반드시 한번 짚고 가야 할 좋은 주제라고 본다. 2020년까지 군선교를 통하여 전 국민의 75%를 기독교화하여 민족 복음화를 이루자는 비전 2020 운동에 대해 잘 설명하고, 그 한계를 우회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선교 비전의 핵심은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실적으로 제시되는 몇 %라는 것은 결국 열매요, 결과일 뿐이라고 한다. 또한 군선교에 있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잘 기술하고 있다.

2. 좀 더 수정해야 할 부분

우선 논문 부제부터 좀 어색한 것 같다. “누가 군대의 이웃인가?” 그리고 비전 2020 군선교 운동의 목표 실천 전략 등에 대하여 논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잠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세례자 숫자는 가상 목표로 기준을 삼자는 것일 텐데 숫자적 요구에 너무 부담을 안고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단추의 내용을 보면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일부는 해당이 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공감이가치 않는 면이 더 많은 것 같다. 군 부대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 선교 여건도 많이 변한다. 1~2년마다 지휘관 및 참모들이 바뀌고 어느 해는 임무에 따라서 전 부대가 훈련이 더 많아 야전에서 활동하는 기간이 많을 때도 있다.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 지휘관, 참모, 또는 간부들의 신앙 정도와 열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어느 특정 부대의 상황을 예시로 하여 전 군부대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전 일반교회에서 군부대 위문 및 방문예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행동과 활동을 하는 것처럼 일반화 하는 것도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은 사랑과 정성을 들여 헌신적으로 방문하거나

위문하고 있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진다. 예를 들어 “기독교를 무조건 싫어합니다”의 이유로 “배타적이고 타종교를 무시하고 너무 요란하고”라고 했는데, 그런 부대도 있을 수 있겠으나, 기독교로 인하여 사고도 예방되고 정신 전력이 강화되며, 사기도 올라가고, 즐겁고 명랑한 병영 생활에 기여함으로써, 불신자이면서도 기독교 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협조하는 지휘관도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 단추: 우리의 할 일, 세 번째 단추: 군 환경 변화로 인한 고민과 결단, 넷째 단추: 우리의 결단 등의 내용은 추상적이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좀 진부한 내용인 것 같다.

3. 주장하는 내용

논자는 다음 몇 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역 중심의 선교 시스템을 세우기를 주장하며, 이에 비해 민간교회는 돕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한다. 각 개 교회 및 교단, 선교단체의 선교활동을 통일화시킬 것을 주장하며, 군내 선교 대상들에게 비치는 기독교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기 위해 그들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는 좋은 이웃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군선교에 비전과 은사가 있는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고, 군목의 전문 소양을 길러야 하겠다고 말한다. 각 부대의 특성과 역할에 따른 목양의 형태가 달라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군교회 목회 매뉴얼 작성을 주장한다.

4. 논문 형식과 참고도서에 대한 의견

일부 현장 상황과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된 것 같고, 논문 형식에도 미흡하며, 각주 및 참고도서를 발견할 수가 없다. 논문이라기보다는 논

설문이라 할 수 있겠다.

5. 종합 의견

본 논문을 통하여 우리 군선교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행함에 있어 서나 인식에 있어서)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인식할 수 있었다. 아울러 군선교 현장에서 우리 군목들과 기독 군인회원, 그리고 군중하사관 단과 군중병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어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존경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군선교 현장에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이를 분석하고 대안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어떤 사업과 행동도 받아들이는 대상자들의 인식에 따라 긍정적인 반응도 나타날 수 있고 부정적인 반응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계획과 실천을 위해서는 제공자와 수혜자간의 정보 교환 및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실천될 때 효과는 상승되리라 생각한다. 군선교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군 현장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군목 단과 기독군인연합회에서 담당하여 제공하고, 후원과 지원 능력에 대한 정보는 군중장교 파송 12개 교단과 민간교회, 예비역기독장교회, 한국 군목단 등 군 외 각종 기독교 단체로부터 제공 받아 서로 협력한다면 효율적인 선교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본 논고에서 제시한 문제점 중에서 일부만 예로 들어 의견을 말한다면, 군 개혁 2020계획으로 군 병력도 줄어들고, 지금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데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니 무리가 되어, 오히려 군목들에게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군 장병들의 눈에도 부정적으로 비치니, 세례목표 인원 에 대한 기준을 없애든지 줄여달라는 의미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된다. 그 의견도 일리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가시적인 목표를 정해 놓

고 기도하며 노력해 보지는 것이지, 꼭 그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압박이나 책임 추궁을 하려는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상황이 순탄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도 있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상황이 맞지 않으면 목표에 미달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다음 해에는 초과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적을 중간 점검하고 통계를 제시하는 것은 저조한 부대에서의 어떤 상황 때문인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각 기관들이 협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그 해결책을 찾아서 보다 발전된 대안을 강구하자는 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번 기회에 통계를 제시하고 분석하는 기관에서는 결과만 제시함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분석과 대안까지 제시한다면 현장에서 수고하는 군목이나 기독교인회로부터 공감을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활력소가 되리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군선교 현장에 계시는 군목들도 숫자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것은 단지 방향과 기준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갖는 것이 오히려 군선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도라 생각한다.

군 선교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군선교 역사, 그리고 문제점, 장점을 설득적으로 잘 기술하였고 현실적인 대안을 잘 제시하였다. 논문 형식에 있어서 미비한 것을 제외하면 설득적이고 현실적인 논설이라고 생각된다.

21세기 군종병과 패러다임의 전환¹⁾



주연종 군종목사



올해로 55주년을 맞이한 한국 군종병과는 거듭된 내 외적인 도전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2위의 규모를 가진 세계 최대의 군종 시스템을 갖춘 국가 중 한 국가의 군종병과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과 내

■ 주연종 목사

-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 총신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중(역사신학)
- 미 플러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과정 중
- 육군본부 군종실 교육장교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외부에서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고, 군중병과 내외부에서 일고 있는 개혁과 변화 그리고 발전을 향한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안보 환경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한·미간 동맹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되고 있으며 남북한의 관계 또한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다원화, 세속화의 시류에 따라 종교 자체에 대한 인식에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군내에 허용되었던 기독교, 천주교, 불교 외에 소수 종교에 대해서도 문호가 개방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변화와 혁신의 시기에 군도 엄청난 변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국방 개혁안을 중심으로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 무기체계의 변화, 병력 감축, 경계 시스템의 변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군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군중병과의 현재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미래를 제시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먼저 21세기 안보 환경에 대하여 전망하고 그동안의 군중 활동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내린 후 21세기에 적합한 군중병과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21세기의 안보 환경

1. 21세기의 안보 환경

21세기 안보 환경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세계적으로 미·중·소를 중심으로 한 양자간의 안보 환경 구축에서 지역 안보를 목적으로 한 다자 안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냉전의 종식과 함께 소련과 동구권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되고,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

1) 본 논문은 육군본부나 군중실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필자 자신의 연구 결과임.

으로 결성되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 역시 그 역할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동구권의 몰락 이후 결성된 유럽 안보 협력기구(OSCE :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1994), 동북아 협력대화(NEACD: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이사회(CSCAP: Council on Security Cooperation in Asia Pacific) 등은 모두 세계 각국이 안보에 있어서 평화와 안정 그리고 공동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다자 안보 협력을 주요 안보 정책으로 선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 중국은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n Summit, ASEAN+3(한 중 일), 1997)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 미국의 패권주의를 차단하고 역내의 다자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자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반도와 관련이 있는 당사국 중 유일하게 북한만이 다자 안보 협력에 반대하고 있고, 일본과 미국은 양자 간 군사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소극적일 뿐, 중국과 러시아, 한국과 아세안(ASEAN) 제국들은 이에 적극적이다.³⁾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는 앞으로 동북아시아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⁴⁾ 내의 다자간 안보 질서 구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여러 번 천명한 바 있다.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GDP의 약 60%, 무역의 5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비중이 크다. 따라서 21세기 동아시아의 가장 큰 과제는 역내의 안보 공동체를 구축하는 일이다.⁵⁾

2) 최강,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주요국제문제 분석 1」(외교안보연구원, 2006, 2), pp. 327~328.

3) Ibid., pp. 332~333.

4) 동아시아 범위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본 고에서는 한용섭의 주장에 따라 동북아시아 7개국(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과 동남아 10개국(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캄푸치아, 브루나이), 그리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인도 등을 포함한 22개국으로 보기로 한다.

2. 21세기의 국방 환경

21세기는 다자의 시대이다. 국제 관계에 참여하는 국제 행위자의 단위가 국가(200여 개)에서 비정부 기구(5,000여 개) 및 다국적 기업(50,000여 개)으로 확대되는 이른바 다자의 시대인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의 국방도 이러한 21세기의 변화되고 있는 환경적 요인을 무시하고 설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국제 행위자간의 관계 중대가 지속되고 있고 따라서 복합체계(Coplex System) 속에 놓이게 되는 시점에서는 국방 환경도 단지 무력으로서의 국방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따라서 미국, 러시아, 중국을 비롯한 군사 강대국들은 21세기의 안보 환경과 국제 질서에 적합한 자국의 국방 환경 조성을 위해 이미 여러 계획들을 추진 중에 있다. 가장 두드러진 나라는 러시아이다. 러시아의 경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이를 다시 2단계로 나누어 국방 개혁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 중이다. 군 개혁의 큰 틀은 먼저 러시아 연방의 국가 경제규모 및 안보 환경에 부합하는 규모와 신속기동군 성격의 군사력 보유가 목표이다. 러시아 국방 개혁의 가장 큰 요소는 병력의 감축이다. 무려 77%를 감축하여 정규군을 85만선으로 줄이고 비정규군도 84만선으로 감축할 예정이다.⁶⁾ 두 번째로 2010년까지 병력 충원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예산과 군 당국의 반발로 지연될 가능성은 있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를 이미 강력히 지시했고 최근 2006년을 전후로 3년간 147,500명을 모병제로 전환하여 채울 예정이다. 특히 안보적으로

5) 한용섭, “동아시아 안보 공동체 구축의 필요성”, 『동아시아 안보 공동체』(나남출판, 2004), pp. 14-16.

6) 이승철, “21세기 신 국제질서”,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나남출판, 2004), pp. 24-25.

7) 러시아군의 병력 감축 문제는 군부의 강력한 반발과 러시아 안보를 위한 적정 병력이 100만 명선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실제로는 예정되었던 85만(비정규군 84만)선보다 많은 100만 명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와 관련이 있는 극동 및 시베리아 주둔군을 20% 이상 감축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점은 해군력과 공군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신형 핵 잠수함 뿐만 아니라 신자동화 대공방어 지휘 통제 체계를 함대사령부에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공군력도 강화하여 제5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 2010년에는 양산체제를 갖추어 공군의 주력기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소형우주선 개발 및 배치와 군사 위성의 추가 발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등 기술집약군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⁸⁾

중국의 경우도 지난 1990년부터 13년간 전 병력의 30.5%인 70만 명을 감축하였고 2005년에만 20만 명을 추가로 감축하였다. 대만도 11.1%인 3만 명을 감축하였다. 미 육군도 2002년부터 7개 야전군, 6개 군단, 18개 사단을 3개 야전군에 4개 군단, 10개 사단으로 조정하면서 정규군을 275,600명으로 감축하였고, 그 대신 신속대응군 창설, 동아시아 주둔 미군 재배치 등을 비롯한 동북아의 신 방위 정책을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 혁신의 핵심은 정보기술의 적용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원거리 감시수단의 개발과 이를 C4I⁹⁾와 연결하여 복합 지휘 체계의 확립으로 전투력의 효과를 증대시킨다는 것이다. 미 육군의 경우 참모차장 설리반 중장에 의해 발전된 “21세기 군(Force 21)”을 통해 개혁 방안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해군은 ‘협동적 교전 능력(CEC: Cooperate Engagement Capability)’을 미래전의 핵심 개념으로 발전시켰는데 이는 수천 마일에 걸친 광범위한 지역에 전개되어 있는 모든 전투 체계와 함정에 탑재된 다양한 감지 수단들을 상호 호

8) 유영철, “러시아 연방의 안보 전략”,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나남출판, 2004), pp. 238-241.

9) 통상 전술 지휘(Command) 통신(Communication) 전산(Computer) 정보(Intelligence) 체계라고 칭하는데 전자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차세대 전산 지휘 체계를 의미함.

과적으로 연결한 정보, 감시, 정찰체계와 C4I가 상호 연결된 통합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공군은 모든 전투 수단을 하나의 네트워크에 통합함으로써 전투의 효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타격 개념(project strike)’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 미 공군은 「우주계획 2020(space cast 2020)」과 「공군 2025(Air force 2025)」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¹⁰⁾

한국의 국방개혁은 2005년 9월 13일 발표한 “국방개혁 2020”을 통해 제시되었다. 그 후 10월 25일에는 국회에서 입법 예고되었고 2006년 1월 1일부터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3군본부가 국방개혁법에 의해 개편되었고 방위사업청이 개칭되었다. “국방개혁 2020”의 골자를 보면 먼저 69만 수준의 상비군을 50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육군은 39만 이하) 3군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운영비를 줄임으로 전력투자에 투입하여 작지만 빠르고 강한 군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조직에 현역군인 숫자를 줄이고 민간인을 충원함으로써 국방조직의 문민화를 통해 유연성 있는 국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군 군종감실은 참모총장 직속의 군종실로 국방부 군종실은 군종정책팀으로 각각 개편되었다.

21세기의 국방 환경은 각국이 미래 안보와 국방 전략 환경에 대응함과 동시에 정예화, 슬림화, 경제화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국방 개혁은 각국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제 안보 환경과 이에 따른 개 국가 혹은 역내의 국방 환경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반영되고 있는 하나의 국제적인 반응인 것이다.

II. 군종 활동의 진단 및 평가

10) 차두현, “한국의 국방개혁: 새로운 사고, 새로운 체제를 통한 국방 전환의 모색”, 「협력적 자주 국방과 국방 개혁」, (도서출판 으뜸, 2004), pp. 70-73.

1. 군종 활동의 역사적 회고

1951년 한국전쟁 중, 대통령 명령에 의해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31호에 의거 육군본부 인사국내 군승과가 설치됨으로 창설된 군종병과의 역사가 올해로 55주년을 맞이했다.¹¹⁾ 55년간 군종병과는 군의 발전과 함께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여 지난 55년간 육군의 경우 2,300여 명의 군종장교를 배출하였고 1,396개(기독교 : 840, 천주교 : 223, 불교 : 333)의 종교 시설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민간 지원 성직자를 포함하여 1천 1백여 명(현역 : 327명, 민간 지원 성직자 : 779명)의 성직자가 군과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는 현역 기준으로 미국(1400명), 영국(151명), 캐나다(182명, 육군은 70명), 이스라엘(150명·육·해·공 통합) 등과 비교해 볼 때 세계 2위의 규모이다. 육군의 경우 전 병력의 82%가 종교를 가진 신자이고 이를 종교별로 보면 기독교가 44%, 천주교가 16%, 불교가 22%이고 무종교자는 18%로서 이 역시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 않는 신앙 전력을 보유한 군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동안 육군군종병과는 월남전 참전, 앙골라 평화유지작전 참전, 이라크 평화와 재건 작전 참전, 대 간첩 작전, 수해 및 설해 화재 지역 복구 등 대민 지원 활동에 함께 나서는 등 국내외에서 전개된 군의 주요 활동에 동참함으로써 군과 함께하는 임재의 사역을 펼쳐왔다.

2. 군종 활동의 문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종병과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데

11) 육군본부, 「군종50년사」(대전: 육군본부 군종감실 2003), p. 17. 군종병과의 설치 1951년부터이지만 실제로 군내에서 종교활동이 시작된 것은 그보다 훨씬 전인 1948년부터이다.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종교간 군중 활동의 역동성 문제

각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적, 역사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서 군중 활동에도 많은 차이점이 나타나고 있다. 기독교의 경우 가장 활발하고 역동적인 활동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독교의 특성이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 특히 청년기 장병들의 취향에 접근하기 용이한 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과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현장에 기독교적 사생관이 설득력 있게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반면에 천주교의 경우 사제단의 성격 자체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사제직과 군 조직간의 괴리가 가톨릭 신학 내에서 소화되지 못하는 원천적 딜레마를 안고 있음으로 인하여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천주교 신자와 천주교회의 한국 역사 속에서의 역할을 통해서 볼 때에도 군과 정부와 상생하지 못했던 문화적 한계를 군 천주교회 안에서도 일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면이 있다고 보인다. 이는 불교의 경우도 유사한데 불교의 탈사회적인 속성과 자기 중심적 수행종교라고 하는 본질을 놓고 볼 때 역동성에 있어서 역시 동일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군중 활동 자체가 기독교 군종장교 중심으로 실시됨으로 인해 천주교와 불교 군종장교들은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문제를 새롭게 야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기독교 군종장교들의 지나친 적극성은 군종병과 내에서 이미 엄연한 병과이며 동반자로 사역하고 있는 타종교의 군종장교들에 대해 적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

나. 지휘 통제 관리 상벌 기능의 약화

현재 군종병과에는 엄격한 지휘 통제 기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병과장으로서 각 군 중장실장은 군종장교 개개인의 임무수행과 자기 관리

에 있어서 상당 부분 자율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기대하고 이를 개개인에게 위임하고 있다. 또한 타종교 군종장교들에 대해서는 해당 종교 조직 내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일종의 성스러운 자율성은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하여 55년간 놀라운 조화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군은 변화하고 있고 군종병과에 대한 기대와 군의 요구는 한층 격상되고 있다. 게다가 불행하게도 군종장교들에 의해 자행된 윤리적인 혹은 업무 기강 해이에 해당되는 불명예스런 사건들이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하여 지휘 통제 및 평시 업무 관리, 그리고 상벌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다. 장기 정책(long term policy)의 부재

군종병과가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기 발전에 관한 계획이 전혀 없다. 군은 지금 변화하고 있고 또 변화를 계속해서 예고하고 있다. 육군의 경우 “육군 비전 2025”를 통해 육군 개혁과 변화의 틀을 이미 제시하였다. 미 육군 군종병과의 경우 “21세기 군” 계획에 “Chaplaincy 2015”가 수립되었고 미래 미 육군의 가치에 합당한 군종병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 군종학교의 경우 중령급 장교 1명을 오직 20년 뒤만 연구하게 하는 미래정책기획 담당으로 보직하여 운용하고 있다. 현행 업무를 뒤쫓아 가는 병과로서는 개혁을 선도할 수 없고 늘 새로운 개혁의 저항세력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고 마침내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라. 군중 활동의 가치 체계 혼란

1) 핵심 가치

군중 활동의 핵심 가치는 종교적 지원이어야 한다. 종교적 지원을 통해 신앙 전력을 확산시키고 전장의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신앙과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견디어 낼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이야말로 군중 활동의 핵심이며 군이 존재하는 한 군중 활동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런 이유로 이집트나 이스라엘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의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길게는 4천 년에서 1천 년까지의 장구한 군중병과의 역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군대가 창설될 당시의 최초 5대병과 안에 군중병과가 있었으며, 지난 10년간 병력이 감축되는 상황 속에서도 군중장교를 200명이나 증원하였고, 캐나다의 경우도 2만 명 이상을 감축하여 6만 5천 명의 정규군을 유지하는 변화 속에서도 군중장교는 한 명도 줄이지 않았음은 그 좋은 예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적 지원(religious support)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병과 내외의 혹은 군 내외의 어떤 시도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이것은 군중병과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 전력을 통해 최고의 전투력이 유지되고 군과 국가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고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병과원들은 해당 종교의 존경받는 성직자로서 있어야 하고, 장병들에게 언제나 자애로운 성직자로 다가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2) 우선 가치

우선 가치라 함은 핵심 가치와 부수 가치를 불문하고 우선적으로 의미를 두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군중의 우선 가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때로는 상담이, 때로는 환자와 죽음을 앞둔 부상자들에 대한 종교의식이, 때로는 비전캠프나 방문 활동이 우선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선 가치가 핵심 가치를 대신할 수는 없다. TPO, 즉 시간(Time)과 장소(Place)와 상황(Occasion)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을 잘 분별하여 가치를 조정하고 경중완급의 판단 결과에 따라 임무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군중장교의 역할이 다양해져 가는 것은 대세이며 받아들여야 한다. 그

러나 어떤 상황의 변화 앞에서도 우선 가치와 핵심 가치는 구별되어야 한다.

3) 선택 가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야말로 필수가 아닌 선택형의 가치이다. 즉 군중장교가 테니스를 잘 쳐서 부대 내 장교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군중장교가 테니스를 잘 못 하거나 전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가 될 수도 없다. 야구 선수들이 어찌다 한번 축구를 잘했다고 해서 그들을 칭찬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구 선수들은 야구로서 그 가치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군중병과나 군중장교 개인이 부수가치에 매달리게 된다면 병과의 존재는 곧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4) 무가치

군중병과나 군중장교 개인이 집착하기에는 하등의 가치가 없는 것들도 있다. 이런 것들은 부수가치와는 달리 때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지나친 취미활동이나 보직과 진급 등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행위 등은 그렇게 집착하는 그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에게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군중병과가 집단적으로 그런 성향을 보인다면 군중병과는 가장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판받게 될 것이다.

현재 군중병과에서 시행중인 사업들을 이상의 네 가지 가치로 걸러내어(filtering) 병과 차원에서 비판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가치한 것들에 집착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고 핵심 가치에 진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3. 개선 방안

가. 지휘, 통솔, 관리, 상벌 기능의 강화(상호선택-상호분리)

각 군의 군중실장은 참모총장을 보좌하여 병과장으로서 군중장교들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이 권한을 행사하여 병과의 기강을 세우고 업무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병과장과 병과원뿐만 아니라 상급부대 군중장교와 예하부대 군중장교 간에도 업무의 질서와 상명하복의 위계가 있어야 한다. 상급부대 군중장교에게는 하급부대 군중장교들에 대한 감독 권한을 대폭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병과장이 병과원 모두를 직접 지휘 통솔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뿐 아니라 예하부대의 군중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상벌 기능을 강화하여 본인 스스로가 군중장교의 길을 포기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리를, 군중장교로서 보람있게 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과감한 선택을 보여 주어야 한다.

나. 참모 업무 강화

각급 부대마다 참모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시켜 군중장교들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종교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다 할지라도 군중참모로서 복종하고 협력하는 기본적인 군인으로서의 위계가 서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군중참모는 예하부대 군중장교들에 대해 근무 성과 보고서를 작성케 함으로 평시에 군중장교를 바르게 관리하고 사유가 발생시 진급 보직 상벌 등의 근거로 삼도록 한다. 그 예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육군을 중심으로).

근무 성과 보고서

년 분기

소속	계급	군번	성명	기수	종교	종단	기간
							월 일 ~ 월 일

I. 업무수행 분야(아전부대용)

종교업무				교육업무				선도업무				기타업무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우수, B: 보통, C: 저조, D: 미달

업무수행 분야(정책부서 및 학교기관 교관요원용)

전문성				성실성				창의성				협동성			
A	B	C	D	A	B	C	D	A	B	C	D	A	B	C	D

A: 우수, B: 보통, C: 저조, D: 미달

II. 계선별 참모기능 수행분야

내용	우수	보통	저조	미달
상급부대 지시사항 복명태도	A	B	C	D
회의소집 참석	A	B	C	D
군중참모부 계획사항 실시실적	A	B	C	D
군중참모 계선별 지시사항 수행태도	A	B	C	D
해당 부대 지휘관 및 부대원의 신뢰도	A	B	C	D

III. 윤리분야

성직자적 측면						장교적 측면					
A	B	C	D	E	F	A	B	C	D	E	F
우수	보통	주의	지도	시정	수준미달	우수	보통	주의	지도	시정	수준미달
※ 의견						※ 의견					

IV. 주요 활동 및 미담 사항

주요 활동	미담 사항

V. 특기사항

순번	항목	내용
1	상벌사항	
2	개인연구사례	
3	잠재역량 증진실적	
4		
5		

VI. 종합의견

보고자 서명

1. 근무성과 보고서의 도입 취지

참모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지원 및 통제를 위해

2. 작성자 및 대상자

작성자	대 상 자	비 고
군종실장	계획과장, 운영과장, 종무보좌관, 교육장교, 선도장교, 보직장교, 계룡대 근무지원단소속 군종장교, 군사참모 교육사참모, 특전사참모, 중행교 군종학처장, 육직 부대군종장교, 육사 및 삼사군종실장 해외 파병군 군종참모	위탁교육생, 군영반, 육대, 해외연수, 미고군반 등 학생교는 군종실 교육장교가 작성
군사참모	군사직할부대 및 군단 군종참모	
군종학처장	중행교 전 군종장교	
군단참모	사, 여단 군종장교 및 참모	
사단참모	사단 참모부 군종장교 및 여단 및 연대 군종장교	
교육사참모	육대, 의무사, 보병학교, 종군교	
특전사참모	특전사 참모장교 및 여단 군종장교	
의무사참모	의무사 및 예하 군종장교	
국방부 군종정책 팀장	국방부 군종실 근무자 및 국방부 근지단소속 장교, 국직부대 장교(육), 기무학교	
군종실 교육장교	위탁교육생, 군영반, 육대, 해외연수(1년이상), 미고군반등	

3. 평가 방법

1) 업무수행 분야

군종 4대 업무에 대하여 ① 계획, ② 실시사항, ③ 성과 등을 업무일지, 주간 및 월간 분기 보고서를 근거로 실시한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절대평가)

정책부서는 ① 창의성, ② 협동심, ③ 전문성, ④ 성실성을 중심으로 평가(절대평가)

- 2) 계선별 참모기능 수행 분야
각 항목별로 관련 근거들(상급부대 지시사항, 지시공문, 구두지시, 회의, 교육소집, 지도방문시의 복명 태도)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
- 3) 윤리 분야
해당기간 중 관찰 결과를 토대로 성직자적 측면과 장교적 측면을 구별하여 평가, 필요한 경우 아래 공간에 내용을 기술
- 4) 주요 활동 및 미담 사항
탄력적인 군중활동 전개를 유도하고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군중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지시된 군중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창의적인 태도나 미담사례 등을 엄선하여 기술(없을 시 미기재 무방)
- 5) 특기사항
상벌 사항, 병과 발전을 위한 개인연구 및 적용사례, 잠재역량 증진 사례 등을 병과 발전 기여도와 널리 알려 모범적 사례로 제시될 만한 내용들로 엄선하여 기록(없을 시 미기재 무방)
- 6) 종합 의견
평가자의 종합 의견을 요약하여 간략히 기술하되 저번 분기와 비교 평가를 통해 업무 수행의 향상, 담보, 퇴보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
- 7) 모든 기록에 있어서 종교, 종단 등 공적 사적 관계를 근거로 편파적으로 기록함이 없어야 하며 어떤 기술이든지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나 통계 등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가 되어야 함.
- 8) 국방부 군중 정책 팀장이 육군이 아닌 경우에도 소속대 군중장교 중 육군 소속 장교는 정책 팀장이 작성하여 육군 군중실장에게 제출. 국방부 군중 정책 팀장이 군중실장에게 보고할 사항은 아니지만 육군 최고 책임자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작성.
- 9) 근무 성과 보고서는 군중실장이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육군 전

군중장교를 대상으로 작성토록 하며 보직, 진급, 국내외 위탁교육생 및 해외연수자 선발, 군영반, 육대, 미 고군반 선발 등에 기초자료로 반드시 반영한다.

10) 군중팀장과 군중실장은 제외되고 해외연수, 국내외 위탁교육 중에 있는 군중장교는 군중실 교육장교가 분기별로 “교육생”으로 표기하여 특기사항 위주로 작성한다.

11) 항목별로 평가 내용을 계량화, 표준화한다.

12) 작성자와 최종 면담자인 군중실장과 군중실장이 지명한 실무자 외에는 열람 및 소지를 금한다.

13) 수신은 참모총장으로 하며 군중실장은 필요시 참모총장에게 특정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14) 최소 관찰 기간은 3개월로 한다.

15) 작성기준일은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하며 4월 15일과 10월 15일 이내에 군중실에 제출한다.

16) 작성기준일 현재 관찰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전임자 혹은 직전 부대 참모(평가자)가 기록한다.

다.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 제시, 5년 단위의 중간 발표

주요 관련국들과 미군 군중병과의 예를 제시한 것처럼 군중병과에도 장기 발전 정책 기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래 국방환경에 현재의 군중시스템이 과연 순기능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의 군중 장비와 시설에 대한 정책은 각 군의 개혁 프로그램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유용한 정책이 되고 있는가? 군중의 교리와 교범, 규정과 방침들은 얼마나 미래 지향적이며 동시에 합리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현재의 군중장교 충원 시스템과 양성 교육 및 보수 교육 그리고 실무 위탁 교육 및 위탁 교육 등은 미래 군중 활동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최소한 10년 단위로 기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다시 5년 단위로 단계를 두어 발전안에 수정을 가해 최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라. 업무의 5단계화

군중병과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적이며 개혁적이어야 하지만 과거의 업적에 대한 비판적 계승이라고 하는 역사성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과거 55년간 2천여 명의 선배 군중장교들이 피땀으로 이룬 업적들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21세기에는 다음의 내용들이 심도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1) 체계화

군중업무가 보다 체계화되어야 한다. 군중장교 모두는 각자가 하게 되어 있는 임무가 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 즉 보직이 있다. 하게 되어 있는 일을 반드시 하되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업무의 체계화이다. 군중장교의 임무는 명료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임무는 병과의 존재 목적과 군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합목적적이며 동시에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압력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무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review)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군중업무의 시스템화이다. 시스템화가 이루어진다면 종교에 따라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성격과 각종 개인적인 배경에 따라서 군중활동이 천차 만별인 경우는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식에 부합하고 합리적이며 만인에 의해 공감되고 예측 가능한 군중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전문화

군중 활동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군중장교들만의 고유 업무이다. 그러므로 우리만이 할 수 있기에 우리 군중장교들이 소홀히 하면 이를 대처하

거나 만회할 추가적인 기능을 군에서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군을 돕기 위해 그리고 군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군중장교로서는 임무에 대하여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군중장교 개개인이 전문화됨으로 인해 군중병과는 군에서 가장 전문화된 병과가 될 수 있으며 전문화의 정도에 따라 존중도 받게 될 것이다.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도출된 핵심 가치들과 우선 가치들 그리고 선택 가치들을 정책화하여 제시될 때에 군중장교들은 그 제시된 업무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병과 차원에서는 제시된 임무를 수행할 전문 자질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장기적이며 또한 적시적인 교육으로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N세대 장병들의 종교적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며 안정적인 병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이는 꼭 필요할 것이다.

3) 단순화

업무의 양을 늘리기보다는 업무를 핵심 가치 중심으로 단순화하여 질을 높이고 전문화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업무들 중 군중병과의 존재 자체와 핵심적인 상관관계에서 먼 것들로부터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교계 지도자 전방 방문, 장병도의, 마음의 양식의 발행 등의 사업은 과감히 재고해야 하며 기타 절차나 행정 소요를 복잡하게 하는 요소들도 과감히 단순화시켜야 한다.

4) 전산화

육군의 경우 상반기 모든 군중 업무를 전산화하기 위한 기술적인 최종 점검에 들어간 상태이며 그 개요는 이미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다. 업무의 완전 전산화는 물론 자료의 공유, 온라인 상담, 화상 상담, 교육, 각종 교범 등의 자료 제공 등이 온라인 상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군중 자료에 대한 접촉에 장벽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국제화

한국군이 상대적으로 약한 실전경험 등을 보완하고 전시상황에서 전

개될 각종 군중지원 활동 등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을 전수받고 한국군의 훌륭한 군중 활동 프로그램들을 우방국과 교류하는 차원에서 군중 활동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또 전술한 바와 같이 다자 안보와 지역 안보라고 하는 개념으로 안보 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주변국 및 미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 전통 우방국간의 군중 활동에 관한 교류는 매우 유익한 사업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군의 경우 전장에서 습득된 전투 피로증, 전장 공포증 등의 대처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나고 환자 및 유가족과 유 장병들에 대한 군중 지원 활동 등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는 세계 최초로 평화유지군 창설을 제안하고 시행한 나라이며 현재까지 97회의 평화 유지 작전 참가 경험을 가진 이 분야의 최고 경험국이다. 또한 캐나다 군중병과 역시 평화 유지 작전에 지속적으로 동반하여 참전한 이 분야의 최고 경험 군중병과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지원을 세세하게 발전시켜 군과 종교 간의 관계를 밀접하게 만든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이외에 여러 나라들에 대한 교류는 한국의 군중병과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병과로 도약하는 데 발판이 되어 줄 것으로 판단된다.

III. 군중병과 패러다임 의전 환

1. 군복을 입은 군 성직자 의식

이제 더 이상 “나는 군인이 아니고 성직자이다”라고 말하는 군중장교는 없어야 한다. 군인이 아니면 군중장교가 될 수 없으며 성직자가 아니어도 군중장교가 될 수 없다. 군중장교는 이중의 신분을 완벽히 가진 자들이다. 어느 것 하나도 벗어날 수 없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다. 나는 군인이 아

니라고 하면서 군이 주는 혜택에 동반 승차하고 성직자의 그늘에 숨어서는 “군중장교이니 나를 좀 이해해 달라” 식의 모순적인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군복을 입은 성직자 의식으로 재무장 해야 한다.

2. 군과 동반하는 군중장교

군의 변화와 개혁, 군의 아픔과 영광에 동반하는 군중병과와 군중장교상의 정립이 필요하다. 군중장교는 군을 지원하는 집단의 일원이며 동시에 군 그 자체이다. 군의 미래와 함께 호흡하고 현재에 발맞추는 의식이 확고히 정립되어야 한다.

3. 훈련 및 전시 간 군중 활동 강화

훈련시 군중 활동이 위문 위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훈련시에는 훈련간 군중 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상급 부대 군중참모는 이를 평가해야 한다. 각군 군중실에서는 훈련간 군중 활동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평가의 자료로 삼도록 해야 한다.

4. 군중장교 선발, 양성, 임무수행의 일원화

군중장교의 선발은 현재와 미래의 군중 활동에 적합한 인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교단 안배 중단 안배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면 군중 업무와의 적합성 여부를 떠난 인원이 선발되고 임관되어 군중병과의 수준을 하락시킬 수가 있다. 기독교만이라도 교단 안배 없이 군중병과가 필요로 하는 능력과 자질, 인격과 성품을 가진 인원을 선발하고 양성하고 임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은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가장

최적의 성직자가 군종장교로 활동하게 함으로 군을 위해 병과를 위해 유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진급과 보직에 있어서도 기계적인 교단 안배나 종교별 안배를 폐지하고 능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발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교육과 임무와 평가와 정책 채택 순환의 체계화

교육은 현재와 미래의 임무수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의 교육은 미래의 임무이다. 그리고 현재의 임무 수행은 과거 교육의 열매이다. 그러므로 임무를 설정하기 전에 교육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하고 교육이 이루어진 군종장교들을 임무에 배치하고 더 많은 임무를 수행할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즉 교육 없이 임무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육과 임무 부여 그리고 평가와 정책 전환은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후보생 교육 차원에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몇 가지 내용들은 선수 과목으로 지정하여 입대 전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과목으로는 상담학, 심리학, 국제정치학, 인류학 등 군종 활동 관련 과목으로서 이러한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후보생은 임관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 준비되지 못한 인원들의 군내 진입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 중위 한미군(한국군 미래 군종장교) 목사와 소령 한미군 목사의 경력 제시를 통해 미래 한국군 군종장교의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중위 한미군 목사

소속: 육군○○사단○○연대 계급: 중위 직책: 군종장교 직능: 목사
근무기간: 임관 2년차

- 학력: 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 현재 국내 대학 신학 석사 과정(야간) 1년 차

- 대학원까지의 군종장교 선수과목 이수 내용: 상담학 8학점, 인류학 4학점, 국제정치학 3학점

- 임관 후 교육내용: 초군반, 집단 상담학 교육, MMPI 교육

소령 한미군 목사

소속: 육군○○사단 계급: 소령 직책: 군종참모 직능: 목사
근무기간: 12년차

-학력: 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 임관 후 국내 신학 석사 과정(야간) 졸업, 목회학 박사 과정 2년차

-임관 후 교육 내용: 초군반, 고군반, 참모반, 집단 상담학 교육, MMPI, Ego-Ok그램, MBTI, 자살 예방 전문가 과정, 제자훈련 세미나, 목회지도사 과정

-해외 출장 및 연수 경험: 미국 자살예방센터 연수(3개월), 이스라엘 성지 순례

-기타 특이사항: PKO 군으로 참전, 한미연합 군종장교 세미나 참석, 영어 구사 자유로움. 개인 취미 활동 활발

결 론

21세기 군종병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한국 군종병과는 먼저 역사적 위상에 대한 비판적 계승을 시도해야 한다. 과거 역사에 대한 준엄한 비판과 발전적 계승만이 선배 군종장교들의 피와 땀을 열매 맺게 하는 길이라고 본다. 군의 개혁과 변화에 발 맞추는 것보다 앞서 나가 그것을 주도하는 병과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과 업무의 시스템화로부터 병과 조직원에 대한 지휘 통솔 관리 상벌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부대 단위별로 군종참모의 위상과 권한을 격상시켜 주어야 한다. 아울러 군종

업무의 국제화와 단순화, 전문화 등을 통해 군을 지원하고 군과 동반하는 병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군중병과는 변화와 개혁을 가장 순발력 있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병과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군중병과에는 장비가 없다. 의무병과의 경우 장비 없이는 의무 분야의 발전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의무 병과의 발전을 위해서는 예산과 시설의 확대를 위해 시간이 소요된다. 생각만 바꾸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 외에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화학도 마찬가지이고 해군과 공군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군중병과는 병과의 의지만 모여지면 한순간에도 가능하고 자리를 잡는 데에도 물리적인 시간이 타 병과에 비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세기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책임을 묻는다면 군중병과에게 더 준엄하게 묻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장점과 강점을 살린다면 21세기를 선도하는 병과로 거듭나 군과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병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본 글은 2006년 6월 15일 “제6회 군선교 신학 심포지엄” 발제 논문입니다.

“21세기 군중병과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한 논찬



박종화 목사



1. 주연 중 군목은 21세기 군중병과 패러다임의 전환에 관한 제안을 하면서 먼저 21세기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안보 환경에 대한 예진과 함께 한국의 국방 환경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이 “미,중,소를 중심축으로 한 양자간의 안보 환경 구축에서 지역 안보를 목적으로 한 다자 안보 중

■ 박종화 목사

- 독일 튀빙겐대학교 신학박사
- W.C.C. 중앙위원
- 경동교회 담임목사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십”으로 패턴이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아태 지역에서의 다양한 기구가 가동중이고 특히 유럽의 공동안보모델(OSCE)로 언급하고 있다.

- 유럽의 경우 독일 통일 이전의 유럽 안보와 협력회의(CSCE 1975)가 ‘안보, 협력, 인권’의 3각틀을 통해 독일통일에 기여했으며 나아가 독일 통일 이후 곧 동구권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상설기구화(OSCE 1992) 되었다. 하지만 이런 포괄적 기구와 함께 냉전시대의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해체되고 나토가 유일 군사 안보 체제로 기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OSCE가 포괄적인 안보·협력의 기구로 가동중이다.

- 한반도의 경우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 체제’의 기본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을 일종의 “동북아판 OSCE”라 할만 하다) 동시에 한미동맹이라는 군사 안보 체제는 다자간 포괄적 협력의 범위 안에서도 계속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점이 바로 유럽 모델에서 응용할 수 있는 참고사항이다.

- 위의 두 가지를 유념하면서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개혁 2020”이 ‘작지만 빠르고 강한’ 21세기 한국군을 육성한다고 본다. 이것이 어떻게 21세기 군사 안보의 공통적 핵심인 “정예화, 슬림화, 경제화”와 일치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군중 활동의 진단과 대책에 관하여

- 군중장교의 “성스러운 자율성”을 어떻게 자율적 책임과 성과 평가 등으로 질적 상승을 고취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주연중 군목의 제안이

타당성이 커 보인다.

- “시간, 장소, 상황”에 따른 군중 활동상의 “우선 가치”와 “선택 가치”는 일상업무와 연관되나 “핵심 가치”는 항용적 기본 임무로 전문화되고 강조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타당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를 제시해야 하리라고 본다.

- 앞서 말한 ‘다자간 안보 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군중장교 훈련과 자질이 “국제화”되어야 하며, 동북아 전체의 평화 정책을 위한 영적, 정신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통일 이후를 대비한 전투력 및 정신전력의 새판짜기를 준비해야 한다고 본다. 이것 역시 군중 활동이 중·장기 비전에 세심하고 심도 있게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군중장교 선발과 양성에 있어서 교단별 안배를 떠나 능력, 자질, 인품 중심으로 자율경쟁 체제를 도입하자는 견해에 동의한다. 적어도 교단 안배는 동일한 점수일 경우에 한하고, 일반적으로는 고도의 자질과 경쟁력 중심으로 선발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구약 성서적 이해



강사문 목사



I. 시작하는 말

사람은 누구나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쳐 가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최고 가치의 국가관(國家觀)으로 인식한다. 나라가 건재해야 국민 개인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국민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사랑한 애국자가 존

■ 강사문 목사

- 히브리대학교 졸업(Ph. D.)
-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술정보원장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경을 받고 기쁨을 받는 것은 바로 애국의 가치가 그 만큼 숭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나라 사랑만을 지상의 과제로 주장할 경우에는 민족주의(nationalism)에 사로잡혀 제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의 히틀러와 일본의 도오조히데키(東條英機)와 같은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 당시 나치 정권을 정점으로 한 독일 민족주의는 많은 사람을 살해하고 악행을 감행하였다. 이때 본회파를 중심한 고백교회 교인들을 제외한 많은 독일 교회와 교인들이 히틀러 정권에 동조하고 침묵을 지킨 것은 교회도 자기 민족의 이익에만 편승한 나머지 교회의 기능과 사명을 망각한 결과로 역사에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독일 국가의 가사에 명시된 대로 “도이칠란트 위버 알레스 위버 알레스 인 데어 벨트(세계 모든 것 위에 있는 독일)”라는 이상을 갖고 독일 교회는 자기 민족만의 이익에 충실한 결과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나라가 일본 제국의 압제 하에 있을 때 일본 교회도 독일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천풍언과 같은 소수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는 일본 교회와 교인들이 대동아 공영을 위한 일본 식민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도록 방관한 것도 일본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결과이다. 통상 일본인의 관점에서도 용납될 수 없고 더욱이 일본 기독교인의 관점에서는 더욱 허락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일본의 국수주의 사상이 고조되었던 것이 지난 세기의 역사적 현실이었다. 이는 명치유신 이후 일본의 지상 민족주의가 낳은 근대사의 한 비극이었다.

오늘의 세계가 미국 중심의 단극(unipolar) 구조이므로 자기 힘을 과신한 미국이 자기의 의도대로 세계를 제패하려고 이라크 전쟁¹⁾을 주도하는 것도 미국이 단일 민족국가는 아니지만 이것도 일종의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단일국가의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과연 미국이 세계의 악을 제

1) 2003년도 전쟁에서도 피아간의 대상은 같지만 1991년 걸프전은 미국을 위시한 다국적군이 유엔의 동의를 얻어 수행한 전쟁이었지만 이번 미국과 영국군의 이라크 공격(2003년 3월 20일)은 유엔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공격하는 전쟁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거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고 부시는 파사의 고레스(Cyrus)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使者)인가 하는 것이다.

한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자기 나라보다는 교회를 더 사랑한 나머지 교회가 나라를 지배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하였다. 교회가 나라를 지배하면서 교회 지상주의로 나아갈 때 교황의 판단과 행위가 곧 하나님의 명령으로 간주되고 행해졌기 때문에 교회가 역사에 큰 오류를 남겼다. 예를 들면 십자군 시대에 유럽의 기독교가 이스라엘 성지를 이방인의 손에서 빼앗는다는 명분하에 수많은 무슬림과 유대인을 학살하는 잘못을 범했다. 유럽 교회의 적이 반드시 하나님의 적이란 등식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많은 이방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설교한 교회 지도자들이 문제였다. 이는 “여호와와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²⁾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교회가 이교도 학살을 권유하면서, 이교도들을 살해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수호자요, 충성된 군인이다라는 식의 설교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 지도자들의 태도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적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았고(렘 25:9; 27:6), 오히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적으로 인정되어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한 것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으로 자기 나라를 더 사랑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해야 되는가가 우리의 당면 과제이다.

2) 렘 48:10

II. 나라에 대한 성경의 용어들

나라란 용어는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말이고, 국가란 나라에 대한 법적 호칭이다. 나라는 일정한 영토 내에 거주하는 다수인으로 구성된 통치적 구성체를 말한다. 즉 나라란 영토, 국민과 통치권의 세 요소로 구성된 집단이다.³⁾ 영어로 국가 또는 민족이란 말에는 nation, state, people이 있듯이 성경에도 여러 호칭이 쓰이고 있다. Nation이란 말은 ‘집단적 체제 아래에 정부, 법률, 제도나 관습 따위를 공유하는 인간집단을 가리킨다. State는 지역을 중심한 현실 정치에 비하여 Nation은 언제라도 State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잠재적 실체이다. 그래서 State는 망해도 Nation은 망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People은 Nation과 거의 같은 뜻이나 제도, 풍습, 관습의 공통성이 강조될 때 쓰인다. 구약성경에도 나라와 민족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개 있다.⁴⁾

1. 고임(גוֹי) 창 14:1,9)은 혈연적인 관계보다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의미의 집단으로서 나라(Nation)를 지칭할 때 쓰이는 용어다. 아카드어의 차용어로서 그룹, 라틴어의 gentes, 헬라어의 ethne의 뜻을 가진다.

2. 레우밈(לְוִיִּם 사 55:4)은 본래 전쟁시에 1천 명의 군인들을 징집할 수 있는 도시를 가리키는 용어에서 비롯된다. 우가리트어의 백성, 아카드어의 켄, 라틴어의 populi, 헬라어의 ethne를 의미한다. 시편과 예언문학에서는 레우밈이 고임(גוֹי)과 병행하여 나타난다. 또는 암(אֲמ)과도 병행된다(사 51:4)

3) 이희승 편저, 『국어대사전』(서울: 민중서관, 1961, 1982), p. 396.

4) D. L. Christensen, "Nations", *The Anchor Bible Dictionary*(New York: Doubleday, 1992), Vol. 4, pp. 1037~1049. 크리스텐센은 4개의 용어를 제시하나 오늘날 쓰이는 메디나를 첨가하여 5개를 검토하려고 한다.

5) 단 3:4, 7, 31, 5:19, 6:26, 7:14; 겔 4:10 등 7회

3. 우모트(אֲמוֹת 창 25:16; 민 25:15), 우밌(אֲמוֹת 시 117:1) 그리고 우마(אֲמוֹת 단 3:29) 또는 우마야(אֲמוֹת)⁵⁾ 등으로 나타나는데 그 의미는 국민, 국가, 종족이나 백성 등의 의미로 적은 그룹의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

4. 오늘날 국가를 나타낼 때 쓰이는 용어로는 후기 시대의 어휘인 메디나(מְדִינָה 에 1:1)가 쓰인다. 메디나는 지방이나 지역을 의미하는 말로 나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음을 나타낼 때 쓰인다. 이스라엘 나라(אֶרֶץ־יִשְׂרָאֵל 메디나트 이스라엘)에 쓰인다.

5. 왕이 통치자로서 다스리던 때에 나라를 가리키는 말은 말쿠트(מַלְכוּת)라는 용어이다. 왕국으로 번역되는 말이다. 다윗 왕국 이전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통치(神政統治) 시대에도 말쿠트란 용어는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근동 지역에서 말쿠트란 말이 상용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III. 나라에 대한 정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나타난 나라는 다섯 개의 각기 다른 유형의 나라가 있다: 다윗 왕국 전에는 12지파 연합으로서의 나라, 사울 왕국, 다윗-솔로몬의 통일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열 왕국, 포로 후 유다 나라 등이다. 각 시대의 나라는 각기 그 시대의 국가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일맥상통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뜻과 통치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속한 위임통치 기구다.

통상 나라라고 할 때 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일정한 지역에서 함께 살므로 독특한 언어, 풍습, 문화와 역사 등을 가지게 된 공동체로서 혈연, 지

연, 종족과 같은 자연적인 요인을 갖고 있으나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나라는 자연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의 상관관계 즉 나라 구성원들 상호간에 투쟁과 정복 과정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도 민족 국가들의 지역 경계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גּוֹי)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עַמֵּי נַחֲשׁוֹן)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אֲנַחְנֵנוּ)의 수효대로 백성(עַמֵּי)들의 경계를 정하였다.” 지리적, 혈연적 한계로 인하여 정해진 민족 국가의 경계는 하나님이 정해준 것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준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자연질서 이상의 창조질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사도행전 17장 26-27절의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 중에서도 같은 내용이 언급된다. “인류의 모든 족속(παν ἔθνος)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시대를 정하게 하시며 거주지 경계를 한(限) 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서도 모든 족속이 거하는 거주지의 경계가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졌다는 것이다. 신약에서도 나라의 형성과 경계는 자연질서 이상의 창조질서임을 역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라와 함께 민족개념은 더욱더 창조질서에 속한다. 나라(nation)의 정치적인 면을 의미하는 고이(גּוֹי)와 백성(people)을 의미하는 암은 의미상 구별되지만 피차 민족주의와 국가주의(nationalism)로 통용되기도 한다. 실제로 나라라는 실체는 망할 수도 있으나 민족의 실체는 그리 쉽게 소멸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민족주의의 발단이 제국주의의 지배에 대립하여 형성된 주권 국가들의 생존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이다.⁶⁾

6) D. L. Christensen, 위의 책, p. 1057ff.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택해 세운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권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맹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전 8:2-5).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언급한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권한다(딤후 3:1). 예수님도 “가이사(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여(마 22:21) 국가에 대한 의무를 경시하지 않았다. 세상 왕이나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은 본래 왕이나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위임 통치자로 선택되고 파견된 하나님의 사자(使者)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사울 왕도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삼상 9:16, 10:1), 다윗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나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신 17:14-20) 그 뜻에 순종할 때에 한해서 하나님의 위임 통치자들이고 백성들은 왕에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자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였다(대하 36:22-23; 스 1-6장).

2. 하나님의 위임 통치의 목적은 이 땅에 정의를 구현함에 있다.

위에서 본 대로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위임 통치 기구이다. 사울에게 위임된 나라는 사울 왕국이고, 다윗-솔로몬에게 위임된 나라는 통일 왕국이다. 이 위임 통치된 나라들의 목적은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따라서 정의구현을 위한 정치 행위는 곧 신앙 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정치의 목적이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돌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그

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과 임무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신정정치 시대에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세운 것도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고 왕 된 자의 임무도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신 17:19-20). 이는 신약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는 일과 공의를 구현하는 것을 위탁받았기 때문이다. 즉 교인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⁷⁾ 이는 정치신학의 이상이 복음의 사회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과 병행된다는 말과 같다.⁸⁾ 따라서 모든 권력의 기원이 야웨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정의실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⁹⁾

또한 평화의 통치자이신 메시아 역시 그의 사명은 정의구현에 있음을 예언자들은 언급한다.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렘 23:5, 33:15). “다윗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급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사 9:7).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심판할 것이며……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을 것이다”(사 11:1-5).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즉 이 땅 위에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다. 그래서 나라의 정치 행위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신앙 행위와 무관할 수 없음을 증거한다. 나라의 선택이 하나님의 정의구현의 도구로 쓰일 때 그 존재 의미를 갖는다.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얼마 안 있어 버림을 받았고

7) 성기문, “구약성경은 한국 정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한국개혁신학회 13회 정기 학술심포지엄: 한국정치 문화와 기독교(2002년 10월 12일), p. 34; 손봉호, “교회와 시민운동”, 현대사회와 기독교, 정훈택 외 5인 공저(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4), p. 65.

8) 나학진, “정교분리에 대한 신학적 고찰”, 『교회와 국가』, 기독교문화 제1집(서울: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1988), p. 248.

9) 성기문, 앞의 책, p. 35.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망각했을 때 버림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3.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聖民)이다(출 19:6).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 다.¹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독점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효력을 갖도록 묶는 띠를 계약(ברית)이라고 한다.¹¹⁾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목적도 제사장 나라로서 대대로 이 땅 위에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권속을 택한 것도 정의구현을 위함이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義)와 공도(公道)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라”(창 18:19). 그러나 이러한 선민도 하나님의 정의구현 목적을 실현하지 못할 때는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보듯이 버림을 당하게 된다(렘 18:1-11). 그래서 선민은 만민을 위해 존재할 때 그 존재 의미를 갖는다. 만약 선민이 만민을 위한 사명을 망각할 때에 선민은 곧 우월과 자만에 빠지게 된다¹²⁾.

나라와 민족에 대한 성경의 기본 원리는 어떤 나라나 민족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렘 18:7-10).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

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렘 18:9-10).

따라서 교회는 신적질서(神的秩序)이고 나라와 민족은 자연질서(自然秩序)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나라와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¹³⁾ 교회와 나라-민족이 위임받은 사명에 있어서는 공유점이 있으나 목적과 목표가 다르다. 각 나라와 민족은 나름대로 그 나라와 민족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 이 목적과 사명이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때에는 그 나라와 민족의 존재 가치를 갖게 된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위대로서 하나님 나라 구현에 목적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전 인류의 평화와 구원에 있다. 어느 한 나라와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구원의 대상이 되고 구원의 매개가 된 것은 사실이다(롬 9-11장).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는 데 실패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유보된 상태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롬 11:25-36).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와 민족이 수행할 사명은 곧 이스라엘 민족이 다하지 못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국경이 있으나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므로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 우리의 사명과 목적이 있다.¹⁴⁾ 이는 유대교가 한 나라-민족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을 초월한 세계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IV. 이스라엘 나라의 유형들

10) 손석태, 「이스라엘의 선민사상」(서울: 성광문화사, 1991), p. 139. 구약성경에서 구별(קָדְשׁ)의 니팔과 히필형에서만-레 10:10; מְבָרָךְ-출 33:16)이나, 거룩(קָדְשׁ-출 19:6)이란 개념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11) 위의 책, pp. 333-335.

12) B. Walbert, 「선민과 만민: 선택사상 재음미에 의한 선교 자세의 재정립」, 정한교 역(분도출판사, 1983), 24ff.

13) 황우여, “애국심과 신앙심”, 제2회 한국 교회 군선교신학 심포지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2년), p. 48.

14) 위의 책, p. 48ff.

약속의 땅,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 오랜 전부터 즉 주전 3천 년대부터 고대 근동 지역에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이 존재하였다. 가나안 땅의 여러 도시국가들은 물론이고 남쪽의 애굽을 비롯한 북쪽의 앗수르나 바벨론 같은 대제국들이 있어 정치제도나 문화의 유산들이 이스라엘 나라 형성에 전수되었고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정치제도의 모방을 거부하기도 하였다(신 17:14-17; 삼상 8:11-18). 주전 2천 년대 말부터 가나안 지역에는 한정된 지역에 살던 부족의 이름을 딴 모압, 에돔과 암몬 같은 나라들이 출현하였다. 이들 나라들도 점차적으로 왕정 체제에 의한 세습제가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창 36:31-39).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나라도 자신의 독창적 종교성이나 정치제도에 불구하고 주변 국가들의 정치 문화유산들을 그대로 전수받게 되었다. 주전 11세기 말 경의 다윗-솔로몬 왕국의 행정조직은 주로 애굽의 행정 체계를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국은 시리아나 요단 동편의 아람국들의 유형에 가깝다고 로랑 드보(R. de Vaux)는 지적한다.¹⁵⁾ 사무엘상 8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처럼 자기들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왕의 필요성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하였던 것은 주변 국가들의 생성 과정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왕국은 어떤 성격의 나라이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첫째로 이스라엘 나라도 주변국처럼 하나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왕국이었다(national kingdoms). 둘째로 주변국들처럼 부족의 이름을 사용했다. 야곱 족속의 별칭인 이스라엘 이름을 국명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단번에 왕조원칙(dynastic principle)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지만 왕위 세습원칙이 정착하게 되었다. 셋째로 다른 나라들처럼 제한된 가나안 영

15) R. de Vaux, *Ancient Israel: Social Institutions*, Vol. 1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5), pp. 92-96; pp. 133-138.

토에 정착했던 유목민들의 연대에 의해 성립된 나라였다. 생존을 위한 지파들간의 연대는 다윗 훨씬 이전시대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사사시대 말에는 12지파들이 동맹을 통해 나라의 기틀을 형성했을 것으로 본다. 노트(M. Noth)¹⁶⁾는 이스라엘의 12지파 동맹을 희랍의 제의 공동체(Amphiktyonie)에 유비시켜 이스라엘의 12지파 동맹을 추정해 보았으나 이에 대한 반론도 없던 것은 아니다.¹⁷⁾ 그러나 적들의 공격에서 생존을 위한 지파 연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여호수아 혹은 사사 시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지파의 연대를 ‘신앙의 전쟁(Glaubens-Krieg)’이라고 하며, 이러한 전쟁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고 드보는 주장한다.¹⁸⁾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민족국가이다. 주전 11세기 말부터 영토, 민족과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다윗 왕조가 성립되지만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던 민족이다. 하나님이 왕으로 직접 통치하신다는 신정(神政)정치 시대가 있었다. 사울이나 다윗 같은 왕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족장들이나 모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와 사무엘과 같은 제사장을 두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

구약시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이해된 시기는 언제부터였는가? 정확한 시기는 말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초기 문화 속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은 왕’ 이심을 암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말키야’(מלכיה, 대상 24:9)란 이름은 ‘야웨(יה)는 왕(מלך)이시다’란 뜻이다. 창세기 46장 17절에 ‘말키엘(מלכיאֵל)’이란 이름도 ‘하나님(אל)은 나의

16) *Das System der zwölf Stämme Israel*, BWANT 4/1(Stuttgart 1930, Darmstadt, 1966).
 17) H. M. Orlinsky, *The Tribal System of Israel and Related Groups in the Period of the Judges*, OA I (1962), pp. 11~20; R. de Vaux, *L'Amphictionie Israelite*, HTR 64(1971), pp. 415~436; O. Bächli, *Amphiktyonie im Alten Testament Forschungs geschichtliche Studie zur Hypothese von M. Noth*, STZ 6(Basel 1977).
 18) *Ancient Israel*, vol. 1, p. 262.

왕' (מלך)이란 뜻이다. 또는 멜기세덱(מלך־שֶׁט)이란 이름도 '나의 왕(מלך)'은 의로우시다(שֶׁט)란 뜻이다.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하나님이 왕이시다'란 생각은 이스라엘 왕국 형성 전에도 현저한 개념으로 존재했음을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영토와 왕과 주권의 국가 3요소를 갖추었던 다윗 이후 왕국 시대, 그리고 영토와 왕이 없고 하나님의 왕권만이 있던 다윗 왕 이전과 유사한 포로 후기의 신정시대의 유형 등 크게 2유형으로 나누어 각 시대의 나라 유형과 특성을 살펴본다.

1.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前)에 하나님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나라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의 모세오경은 여호수아의 인도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창세기 12-50장에는 아브라함을 위시한 족장들의 역사와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로부터 벗어나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 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다루고 있다.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공동체는 시내산 계약을 통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명실상부한 지상(地上)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형태를 갖지 못한 상태가 이 기간 동안 지속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족장들을 통해 가족·부족 공동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모세를 위시한 제사장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다스린 신정통치 시대의 나라 유형을 모세오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

1) 하나님이 족장들을 통해 다스리는 족장 공동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등 족장들을 통해 족장

공동체를 다스린다. 하나님은 첫째로 족장들에게 복을 준다.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며 “너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창 12:1-3)라고 하여 족장으로 하여금 복의 매개자가 되라고 한다. 이삭에게도 복을 주었고 야곱이 역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은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 소망을 준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자녀와 약속의 땅은 반드시 이루어졌다. 아직도 안 이루어진 것은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소망 속에 약속이 성취되어 갔다. 셋째로 이 창세기의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기능으로 보여준다. 노년으로 자녀 잉태가 불가능하였던 사라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이삭을 얻어 후손의 약속을 성취하였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하나님은 부모처럼 돌보시고 복을 주시고 인간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이 족장들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하나님이 무사(武士)같이 전쟁을 주관하고 적을 섬멸하시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으로 다스리지 않는다.

2) 모세와 제사장 등을 통해 다스리던 제사장 나라(출 19:6)

족장시대 이후로부터 가나안 정착 전까지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와 그 주변 인물들을 통해 민족 공동체를 다스린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מִמְלֶכֶת כֹּהֲנִים וְעָם קֳדֹשׁ)이 될 것이라”고 출애굽기 19장 5-6절에서 선언한다.

“세세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제사장 나라는 모세를 비롯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를 의미한다. 왕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레위기는 제사장 나라에 대한 세부

규정들(1-17장)과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 성민(聖民)이 되기 위해 지켜야 할 성결 규정들(18-27장)을 서술한 책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모세를 위시한 많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레위기 에 나타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야 하는데 이 규정들을 잘 지키지 못해 제사장 나라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불평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민수기 11장 으로부터 전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불만은 극에 달해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고라 무리(민 16장)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비극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출애굽과 광야시대에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와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늘 집단을 상대로 하는 공동체의 하나님이시다. 개인보다는 집단 공동체를 중시하는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난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착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를 바로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어 자유함을 주신 것이다. 둘째로 모세의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맺은 언약을 잘 지키고 그대로 살면 복을 주시고 어기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식되었다. 셋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공동체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시는 인도자로서의 하나님이시다. 넷째로 가나안 북진과 요단 동편 통과와 가나안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쟁을 주관하고 언약의 말씀에 순복할 때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었던 전쟁의 하나님으로도 소개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모세오경 시대에는 지상에 왕이 없었던 때이므로 하나님은 족장들이나 모세를 위시한 제사장들을 통해 그의 뜻을 실현하고 그 자신의 다스림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구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에스라-느헤미야 같은 제사장이나 예언자를 통해 다스리던 포로

후 유대 민족 공동체

한편 주전 6세기 후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고국으로 귀환은 했지만 바사의 통치 아래 있었고 영토는 자치령으로 왕도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인 기능이 없는 제사장들의 활동이 있었다. 학개나 스가랴 같은 예언자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율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제사장 에스라도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독립국가라는 개념 없이 외세의 압제 하에 있는 하나의 민족으로 존재할 뿐이었다.

2. 가나안 땅 점령 후 왕을 통해 다스리던 다윗-솔로몬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1) 통일왕국(주전 1004-923)

사무엘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 통치 대신에 지상의 왕을 통해 다스림을 받을 것을 열망하여 지상의 왕을 사무엘에게 요구했다.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 건의하였다 :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다른 모든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고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주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나를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삼상 8:4-7).

위의 진술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초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직접 통치하는 신정정치(theocracy)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상 왕의 통치를 받게 된 때는 다윗 왕국 때부터이다. 사사시대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하나님의 신정정치가 지속되었고 사울 왕과 다윗 왕 때부터는 지상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의 위임 통치를 시도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역대기 사관(史觀) 속에 잘 부연되어 있다: “내(하나님)가 세워준 이 왕조, 내가 세워준 이 나라를 다스릴 직책을 그(다윗)에게 맡겨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대상17:14).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후계자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위임통치를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지상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하나님 나라 개념은 다윗 왕국부터 시작된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되어 기름부음 받은 왕이며 그가 세운 왕국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국이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과 같이 다윗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영역은 이스라엘은 물론 다윗이 다스리던 다윗의 종속국의 영토까지 되었다. 시리아 장군 나아만은 요르단 강에서 일곱 번 목욕을 하고 문둥병을 고친 다음에 다른 신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물을 드리지 않겠다는 표시로 이스라엘 땅의 흙을 나귀 두 마리한테 실어 가지고 갔다(왕하 5:17-18). 이것은 이스라엘 땅의 흙이 있는 곳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다윗-솔로몬 왕국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국으로 이스라엘 역

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중동 지역에서도 강한 나라였다. 당시에 주변의 어떤 나라도 통일왕국보다 강한 나라가 없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시바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했고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이할 정도로 강했음을 보여준다.¹⁹⁾ 동시에 왕위 세습제가 지속되었다. 통일왕국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성했던 시기이므로 미래의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다윗 왕조시대의 회복으로 묘사하고 있다(삼하 23:1).²⁰⁾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면에서 다윗 왕조가 이상적인 왕조로 인식되고 전수되었다.

(2) 분열왕국(주전 922-586)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소를 거절함에 따라 북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돌아 온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 르호보암과 나뉘게 되어 이때로부터 통일왕국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분열되는 분열왕국 시대가 약 200년간 지속되었다. 그 후 주전 722년 북왕국이 앗수르에 멸망당한 후 홀로 남은 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까지 지속되다가 바벨론에 망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는 주후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약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에 흩어져 사는 운명이 되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한 북 이스라엘 왕국은 200년간 지속되는 동안 세습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정변과 살인이 반복되는 등 불안정한 역사를 이루어 갔다. 바아사(주전 900), 시므리(876), 예후(842), 샬롬(745), 므나헴(745), 베가(737) 왕 등이 계속해서 살해되는 비극이 재현된 왕조이므로

19) H. Tadmor, “The Period of the First Temple, the Babylonian Exile and the Restoration” in *A History of the Jewish People*, ed. by H. H. Ben-Sasson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6), p. 102ff.

20) M. de Jonge, “Messiah”, ABD 4, p. 779ff. 한편 랍비문학에서는 메시아로 대망되는 인물이 다윗 왕조의 인물보다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모세를 대비시키고 있다(R. Santala, *The Messiah in the Old Testament-in the Light of Rabbinical Writings* [Keren Ahvah meshlhl, Jerusalem, 1992], p. 57ff).

신명기 사가로부터 악한 왕들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남 유다는 정변도 없었고 계속해서 세습제가 지속되었다. 히스기야와 요시아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왕으로 평가되고 나머지 왕들은 우상숭배를 하는 등 악한 임금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두 왕 때가 외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주독립을 유지했던 왕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 유다는 외세의 위협 속에서 국운을 지탱하였으므로 북 왕국에 비하여 오래 지속된 나라이다.

V. 나라 통치자로서의 왕의 기능과 역할

신명기 17장 16-20절에는 왕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왕이 된 자는 말(馬)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위에서 언급된 대로 왕의 첫째 기능은 자주국방을 수립하는 일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는 일이다.

1. 자주국방과 자주독립

위 본문에서 왕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 첫째로 할 일은 말(馬)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다. 즉 왕의

우선적인 임무는 자주국방을 수립하는 일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애굽과 앗수르나 바벨론 사이에 위치해 있으므로 언제나 양 대륙에서 강자가 침공할 때 조공을 바치고 생존권을 보장받았던 나라이다. 아무 죄도 없지만 위협과 침공을 받았던 나라이므로 언제나 생존을 위해 어는 한 쪽에 의존해야만 되는 사대주의 사고가 팽창해 있었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모든 예언자들이 일관되게 왕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존하면 나라의 생존권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절대 의존함으로써 즉 자주독립을 추구함으로써 생존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존립과 자주국방은 하나님을 믿고 의존함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유다 아하스 왕 때의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전쟁이다(사 7-8장). 주전 734년 앗수르의 남진을 막기 위해 아람과 북 이스라엘은 동맹을 맺고 남 유다에 동맹을 권유했다. 이 때 유다의 아하스 왕은 아람-이스라엘의 동맹을 거절하자, 아람-이스라엘 동맹군이 유다를 공격했다. 위기에 처한 아하스는 앗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구원을 요청하여 위기를 극복했으나 722년 북 이스라엘이 망하자 곧 앗수르의 위성국가가 되는 등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이 때 위기 모면책으로 주어진 이사야의 예언이 임마누엘 신앙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아하스가 임마누엘 신앙을 거절하여 패망 일로에 접한 것을 알 수 있다.²¹⁾ 믿음은 존재의 근거이다. 나라의 존립 역시 하나님께 의존하고 믿는 신앙 위에 굳게 선다. 이는 출애굽의 홍해사건(출 14:13-17), 아람-이스라엘 전쟁(사 7:4-14)과 역대기 20장 12-17절의 여호사밧의

21) B. S. Childs, *Isaiah and The Assyrian Crisis*, Studies in Biblical Theology, 3 (London :SCM Press, 1967), p. 123ff.

승리도 같은 신앙에 근거하고 있다. 믿지 않으면 서지 못한다(사 7:9)는 말은 믿음에 존재 근거가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곧 나라 존립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나라의 존립 여부가 무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있다.

2. 나라의 왕과 민족의 임무는 정의구현에 있다.

나라에 왕을 세운 목적은 백성의 안전과 평안에 있다. 이러한 왕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하여 왕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져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다윗이 왕이 될 때에도 그의 즉위 목적도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했다고 진술한다.²²⁾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קְדוּשָׁה וּצְדָקָה)를 행하였다”고 한다.²³⁾ 정의와 공의의 구현은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직분이고 사명이다.²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목적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왕상 10:9b). 솔로몬은 그의 시편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주어져 그들이 행함으로 백성들이 평강과 구원과 자비를 누리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한다. 유다의 왕들이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고 잘 준행하면 나라가 장구할 것이고 이를 준행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한다(렘 22:3-5). 즉 왕들은 그들의 책무인 정의구현 여하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좌우됨을 보여준다. 나라의 존재 근거가 왕의 정의구현에 있다. 다윗 왕국이 건재했던

22)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이 정의구현을 했다는 의미의 동사는 아사(אָסָה)로서 이는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 사회-윤리적 조치를 취했음을 말할 때 쓰인 단어이다. 예레미야 9장 23절, 23장 5절, 33장 15절; 시편 99편 4절 등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것은 그의 보좌가 정의와 공의에 기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사 9:6; 잠 16:12). 그래서 요시아 왕도 여호와와의 명령으로 정의와 공의를 잘 행하였기 때문에 이상적인 왕으로 인정받고 있다.²⁵⁾ 이렇게 행하는 것이 여호와 의 길이다(창 18:19). 그러나 여호야김 왕은 부왕과 달리 그의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압박과 강포를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 나

23) 한글 개역판(1911)에서는 본문의 어순이 קְדוּשָׁה וּצְדָקָה로 된 것을 צְדָקָה וּקְדוּשָׁה로 번역한 것을 한글개정판(1998)에서는 정의와 공의로 옮긴다. 그런데 어순의 도치 즉 צְדָקָה וּקְדוּשָׁה는 잠언에 3번(잠 1:3, 2:9, 21:3), 시편에 4번(33:5, 89:15, 97:2, 119:121), 창세기에 1번(창 18:19) 등으로 모두 8번 나타나고, 대부분은 전자의 경우처럼 미스파트 바(우)체테크(다카)로 쓰인다(미스파트가 단독으로 424회 쓰인 가운데 체테크와 연계된 경우는 35회). 번역에 있어서 개역의 경우는 미스파트(צְדָקָה)를 의(義)나 공의(公義)-공법(公法)으로 번역했고, 체테크(קְדוּשָׁה)는 공의, 정의로 옮긴다. 한편 개역개정판의 경우는 미스파트를 정의, 체테크를 공의로 옮긴다. 따라서 용어 사용에 많은 혼선을 준다. 여기서는 개정을 따른다. 미스파트 우체테크인 아모스 5장 24절을 개정역에 따르면, 개역의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로 바꾸어 사용한다.

지해문학을 제외하고는 미스파트가 먼저 사용되는 경우가 통례이다(35회, A. Even-Shoshan, *A New Concordance of the Old Testament*, p. 722). 미스파트는 재판한다는 사파트(צָפַד)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의미하는 법률적인 맥락에서 사용된다. 한편 체테크(קָדַשׁ)는 공의에 대한 추상적인 원리를 말할 때에는 의인화되지만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킬 때 쓰인다. 공홀과 진리가 만나고 공의와 화평이 만나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공의는 하늘에서 내려온다(시 85:11-12). 후기에서는 더욱 체테크는 행동화된다(사 56:1, 58:2). 그러나 이 두 용어가 즉 미스파트는 수평적, 체테크는 수직적인 관계만을 설명하는 용어라기보다는 상호의존적이고 보완적이다. 왜냐하면 미스파트 역시 하나님의 미스파트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시 72:1-4). 그래서 이 어휘는 두 단어가 한 의미를 나타내는 이어일의(二語一意) 중언법(hendiadys)에 해당되는 어휘이다(M. Weinfeld, *Social Justice in Ancient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Jerusalem: The Magnes Press,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1995] 25ff).

또한 미스파트는 체테크 대신에 에메트(אֱמֶת-진리-시 111:7), 헤세드(חֶסֶד-사랑-호 12:7), 에브나(אֵבֶנָה-신앙-렘 5:1)나 미쇼르(מִשׁוֹר-평등-레위기 19:15) 등과도 연계되어 사용된다. 바인펠드는 정의와 공의란 어휘의 의미는 사법적인 영역에만 국한된 개념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으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정치-사회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한다(*Social Justice*, 44). 한편 체테크가 먼저 오고 미스파트가 나중에 오는 대신에 에메트(אֱמֶת), 에부나(אֵבֶנָה), 또는 미쇼르(מִשׁוֹר) 등과도 연계되어 사용된다. 주로 체테크는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로서 자주 쓰인다. קְדוּשָׁה וּצְדָקָה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앞의 이가 없는 קְדוּשָׁה는 미스파트를 꾸미는 형용사로서 공정한 재판을 가리킨다. 그러나 뒤의 이가 있는 קְדוּשָׁה는 미스파트와 단어 쌍을 이루어 하나의 공정한 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정의(社會正義)를 의미한다. 체테크와 에메트 혹은 에부나의 대응되는 아카드어의 단어 쌍은 kittum u misarum(진리와 공평)이다.

24) 시편 72편 1-2절. 여기서 미스파트나 체테크가 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25) 예레미야 22장 15-16절. 여기서 요시아 왕은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伸冤)하고 형통(亨通)케 하였다 는 것이다.

라가 망하고 개죽음을 당하는 비운을 당하게 되었다(렘 22:13-19).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상에 정의를 구현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 정의구현을 위해 유다 왕들이 할 일은 예레미야 22장 1-4절에 잘 언급된다.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 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이 말을 참으로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이사야 42장 1절에서 왕의 사명은 이 땅에 정의를 세우기까지(משפט צדק) 죄수를 석방하고 사회제도를 개혁하는 자로 나타나는데 이는 메소포타미아의 미샤름(misarum)에 해당된다.²⁶⁾ 사회의 올바른 질서 확립이 왕의 임무임을 말한다. 정의와 공의(צדק וחסד)를 구현하는 방법은 평등사회를 확립하는 일이다. 정의와 공의란 단순히 올바른 재판(צדק משפט 신 16:18)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글자 같으나 바브(ר)로 연결된 정의와 공의는 이어일어로서 공정한 사법 범주 이상의 정치와 삶 전반에 걸쳐 평등이 보장되는 바 사회정의(social justice)를 의미한다.²⁷⁾ 더욱이 정의와 공의는 세계 질서에 해당되는 것으로도 이해된다.²⁸⁾ 그런데 이방의 왕들이 즉위시에 자유 즉 미샤름을 선포하는 것은 자기의 선함과 관용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으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왕은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는 데 그 사명과 목적이 있다. 왕 자신의 업적 과시

가 아니다. 그래서 시울 왕을 제외한 다른 왕들은 그들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만든 비석이 없다.

법과 사법제도는 정의구현을 위한 도구이다. 왕과 사사나 장로들은 법을 집행함으로써 공동체의 정의를 실현하는 자들이다. 정의구현은 위임 통치자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다. 개인에게 있어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행위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자가 주의 성산에 들어갈 자라고 한다(시 15:1-2). 에스겔 18장에서 개인이 정의구현을 위해 할 일은 소극적으로는 ‘사람을 학대하지 않는 것,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돌려줄 것, 이자를 받지 않는 것’ 등이고, 적극적으로는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주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진실되게 판단하는 것’ (7-8절) 등이다. 마태복음 25장 31-46절에 오른 편에 있는 복 받은 자들에게 말한 내용이 에스겔서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다. 따라서 정의구현이 위임 통치자들에게 있어서는 나라 존립의 근거가 되고(사 5:7; 렘 4:2, 22:5; 암 5:24; 미 6:8),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의한 구원에 전제 조건이 된다.²⁹⁾

현재까지 우리는 우리의 안보와 생존을 미국의 군사력에 많이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의 생존을 미국에 의존할 수는 없다. 미국이 현재는 단극체제로 막강한 힘을 과시하지만 이미 2세기를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단극체제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도 어서 자주독립과 자주국방을 수립해야 한다. 멘덴홀은 10대란 책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의 곡선을 조사한 결과 한 국가 또는 문화권이 10대

26) 이는 아카드어의 misaram ina matim sakanum과 병행되는 용어이다.

27) Weinfeld, *Social Justice*, p. 34.

28) H. G. Reventlow, "Righteousness as order of the World: Some Remarks towards a Programme", in *Justice and Righteousness: Biblical Themes and their Influence*, ed., by H. G. Reventlow and Y. Hoffman, *JSOT suppl.* 137(Sheffield: JSOT Press, 1992), p. 163ff.

29) weinfeld, *Social Justice*, p. 221.

30) G. E. Mendenhall, *The Tenth Generation: The Origins of the Biblical Tradition*(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p. 215ff.

(300-400)를 전후하여 흥망성쇠했다는 것을 보여준다.³⁰⁾ 카니(Carney)도 고대문명의 발전사를 검토하여 유사한 결론을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³¹⁾ 이러한 역사 교훈에 의하면 미국도 힘의 최고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말이다. 앞으로 더 이상 계속해서 의존할 대상이 못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국가의 운명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인 우리 사회에 정의구현을 실현할 때만 가능한 것을 성경에서 교훈받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와 사상적으로 독립하고 공의와 정의로운 사회 구현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라의 운명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VI 교회에 대한 구약의 용어들의 의미와 기능

구약 마소라 본문에는 신약과 일치하는 교회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으나 칠십인역에는 교회에 해당되는 용어가 나타난다. 교회에 해당되는 용어로는 ‘카할’, ‘에다’, ‘암 엘로힘’, ‘암 아도나이’ 등의 헬라역에서 나타난다. ‘카할’은 LXX에서 εκκλησια로, 개역과 표준 새번역에서는 ‘총회’로, 공동 번역에서는 ‘대회’로 번역된다. 한편 ‘에다’는 LXX에서 συναγωγη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두 ‘회중’으로 번역된다. 예를 들면 신명기 23장 2절의 ‘카할 아도나이(קהל אלהים)’가 LXX에서는 ‘주님의 교회’(εκκλησια κυριου)로, 개역에서는 ‘여호와와의 총회’, 공동 번역에서는 ‘야웨의 대회’, 표준 새번역에서는 ‘주의 총회’로 번역된다. 한편 출애굽기 12장 6절의 ‘에다’가 LXX에서는 συναγωγη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모두 ‘회중’으로 번역되고 있다. ‘암-엘로힘’ 또는 ‘암-아도나이’가 LXX에서는 ‘하나님의 백성(λαος του θεου)’ 또는 ‘주의 백성(λαος κυριου)’으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여호와와의 백성’(개역),

31) T. F. Carney, *The Shape of the Past*(1975), p. 195.

‘야웨의 백성’(공동 번역), ‘주의 백성’(표준 새번역) 등으로 번역된다. 위 세 호칭의 뜻과 기능을 살펴보자.

1. 카할로서의 교회

카할 교회의 어원은 ‘콜’, 즉 ‘부르는 소리’라는 단어로 보인다.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카할’은 곧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모인 모임을 지칭한다. 구약에서 카할은 124회³²⁾ 나타나는데 LXX를 살펴보면,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삼상 19:20 제외),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는 항상 ‘교회(εκκλησια)’로 번역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와 민수기에서는 ‘회당(συναγωγη)’으로, 때로는 ‘대중(οχλος)’이나 ‘무리(πληθος)’로 번역된다.³³⁾ 카할은 원래 어떤 특수 목적을 위해 소집된 모임 또는 모인 무리를 말한다. 때로는 행악자들의 모임(시 26:5)도 카할로 지칭되고 있다. 카할의 대표적인 모임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모였던 ‘계약의 백성들의 모임(the assembly)’이다(신 4:10, 9:10, 10:4, 18:16). 역대기(33회 사용)에서는 왕이 종교-정치적 목적으로 소집한 이스라엘의 지파 대표자의 모임이나 제사를 위한 모임을 가리킨다(대상 13:2, 4, 29:10; 대하 20:5, 14). 구약에서 카할 교회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진다 : ① 제사-예배를 위한 모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모인 모임이다. 하나님의 절기에 모인 모임 또는 성경통독 대회에 모인 모임 등을 가리킨다. ② 군사-정치적 목적을 위한 모임 즉 국가의 위기나 사회의 악을 제거하기 위한 특수 목적을 위해 모인

32) Abraham Even-Shoshan, ed., *A New Concordance of the Bible*, vol. 3(Jerusalem : Kiryat Sefer Publishing House LTD), p. 1006; 정하권은 명사 128회, 동사 42회로 계산한다(교회론 I, 분도 출판사, 1991, p. 23).

33) K. L. Schmidt, “ejkllhsiva,” *TDNT*, vol. 3, p. 529.

모임이다. ③ 율법 규정을 위반한 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모인 모임이다(욥 30:28; 잠 26:26; 렘 26:9, 17; 겔 16:40). 여기서 카할은 재판의 기능을 가진 지방 원로들의 모임이다. 이 모임은 성경법 위반자들을 처벌하고 공평한 법집행으로 정의 사회를 구현키 위한 것으로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 지역별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떤 기능을 가졌든간에 카할은 여호와와 교회로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는 개인, 가족, 단체의 소유가 될 수 없고, 항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이다. 독일어 Kirche나 영어의 church란 말도 실제로는 ‘주님께 속함(퀴리아콘 kuriakon)’이라는 말에서 유래하고 있다. 주님 외의 교회의 사적 소유란 교회의 본래 의미를 상실케 되는 것이다.

2. 에다로서의 교회

카할과 병행되는 용어로는 ‘에다’가 있다. 주로 ‘회중’으로 번역되나 ‘카할’도 ‘회중’으로 번역되므로 역자에 따라 다르다. ‘에다’는 LXX에서 ‘에클레시아’로 번역되지 않고, ‘항시 모인 회중(시나고게)’으로 번역되는데, 구약에서 전부 149회 나타난다. 레위기나 민수기(81회)에 주로 나타나며 신명기 작품에는 7회(삿 20-21장에 4회; 왕상 12:20; 대하 5:6; 왕상 8:5) 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예언서에 3회(렘 6:18, 30:20; 호 7:12), 시편에 10회가 나타날 뿐이다. 카할이 신명기와 관련된 작품에서 주로 나타난다면, 에다는 제사 문서와 관련된 작품에서 주로 나타난다³⁴⁾.

34) Jacob Milgrom, et al, "hdu,"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Band 5, hrsg. von G. Johannes Botterweck, Helmer Ringgren und Heinz-Josef Fabry(Stuttgart : Verlag W. Kohlhammer, 1986), s. 1081. 이후부터 TWAT로 약칭.

에다와 카할의 구분이 같은 대상을 지역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시대적 혹은 전승적인 상이점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다. 모세 바인펠드(M. Weinfeld)는 각기 다른 서기관 전승에 따라 이 두 용어가 구별되었다고 말한다. 이를테면, 카할이 신명기적 표현이라면 에다는 제사장적 표현이고, J와 E 자료층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the elders of Israel)로 표현된다는 것이다.³⁵⁾ 한편 슈미트(K. L. Schmidt)는 카할은 예배 회중(the assembly)을 의미하고, 에다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the people united in such an assembly)을 지칭하는 것으로 구별하나³⁶⁾ 사사기 20장 2절에서는 이 두 표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호칭되고 있다. 또한 사사기 20장과 21장에서 기브아 사람의 만행을 근절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각 지파 용사들을 가리켜 the assembly, the congregation, the children of Israel, the people, the assembly of the people of God, the man of Israel과 the elders of the congregation 등 일곱 개의 다른 호칭으로 부르지만 이러한 호칭들도 실제로는 한 실체에 대한 다른 명칭일 뿐이다.³⁷⁾ 열왕기상 12장에서도 다섯 개의 다른 호칭이 주어진다. 위의 명칭들은 이스라엘의 전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교, 군사, 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화된 기구들을 말한다고 한다.³⁸⁾ 여러 문맥 속에서 이런 어휘들이 서로 병행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2장 3절에 모세가 명령한 이스라엘 회중(the congregation)은 21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장로(the elders of Israel)와 동격을 이루기 때문이다(출 19:7-8; 삼하 17:4, 14이 동격). 피차 이런 용어들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맥에서 용어의 분명한 기능을 말할 수밖에 없다. 카할

35) "Congregation(Assembly)," *Encyclopedia Judaica*, vol. 5, p. 894.

36) K. L. Schmidt, "ejkklhsiva," *TDNT*, vol. 3, p. 529.

37) "Congregation(Assembly)," *Encyclopedia Judaica*, vol. 5, p. 894.

38) *Ibid.*

은 많은 대중을 가리킬 때에 쓰는 용어이고, 작은 단위를 지칭할 때에는 ‘회중의 장로들(the elders of the congregation)’이며, 이들이 초기에는 ‘이스라엘 사람(이쉬 이스라엘)’이란 호칭으로 사용되었다.

에다 역시 세 가지 기능을 갖는다 : ① 제사—예배를 위한 모임, ② 군사—정치적 목적을 위한 모임, ③ 종교법 위반자들의 재판을 위한 사법적 모임.

3.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카할, 그리고 에다와 더불어 구약 교회를 지칭하는 호칭으로는 ‘하나님의 백성(עַמּוּת־יְהוָה)’³⁹⁾의 모임이나, ‘여호와와 백성(עַמּוּת־יְהוָה)’⁴⁰⁾의 모임, 혹은 ‘거룩한 백성(קָדְשֵׁי־יְהוָה)’⁴¹⁾의 모임 등이 있다. 카할과 에다와 더불어 ‘백성’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하는 용어이다.⁴²⁾ 백성에 해당되는 ‘암’이라는 히브리어는 본래 친족 또는 씨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씨족 또는 가족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휘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음으로 얻어진 호칭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선 이스라엘이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구약에서 야웨 종교에만 나타나는 특수 개념이 아

39) 사사기 20장 2절; 사무엘하 14장 13절; 시편 47편 10절은 본문에 문제가 있음.

40) 민수기 11장 29절, 17장 6절; 사사기 5장 17절; 사무엘상 2장 24절; 사무엘하 1장 12절, 6장 12절; 열왕기하 9장 6절; 에스겔 36장 20절; 스바냐 2장 10절.

41) 신명기 7장 6절, 14장 2절, 21절, 26장 19절, 28장 9절; 여호수아 17장 15절; 느헤미야 9장 10절; 이사야 62장 12절, 63장 18절; 다니엘 12장 7절.

42) G. W. Anderson, "Israel : Amphictyony: 'AM KAHAL: 'EDAH," in *Translating and Understanding the OT : Essays in Honour of H. G. May*(1970), p. 151.

니라 다른 민족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민족의 신과의 관계에서도 주어지는 보편 개념이다. 예를 들면 민수기 21장 29절에서 모압 백성과 그들의 신인 그모스와의 관계를 가리켜 ‘그모스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다. 한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관계도 항상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이사야 19장 2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여호와께 돌아온 애굽 백성을 가리켜 ‘나의 백성 애굽이여’라고 부른다.⁴³⁾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뜻이다. 선민의 객관적인 3가지 증거는 다윗의 왕권(kingship), 예루살렘 중앙 성전(central temple)과 땅(land)이라고 한다.⁴⁴⁾ 하지만 선민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범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는 자들을 일컫는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롬 9:6) 내용적으로 참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테면 야곱의 후손이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 이스라엘이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은 참 이스라엘을 가리켜 교회라고 칭한다(계 21:3).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선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나타난다(히 8:10, 11:25; 롬 11:1-2). 이 구절들의 공통된 특징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옛 계약에 매여 있는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계약에 의해 주어진 새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

43) 제 5장 하나님의 백성, pp. 57ff. 참조.

44) R. E. Clements, 「구약 신학(Old Testament Theology)」, 김찬국 역(1989), p. 92ff.

인 것이다.

② 선민은 만민을 위해 사명을 다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백성으로 이런 사명을 다 하는 자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다. 10회에 걸쳐 나오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대부분 신명기에 나타나는데(7:6, 14:2, 21, 26:19, 28:9), 신명기 교훈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에 있다는 것이다. 거룩함이란 일상이나 보통과 구별된 특수한 삶, 그리고 이방신이 아닌 하나님께만 속한 삶을 뜻한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며 사명이다. 기독교인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이방인에게 비추고 자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기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개인주의적인 것이 될 수 없고, 이상주의적인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된다. 더우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맺은 계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 계약으로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할 교회(ecclesia semper reformanda)라고 한스 킹은 지적한다.⁴⁵⁾

VI. 교회의 본질

성경에서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아 모인 공동체(에클레시아)이다. 구약성경에서 헬라어 에클레시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할은 교회라고 번역되기보다는 회중으로 번역된다. 이들 용어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의미를 갖는다. 출애굽기 19장 5-6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한다. 이런 교회의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반복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교회는 신약의 교회와 맥을 잇는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리며(갈 3:2), 로마서 11장 17-24절에서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인 자들로 묘사된다. 성경에서 교회는 건물이나 교파를 가리키는 경우는 없다.

신약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설명된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전 12:12; 롬 12:4-5; 엡 1:22-23; 골 1:18). 믿는 자들은 이 몸의 지체들로서 그 안에서 특수한 기능을 갖는다(고전 12:12-31). 그리스도와 교인과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된다. 이런 표현들은 교인과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게 하며 그리스도와 교인들과의 일체감을 갖게 해준다. 신약에서 교회와 국가정치와의 관계는 대립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았다. 초기에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분리 결합된 집단을 이루었고(행 2:44-45), 소유를 공유한 적도 있으나 이런 습관은 곧 사라졌다. 주로 소종파와 같은 경향을 갖고 있었다.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전력을 기울였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최선을 경주하였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로서 이는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통치적 개념이다. 교인들의 세상 정치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라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잘 반영되어 있다. 즉 예수님의 정치관은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이해를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로마가 지배자의 정권이라 할지라도 이방 정권도 하나님의 역사(役事)와 무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것이다.

45) 한스 킹 이홍로 역, 「교회란 무엇인가」(왜관 : 분도출판사, 1970, 1978), p. 93.

앞에서 언급한 대로⁴⁶⁾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나라이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독점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효력을 갖도록 묶는 띠를 계약(ברית)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목적도 제사장 나라로서 대대로 이 땅 위에 공의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권속을 택한 것도 정의구현을 위함이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義)와 공도(公道)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라”(창 18:19). 그러나 이러한 선민도 하나님의 정의구현 목적을 실현하지 못할 때는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보듯이 버림을 당하게 된다(렘 18:1-11). 그래서 선민은 만민을 위해 존재할 때 그 존재 의미를 갖는다. 만약 선민이 만민을 위한 사명을 망각할 때에 선민은 곧 우월과 자만에 빠지게 된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성경의 기본 원리는 어떤 나라나 민족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렘 18:7-10).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렘 18:9-10).

따라서 교회는 신적질서(神的秩序)이고 나라와 민족은 자연질서(自然秩序)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나라와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교회와 나라-민족이 위임받은 사명에 있어서는 공유점이 있으나 목적과 목표가 다르다. 각 나라와 민족은 나름대로 그 나라와 민족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 이 목적과 사명이 하나님의 뜻과 그 뜻

46) 각주 10번 이하 참조.

을 이루는 도구로서 합당하게 사용되어질 때에는 그 나라와 민족의 존재 가치를 갖게 된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위대로서 하나님 나라 구현에 목적이 있다. 하나님 나라는 전 인류의 평화와 구원에 있다. 어느 한 나라와 민족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나라의 백성으로 먼저 구원의 대상이 되고 구원의 매개가 된 것은 사실이다(롬 9-11장). 그런데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는 데 실패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유보된 상태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롬 11:25-36).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이 수행할 사명은 곧 이스라엘 민족이 다하지 못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국경이 있으나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으므로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우리의 사명과 목적이 있다. 이는 유대교가 한 나라-민족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을 초월한 세계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VII. 나라와 교회의 상관관계

사람은 누구나 먼저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교회를 접하기 전에 한 국가의 한 사람으로서 운명지어진다. 교인의 사명을 맡기 전에 이미 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임무와 사명이 주어진다. 교인들은 교회에 헌금을 내는 일 이전에 납세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는 강제이나 교회 헌금은 자율적 의무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먼저 자기 국가 공동체를 우선해야 하고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국가 공동체를 생리이다. 개인으로서 교인은 양보하고 희생하지만 국가 집단에는 이런 양보와 희생이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 공동체의 동의 없이는 양보와 희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나라 사랑은 민족 단위에 대한 충성이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하늘

의 시민권(빌 3:20)과 대한민국의 시민권 즉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중 의무를 갖는다. 어느 한 쪽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리 기독교인은 늘 이중 구조와 생활 속에서 이중 권리와 의무를 향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교회의 의무와 민족-국가의 의무와 권리가 상치될 때가 문제이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비장한 결단이 요구된다. 애국자가 되느냐 매국자가 되느냐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민족을 더 사랑하느냐는 것이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민족을 배반하는 것인가? 아니면 민족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인가? 그래서 교회와 나라-민족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문제이다.

통상 나라와 교회의 관계는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첫째 유형은 이원론적 사고에서 유추되는 형태로 교회와 나라는 아무 관련없는 별개라는 것이다. 둘째 유형은 교회와 나라는 공동 운명체이므로 동고동락하여야 한다는 사고형이다. 국가 안에 교인들이 있지만 교인들은 나라의 양심이요 파수꾼이다. 이런 사고형은 일원론적 사고에서 유추된다. 나라와 교회는 동심원적 관계다. 셋째 유형은 교회와 나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양쪽이 중간에서 만나는 것으로 피차 침해나 간섭보다는 상호협조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유형이다. 충돌과 마찰 없이 균형 잡힌 평등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므로 다분히 이상적이다. 문제는 이상적일수록 현실성이 없다. 일원론과 이원론의 중간 유형에 속한다. 넷째 유형은 교회와 나라가 필요에 따라 얼마간의 관계는 갖고 있다는 사고유형이다. 피차 필요할 때만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교회가 우위에 있는 유형과 정치가 우위에 있다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원론과 일원론적 사고의 중간형태이나 좌우로 치우침에 따라 정치 또는 교회의 우위가 결정된다는 형태이다. 이러한 4유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교회와 나라의 관계에 바람직한 태도인가?

1) 첫 번째 유형은 교회와 나라-민족은 피차 아무 관계가 없는 별개의 공동체라는 것이다. 이원론적 사고 유형에 따라 교인들은 교인들이고 민족-국가는 민족-국가이지 양쪽에는 어떤 관련성도 필요성도 없고 피차가 독립-독자적이라는 것이다. 1901년 장로교선교사공의회에서 채택된 문서에 나타난 우리 교회의 유형이 이런 유형이다. ‘우리 목사들은 대한나라 일과 정부 일과 관원 일에 대하여 도무지 그 일에 간섭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⁴⁷⁾ 특히 양쪽의 관계가 적대적일 때 더욱 그렇다. 이방 로마가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과정에서 기독교인은 로마 권세를 적 그리스도요 악마의 화신으로 생각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언급된 대로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나라-민족 관계는 적대 관계일 수밖에 없다. 피차간에는 단절밖에 없는 상태이다. 정교분리(政教分離)의

구분	나라	교회	비고
루터	세상-지상 왕국, 잠정적 왕국	하나님 왕국, 영원한 왕국	
	사탄의 왕국	영적 왕국	
	악의 세력집단	하나님 왕국	
어거스틴	자애충동 집단	신애충동 집단	
	인간의 권세, 물리적 힘	하나님의 권세, 사랑의 힘	
	세속 통치, 창조질서	영적 통치, 신적질서	

원칙도 이런 사고에서 유래된다. 어거스틴과 루터의 이원론적인 사고구조(思考構造) 태도에 따라 나타났던 나라와 교회의 대칭관계를 아래 도표로 살펴본다.

이런 유형에서는 이것이나 아니면 저것이냐는 양자택일이기 때문에

47) 성기문, 앞의 책, p. 21에서 재인용.

48) 나학진, “정교분리(政教分離)에 대한 신학적 고찰”, 「교회와 국가」, 기독교와 문화 제 1집 (서울: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1988), p. 189.

굴종하는 길 아니면 저항하는 길밖에 없다. 정교가 완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편에서는 절대권력이 양산될 수 있고, 한편 교회편에서는 경건주의가 고조될 수 있다.⁴⁸⁾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절대권력으로 비화되어 교회를 박해할 때에는 많은 순교자와 희생자가 속출되었음을 볼 수 있다. 초대교회로부터, 어거스틴⁴⁹⁾이나 루터⁵⁰⁾의 입장은 다분히 이원적 사고구조에 가깝다.

이런 단절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교훈하셨을까? 우리는 국가의 국민이요 동시에 교회의 교인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로마의 가이사(황제)가 자기들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악한 사람이고 불안정한 나라의 대표라 할지라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양쪽과의 관계를 다 가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하고 선행하지만 하나님과 가이사와의 관계도 아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⁵¹⁾ 필요악이란 말처럼 악한 자도 때때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

2) 둘째 유형은 교회와 나라는 보다 더 전적으로 항상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는 태도이다. 교인들과 나라의 국민은 같은 운명을 가진 공동체 일원으로서 양자는 동심일체라는 것이다. 이는 일원론적 사고 유형에서 출발한다. 루터도 일원적 사고를 지향하여 나라와 교회는 하나님의 세계 통

치의 두 팔이라고 한다.⁵²⁾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오른팔이라면 교회는 왼팔이다. 그러나 칼빈의 사고구조가 일원론적 유형에 가깝다. 칼빈은 나라는 교회에 봉사하는 권력기관으로 이해한다. 나라와 교회는 각각 다른 기관이기는 하나 다같이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기구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협력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는 하나님의 간접 지배를 받는 곳이라면 교회는 직접 지배를 받는 곳이라고 한다.⁵³⁾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 통치라는 범주 안에서 신의 섭리 도구이다. 나라의 기능은 악을 제거하는 데 있다. 국가에 충성과 복종도 주안에서 복종이다. 로마서 13장이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말한다면 베드로전서 2장 13-14절은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다. 나라와 교회가 갈등과 충돌이 있다면 교회나 나라가 자기 자기의 한계를 넘어 다른 영역을 침범할 때, 또는 나라가 나라의 위탁기능을 망각하고 외도할 때 충돌이 불가피하게 된다.⁵⁴⁾ 오히려 교회와 나라의 절대적 분리란 교회가 스스로 사회에 대한 자신의 사명을 부정할 때이다. 칼빈의 이해가 보다 더 구약성서적 이해에 가깝다. 발트도 율법은 복음의 형식이고 복음은 율법의 내용으로 양자의 관계를 설정한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교훈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에 정하신 바다. 이 말씀은 각 교인들이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함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로부터 정하여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권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시된다. 권세란 민족-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49) 이종성,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현대 신학적 이해", 『교회와 국가』, p. 52.
 50) 앞의 책, p. 191.
 51) 임진수, "신약성경에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 한국개혁신학회 제13회 정기학술심포지움: 한국의 정치문화와 기독교, 2002년 10월 12일 발표, p. 43.
 52) 이종성, 앞의 책, p. 53.

53) 이종성, 위의 책, p. 54.
 54) 신성중, "교회와 국가의 관계", 『교회와 국가』, pp. 66-67.

터 위임받은 것이다. 예로부터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리하는 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도서 3장 1절에도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권고한다. 전도서 8장 2절에서도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이유는 이미 이것을 하나님께 맹세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도 결국에는 주(主)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한다(벧전 2:13-14).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악한 권세에게라도 복종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런 질문에 주어진 하나의 답변은 무조건 세상 권세에 맹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에 한해서 그 권세에 복종할 수 있다는 논리가 제시된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과거 일본 국가에 복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여러 애국지사들처럼 항거하다 순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일본 권세에 복종한 기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 순교한 순교자들도 있었으나 평가는 아직 유보된 상태이다. 복종도 본의 아닌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순교정신도 큰 빛을 주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교인들은 자기들이 속한 국가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은 국가나 교인들도 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도구로 양자가 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논리이다. 루터도 이런 논리를 따른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두 팔이다”고 한다(교회와 국가에 대한 현대 신학적 이해, 53쪽). 즉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큰 뜻에 봉사하는 두 공동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은 신사참배와 같은 나라에 대해 굴종이 있을 뿐 교회와 국가 간에 갈등과 대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예레미야의 태도나 루터의 태도가 같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에게 더 큰 나라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하고 있다.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렘 27:12).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충성하므로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는 매국노와 같은 입장에서 있기 때문

에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관점은 세계 역사 운행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옛날부터 제정일치시대에는 종교의 영역과 종교 업무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국가의 영역과 국가의 대사를 주관하는 자는 동일인이고 양쪽 영역의 업무가 분리되지 않았다. 왕이 곧 제사장으로 정치와 제의를 다 주관했다. 정치가 건전했으면 종교도 건전했고 정치가 부패했으면 종교도 부패했다는 결론이 된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다윗 왕국 전까지는 제사장과 정치지도자의 업무가 분리되지 않았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것은 정치가 세속화되면서 종교로부터 멀어지게 된 때부터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주도했듯이 종교와 정치가 완전 분리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종교와 정치가 피차 견제하고 상호 협력하듯이 교회와 나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교회와 교인들은 민족과 나라의 양심이고 파수꾼으로 나라를 지키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국가는 교회와 교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때가 가장 바람직한 교회와 나라의 관계일 것이다. 예언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직접 왕에게 권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한다.

3) 셋째 유형은 교회와 나라가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절감하고 피차 같은 목표를 지향하면서 상부상조하는 유형이다.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왕하 18:3), 하나님을 의지하여 앗수르의 공격도 물리쳤고 우상과 산당을 파괴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으로 칭찬을 받고 목숨도 연장받았다(왕하 18-19). 정치와 종교의 양면을 잘 조화있게 실천한 자이다. 요시야 왕도 히스기야처럼 선정(善政)한 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상 이들과 같은 왕은 이들 외에는 없다. 42명의 왕들 가운데 두 명만이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이상적으로 잘 수행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 유형은 상당히 이상적이므로 현실성이 약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오늘

의 현실에서는 위정자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위임사명을 의식해야 하고 교회도 예언자들처럼 국가와 같은 운명 공동체임을 재삼 음미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넷째 유형은 교회와 나라는 필요할 때만 관계를 갖고 피차 간섭도 지배도 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구별은 하되 필요시 상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 큰 힘을 갖고 간섭을 할 때 다른 한 쪽이 위축될 수 있고 그 역도 같은 현상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교인들이 국가와 관계를 가지게 될 때 국가가 부패하면 교인들도 따라서 부패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 쪽은 관계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유형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라 할지라도 앞에서도 언급된 대로 나라의 권세가 히틀러 같은 독재라면 교인들은 진리와 정의를 어떻게 보존하고 유지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반대로 독일의 폴 알타이저 같은 신학자는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대로 히틀러를 적극 지원하고 그에게 복종했다. 히틀러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많은 희생을 강요할 때 그 권세에 항거하고 저항함으로써 순교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폭력까지 사용하여 악한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으면 알타이저처럼 히틀러에 복종하고 그를 지원하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자들은 극한 상황이라는 조건 하에 폭력까지 허용하는 자이고, 소극적인 자들은 순교를 주장한다. 하지만 역사상 많은 경우에 순교를 주장한 자들이 마지막에는 굴종한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the power)에 힘입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땅의 권세요 상대적 인간의 권세(a power)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할 때만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적이며 잠정적 권세이다.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한계 내에서만 그 존재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교회도 같은 논리에 부딪힌다.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할 때에만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는 조건적 공동체이다.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이다. 국가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조건적-한계적인 권세이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따라서 교회 교인들은 양심에 따라(롬 13:5) 합리적이고 자율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즉 주님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베드로의 고백이 도움이 된다(행 5:29). 바람직한 것은 양자가 항상 한계적 존재임을 의식할 때 긴장과 충돌이 없다. 그러나 역사상 교회와 국가는 늘 긴장관계 속에서 관계를 유지하곤 했다.

우리는 한민족(韓民族)의 일원으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양쪽 영역에 속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적 사고형보다는 일원적 사고로서 항상 하나님을 위해 국가에도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 오히려 교회는 민족의 양심으로 국가의 파수꾼으로 기능을 감당함이 요청된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바라는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양쪽에 다 관계를 갖고 국가의 법도 따를 것을 교훈한다. 바울은 양심에 따라 행할 것이지만(롬 13:5) 더욱더 적극적으로 권세에 복종할 것을 권한다. 그러나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에는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런 권세를 적그리스도로 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교인들과 국가의 관계는 국가가 적그리스도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이원적이 아니고 일원적이다. 교회 교인들은 자기 국가를 하나님 나라로 바꿀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VI. 맺는 말

교회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공동체인 것처럼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위임통치 기구이다. 나라를 세운 목적도 백

성들의 안전과 평화를 이루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데 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 자주독립과 자주국방을 이루는 것이다. 양자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지상에 실현하는 데 있다. 교회와 나라의 관계는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첫째 유형은 이원론적 사고에서 유래된다. 교회와 나라는 별개의 것으로 피차 무관하다. 여기서 양자가 무관함으로 피차 적대시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고 지배당하기도 한다. 한 쪽만의 독주에 따라 국수주의나 교권주의 형태가 출현하기도 했다. 둘째 유형은 교회와 나라가 동심원적 관계라는 것이다. 물론 양자가 다 하나님의 위임통치로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도 정치적 영역이고, 예수의 십자가도 정치적 형벌이었다는 것이다. 양자는 상관관계에 있으므로 갈등과 충돌보다는 서로 협조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왼쪽 팔이라면 나라는 하나님의 오른 팔인 셈이다. 교회와 나라의 분리는 교회가 교회 사명을 거부한 셈이 된다. 오히려 국가는 교회에 봉사기관으로 사명을 다 한다. 나라가 하나님의 간접 지배를 받는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직접 지배를 받는 셈이다. 셋째 유형은 교회와 나라는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은 기구로서 피차 상부상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상대를 간섭도 하지 않고 지배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유형이다. 아주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상적일수록 현실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약점이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유형은 히스기야와 요시아 왕 때이지만 얼마 오래가지 못하고 불발로 끝났다. 넷째 유형은 위의 유형들의 절충안으로 교회와 나라는 때때로 상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두 원이 서로 만나는 지점에서 상관관계를 말한다. 피차 필요시에는 관계를 가지고 그 외에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위 4가지 유형에서 성서적인 유형은 칼빈의 주장처럼 두 번째 일원론적 사고유형이다. 곧 정치 행위와 신앙 행위가 동일시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진중세례에 대한 선교신학적 이해



장승권 군종목사



I. 서론

A.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의 짧은 세월 동안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가 주목할 만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 비교적 짧은 역사 속에서 한

■ 장승권 목사

- 장로회신학대학교 졸업(B.A.)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M.Div.)
-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 졸업(Th.M in Miss.)
- 육군 제3보병사단 삼성교회 담임목사

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뜨거운 신앙심과 더불어 한국 경제의 고도의 성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경제개발 정책에 따라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도시로 집중하였고, 이러한 인구의 집중은 대형교회들의 탄생을 가져왔으며, 신도시가 개발되는 곳마다 개척교회들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러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여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갔으며 그 결과 성장의 한계를 넘어서 최근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 보고서에 의하면 1992년부터 2001년까지(10년) 통계 결과 전체 교인 수는 2,051,378명에서 2,328,413명으로 38.2%(277,035명)가 증가하였고, 교회 수는 5,210개에서 6,793개로 30.3%(1,583개) 증가하였으며, 목사 수는 5,642명에서 10,145명으로 79.8%(4,053명)가 증가하였다¹⁾

위의 통계를 종합하면 연간 교인 수는 연 3.8%, 교회 수는 3%, 목사 수는 8%의 증가율로서 목사의 수가 교인과 교회 수보다 두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1년에서 2002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교인 44,399명에서 45,306명으로(2.0%증가), 교회 수는 6,621개에서 6,793개로 2.6%(172개)가 증가하였고, 목사 수는 9,601명에서 10,145명으로 5.7%(546명)가 증가하였다.²⁾ 지난 10년 대비 교인 수는 1% 정도, 교회 수는 1.2%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지만 목사의 수는 8%에서 5.7%로 줄어들어 여전히 교회와 교인수의 성장률에 비추어보면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 교회는 교회와 교인 수는 성장이 둔화된 반면 목사의 수만 늘어나는 기형적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한국

1) 김상학, 「총회헌의안 및 보고서, 제85회」(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p. 117.
2) 김상학, 「총회회의록, 제87회」(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3), p. 131.

교회의 전도 및 새신자 양육에서 문제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한국 교회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대안은 무엇인가? 바로 '청년 선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청년 선교의 핵심적인 장(場)은 어디인가? 먼저 대학캠퍼스가 있다. 각 대학마다 C. C. C나 네비게이트, 예수전도단,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등 많은 선교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동시에 수많은 각종 이단들이 대학생들을 유혹하는 것도 무시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이버 종교와 이단들에게서 보호받을 수 있는 군대는 청년 선교의 황금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군에서 입대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미 세례를 받은 청년들을 제외하고- 매년 20여만 명이 세례를 받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한국 교회만의 특별한 은혜라고 할 것이다.³⁾

그러면 청년 선교의 핵심어장인 군(軍)이 처한 현실은 어떠한가? 1953년 휴전 이후 155마일의 철조망과 하늘, 그리고 바다에서 북한군과 긴장을 해소하지 못한 채 수십만의 군대가 대기하고 있다. 군(軍)이란 전쟁을 전문적으로 관리 수행하는 조직집단을 말한다.⁴⁾ 군의 존재란 외부로부터 적의 침입이 있을 때 이를 반드시 격퇴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군의 사명은 국가에 대한 충성, 민족에 대한 충성, 국토 방위,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다.⁵⁾ 전쟁을 했을 때 이길 수

3)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32차 정기총회 보고서」 등록번호 03-1-19 (2003, 2): p. 71.
위의 보고서에 의하면 진중세례 인원이 2000년 187,156명, 2001년 186,959명, 2002년 182,23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2003년 10월 14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 전화 확인 결과 2003년 6월말 현재로 77,381명의 진중세례 인원이 집계되었다. 자세한 통계는 부록을 참고하라.

4) 육군본부, 「한국의 군인정신」(육군인쇄창, 1982), p. 11.

있는 힘을 전력이라고 한다. 좁은 의미의 전력은 군사적 차원의 전력으로 부대단위로 볼 때 전투력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전투력에는 유형 전투력과 무형 전투력이 있는데, 유형 전투력이란 병력 및 무기, 장비, 물자 등의 물질 전력을 말하고, 무형 전투력은 기술 전력, 조직, 제도 등의 관리 수준, 통솔력, 진술 등의 운용 전력, 그리고 장병들의 의지력을 그 본질로 하는 정신 전력을 말한다.⁶⁾ 이러한 정신 전력의 핵심인 '신앙'의 중요성을 인식한 고(故)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당시 육군 군종감에게⁷⁾ "신앙 전력화"란 휘호를 하시하였으며, 그 이후 "신앙 전력화"는 군종병과의 표어가 되었다.

이 시간에도 장병들의 가슴을 신앙의 철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G. O. P 철책에서, 해안에서, 강안에서, 기지(site an air base)에서, 함상에서 군종목사들이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있다.⁸⁾

군대는 청년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그것도 육체와 정신이 건강한 청년들이 정기적으로 입대하는 곳이다. 이러한 청년들을 복음으로 무장시킨다면 저들의 영혼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나아가 나라가 살게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복음을 전한 다음에는 저들의 신앙고백 위에 가장 먼저 행해지고 있는 것이 '세례'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중세례'가 때로는 형식적 그리스도인을 양산한다는 등의 오해가 있음을 알고 있다. 또한 군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집단세례에 대한 선교신학적 연구가 그동안 소외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군 안의 집단세례에 대한 선교신학적 이해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자는 '세례가 곧 선교의 출발'이라는 믿음으로 군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5) 국방부, 「정신전력 지도지침서」(국방부, 1984), p. 38.

6) 김기태, 「전쟁과 선교」(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p. 198.

7) 당시 군종감은 문은식 목사로서(예장 통합), 육군 14대 군종감(예비역, 대령)으로 예편한 뒤 현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8) 군종장교의 숫자는 대외비로 분류되어 있어 본 논문에 밝힐 수 없다.

진중세례에 대하여 신학적, 성서적, 역사적으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B. 연구범위와 방법

본 논문은 다양한 문헌을 고찰하여 군선교에 있어 세례의 중요성과 집단세례에 대한 선교신학적 정립을 시도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세례의 성서적 이해를 통해 세례에 대한 선교신학적 입장을 고찰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진중세례의 선교신학적 이해와 그 배경을 살펴본 후 진중세례의 근거가 되는 집단세례의 사례를 선교 역사 속에서 살펴볼 것이다.

IV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연구를 요약할 것이며,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II. 세례의 성서 신학적 이해

구약의 성례들은 모세의 종교의식법에 규정된 것으로 할례(Circumcision, 창 17:10), 희생제사(Sacrifice, 레 1-7장), 그리고 결례(Purification, 레 11-15장)가 있으며, 이러한 전통들이 신약의 세례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자.

1. 할례(Circumcision)

할례란 남성 성기의 표피 끝을 잘라 버리는 의식을 말한다(창 17:11).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든지 아니면 이방이든 지간에 태어난 후 팔 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신다. 할례란 하나님께

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표증이었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되어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다(창 17:10-14). 이스라엘 남자는 태어난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으며(창 17:12; 레 12:3), 외국인든지 나그네이든지 할례를 통해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출 12:48).

할례는 아브라함 이후 모세를 통해 할례에 대한 명령을 다시 하였으며 모세에 의해 법으로 제정되었다(레 12:3). 이스라엘 초기부터 할례의 외적인 의미와 함께 내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사상이 발견된다. 모세는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의미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였다(신 10:16).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이 할례를 행하셔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베풀어주시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신 30:6).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을 향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참된 회개를 촉구하였다(렘 4:4, 9:26). 그리고 에스겔도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였다(겔 44:7). 결국 할례의 중심은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할례의 의미는 세례 요한이나 바울이 말하는 세례와 그 맥이 같다고 할 수 있다.

2. 희생제사(Sacrifice)

희생제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행위와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해를 위해서 혹은 죄의 용서를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 제사하였다. 희생제사에서의 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 가운데서 드러졌다(레 1장). 동물을 잡아와서 안수하면 제물이 되지만 안수하지 않으면 그냥 동물일 뿐이다.⁹⁾ 안수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신약에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요,

자신이 죄 없고 흠과 티가 없는 유일한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위 문제를 해결하셨다(히 4:14, 9:11; 빌 2:8; 롬 5:19).¹⁰⁾

세례는 물 속에 잠기는 것이다. 물 속에 잠긴다는 것은 곧 옛사람이 죽는 것을 말한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사건이나 세례를 통하여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건은 그 맥락을 함께 하는 것이다.

3. 결례(Purification)

결례(정결의식)는 물을 사용하여 정결케 하는 의식이다. 물을 사용하여 정결케 하는 의식은 고대인들 가운데 일반적인 것이었으며, 이러한 의식은 구약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흐르는 물에 온몸을 담그는 의식은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 버리는 수단이었다.¹¹⁾ 유대인들은 생수의 효력을 중요시하여 샘물과 같이 흐르는 물은 신비스러운 능력을 지닌 것으로 생각했다.¹²⁾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나 거룩한 예전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물로 깨끗이 씻는 의식을 가졌다. 이러한 의식은 단순히 인간이 깨끗함을 보이고자 하는 자의적 행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 하에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¹³⁾ 예를 들면 아론이 제사장

9) 강문호, 「성막으로 성경을 말한다」 (서울: 한국가능성계발원, 1999), p. 49.

10) 위의 책, p. 482.

11) J. E. Church, *Handbook of Bible Doctrine*, 구영재 역, 「기본성경교리핸드북」 (서울: 아가페출판사, 1978), p. 166.

12) G. R. Beasley-Murray, *Batism in the N. T.*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3), p. 3.

13) 정장복, 「에베학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5), p. 163.

으로서 제단을 쌓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으며 (레 16:24), 일반 백성들에게도 부정함은 반드시 물로 씻도록 하는 명령 (레 15:5-12)을 함으로써 모든 부정함은 요소들로부터 정결케 하는 방편으로 물로 씻는 의식이 제정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만 했다. 이러한 결례의식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례의식의 제정은 곧 유대 민족의 종교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후에는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 보이는 의식으로써 강조되었다.¹⁴⁾

이러한 결례의식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보이고, 제단을 쌓으며,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입하는 종교적 행사를 말한다. 이러한 정결의식에서 물은 씻거나, 담그거나, 또는 뿌림으로 사용하였다.

모세의 율법에는 부정함은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 네 종류가 나오는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함 짐승에 관련된 것(레 11장), 출산한 여인에게 행해야 하는 정결의식(레 12장), 피부병에 대한 것(레 13-14장), 남녀의 성기에서 유출되는 분비물로 인해서 치러야 하는 의식 등이다(레 15장).¹⁵⁾

나아가 유대인들의 정결 사상은 에스겔의 예언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겔 36:25), 후기의 선지자 말라기에 와서는 이러한 정결의 의식이 메시아의 도래 전에 한 예미자(세례 요한)에 의하여 계속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다(말 3:1). 하박국은 ‘정결’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대해 사용하여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다”고(합 1:13) 했으며,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죄를 정결케 했다”고(히 1:13) 적고 있다.¹⁶⁾

이러한 정결의식은 물로 깨끗하게 씻는다는 형태적 모습에서 세례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례(Purification)가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듯이 세례(Baptism) 또한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통점을 갖게 된다. 따라서 요한에게서 행해졌던 세례는 이러한 정결예식에서 나온 유대적 전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결례와 세례의 차이점은 결례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복수 예식이지만 세례는 일생에 단 한번 주어지는 유일회적 성격을 가졌다는 점이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반복적인 결례와 기독교 세례와의 연결점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애덤스는 “이러한 결례(정결)의식들이 곧 세례”라고 주장한다. 또한 머레이는 이러한 유대적 결례를 가리켜 “새로운 시대에 이어질 세례의 모형”이라고 주장한다.¹⁷⁾ 즉 구약의 백성들이 행한 결례(정결의식)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며 세례와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4.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메시아적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계시적인 예식이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는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마 21:32).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직전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의식을 베풀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였다(마 3:1-6).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 요한’, 또는 ‘세례자’라는 별칭이 붙게 되었다.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막 1:4, 눅 3:3). 이러한 요한의 세례는 강한 윤리적 색채를 띠고 있다. 세례 요한이 배운

14) 앞의 책, p. 164.

15) “하용조,” 「비전성경사전」, (2001).

16) 위의 책, p. 1135.

17) G. R. Beasley Murray, *op. cit.*, p. 10.

세례의 특징은 첫째, 종말론적 의미를 가진 세례였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의 도래와 이에 따르는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내포한다. 요한의 세례는 하늘나라에 들어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준비를 도와주는 요소가 들어 있고, 새롭게 다가오는 세대를 위한 준비의 뜻이 있었다. 둘째, 회개를 중심으로 한 세례였다. 세례는 개인이 회개한 것을 밖으로 드러낸 증거의 행동이었다(눅 3:8).

세례 요한의 세례는 완전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으로 이해해야 한다. 마태 기자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이사야 40장 3절이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실현된 것으로 이해된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신이 새롭게 제정한 의식이 아니라 구약의 전통을 잇는 것이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에는 구약에서 언급되지 않은 ‘회개’의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구약의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았다면 요한의 세례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5.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기독교 세례 성례전의 직접적인 출발이며 기초가 된다. 예수의 세례는 성령의 역사 속에 메시아로서 사역의 출발됨을 알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의미로 해석하였으며, 친히 다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요 3:22), 제자들에게도 세례를 베풀도록 명령하셨다(요 3:23, 4:1-2; 마 28:19).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즉 사람의 아들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예수의 세례 받으심은 그리스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기 위함이며, 성령의 임재로 인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소유한 메시아로서의 존재를 확인시키기 위함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의 소리가 이를 증거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 예수는 그의 세례를 인류의 죄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 죽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였으며(막 10:38; 눅 12:50),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예수께서 세례를 그의 죽음과 연관시키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다른 사람들의 세례와 근본적인 차이를 갖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다.¹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할 내용이 없으시지만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씻어내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건은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진 대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러한 세례 사건은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되어지는 어린양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¹⁹⁾라고 증거하였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양의 모습은 바로 구약의 희생제물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정결하고 깨끗한 제물로 모든 제물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스스로 드러지게 된다.

18) 요한복음 18장 38절, 19장 4-6절로 보면 예수를 심문한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며, 히브리서 4장 15절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하며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꾀사도 없으시며”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는 무관한 분이시며 죄를 범치도 않으시는 분임을 증거하고 있다.

19) 요한복음 1장 29절.

사도들은 3천 명이 넘는 무리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과²⁰⁾ 빌립의 세례(행 8:13, 38), 아나니아의 세례(행 9:17-18), 바울의 세례(행 8:8; 고전 1:16) 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랐으며, 복음서 중 유일하게 마태복음 기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록함으로써 오늘날 세례를 베푸는 형식의 성경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마 28:19).

6. 사도행전의 세례

사도행전에는 물세례와 성령세례의 긴장관계와 특별히 군세례의 역사적 모형인 집단세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도행전의 세례 유형〉

성경	장소	배경	세례 조건	세례 권위	세례자	세례 방법	세례 인원	내용
①행 2:37-39	예루살렘	베드로의 설교	회개	예수	베드로	물	3천 명	죄사함 성령을 선물 받음 집단세례
②행 8:12-17	사마리아	전도	믿음	예수	빌립	물	남녀 다수	집단세례

20)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됨을 설교한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데 이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했다고 증거한다(행 2:41). 그러므로 이 본문을 집단 개종의 원형으로 볼 수 있으며, 진중세례의 역사적 근거로 삼을 수 있겠다.

③행 8:26-40	가사	이사야서를 읽음	복음을 들음	예수	빌립	물	에디오피아 내시	개인세례
④행 10:44-48	가이사라의 고넬료집	베드로의 설교	믿음	예수	옘바에 서 온 신자들과 베드로	물	고넬료의 일가와 친구들	먼저 성령 받음 집단세례
⑤행 16:30-34	빌립보	기도와 찬양	복음을 들음	예수	바울과 실라	물	간수 그 가족	은 가정이 세례 받음 집단세례

위의 표를 분석해 보면 공통적인 세례의 조건은 복음을 듣는 것이었으며, 복음을 전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세례의 특징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준 세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집단세례’ 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세례는 오늘 진중 안에서 베풀어지는 ‘집단세례’의 성서적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세례는 한결같이 복음을 선포한 후 세례가 베풀어졌으며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도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역동적인 복음 전도 후에 반드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이어졌다는 사실이다.

①에서 베드로의 세례는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세례 인원이 3천 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군(軍)에서 행해지는 집단세례의 좋은 성서적 모델이다.

②를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준 세례에는 성령의 세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사마리아에 복음이 증거되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행 8:15-17),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 이 본문은 물세례 시에 자동으로 성령세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을 말해준다.

③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세례를 준 것은 성령의 특별한 역사임을 알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세례였다면 내시는 물세례와 동시에 성령세례를 받았음에 틀림없다.

④고넬료의 집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은 첫째는 ‘성령세례’가 ‘물세례’의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물세례’를 받지 아니하였어도 ‘성령세례’를 먼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성령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물세례’를 주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성령세례’뿐만 아니라 ‘물세례’가 주는 의미를 간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세례’는 전통적으로 죄 씻음과 다시 태어남의 의미가 있다면 ‘성령세례’는 이제부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게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므로 ‘물세례’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격이며, ‘성령세례’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⑤는 바울의 세례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후 간수와 그 권속에게 세례를 준 사건으로 온 집이 구원을 받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세례’는 이방인 가정까지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삼으시는 표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는 개인적으로 베풀었다기보다는 집단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베풀어졌다는 것이다.

7. 사도 바울의 세례

서신서는 주로 사도 바울의 세례를 다루고 있다. 바울은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것인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말한다.

바울에게 있어 세례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앙 공동체에 가입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한 몸으로서의 지체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적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있어서도 성령세례와 물세례는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 있다.²¹⁾

바울은 자신 스스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뒤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는다(행 9:4-18).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다(행 9:9). 이것은 바울 이전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의 세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는 것이요,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롬 6:1-11, 갈 2:20).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란 옛사람인 자아와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다. 또한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향하여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울의 세례 이해는 단순히 죄에 대하여 정결해진다거나 죄를 용서받는다든 것을 뛰어넘어, 근본적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신비한 행위이며, 그런 의미에서 성례전적 행위이다.²²⁾ 바울의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바울에게 있어서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불가 분리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세례가 옛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죽고 다시 태어나게 한다면, 성령세례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며 새사람으로서 살

21) A. Gilmore, ed, *Christian Baptism: A Fresh Attempt to understand the in terms of Scripture, History, and Theology*(London: The Camelot Press, 1959), p. 132.

22) 문영섭, “초기 기독교 세례의식에 관한 연구” (미간행 신학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2), p. 21.

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디도서 3장 5절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나, 요한일서 5장 8절의 “성령과 물과 피”에 대한 말씀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²³⁾ 바울 신학에 있어 인간의 근본 이해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기 중심적, 즉 ‘죄’라고 규정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다. 그 관계 회복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가능하다.²⁴⁾ 그러므로 물세례를 통한 죄 씻음과 성령세례를 통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창조는 결국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행위인 것이다.

III. 진중세례의 신교신학적 이해와 배경

A. 선교신학적 이해

‘세례’는 ‘잠기다’, ‘씻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Baptein’, ‘Baptizein’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따라서 세례는 물 속에 잠그는 것이고 깨끗이 씻는 것이다. 세례는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변함 없는 전통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성례전이다(Sacrament).²⁵⁾

존 칼빈은 세례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룩한 인침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접붙임(engrafted in christ)으로써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했다.²⁶⁾ 칼빈에게 있어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말씀을 통하여 내적으로 경험되고, 믿는 자가 이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함을 확증하고 표시하는 것이다.

루터는 로마서 6장을 따라, 세례가 우리의 일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존하고 의미를 주는 방식을 논증한다. 바울처럼 루터도 세례의 외적인 행위는 옛 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죽은 자로부터 일으킴 받는 것이다.²⁷⁾ 루터는 세례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둔다. 그의 세례 이해는 바로 그의 칭의 교리를 표현하고 있다. 세례의 성례를 통하여, 우리는 “성례전적으로” 혹은 ‘성례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온전히 깨끗하고 순전하게 된다.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세례란 ‘영적인 공동체(Spiritual Community)에 참여하는 한 인간의 결단’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인간을 가리켜 ‘새로운 존재(New Being)’라고 이름하고 있다.²⁸⁾

정장복 교수가 밝힌 세례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면²⁹⁾ 첫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결정적 사건이다. 둘째, 세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예전이다. 셋째, 세례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탄생을 의미한다. 넷째, 세례는 크리스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의식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세례가 단 한번 약속한 것을 끊임없이 붙잡고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믿으며 그리스도에게로 복귀한다. 따라서 세례는 단 한번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든다. 따라서 세례는 유일무이한 행위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끊임없이 현존하는 의미 있는 실재이다.³⁰⁾

23) 위의 책.

24) 은준관, 「기독교교육사」(서울: 도서출판 교육목회, 1992), p. 72.

25) 정장복, 「예배학개론」(서울: 종로서적, 1985), p. 158.

26) 위의 책, p. 159.

27) Paul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이형기 역, 「루터의 신학」(서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사, 1994), p. 388.

28)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Vol.3, p. 217.

29) 정장복, 「예배의 신학」(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9), pp. 277-280.

그렇다면 군대 안에서 베풀어지는 ‘진중세례’에 대한 선교신학의 내 용은 무엇인가?

첫째, 동질집단(Homogeneous Unit)의 원리이다. 동질집단은 문화적 배경이 같으며 이들은 서로 허물없이 지낸다. 이들은 서로 함께 모이게 되면 행복감을 느끼고 자유롭게 된다. 다시 말하면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이 편하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복음을 전할 때 ‘집단개종 운동(People Movement)’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개종 운동은 개인적 회심의 결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맥가브란은 전도의 장애물은 영적이나 신학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이라고 한다. 한 사람을 개종시킬 때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독립시켜 교회의 울타리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에 머물도록 하면서 신자가 되게 한다는 원리이다.³¹⁾ 군대는 맥가브란의 주장대로 이미 같은 문화와 같은 목적을 가진 특수한 공동체이다. 따라서 군인들은 군인들끼리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동질집단 안에서 한 사람의 회심은 ‘복음의 다리’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이라는 동질집단은 진중세례에 아주 효과적인 선교원리이다.

둘째, 진중세례는 족속(People Movement/집단 개종)운동이다. 맥가브란은 「*The Bridges of God*」에서 이 개념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Understanding Church Growth*」에서는 보다 세분화하여 설명하였다. 종족운동은 동일한 집단 출신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단절이 없이 집단적 결정을 통해 다원적-개인(Multi-Individual), 상호의존적 회심(Mutually Interdependent)을 함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결심하는 과정을 말한

30) Paul Althaus, *op. cit.*, p. 388.

31) C. Peter Wagner, *YOUR CHURCH CAN GROWTH*, 권명달 역, 「교회 성장 원리」(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p. 171.

다. 즉 동질집단의 원리의 결과로 연쇄적이고,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개종 운동이 종족운동(people movement)이다. 동일한 종족 그룹 출신의 상당수 개개인들의 집단적 결정인데, 이 운동을 통해 그들은 사회적인 배타성이나 고립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지만 비 그리스도인 친척들과 완전히 접촉하며 생존할 수 있다. 그 종족 그룹의 다른 부류들은 이 운동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주로 그 종족 그룹의 교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 교회들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집단개종 운동은 동질성을 띤 전체 집단에 대한 유기적 접근 방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교회와 집단 간의 상호관계를 전제로 하는 접근 방식이다.³²⁾ 맥가브란은 이러한 족속운동의 성경적 근거로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는 말씀과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에서 찾고 있다.³³⁾

이러한 집단개종 운동은 개인적 회심이 동반되지 않는 ‘대중 운동(Mass Movement)’과는 구별이 된다. 이러한 동질 집단의 원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곳이 군대이다. 군선교는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가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선교 전략에 있어서 동질집단임을 감안하여 그룹전도 전략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³⁴⁾

군대에서의 집단 개종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진중세례’이다. 군대라는 동질집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선교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며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주의

32) J. W. Pickett, A. L. Wamshuis, Gih, Singh, D. A. McGavran, *Church Growth and Group Conversion*, (Lucknow, U. P. India: Lucknow Publishing House, 1956), p. 5.

33) D. A. McGavran, *The Bridge of God*, 이광순 역, 「하나님의 선교전략」(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3), p. 11.

34) 김영철, “군진신학에 있어서의 선교전략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서울신학대학교, 1990), p. 25.

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향한다. 세례는 개인적 의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들어가는 행위이다. 따라서 세례를 단지 '예식'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세례가 바로 선교적 행위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진중 세례는 개인이 공동체 앞에서 나의 신앙을 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여기에 선교적 구조가 있다.

셋째, 수용성의 원리를 따른다.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복음에 대해 더 수용적이었음이 나타나고 있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보다 더 수용적이었다. 사도 바울의 선교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거부적이고 베뢰아 사람들이 수용적이었고 바리새인들보다 일반 대중이 더 수용적이었다.³⁵⁾

맥가브란은 새 정착민이나 교통의 왕래가 심한 곳이나 정복당한 나라 등이 수용성이 강하다고 분석했고 특히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 통제가 심한 사회, 그리고 문화변용(Acculturation)이 심한 사회는 수용성이 강하다고 말한다.³⁶⁾ 그렇다면 갑작스런 군인으로서의 신분 변화와 자유로운 생활에서 모든 일과를 통제받는 군생활에서 복음의 수용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 부모와 형제, 애인, 친구들과의 갑작스런 단절, 낯선 환경이 주는 외로움과 고립감 그리고 훈련과 군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의지할 대상을 찾게 만든다. 이러한 장병들의 마음은 대단히 수용적이어서 세례를 베풀기에 적당하다.

넷째, 진중세례는 추수신학의 원리를 따른다. 맥가브란은 교회성장의 전도 이론을 설명하기 위하여 '찾음신학(Search Theology)' 과 '추수신학(Harvest Theology)' 이란 용어를 채택하였다. 찾음신학은 사람들을 찾아서 말과 적절한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실제

35) 김석인, "한국 해군장병 복음화 전략 연구 - 해상병과 장병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풀러신학교 공동), p. 16.

36) 이종윤 외, 「교회성장론」 (서울: 정음출판사, 1983), pp. 233~234.

적으로 회심을 위해 활동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교회 설립의 시기는 결정적으로 지났다는 입장이다. 이 때 선교의 목표는 이쪽도 살고 저쪽도 살리는 호혜정신에서 타종교와의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이해된다. 찾음신학은 회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회의 수적 성장보다는 차라리 변화된 생활에만 관심을 둔다.

추수신학은 삶의 증언을 통해 단순히 찾아보는 일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전제한다. 목자장 되시는 주님은 찾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양이 발견(found)되기를 바란다. 목적은 탐색하는 일이 아니라 발견하는 일이다. '발견된다' 는 의미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의 권속이 되어 주님의 지체가 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맥가브란은 추수신학이 성경적으로 옳을 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이라는 목표에도 효과적이라는 이유로 지지한다. 반면에 찾음신학은 개인주의와 함께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 어울리는 것으로 전적으로 서구 신학자들 사고에서 생겨났고, 성경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이유로 비판한다. 따라서 군대 안에서 청년들을 보고 발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은 바로 '추수신학' 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B. 진중세례의 배경

예수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에는(마 28:19-20) 제자 삼는 두 가지 방법으로서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세례' 이고 다음이 '교육' 이다. 사도행전에서 세례를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베드로였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 할꼬" 라는 백성들을 향해 회개한 후 세례를 받으라고 촉구한다. 사도들이 회개한 이후에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행 8:36-38).³⁷⁾ 유아세례나 가족세례를 시행하는 자들은 대위임령에 있어서 교육에 우선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성인세례를 시행하는 자들은 교육이 우선되며 세례를 위한 길을 준비한다고 주장한다.³⁸⁾ 세례는 단회적인 행위인 동시에 교육은 계속적인 과정이다. 성경에서 교육은 세례를 선행하기도 하고 후행하기도 한다.³⁹⁾

전통적으로 세례를 받기 원하는 이들은 참회의 수요일(Ashed wednesday)로부터 부활절까지의 40일이라는 기간을 금식으로 상징되는 절제의 시간으로 보았다. 이러한 전통은 세례를 지원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기존의 신자들에게도 요구되어졌다. 그런데 만약 오늘날 세례를 받기 위해 40일간의 절제된 삶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에 응답할 수 있겠는가? 앞서 살펴본 대로 세례가 교육 후에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교육에 선행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세례가 융통성 있게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교회의 적절한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세례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낸 ‘표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온전하고 성결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지,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다. 성서가 보여주는 세례의 모습은 죄사함의 세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원자와 메시아로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외적인 행위이다. 그렇다면 군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례는 교육 전에 선행되어지는 세례 편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연구자가 사역한 육군훈련소의 진중세례가 예비교육이나 개인의 결단과는 무관하게 행해지는 세례가 아니라는 것이다. 병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 가르친 후, 개인적 결단을 통해 세례를 받게 하고 있으며,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세례 받는 자들에게 복음과 세례의 내용과 의미를 가르치는 ‘세례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7) 김명혁 편역, 「선교의 성서적 기초」(서울: 성광문화사, 1983), pp. 121~122.

38) *Ibid.*, pp. 89~90.

39) *Ibid.*

이러한 진중세례에 대하여 세례를 양적으로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의 소리도 있다. 그러나 초대교회 신자들도 완전한 자들이 아니었다. 초대교회 역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알맹이’ 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회개하고 세례 받기까지 시험하는 기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맹이 신자였다는 것은 더욱더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들은 신앙고백과 동시에 직접 세례를 받았다. 물론 초대교회에도 중상 모략하는 자들과 배교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그들의 수는 비교적 적었다.⁴⁰⁾

그러므로 군세례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 것이다. 세례의 권위는 기간이나 주는 사람의 권위가 아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C. 선교역사에 나타난 집단세례

오늘날 군대라는 제한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해마다 20여만 명이 세례를 받고 있는 군이야말로 선교의 ‘황금어장’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진중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세례는 맥가브란의 개념을 빌리면 ‘집단개종’의 역사이며, 이러한 집단세례의 성서적, 역사적 근거는 앞서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즉,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례는 거의 ‘집단세례’이었으며 ‘집단개종’이었다는 데 있다.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하고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후 5,000명으로 불어났으며,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했을 때 남녀 다수가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았다(행 8:12-

40) *Ibid.*, p. 125.

17).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라에 주둔하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군인은 자신의 일가와 친구들을 모아(행 10:24),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았다(행 10:48). 또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행 16:30-34).

이와 같은 성장에 대해 맥가브란은 말하기를 “이것은 분명히 초대교회의 복음화 전략이 대중운동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즉 다양한 개인이 상호의존적 회심을 한 경우라는 것이다.⁴¹⁾

선교 역사에 있어 스테반 니일(Stephen Neil)은 1795년부터 1905년 사이에 인도의 문맹한 지역에(Nadar) 있는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개종운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곳에서 선교했던 선교부는 5,000명의 군중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 후 1879년 9,000명의 기독교 신자가 확보되었고 린네벨리(Rinnevely)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인도 최초로 성공회의 감독을 탄생시켰다.⁴²⁾

푸에르토리코(Puertorico)의 작은 고을 하나티(Hanati)는 1948년에 107교회가 6년 후에 220교회로 불어났는데 완전히 200%의 비율로 성장한 것이다. 두말할 것 없이 대중운동의 좋은 예이다.⁴³⁾ 그리고 미얀마에 있는 카렌(Karen)족은 1872년에 교회가 시작된 이래 5,000명 교인이었는데, 1842년에는 200,000명으로 불어났다.

이처럼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오세아니아에 있어서 모든 회심자의 2/3는 집단 개종을 통하여 기독교 신앙에 이르렀다. 처음 비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로 전환했던 모든 사람들의 90%는 집단개종으로 생겨났다. 오

늘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기독교인은 집단개종의 후손들이다.⁴⁴⁾

한국의 경우 1879년 백홍준 등 4명이 만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존 맥킨타이어(John Mckintyre)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1883년과 1884년 사이에 만주 간도 지역에서 70여 명의 한국인들이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에게 세례를 받았다.⁴⁵⁾

세계 군선교 역사에 있어 주목할 만한 ‘전군신자화운동’은 북한의 청와대 습격, 울진과 삼척의 무장공비 학살 사건 등의 발생으로 이완된 군정신 강화의 구심점을 신앙에서 찾고자 했던 운동으로서 1969년 제1야전군 사령관이었던 한신 대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전군 신자화운동으로 1971년부터 1974년까지 3만 6천여 명 진중세례를 받았다.⁴⁶⁾ 1971년 11월 26사단에서 1,500명, 12월에는 5사단에서 1,000명, 이듬해 3월엔 28사단에서 1,000명, 4월에는 20사단에서 3,473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러한 불길은 사회로 번져 1970년대 한국 기독교 부흥의 대폭발이 일어났다. 즉 전군 신자화운동이 한국 교회 성장의 시대를 가속화시킨 전기가 된 것이다.⁴⁷⁾

1992년 7월 육군훈련소에서 2,638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시작으로 다시 진중세례가 불일 듯 일어났다. 그리고 한 달에 1-2회에 걸쳐 진중세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1997년 4월 19일에는 세례 선교 역사에 기록될 만한 단회 7,200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신사도행전의 기적을 체험하였다.

이처럼 한국 교회의 성장에는 군대, 학원, 산업, 선교 등 동질 구성 집

41) 김석인, *op. cit.*, p. 19.

42) D. A. McGavran, *How Church Growth* (The New Frontiers of Mission, London: World Dominion Press, 1959), p. 122.

43) 위의 책, p. 123-124.

44) D. A. McGavran, *Church Growth*, 고원용 역, 「교회성장학」 (서울: 보문출판사, 1982), p. 434.

45) 채수일, “하느님의 선교(Missio Dei): 한국에서의 전개와 과제” 「선교와 문화」, 위의 책.

46) 김홍태, “군신자화운동이 군정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감리교신학대학, 1985), p. 17.

4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군선교부 편, 「軍宣敎神學」, p. 7.

단의 집중 선교로 집단 개종운동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⁴⁸⁾ 그러므로 진중세례는 이러한 성서적 역사적 배경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 결론

연구자는 II장에서는 세례에 대한 신학적 이해로서 먼저 할례와 회생제사, 정결의식이 왜 세례와 연결이 되는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세례를 고찰하였으며, III장에서는 진중세례에 대한 선교 신학적 이해와 진중세례의 이해와 진중세례의 근거가 되는 집단세례의 사례들을 선교역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세례에 있어 물의 의미는 다양한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생명의 기원, 삶과 죽음, 정화(淨化) 등의 이미지를 내포한다.⁴⁹⁾ 창세기 1장 2절의 수면은 창조 전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으며 이어서 생명의 창조역사를 이루어내신다. 또한 노아의 홍수사건은 물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음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성령으로 묘사한다. 이 물은 생명의 물이며, 해갈의 물이다. 영적, 육적 목마름을 해소시키는 해방의 물이다. 성령의 현존으로 우리의 영혼이 생명력 있게 변화됨을 의미한다. 세례의 물은 이러한 삶의 변화를 가름하는 성령의 모습이다. 물에 잠길 때 옛 존재가 씻겨지고 물 위로 솟아오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모습이다. 그러므로 세례는 물 속에서 죽고 물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48) 김기태, “군선교의 실체에 관한 연구-한국 군중 활동을 중심으로.”(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와 홀러신학대학원 공동학위 과정, 1984), p. 192.

49) <뉴스앤조이>, 2003. 10. 16. p. 18.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거듭남)의 사건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신비의 체험은 결국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물세례는 단순히 물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세례임을 알아야 한다.

세례는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오는 입장 허가이며, 새사람 됨을 고백하는 중요한 의식이므로 세례를 좀더 의미 있고 경건하게 진행하는 것은 집례자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이다. 세례 성례전의 올바른 집례를 위하여 목회자는 수세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믿고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지의 여부와 예수 밖에서 살던 과거를 버리고 예수 안에서 그의 제자로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약속과 거기에 속한 일원으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준수할 것인지에 관하여 형식적인 질문이 아닌 확실한 신앙고백을 받아야 한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너무나 개인적인 세례관에 집착하고 있다. 세례는 개인적인 결단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결단하고 새로운 결단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세례를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게 되는 것’ 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에 포함되며 그리스도의 선교에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중세례는 개인적인 세례가 아니라 공동체 세례이다. 또한 진중세례는 우리의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선교를 이루는 삶에 동참하는 것이다. 진중세례는 단순히 수를 채우기 위한 세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성서에 바탕을 둔 세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세례가 되어야 한다. 진중세례의 근거가 되는 집단세례는 사도행전과 초대교회, 그리고 선교역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군에서 베풀어지는 진중세례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중세례를 통해 장병들의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군공동체의 ‘신앙의 전력화’ 를 도모하는 것은 군

의 존재 목적과도 부합하는 것이며, 한국 교회의 새로운 성장과 부흥의 길을 열어 놓는 위대한 사건인 것이다.

군선교는 '영혼 구원' 과 '사회적 책임' 이라는 선교의 양날개를 동시에 수행하는 선교이다. 청년들의 영혼 구원을 통하여 군에서의 책임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또한 교회는 교회 스스로 영혼 구원과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적극적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앙을 통한 무형전력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한 기본 바탕에 세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세례를 베풀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이후의 양육과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그리고 각 교단 군선교부, 결연을 맺은 개교회, 한국군종목사단 그리고 한국기독교군인연합회(KMCF, Korea Millitary Christian Fellowship)가 더욱 협력의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서양서적

Beasley Murray, G .R. *Baptism in the New Tesatmt.* Grand Rapids: W

Gilmore, A,ed. *Christian Baptism: A Fresh Attempt to understand the in terms of Scripture, History, and Theology.* London: The Camelot Press, 1959.

Lafoureffé, K. S.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carper and Row Publisher, 1953.

McGavran, Donald Anderso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Wm. B. Edermans Publishing Company, 1970.

_____, *How Church Growth, The New Frontiers of Mission.* London: World Dominion Press, 1959.

Tillich, Paul. *Systematic The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2. 번역서적

Althaus, Paul. *The Theologh of Martin Luther* 이형기 역, 「루터의 신학」. 서울: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사, 1994.

Church, J. E. *Handbook of Bible Doctrine.* 구영재 역. 「기본성경교리 핸드북」. 서울: 아가페출판사, 1973.

Hiebert, Paul. G. *Anthropological Insights for Missionaries.* 김동화 외 역, 「선교와 문화인류학」. 서울: 조이선교회 출판부, 1996.

3. 단행본

강문호. 「성막으로 성경을 말한다」. 서울: 한국가능성계발원, 1999.

김기태. 「전쟁과 선교」.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7.

김명혁 편역. 「宣敎의 聖書的 基礎」. 서울: 성광문화사, 1983.

은준관. 「기독교교육사」. 서울: 도서출판 교육목회, 1992.

이종윤 외. 「교회성장론」. 서울: 정음출판사, 1983.

정장복. 「예배학개론」. 서울: 종로서적, 1985.

하용조. 「비전성경사전」.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2001.

4. 학위논문

김석인. “한국 해군장병 복음화 전략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983.

5. 기타

김상학. 「총회헌의안 및 보고서 제85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32차 정기총회 보고서」.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2.

중세를 적신 어거스틴



이규철 군종목사



I. 들어가는 말

왜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구분 없이 선과 악의 문제, 정의, 교회 일치,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논할 때마다 어거스틴의 사상을 참조하는 것일까? '다니엘 윌리엄스(Daniel D. Williams)' 에 따르면, 두 가지 명백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어거스틴의 저술을 읽는 것이 우리 자신의 지적

■ 이규철 목사

- 서울신학대학교 및 동 대학원(M. Div., Th. M.)
- 피츠버그대학교 수학
- 계명대학교 대학원(Ph. D.)
- CBS 설교가, 육군3사관학교 충성대교회 담임목사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영적 선조를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 둘째는 사상과 경험이라는 두 측면이 본질적 다른 요소의 성격을 가진 것이지만, 어거스틴은 이를 그 자신의 지성 속에서 결합시켰기 때문이다.²⁾

‘제베르그(Reinhold Seeberg)’의 분석에 의하면, 중세를 지배한 신학의 권위는 어거스틴이었다.³⁾ 곧 제베르그에 따르면, 중세의 전체 교리사는 어거스틴의 역사로 다루어진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의 사상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지배했으며 모든 교회의 개념들과 제도들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중세의 경건은 어거스틴의 가르침에서 영감의 무한한 원천을 찾았다. 따라서 어거스틴의 가르침은 중세를 밝혀주는 빛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증거하는 빛이었다.

중세 신학 기풍에 대한 제베르그의 평가는 중세 신학의 핵심이 어거스틴을 축으로 전개됨을 시사한다. 그런데 서구 신학에서의 어거스틴의 중요성은 중세 시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모두(冒頭)에서 화이트헤드의 평가를 인용하여 밝힌 것처럼, 종교개혁과 근대 그리고 현대에 걸친 서방 교회의 역사 속에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이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점을 깊이 주목한다. 그리고 각 시대에 혜성처럼 빛

나는 신학자와 철학자들에게 미친 어거스틴의 영향과 그 반향을 살핀다. 한마디로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이 서구 신학계에 미친 영향을 살피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오늘의 교회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신학적 사유의 깊이를 더하고자 한다. 그런데 본 연구는 제한된 지면 관계로 중세의 출발점이라 일컫는 그레고리로부터 종교개혁 직전까지에 국한하여 어거스틴 사상의 여파를 추적한다.

II. 중세 전기

A. 그레고리 대 교황(Gregory the Great)

제베르그에 따르면, 중세에 있어서 어거스틴 다음 가는 결정적인 권위는 그레고리 대 교황이었다. 즉 중세는 그레고리 대 교황이 어거스틴을 해석한 대로 이해되었다.⁴⁾ 따라서 중세 시대에서의 어거스틴이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은 그레고리 대 교황부터 시작함이 타당하다.

‘나이브(J. L. Neve)’의 연구에 의하면, 그레고리는 540년경 기독교도인 로마 원로원 의원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 후 그는 로마의 지사(知事)로 공적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후에 공적을 떠나서 수도원을 세우고 수도원장이 되었다. 그리고 590년에는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이후 그레고리는 600년 동안 교회의 교리적 사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1) Daniel D. Williams, “The Significance of St. Augustine Today” in ed., Roy W. Battenhouse, *Companion to the study of st. Augustine*(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55), p.4. 다니엘 윌리엄스는 ‘화이트 헤드(White Head)’의 말을 인용하여 어거스틴의 위치를 이렇게 평했다. 여러 세기 동안 서구 문명을 인도하며 형성시킬 사상을 제공한 사람은 4세기의 어거스틴이다. 곧 서구 철학이 플라톤 철학에 대한 일련의 주석이라면 서구 기독교 신학은 어거스틴에 대한 일련의 주석이다.

2) *Ibid.*, pp. 17~18, 로버트 커쉬먼(Robert Cushman)에 따르면, 어거스틴의 지성에서 개인적 경험과 이성적 구조는 끊임없는 상호 작용 속에 있다. 곧 “하나님의 미려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전 1: 25)는 바울의 주장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비로소 명료해졌다. 어거스틴은 믿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없기에(nis crederitis non intelligetis) 신앙이 이성을 앞선다고 선언했다. *Ibid.*, pp. 343~344.

3) Reinhold Seeberg, *The History of Doctrines*, vol. 2, 김영배 역, 『기독교 교리사』,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7), p. 27. 회람 교회는 중세기를 전혀 몰랐다. 왜냐하면 회람 교회는 오리겐(Origen)의 고대 문제들이 안고 있는 범위를 결코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회람 교회는 어거스틴을 갖지 못했다.

4) *Ibid.* 제베르그에 따르면, 어거스틴의 신조들이 중세의 신학을 지배했던 반면에 중세의 신학자들은 그 신조들에 정통하지는 못했다. 단지 중세의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의 논문들을 수검하고 정리해 놓았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이 소개조차도 참 어거스틴주의를 충실하게 재현하지 못했다. 그것은 반렐라기우스적 사상에서 바라본 잘못 해석된 어거스틴주의였으며 통속적인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었다.

5) J. L. Neve,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서남동 역, 『基督教 教理史』(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p. 275. 나이브의 분석에 따르면, 그레고리는 현명하고 정력적인 공직자였고 총명한 정치가였다. 그는 어거스틴의 신학에다가 그 당시의 교회 안에 있던 모든 통속적 형태의 종교 사상을 결합시켰다. 그런 결과로 볼 때 이교에 근원을 둔 많은 미신적 요소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그레고리 신학은 흔히 하나의 뒤범벅(mixtum compositum)이라 묘사되지만, 정통주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고 나이브는 평가한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배적인 요인이 되어 있다.⁵⁾ ‘곤잘레스(J. L. Gonzalez)’에 의하면, 그레고리는 히포(Hippo)의 감독 어거스틴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해석자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리고 중세의 교회 또한 그레고리를 그렇게 이해했다.⁶⁾

그렇다면 어거스틴은 그레고리의 신학 형성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 계속적으로 곤잘레스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그레고리는 영혼에 관한 이론에서 어거스틴을 따르고 있다. 곧 그레고리는 영혼이 비물질적인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창조설과 유출설을 다같이 거절하는 점에서도 어거스틴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신론, 삼위일체론,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사상에서도 완전하게 정통적 전통 위에서 있다.⁷⁾

특히 죄에 관한 그레고리의 가르침은 이론적으로 어거스틴의 죄론과 동일했다. 그레고리는 타락의 결과를 강조하면서, 원죄와 유전되는 죄의 성질과 죄에 대한 형벌로서의 죽음 미사⁸⁾ 등에 대해 말하였다. 이와 함께 그레고리는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어린이의 정죄’에 관해서도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렇지만 그레고리가 모든 면에서 어거스틴의 사상과 궤를 같이 한 것은 아니다. 곤잘레스의 분석에 따르면, 그레고리는 은총과 예정론에 관해서는 어거스틴의 견해를 버렸다.⁹⁾ 곧 그레고리는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서

6) J. L. Gonzalez,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vol., II, 이형기, 차종순 역, 「기독교 사상사 (II)」(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출판국, 1992), p. 97.

7) *Ibid.*

8) 곤잘레스에 따르면, 그레고리는 미사를 회생으로 보는 견해를 가졌다. 이는 어거스틴의 생각을 대부분 이어 받은 것으로서, 그레고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론이었다. 특히 이 회생 이론은 그리스도가 매번 새롭게 회생으로 바쳐진다는 생각인데, 그 효과는 살아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연속에 있는 영혼들에게까지 유익되게 미친다는 것이 그레고리의 생각이었다. *Ibid.*

9) J. L. Neve, *op. cit.*, p. 276. 니이브에 따르면, 그레고리의 사상적 근저는 반(半)펠라기우스주의자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명을 부여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의로운 자가 될 수 있게 하였으며, 인간은 그러한 계명을 성취해야 함은 물론 나아가서 그 이상의 것을 성취할 수도 있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가르침은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통해서 강조되었던 단독사역론(monergism)을 주장해 버리는 결과가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행적(先行的) 은총과 후행적(後行的) 은총의 구별은 결국 비슷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서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다’고 강조했다.¹⁰⁾ 그러나 어거스틴의 은총론의 핵심은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이런 점을 놓고 볼 때 그레고리는 그의 대부분의 신학에서 어거스틴의 신학을 받아들였으나, 은총과 예정론에 있어서는 어거스틴의 극단적인 면을 상당히 완화시킨 형태에서 어거스틴과의 차별성을 시도했다고 사료된다.

B. 고트샬크(Gottschalk)

‘카롤링거 왕조’ (Carolingian dynasty)¹¹⁾ 시기에 가장 치열했던 논쟁은 예정론에 관한 것이었다. ‘펠리칸(Jaroslav Pelikan)’에 따르면, 이 논쟁의 시작은 수도자인 ‘고트샬크’에 대(對)해 당시 대주교였던 ‘라잉스의 헝크마(Hinkmar of Rheims)’와 ‘라바누스 마루스(Rabanus Maurus)’가 한편이 되어 서로 오랜 기간 동안 가슴 아픈 대결을 펼침에서 시작된 것이다.¹²⁾

니이브의 연구에 따르면, 수도사였던 고트샬크는 어거스틴을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불우한 생애를 통해서 그의 사상을 몸소 체험하였다. 고트샬크는 당시 교회가 어거스틴 주의의 가면을 쓴 반(半)펠라기우스

10) 「에스겔 설교 (In Ezech. hom.) 1.9.8., J. L. Gonzalez, *Ibid.*, p. 98에서 재인용.

11) 메로빙거 왕조를 이어 프랑크 왕국의 후반을 지배한 왕조를 일컫는다. 왕가의 계보가 대(大) 피핀과 메츠의 주교 아르눌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르눌프가(家)라고도 한다. 마스 모셀강 유역의 대토지 소유자였으나 메로빙거 왕조 후기 아우스트라시아의 궁재(宮宰)로서 세력을 떠나가 중(中)피핀, 샤를 마르텔 때에는 다른 분국(分國)의 궁재도 겸임, 왕국의 실권을 장악하였으며 그의 아들 소(小)피핀에 이르러 왕위에 올랐다. 그의 아들 샤를마뉴는 서유럽의 정치적 통일을 달성하여 로마 교황으로부터 황제의 칭호를 받았으나 루트비히 1세의 사후 843년의 베르조약과 870년의 메르센조약을 거쳐 왕국은 3개로 분열되었다. 이탈리아계(系)는 875년에, 동프랑크계는 911년에, 서프랑크계는 987년에 각각 단절되고 동프랑크에서는 콘라트 1세를 거쳐 작센왕조 독일왕국이 성립되었고, 서프랑크에서는 카페왕조 프랑크 왕국이 성립되었다. Lion Publishing Ed., *THE HISTORY OF CHRISTIANITY*, 송광택 역, 「교회사 핸드북」(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p. 228-229.

12) Jaroslav Pelikan, *The Christian Tradition*, vol. 2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p. 186.

스 주의의 정신을 따르고 있다고 간파했다. 이에 고트샬크는 당시 교회의 교리와 실천에 대해서 격렬한 공격을 가하였다. 고트샬크의 이러한 공격은 종교개혁을 시도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니이브는 평한다.¹³⁾

곤잘레스의 분석에 따르면, 고트샬크가 펼친 예정론 체계에 있어서 어거스틴이 강조한 인간의 심리학적 형식적 자유의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그렇지만 고트샬크는 어거스틴의 예정론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그의 사상 가운데 견지하고 있다. 그런데 곤잘레스에 의하면, 어느 면에서 고트샬크가 이해하고 해석하는 예정론은 너무나도 엄격해서 비인간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 곧 고트샬크의 예정론은 히포의 감독처럼 끊임없는 감사의 찬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버림받는 자들의 처벌에 대해서 기뻐하는 병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이런 점에서 볼 때, 고트샬크의 신학적 노선은 어거스틴적이었다. 그러나 고트샬크의 어거스틴적 신학 체계에 대해 반대하는 자들은 그의 이러한 교리가 선행(善行)의 촉구, 제사직, 성례 등을 용납하지 않게 되고 나아가서는 교회 조직 전체를 부정하게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849년 열린 ‘키에르시 회의(Synod of Chiersy)’에서 고트샬크를 정죄하였고, ‘레임스(Rheims)’의 대 감독 ‘헝크마르’는 그를 투옥하였다. 그러나 고트샬크는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고 죽었다(869년)¹⁵⁾

13) J. L. Neve, *op. cit.*, p. 282. 고트샬크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만세 전에 세상의 운행(運行)과 운명을 분명하게 결정해 놓았다. 선택과 거부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에 이를 자와 죽음에 이를 자를 무조건 미리 예정해 놓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장차 인간들이 그의 은총을 대하게 될 태도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예리와 예정이 동시적인 일이었다. 예지는 하나님의 거부를 정당화하여 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악은 인간의 의지에 속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오직 선택된 자들에게만 유효하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14) J. L. Gonzalez, *op. cit.*, p. 144. 곤잘레스에 따르면, 고트샬크가 견지한 입장은 그의 대적자 헝크마르를 대항하는 입장에서 발원된 것이다.

15) J. L. Neve, *op. cit.*, p. 283.

C. 라드베르투스(Paschasius Radbertus)

서방 교회 신학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성만찬에 관하여 논의하여 왔다. 니이버에 따르면, ‘암브로스(Ambrose)’와 그레고리는 성만찬에 대하여 실재론적 견해를 표명하였다. 어거스틴은 예전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형체적 임재를 단호히 거부하였다. 그러나 통속적 경건은 미사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주어진다는 견해에 점점 기울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는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기적적인 것을 추구하던 일반적 경향과 종교에 대한 미숙한 개념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다.¹⁶⁾

‘하르낙(Adolph von Harnack)’에 의하면, 당시 교회에서 성만찬에 관하여 전문적인 저작을 낸 이는 ‘라드베르투스’¹⁷⁾였다. 라드베르투스의 논문 ‘주님의 몸과 피에 관하여(On the Body and the blood of the Lord)’는 어거스틴주의와 매우 친숙한 것이었다.¹⁸⁾

성만찬에 관한 라드베르투스의 주장을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하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사제(司祭)의 축원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 이는 선별된 성만찬의 물질이 진정으로 역사적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라드베르투스의 이론 가운데 눈여겨 볼 점은, 성만찬의 물질의 색깔과 모양과 맛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것은 그러한 화체의¹⁹⁾ 기적이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이루어지는 신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눈

16) *Ibid.*, p. 284.

17) 842-853년 콜비이 수도원의 원장을 지낸 라드베르투스는 박식하고 기백이 있는 수도사였다.

18) Adolph von Harnack, *History of Dogma* vol. 5 (New York: Russell and Russell, 1958), p.312

19) 라드베르투스는 비록 내적이고 신비적이기는 했을지라도 처음으로 진정한 화체의 개념을 가르쳤다고 평가된다. Radbertus, “The Lord’s Body and Blood” in *Early Medieval Theology*, ed. George E. Mc Cracken,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vol. IX. (London: SCM Press, 1957), pp. 94-108. 이하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을 이하 L.C.C.로 표기한다.

에 보이는 증거가 없음은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라트베르투스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만찬의 물질을 받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파악하는 자들만이 그의 몸과 피를 받는 제한성을 가진다. 니이브에 의하면, 성만찬에 관한 라트베르투스의 견해는 참으로 어거스틴주의적 개념이었다.²⁰⁾

결국 라트베르투스는 성만찬에 관하여 전문적 저작을 내면서 어거스틴의 이론을 따른다. 하지만 라트베르투스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거스틴의 이론과 그 당시 교회의 종교적 개념과의 절충을 시도하는 측면에서 성만찬에 입재한 그리스도를 실재론적 개념으로 해석하였다고 판단된다.

D. 라트람누스(Ratramnus)

라트베르투스의 논문을 읽은 ‘찰스 황제(Charles the Bald)’는 역시 콜베이의 한 수도사인 ‘라트람누스’에게 두 가지 질문²¹⁾을 하였다. 이에 라트람누스는 라트베르투스와 같은 제목인 ‘주님의 몸과 피에 관하여(On the Body and the Blood of the Lord)’라는 논문을 통해 황제에게 답하였다.

라트람누스는 그 논문에서 어거스틴의 글들을 줄줄이 인용하면서 성만찬에서의 떡과 포도주는 역사적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예전의 물질이 단지 상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트람누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입재가 비록 참되

고 진정한 것이기는 할지라도 순수한 영적인 것이며, 예전에 참여한 효험은 그리스도와 영적 친교에 있다.²²⁾

결국 성만찬에 관한 라트람누스의 견해는 어거스틴적 사상을 이어받은 라트베르투스의 개념을 옹호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주장은 당시 교회의 실천 강조에 대항하여 나갈 만한 힘이 없었다. 이러한 여파의 결과로 중세의 성만찬 교리는 점점 실재주의로 기울어지게 되고, 로마 가톨릭의 기본 입장인 화체설이 더욱 힘을 얻어 발전해 나가게 된다.

E. 위조(偽造)된 이시도레의 교령집(Pseudo-Isidorean Decretals)

중세기에 있어서, 기독교는 국가적 관심의 문제였다. 더 나아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로마 제국의 계승자가 되었다. 이는 게르만 민족과 슬라브 민족이 거족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여 그 결과로 국가적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결과이다.

니이브에 따르면, 교황 그레고리1세는 로마를 중심으로 모든 새 민족들의 교회를 결속시키고자 하였으나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러던 중 8세기 이래 카롤링거 왕조 하에서는 왕권과 교황권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그런 결과로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교직 제도가 아니라 황제를 중심으로 하는 신정 체제(神政體制)가 이루어졌다. 이런 와중에서 제국의 세력이 붕괴되고 교회가 기독교 민족들 간의 유일한 유대 기관이 되자 다시 지난날의 그레고리 방법이 채택되게 되었다.²³⁾ 이렇게 하여 교황이 황제보다 우위에 있다는 교황의 지배권이 확립된다. 곧 중세의 이러한 상황은 교황이 온 교회의 일반 신도로부터 독립된 지위에 있으며, 모든 감독들과 국가적 교회들의 머리가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기 위해 이

20) J. L. Neve, *op. cit.*, pp. 284-285.

21) 황제가 라트람누스에게 한 첫 번째 질문은 성만찬에 입재하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오로지 신앙의 눈으로만(in mysterio)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실재적으로(in veritate) 그리스도의 피와 살인가 하는 문제였다. 두 번째 질문은 성만찬에 입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와 같은 것인가라는 문제였다. J. L. Gonzalez, pp.151~152.

22) Ratramnus, “Christ’s Body and Blood”, in *LCC*, vol. IX, pp. 118~147.

23) J. L. Neve, *op. cit.*, p.286.

시도레 교령집을 만들게 되었다.²⁴⁾

나이브에 따르면, 이 이시도레의 교령집을 근거로 하여 교황 그레고리 7세(1073-1085)는 교권의 우위성을 솔직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주목할 점이 있다. 곧 그레고리 7세의 그 선포는 어거스틴의 명저인 「하나님의 도성」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곧 국가는 세상의 죄 된 질서에 근원을 두고 있으나 교회는 하나님에게 근원을 두었기에, 교황권의 우위성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²⁵⁾

중세 교황권 확립에 결정적 공헌을 한 이시도레 교령집은 중세 교황들의 제사주의(祭司主義)적 갈망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이 갈망은 교황 된 자기 자신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전제 하에, 교황인 그가 온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영웅주의가 숨어 있다. 이 같은 중세 교황들의 입장을 개진함에는 그레고리7세가 의존하였던 어거스틴의 저력과 그의 사상에 기초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거스틴의 사상과 권위는 중세 교황권 확립에도 결정적으로 원용(援用)되었다고 판단된다.

F. 클레어보의 버나드(Bernard of Clairvaux)

‘윌리엄즈(Wackin Williams)’에 따르면, ‘버나드’는 1090년 ‘디용(Dijon)’ 근처인 폰테인에서 출생하였다.²⁶⁾ 그의 부모는 ‘테스켈린(Tescelin)’과 ‘알레트(Aleth)’로서, ‘버간디계’ 귀족이다. 버나드는 6남 1녀 중 넷째인 3남으로 태어났다. 특히 버나드는 경건한 신앙을 가진 모친

24) 이시도레의 교령집은 1세기의 ‘클레멘트(Clement)’로부터 8세기의 ‘그레고리2세’에 이르기까지의 교령집인데, 이것이 위조되었다는 것이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야 발견되었다.

25) *Ibid.*, 교황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며, 감독들은 그의 대리자이고, 따라서 홀로 그에게만 충성할 의무를 가진다. 그리고 감독의 임명은 오직 교황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교황은 하늘에서도 열쇠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 세상에서는 더 말할 나위도 없으며, 따라서 모든 군왕(君王)들은 그에게 예속된 신하(臣下)들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교황은 황제와 왕후들을 파면할 수 있으나 어떠한 인간적 권위도 교황을 파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26) Wackin Williams, *St. Bernard, the Man and His Message*(Manchester University, 1944), p. 4.

의 영향을 받았다.²⁷⁾ 이것이 훗날 버나드에게 큰 영향이 되어, 그는 1,112년 ‘시토(Citeaux)’ 수도원에 들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다.²⁸⁾

버나드는 당대 영향력 있는 설교가였다. ‘샤프(P. Schaff)’에 따르면, 설교자로서의 버나드는 그의 인식과 열정에 있어서 타인을 능가하였다.²⁹⁾ 특히 나이브에 의하면, 버나드는 당대의 신학자로서 어거스틴과 교회 정통 신앙에 입각하여, ‘믿기(faith) 때문에 이해(understanding)한다’는 인식 원리를 펼쳤다. 버나드의 인식론은 실천적인 지성을 거의 무시하고 이론적인 지성의 요구를 중시하는 합리적 신앙을 추구한 ‘아벨라드(Abelard)’와 논쟁을 갖기도 하였다.³⁰⁾

버나드의 인간론 또한 매우 어거스틴적이다. 곧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모양(Likeness of God)’으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점에 기초하여 그의 인간론을 전개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모양은 상실될 수 있으나 형상은(images) 결코 상실될 수 없다고 한 점이다. 그러므로 버나드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무효화 시킬 수 없으며 이 형상 자체는 하나이므로 하나님의 존엄(Majesty)에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의 위대성이 있다.³¹⁾ 질송(E. Gilson)의 분석에 의하면, 버나드의 인간론은 어거스틴의

27) 그의 모친은 어거스틴의 어머니같이 그에게 신앙의 씨를 심어준 독실한 신앙의 사람이다. 그녀는 ‘부르준디(Burgundy)’ 공작 가문의 귀족 출신으로서,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돕고 직접 그들에게 봉사하는 신앙의 여인이었다. *Ibid.*, pp. 4-5.

28) *Ibid.*, p.6.

29) P. Schaff, *History of Christian Church*, vol. v.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52), p. 351. 샤프에 의하면, 그리고 루터도 버나드의 설교 능력을 인정해서 버나드의 설교가 모든 박사들(the doctors)보다 뛰어났다고 인정하였다.

30) J. L. Neve, *op. cit.*, pp. 299-300. 아벨라드의 인식론의 요체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다’로 집약된다.

31) Bernard, “De Diligendo Deo”, Tr., Wackin Williams, “Why and How to love God” in *St. Bernard, the Man and His Messag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44), p. 53.

가장 심오한 ‘형상(image)’ 론과 연관된다. 따라서 버나드의 사상은 어거스틴에게 기초한다고 질송은 평가했다³²⁾

나아가 니이버에 따르면, 버나드는 그의 독특한 신적 실재에 관한 그의 신비주의의 근본 개념을 독특한 방법으로 어거스틴의 신 플라톤적인 명상의 단계와 결부시켰다.³³⁾ 이런 점에서 볼 때, 당시 위대한 설교가로서 신비주의의 깊은 경지에 이르렀던 수도사였던 버나드는 어거스틴 신학의 전반부에 걸쳐 깊은 뿌리를 내린 자라고 평가된다.

G. 안셀름(Anselm von Canterbury)

‘힐쉬베르거(Joannes Hirschberger)’ 에 의하면, ‘안셀름’ (1033-1109)은 ‘아오스타’ 출신으로 노르만디의 베크 대수도원장으로 있다가 뒤에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되었다.³⁴⁾ 안셀름에게 있어서의 신학의 목적은 호기심에 싸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캐묻는 데 있지 않다. 도리어 신앙이 스스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려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안셀름의 신학 방법론은 신학적인 문제를 제시해 놓고서 이를 교부들의 권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사용해서 해결하는 것이라고 규명된다. 이점에 대해서 안셀름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주여 나의 이해심은 당신의 높으신 경지에 도저히 비길 수 없으므로 이성을 통해서 주를 이해하려 들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당신의 진리를 조금씩이나마,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사랑하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믿기 위해서 알고 싶지 않다. 오히려 알기 위해서 믿나이다. 또한 나는 믿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음도 믿고 있나이다(For this too

32) E. Gilson, *The Mystical Theology of St. Bernard*, tr., A. H. C. Downes (London: Sheed & Ward, 1955), p. 51.

33) J. L. Neve, *Ibid.*, p. 293.

34) Johannes Hirschberger, *Geschichte Der Philosophie*, 강성위 역, 「서양 철학사」(대구: 이문출판사, 1995), p. 475.

believe, that “unless I believe, I shall not understand”).³⁵⁾

‘힐쉬베르거’ 에 의하면, 이상에서 언급된 안셀름 사상은 한마디로 ‘신앙은 지성을 요구한다(fides quaverens intellectum)’ 인데, 안셀름의 이 방법론은 철저히 어거스틴적이다.³⁶⁾ 특히 안셀름은 그의 신관(神觀)을 전 개함에 있어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모노로기온(Monologion)’ 과 ‘프로스로기온(Proslogion)’ 을 통해 ‘절대적인 단순자’ 로 증명하였다. 안셀름에 의하면, 소위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우연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재 자체’ 로 파악한다. 곧 하나님은 모든 장소와 시간에 임재하신다고 말할 수 없으며, 또한 모든 장소나 시간에도 임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시간과 장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³⁷⁾

안셀름이 표명한 하나님의 관념 즉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quo maius cogitari non potest)’ 곧 ‘가장 완전한 것으로서 시작도 끝도 부분도 없고 전체이며, 존재와 사고의 전체’³⁸⁾라고 파악되는 안셀름의 관념은 본질과 실존, 사고와 존재가 일치하는 특징을 가진다. 힐쉬베르거에 의하면, 안셀름의 이 신 관념은 ‘모든 선들 중의 선(bonum omnium boni)’ 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신 개념을 따른 것이다. 나아가 플라톤의 ‘ἀυνοθητον(전체가 없는 것)’ 과 ‘ἰκαρογ(충족한 것)’ 이라고 하는 선의 이데아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³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근거로 할 때, 안셀름은 어거스틴의 정신을 기초로 하여 그의 학문성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안셀름은 전적으로 어거스

35) Anselm, “Proslogion” in *L.C.C.* vol. x, p. 73.

36) Johannes Hirschberger, *op. cit.*, p. 476.

37) Anselm, *Ibid.*, pp. 86-87.

38) *Illud vero solum non potest cogitari non esse, in quo nec initium nec finem nec partium coniunctionem, et quod non nisi semper et ubique totum ulla invenit cogitatio.*

39) J. Hirschberger, *op. cit.*, p. 479.

탄에 의해 길러진 사상가라는 힐쉬베르거의 평가는⁴⁰⁾ 참되다고 사료된다.

H. 오베른의 윌리엄(William of Auvergne)

윌리엄은 13세기 당시⁴¹⁾ 서방 교회에서 큰 영향을 미친 걸식 교단적인 성향을 갖는 프랜시스 학파의 중심 인물이었다. 곤잘레스에 따르면 윌리엄은 신론에 있어서 하나님은 실재와 존재가 동일한 반면에 피조물은 그렇지 않다는 이론을 전개했다. 이점에서 윌리엄은 안셀름의 존재론적 증명의 대 전제와 일치하며 동시에 어거스틴적 경향의 주된 특징들과 일치한다.⁴²⁾

윌리엄의 지식론은 전형적인 어거스틴주의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따금씩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개념으로 표현되었다. 곤잘레스에 의하면, 윌리엄은 하나님은 각 영혼 속에 논리학뿐만 아니라 도덕성에 관한 제일 원리의 지식을 심어 놓으셨으며, 동시에 영원한 이데아의 지식도 심으셨다고 보았다. 따라서 하나님은 참된 능동적 지성인인 반면 영혼은 ‘수동적 지성’이라는 관계를 갖는다. 곧 영혼은 몸과 감각을 통해서 개별적인 대상을 ‘인지(perceive)’ 하나 하나님의 활동을 통해서만 ‘알게 된다(know)’. 결국 윌리엄은 사물이 질료와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이론을 인정하지만 물활론적인 구조를 순수한 영적 존재들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보는 어거스틴주의의 일반적 견해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⁴³⁾

40) *Ibid.*, p. 476.

41) 곤잘레스에 의하면, 13세기에 이르렀을 때 서방 교회는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곧 그 이전의 라틴 서방의 지적 전통이었던 어거스틴주의 구조에 쉽게 적응하는 분위기에서 이제는 새로운 철학이 소개되어 전통적 신학과 대립하는 양상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실제적인 상황에 부딪치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적 신학을 따르는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을 상징으로 하여 의식적으로 어거스틴적 신학을 산출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했다. J. L. Gonzalez, *op. cit.*, p. 300.

42) *Ibid.*, p. 303.

43) *Ibid.*

이상의 논의에서 밝힌 것처럼, 윌리엄은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어거스틴 신학의 뒤를 쫓고 있다. 그러나 그의 지식론에 있어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 어거스틴주의를 반대한다. 이런 점에서 윌리엄은 어거스틴주의적 플라톤 철학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사이의 긴장성 속에서 양자의 입장을 함께 취하면서도, 그의 신학 전체적인 면에서는 어거스틴주의에 충실한 자였다고 평가된다.

I. 보나벤투라(Bonaventure)

보나벤투라는 오베른의 윌리엄과 같이 초기 프랜시스 학파에 있어서 두 번째로 위대한 신학자였다. 니이브에 의하면, 보나벤투라는 1221년 교황령(Papal States)에서 태어났으며, 1274년 세상을 떠날 때에는 추기경과 프랜시스 교단의 총수 자리에 있었다.⁴⁴⁾

곤잘레스에 따르면, 보나벤투라의 신학 사상은 크게 3개의 기둥 위에 건설된 것이다. 첫째로 교회와 전통의 권위 그리고 동시에 성경의 권위이다. 둘째로 그의 신학은 프랜시스파 유형의 깊은 경건에 근거한다. 셋째로 그의 신학은 전체적으로 어거스틴, ‘성 빅토의 휴’, ‘헤일즈의 알렉산더’로부터 전수된 철학적 구조 안에서 형성되었다.⁴⁵⁾

이상의 점을 기초로 하여 보나벤투라의 신학적 특색을 살펴보면, 보나벤투라는 모든 지식이 말씀의 조명으로부터 온다고 단언한다. 곧 모든 학문은 하나님의 지식을 향하도록 정립되어 있으므로 신학에서 최절정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특히 보나벤투라는 이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하다고 할 수 있으며, 철학 또한 일정한 유형의 지식을 획득하기에 필요한

44) J. L. Neve, *op. cit.*, p. 312.

45) J. L. Gonzalez, *op. cit.*, p. 308.

수단이며 좋은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보나벤투라에 따르면, 신앙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믿는 것은 의지의 활동이며 이성의 작동은 아니라고 구분짓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지 신학의 주된 과제는 믿음에 관한 것이며, 믿음은 우선적으로 '의지의 정서(affections)' 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 그 이상의 어떤 것 곧 '지혜(sapientia)' 라고 규정지었다.⁴⁶⁾

보나벤투라는 위와 같은 자신의 사상의 핵심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의 논문 등에서 어거스틴의 저작을 무수히 인용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보나벤투라는 어거스틴의 조명설에 깊은 관심과 연관을 맺고 있다. 따라서 보나벤투라는 어거스틴의 권위에 의존하는 자였다는 니이브의 주장은 옳다고 평가된다.⁴⁷⁾

III. 중세 후기

A.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중세 13세기 교회의 지적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프랜시스파와 쌍벽을 이루는 단체는 '도미니크(Dominic)' 교단의 학자들이었다. 그들은 교회 교부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어거스틴이라고 믿었다. 다만 '어거스틴의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구조 안에서 해석하려고 했던 자' 라는 평가를 얻기는 어렵다.

곤잘레스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를 띤 첫 번째 사람은 '앨버트(Albert the Great)'⁴⁸⁾이다. 앨버트의 저작에 언급된 여러 근원에서 나온 각종 요

46) Bonaventura, "Disputed Questions Concerning Christ's Knowledge" in L.C.C. vol. X, pp. 392~395.

47) J. L. Neve., *Ibid.*

48) 앨버트가 기독교 사상사 발전에 가장 두드러지게 기여하는 부분은 신학과 철학을 구별하는 그의 태도에 있다고 곤잘레스는 밝힌다. J. L. Gonzalez, *op. cit.*, p. 319.

소들은 분명한 유기적인 연결성이 없이 병행적으로 나열된 절충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곤잘레스에 의하면, 이러한 절충주의 형태는 토마스 아퀴나스에 이르러서 새로운 종합을 이루는데, 곧 아리스토텔레스주의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적 요소를 갖춘 신 플라톤적 어거스틴주의도 아닌 새로운 체계 즉 '토마스주의(Thomism)' 가 등장하였다.⁴⁹⁾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은 워낙 광범위하여 단 몇 마디로 그의 사상을 정리할 수 없다. 하지만 본 논고의 주제와 연관시켜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의 특징을 엿볼 수는 있다. 먼저 토마스는 '이성을 넘어서 있는 진리' 를 구별하였다. 이는 토마스에게 있어서 진리가 기독교 계시 속에서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다. '윌리엄 캐논(William R. Cannon)' 이 지적한 대로, 토마스는 인간의 이성을 사용하여 가능한 한 여러 방면에서 이와 동일한 정답에 도달하고자 하였다.⁵⁰⁾

곤잘레스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토마스의 기본 입장은 하나님의 존재는 자명하다고 안셀름의 주장을 거절한다. 곧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자명한 존재라는 주장은 옳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하지 못하다"⁵¹⁾라고 말한 토마스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신 존재 증명⁵²⁾을 통해서 그의 신학을 추구하였다.

결국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러한 신학적 입장은 니이브가 지적한 것처럼 보편 문제에 있어서 온건한 실재론을 가르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스

49) *Ibid.*, p.318.

50) William R. Cannon,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Middle Ages*, 서영일 역, 「중세 교회사」(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0), p. 334.

51) T. Aquinas, *summa contra gent.* q.2,art.1, J. L. Gonzalez, *op. cit.*, p. 327에서 재인용.

52) 토마스 아퀴나스가 논한 신 존재 증명을 위한 5가지 방법론의 각 출발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부정할 수 없는 운동(ex parte motus), ②인과율(ex eatione causae efficientis), ③필연적인 것과 우연적인 것(ex possibili et necessario), ④존재들이 완성되는 각종 단계(ex gradibus), ⑤우주의 질서(ex gubernatione rerum) 등이다. 이 다섯 가지 방법론은 감각을 통해서 인지된 사실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평행하다고 볼 수 있다.

콜라 신학의 근본 주제인 하나님에 관한 그의 가르침에서 계시와 이성의 조화, 곧 어거스틴의 성서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재론과의 조화를 추구한 결과이다.

그런데 토마스의 신학적 입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힐쉬베르거에 따르면, 토마스가 그의 인식의 원천을 물을 때, 토마스는 여러 차례 어거스틴의 주장 곧 우리들은 영원한 근원 안에서 모든 것을 인식한다는 명제를 거절했다. 다시 말해 토마스도 조명(照明)이라는 말은 쓰기는 하나 어거스틴의 조명의 개념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어거스틴의 조명이라는 개념을 ‘신의 협력(concours divines)’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바꿔 해석함으로써, 어거스틴의 개념이 아무런 특별한 것도 뜻하지 않게 만들었다. 힐쉬베르거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토마스의 신학적 인식론은 결국 어거스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 곧 아리스토텔레스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였다.⁵³⁾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거스틴의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구조 안에서 해석하려는 입장에서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어거스틴의 신학과는 구별된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이룩하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질송에 따르면, 아퀴나스는 어거스틴의 신학에 자신의 신학적 종합을 통합시켜 순수한 철학적인 요소들을 다시 해석했고, 필요하다면 더 참된 철학으로 대체하는 데 자유로움을 느꼈다. 나아가 어거스틴이 사용한 철학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의 신학 개혁은 철학 개혁⁵⁴⁾을 함의(含意)한다.⁵⁵⁾ 바로 이 점에서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큰 구별점

53) J. Hirschberger, *op. cit.*, p. 545.

54) 질송에 따르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어거스틴이 플로티누스로부터 빌려 온 교리들을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빌려 온 다른 교리들과 대치했기 때문에 철학 개혁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55) Etienne Gilson, *History of Christian Philosophy in the Middle Ages*. 김기찬 역, 「중세 기독교 철학사(하)」(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p. 505.

이 있게 된다고 사료된다.

B. 존 둔스 스코투스(John Duns Scotus)

영국 출신인 존 둔스 스코투스는 ‘정묘한 박사(Subtle Doctor)’라는 칭호로 불린다. 곤잘레스에 따르면, 둔스 스코투스는 매우 어거스틴적이며 프랜시스적인 사상을 심오하게 종합함과 동시에 전통 신학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비판까지 수용하려는 의도를 가진 인물⁵⁶⁾로 평가여지는 학자이다. 니이브에 의하면, 이러한 신학적 특색을 가진 존 둔스 스코투스에 의해 중세 스콜라주의의 일대 전환점이 일어났다. 곧 토마스 아퀴나스의 체계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근거를 둔 것과는 달리, 스코투스는 연구(年久)한 플라톤적 어거스틴적 계통의 사상을 연마하여 그 계승의 대표자로 섰다.

둔스 스코투스가 취한 이 입장은 그의 신학 전반에서 드러나 있다. 무엇보다도 보편 문제에 관해서, 둔스 스코투스는 ‘보편이 개체 안에 있다(universalie in re)’고 주장했다. 니이브에 따르면, 둔스 스코투스의 강조는 그가 사물의 개체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지식의 근원으로서의 경험을 강조한 그의 신학적 입장에 기인한 것이다. ‘베토니(E. Bettoni)’에 의하면, 둔스 스코투스의 신학적 특색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둔스 스코투스는 인간 지성의 일차적이며 적당한 대상이 무엇이냐는 문제에 직면해서, 그것은 비물질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물질적 존재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며……그것은 단순하게 있는 존재, 아무 조건도 없는 존재, 즉 ‘존재로서의 존재(ens in quantum ens)’라고 했다. 곧 존재는 모든 것을 수식으로 수식될 수 없으며 존재가 아닌 그 어떤 것도 알려질 수 없다. 즉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56) J. L. Gonzalez, *op. cit.*, p. 378.

도 인식될 수 있다. 존재는 “존재는 있다(존재한다)” 처럼 최소한 단 하나의 보어를 갖는 주어이다. 존재는 지적인 것과 똑같은 한계를 갖는다. 오직 비존재 혹은 부존재만이 인간이나 혹은 다른 지적 존재에게 인식될 수 없다.⁵⁷⁾

여기 베토니가 언급한 대로 존재가 그 본래의 모습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사실은 존재는 모든 존재의 수식어를 단일 의미적으로 자신의 수식어(보어)로 삼는다는 뜻이다.⁵⁸⁾ 곤잘레스의 분석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서 스코투스주의와 토마스주의가 충돌하게 되었다.⁵⁹⁾ 왜냐하면 토마스주의에서의 존재는 하나님과 피조물을 유추적으로 수식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스코투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주장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더 문제를⁶⁰⁾ 일으키기 때문에 거절하게 되었다.

질송에 따르면, 결국 이 같은 존재의 단일 의미의 보어가 스코투스의 신 존재 증명⁶¹⁾을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스코투스의 신학이 갖는

57) E. Bettoni, *Duns Scotus: The Basic Principles of His Philosophy*(Washington: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61), pp. 32-33.

58) *Ibid.*, pp. 33-39.

59) J. L. Gonzalez, *op. cit.*, p. 380.

60) 둔스 스코투스에 의하면, 존재를 하나님과 피조물에 대한 유추적 보어로 삼는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주장은 곧 존재 개념이 이중적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비판한다. 이유인즉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존재가 있고, 피조물에게 적용될 수 있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극복할 수 없는 두 개의 문제를 일으킨다. 첫째, 그것은 존재의 두 개념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할 제3의 개념을 필요로 하게 된다. 둘째, 토마스주의의 지식론을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개념의 기원을 설명할 길이 없어진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물질적인 사물을 통해서 알게 된 다른 존재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Ibid.*, p. 381.

61) 둔스 스코투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형이상학에 근거해서, 존재 자체로부터 증명해 나간다. 이는 모든 존재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정한 특성 곧 단순한 것으로 전환될 수 있는 속성 (*passiones convertibiles simplices*)과 동시에 모든 존재에 적용할 수 있는 짝으로 된 개념 곧 융합될 수 없는 특성(*passiones disjunctivae*)의 개념을 통해 다른 개념(완전한 존재)을 증명해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스코투스의 이 같은 방법론 또한 구체적인 존재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에서 후천적(a posteriori) 논증이며, 이 점에서 토마스주의와 일치한다고 곤잘레스는 지적한다. *Ibid.*, pp. 382-383.

관심의 중점은 어떻게 여러 속성들이 하나님에게 일률적으로 수식어 역할을 하면서도 구별을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단순성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⁶²⁾

나이브에 의하면, 스코투스가 견지한 이 신학적 입장은 비록 토마스 아퀴나스와 마찬가지로 종종 하나님을 무한한 존재라고 정의했는지라도 그의 신학에 있어서 지배적인 것은 ‘어거스틴의 주의론적(主義論的) 개념이었다. 곧 나이브에 따르면, 둔스 스코투스의 신 개념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타자성(他者性)’ 이라고 부르는 모든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둔스 스코투스는 성서적인 인격적 신 개념의 재발견을 지향하는 한 도표(道標)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⁶³⁾

주목할 점은 둔스 스코투스가 어거스틴의 신학적 원리를 추종하고 있지만, 그의 인간관은 어거스틴의 인간관과 구별된다는 사실이다. 곧 둔스 스코투스에 의하면, 원죄는 ‘의의 상실’이다. 따라서 인간의 자연적 능력은 파손되지 않았다.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뉘우침(attrition)을 가질 수 있으며, 그러한 뉘우침에 의해서 그는 의롭게 하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지니게 된다고 보았다. 나이브에 의하면, 이러한 둔스 스코투스의 인간관은 전통적인 반(半) 펠라기우스주의적 모습을 띤다.⁶⁴⁾

정리하면, 둔스 스코투스는 어거스틴주의를 계승하면서 토마스주의의 입장도 받아들이는 중간적 입장을 취한다. 그리하여 어거스틴 신학과 구별성을 띄고 동시에 토마스주의도 비판하는 경향을 강하게 취한다. 이는 전체적인 면에서 볼 때, 둔스 스코투스는 어거스틴주의적 입장에서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둔스 스코투스의 신학 기풍상 비평적이며 의지적

62) E. Gilson, *Jean Duns Scot: Introduction a ses positions fondamentales*(Paris: J. Vrin, 1952), pp. 243-254.

63) J. L. Neve, *op. cit.*, p. 328.

64) *Ibid.*, p. 329.

인 요소들을 감안하면, 특히 의지적인 요소들은 어거스틴적 프랜시스적 전통과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C. 마이스터 엑크하르트(Meister Eckhart)

‘블레크니(Raymond B. Blakney)’에 의하면, ‘마이스터 엑크하르트’로 더 잘 알려진 ‘요한네스 엑크하르트(Johannes Eckhart)’의 정확한 출생일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그는 1260년 ‘고다(Gotha)’ 근처인 ‘호크하임(Hocheim)’에서 태어났다.⁶⁵⁾ ‘켈리(C. F. Kelly)’의 조사에 따르면, 엑크하르트는 15세 때 ‘에르푸르트(Erfurt)’에 위치한 도미니칸 수도원에 들어가서 9년 동안 사제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였다. 1302년에는 파리에 서 석사 학위(Master Degree)를 받아, 그 후 ‘마이스터 엑크하르트’로 알려지게 되었다.⁶⁶⁾ 그는 1307년 「하나님의 위안(*The Book of Divine Comfort*)」⁶⁷⁾이란 유명한 책을 저술하였다. 이후 그는 60세 때 콜로냐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의 가장 유명한 시대를 이루었다. 그런데 엑크하르트는 그의 말년에 ‘신인합일(神人合一)’의 사상을 견지한 관계로 프란시스칸의 특별한 공격을 받아 그의 교리적 건실성에 많은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침착히 대응하여 훌륭한 신앙적 인격자의 본을 보였다.⁶⁸⁾

65) 엑크하르트의 생애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적다. 블레크니에 의하면, 15세기 교회 서류의 형식적인 기록이나 편집자들에 의해 책에 첨가되어진 머리말에서부터 이끌어 낼 수 있을 정도라 하면서, 그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한마디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없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으려는 엑크하르트의 특징이었다고 블레크니는 평가했다. cf. Raymond B. Blakney, *Meister Eckhart*(New York: Harper & Torchbooks, 1941), IX.

66) C. F. Kelly, *Meister Eckhart on Divine Knowledge*(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1977), pp. 26~28.

67) *The Book of Divine Comfort*는 헝가리의 앨버트(Albert)왕의 딸인 아그네스(Agnes)를 위하여 쓴 글로, 그녀의 부모와 친척이 죽었을 때 위로하기 위하여 쓴 글이다. 여기서 엑크하르트는 하나님은 인간의 고난 속에 오셔서 해결시키시는 분이므로 신과 인간의 합일과 신의 근원성 유일자(唯一者)임을 다루고 있다. *Ibid.*, p. 20.

‘하크니스(Georgia Harkness)’의 연구에 따르면, 1327년 엑크하르트가 유명을 달리던 이후 이단 혐의로⁶⁹⁾기소되어 그의 사상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윽고 1329년 교황 요한 22세는 그의 저작 중 28개의 명제를 정죄하였고 그 중 17개를 이단적인 것으로 선포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11개는 경솔하고 편협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엑크하르트의 사상은 이에 쓰러지지 않았다. 계속적으로 ‘타울러(Tauler)’와 ‘수소(Suso)’에게 이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the Friends of God)’ 운동을 통하여 신비 신학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⁷⁰⁾

힐쉬베르거에 의하면, 엑크하르트에게 영향을 크게 미친 사상은 신플라톤주의 사상권에 속하는 것인데, 이는 그가 어거스틴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시사한다. 곧 힐쉬베르거에 따르면 엑크하르트는 설교가, 신비가, 스콜라학자, 변증법적 학자 이상으로 존재론자였다는 것이다. 바로 이 존재에 관한 관심이 그의 신학 전체를 꿰뚫고 있다고, 힐쉬베르거는 지적하고 있다.⁷¹⁾

‘루돌프 오토(R. Otto)’에 따르면, 엑크하르트는 하나님을 ‘존재 자체’, ‘유일자’로 본다. 곧 이 유일성이 ‘실재(esse)이며’ ‘실재물(ens)인 존재(Being)’라고 여긴다.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한 엑크하르트의 신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Deus est Caritas)’라고 강조한 버나드의 견해와는 구별된다. 그러므로 엑크하르트의 신관은 ‘존재가 하나님이다

68) 중세 스콜라 철학이 취급한 문제에는 실재론(realist)과 유명론(nominalist)이 있다. 실재론자들은 “보편개념이 개별적 사물에 앞선다(universalia anteres)”라고 하였으나, 유명론자들은 “보편개념이란 개별적 사물이 있는 뒤에 존재하거나 그에 뒤따라간다(Universalia postres)”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런데 도미니칸은 실재론이었고, 프랜시스칸은 유명론이었다. 당시 프랜시스칸이었던 콜로냐 대주교와 ‘프리스(Benherus Friso)’, 페테 데 에스타테(Pete De Estate)가 엑크하르트의 설교를 비난하였다. R. B. Blakney, *op. cit.*, p. 18.

69) 엑크하르트의 신관에 범신론적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70) Georgia Harkness, *Mysticism*(Nashville: Abingdon Press, 1973), p. 103.

71) J. Hirschberger, *op. cit.*, p. 631.

(Esse est Deus)' 라고 요약된다.⁷²⁾ 바로 이런 차원에서 엑크하르트는 “우리의 모든 삶은 존재(Being)를 나타내며, 생은 존재인 것까지 나타내는 것으로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라고 역설했다.⁷³⁾

힐쉬베르거에 따르면, 존재론적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숙고를 전개한 엑크하르트는 그리스도교적인 플라톤주의가 매우 분명히 드러난다.⁷⁴⁾ 더 나아가 힐쉬베르거의 분석에 의하면, 엑크하르트는 인간 안에 있는 신적인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엑크하르트는 어거스틴의 평상시 주장 곧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보다 더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⁷⁵⁾

이상에서와 같이 엑크하르트의 사상을 검토해 볼 때, 그의 존재론적 하나님 인식은 그리스도교적 플라톤 사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성을 가진 어거스틴의 사상에 깊이 뿌리를 박은 가운데서, 그의 신비주의적 사상이 피력된 것이라고 이해된다.

D. 신 어거스틴 학파(the newer Augustinianism)

오베트만에 따르면, 14세기 초에 있어서 ‘via moderna’⁷⁶⁾의 가장 강력한 요소들 중 하나는 옥스퍼드(Oxford) 대학이었다. 그리고 ‘via moderna’에 대한 최초의 반작용도 역시 옥스퍼드에서 일어났다.⁷⁷⁾ 이 반작용에 책임 있는 인물은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된 ‘토마스 브래워딘(Thomas Bradwardine)’이었다.

브래워딘은 「하나님께서 펠라기우스를 반대하시는 이유(De causa Dei contra Pelagium)」라는 책에서 옥스퍼드 대학의 via moderna 이념들

72) R. Otto, *Mysticism: East and West*, Tr., R. C. Payne (N. Y: Collier Books, 1962), p. 22.
73) Eckhart, “Being is more than Live”, *Sermon 16*, In, Tr. R. B. Blakney, *op. cit.*, p. 170.
74) J. Hirschberger, *op. cit.*, p. 639.
75) *Ibid.*, p. 642.

에 대해 혹독한 공격을 퍼부었다. 이후, 브래워딘의 사상은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를 거쳐, 파리대학의 ‘리미니의 그레고리(Gregory of Rimini)’에 의하여 계승되어졌다. 그런데 맥그레스에 따르면, 그레고리는 브래워딘에 비해 매우 중요한 이점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바로 어거스틴과 수도회라고 알려진 수도회의 일원이었다.

도미니크 수도사들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적 입장을, 프랜시스 수도사들이 둔스 스코투스의 사상을 전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거스틴과 수도사들은 리미니의 그레고리의 사상들을 전파시키고자 노력했다.

‘사커(E. L. Saak)’에 따르면, 어거스틴과 수도회 내부의 리미니의 그레고리로부터 비롯된 어거스틴적 전통의 계승 및 전파를 담당했던 그룹을 ‘신 어거스틴 학파(the newer Augustinianism)’라고 부른다.⁷⁸⁾ 맥그레스

76) ‘맥그레스(Alister E. McGrath)’에 의하면, 오늘날 via moderna 라는 용어는 한때 유명론(nominalism)이라고 알려졌던 운동을 지칭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받아들여진다. 14, 15세기의 대표적인 유명론자로는 ‘윌리엄 옥컴’, ‘피에르 다일리(Pierre d’Ailly)’, ‘로버트 홀코트(Robert Holcot)’ 그리고 ‘가브리엘 비일’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맥그레스에 따르면, 15세기에 ‘via moderna’는 북유럽의 많은 대학들 곧 파리, 하이델베르크, 에르푸르트 대학 등에 깊숙이 침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철학적으로는 유명론의 입장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은 칭의론에 있어서 많은 비판자들이 ‘펠라기우스적’이라고 낙인찍은 이러한 입장을 취했다. 이 via moderna의 구원론에 있어서 중심적인 요소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covenant)이다. 그런데 via moderna의 신학자들에 따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 인간의 칭의에 필요한 조건들을 규정한다. 곧 하나님께서는 개개의 인간들이 먼저 하나님의 어떤 요구를 성취한다는 조건으로 이들을 의롭게 여기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러한 요구들은 ‘자연적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한다(facienti quod in se est Deus non denegat gratiam)’에 요약된다. 이는 만일 인간이 이러한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하나님께서는 계약의 관점에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자연적 능력을 따라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환원된다.

맥그레스에 따르면, 바로 이 점에 있어서 via moderna와 펠라기우스 사이의 유사점이 명백해진다는 것이다. 곧 이 양자는 모두 인간은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의로워진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칭의는 은총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행에 의해 획득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양자는 모두 인간의 행위는 이에 대한 보상의 의무를 하나님에게 부과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via moderna는 펠라기우스의 견해를 단순히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Alister E. McGrath, *Reformation Thought An Introduction*, 박종숙 역, 「종교개혁 사상 입문」(서울: 성광 문화사, 1992), pp. 98-100.

77) Heiko A. Oberman, *Masters of the Reformation: The Emergence of a new Intellectual Climate in Europe*(Cambridge, 1981), pp. 64-110.

78) E. L. Saak, “Scholasticism, Late”, Allen D. Fitzgerald, Ed., *Augustine through the Ages*(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 Co., 1999), p. 756.

에 의하면, 보편자 문제에 있어서 리미니의 그레고리는 유명론의 입장을 취했다. 이 점에서 그레고리의 입장은 via moderna의 사상가들과 대단히 흡사하다. 그런데 맥그레스의 지적에 의하면, 그레고리는 어거스틴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는 그의 구원론을 발전시켰다. 곧 은총의 필요성, 인간의 타락성과 죄악성, 칭의(稱義)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도권,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등을 강조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via moderna 학파의 사람들과 구분점⁷⁹⁾을 갖는다.

중요한 점은 바로 이 같은 신 어거스틴주의적 입장이 유럽 전체를 통하여 유럽의 중심 도시들에서 전파되어졌다는 사실이다. 비록 이 운동이 특별히 어거스틴과 은자 수도회와 관련되기는 하지만 모든 어거스틴 수도회나 대학들이 반드시 이 사상을 채택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 직전의 중세 후기에는 매우 강한 어거스틴적 성격을 지닌 학파로서 존재했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비텐베르크의 개혁자들이 반(反)펠라기우스와 관련된 어거스틴의 저술들을 특별히 주목했고 나아가 그 종교 개혁자들이 이러한 전통의 상속자들로 간주되어진다는 점에서 어거스틴의 영향력이 가늠된다.⁸⁰⁾

IV. 나가는 말

이상에서 중세기를 적신 어거스틴의 영향에 대하여 중세를 빛낸 주요 학자들의 사상적 특색과 사고 구조 속에서 살펴보았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어거스틴은 중세 초반의 서방 신학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스승이

79) 그레고리에 따르면, 구원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이다. 그러나 via moderna의 신학자들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능력이 인간성의 내부에 위치해 있다고 여겼다. A. E. McGrath, *op. cit.*, p. 104.

80) *Ibid.*

였다. 그들은 어거스틴의 저서들을 인용해서 주요한 신학적 질문들을 해결하는 권위의 원천으로 삼았다.

중세 역사에서 어거스틴과 대등한 관계에 있는 인물은 그레고리 교황 뿐이었다. 그레고리는 어거스틴주의를 대중화시켰다. 따라서 그레고리는 실재적으로 어거스틴의 영향력을 강화시킨 자로 평가된다. 하지만 그레고리는 어거스틴의 사상을 따르면서도 예정, 은총, 자유의지에 있어서는 약간 완화된 견해를 취했다.

그레고리가 어거스틴에 대해 취했던 입장은 후대 중세 신학자들에게 어거스틴을 은총과 예정의 박사로 보기보다는 명상과 신학적 탐구의 스승으로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어거스틴에 대한 중세 신학자들의 그 같은 입장은 13세기에 들어와서 그 면모가 조금 바뀌었다. 곧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소개되면서 전통적 신학과 사이에서 양자 택일해야 하는 실재적인 상황에 부딪치는 긴장이 형성되었다. 이에 전통적 신학을 따르는 신학자들은 어거스틴을 상징적으로 모시고 의식적으로 어거스틴적 신학을 산출해 내는 데 전심전력했다. 더 나아가 도미니크 교단의 경향처럼 어거스틴의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구조 안에서 해석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절충주의적 형태는 마냥 지속되지 않았다. 그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르러서 새로운 종합을 이루게 된다. 이른바 토마스주의(Thomism)가 등장하였다. 어거스틴주의자들은 토마스주의를 공격하기는 했다. 그러나 어거스틴주의자들의 공격은 토마스주의의 존속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지는 못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집약해 볼 때, 어거스틴의 신학과 사상은 중세 천년 동안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다. 이 와중에서 중세 후반기에 이르러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교회의 사상 속으로 도입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어거스틴의 사상을 계승하고자 하는 자들과 긴장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 긴장의 역동성은 결과적으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입지를 마련해 주는 모멘텀이 된다. 결국 어거스틴의 사상은 중세 교회의 중심적 사상과 신학적 판단의 잣대가 되어 왔다.

참고 문헌

McCracken, George E. ed.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London: SCM Press, 1957(이하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는 L.C.C.로 표기함)

Bettoni, E. *Duns Scotus: The Basic Principles of His Philosophy*. Washington: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1961.

Blakney, Raymond B. *Meister Eckhart*. New York: Harper & Torchbooks, 1941.

Bonaventura. "Disputed Questions Concerning Christ's Knowledge" in *L.C.C.* vol. X

Cannon, William R. *History of Christianity in the Middle Ages*. 서영일 역. 「중세 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0.

Fitzgerald, Allen D. Ed. *Augustine through the Ages*.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 Co., 1999.

Gilson, Etienne. *History of Christian Philosophy in the Middle Ages*. 김기찬 역, 「중세 기독교 철학사(하)」.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4.

_____, *Jean Duns Scot: Introduction a ses positions fondamentales*. Paris: J. Vrin, 1952.

_____, *The Mystical Theology of St. Bernard*, tr., A. H. C. Downes.

London: Sheed & Ward, 1955.

Harkness, Georgia. *Mysticism*. Nashville: Abingdon Press, 1973.

Harnack, von Adolph., *History of Dogma* vol. 5. New York: Russell and Russell, 1958.

Hirschberger, Johannes. *Geschichte Der Philosophie*, 강성위 역. 「서양 철학사」. 대구: 이문출판사, 1995.

Kelly, C. F. *Meister Eckhart on Divine Knowledg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 1977.

Lion Publishing Ed., *THE HISTORY OF CHRISTIANITY*. 송광택 역. 「교회사 핸드북」.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McGrath, Alistair E. *Reformation Thought An Introduction*. 박종숙 역. 「종교개혁 사상 입문」서울: 성광문화사, 1992.

Neve, J. L. *A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서남동 역. 「基督教 教理史」.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5.

Oberman, Heiko A. *Masters of the Reformation: The Emergence of a new Intellectual Climate in Europe* Cambridge, 1981.

Otto, R. *Mysticism: East and West*, Tr., R. C. Payne. N. Y: Collier Bookes, 1962.

Pelikan, Jaroslav. *The Christian Tradition*, vol. 2.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Radbertus, "The Lord's Body and Blood" in *Early Medieval Theology*, *L.C.C.* vol. IX.

Ratramnus, "Christ's Body and Blood" in *Early Medieval Theology*, *L.C.C.* vol. IX.

Schaff, P. *History of Christian Church*, vol. v. Michigan: Wm. B. Eerdmans Pub. Co., 1952.

Seeberg, Reinhold. *The History of Doctrines*. vol. 2, 김영배 역. 「기독교 교리사」.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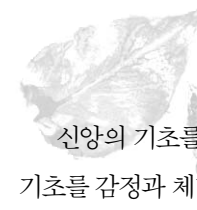
Williams, Daniel D. "The Significance of St. Augustine Today" in ed., Roy W. Battenhouse. *Companion to the study of st. Augustine*.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55.

Williams, Wackin. *St. Bernard, the Man and His Message*. Manchester University, 1944.

조나단 에드워즈와 구원과 성화



오덕교 목사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신앙의 형태가 결정된다. 신앙의 기초를 감정과 체험에 두면 신비주의자가 될 수 있고, 지성과 상식에 두면 바짝 마른 합리주의에 빠질 수 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수 1:7) 않는 균형 잡힌 신앙이 교회 생활의 중심이 될 때 교회는 건실하게 부흥할 수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칠 때 무질서와 혼란 가운데 빠져 모래 위에 세워진 집처럼 무너질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앙의 균형은 바른 교회 운동의

■ 오덕교 목사

-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교(Ph. D.)
-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기초가 된다.

신앙에서 균형의 유지를 역설하면서 바른 교회 운동을 이끌고자 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많았다.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이다. 그는 미국이 낳은 위대한 사상가요, 작가이며, 대표적인 지성인이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목회자로 학문과 경건을 잘 조화시킨 개혁주의 신학자였고,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매력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로,¹⁾ 대각성운동(The Great Awakening)을 주도했다. 대각성운동과 함께 신앙 체험을 히스테리 현상으로 간주하는 합리주의자들과, 모든 종교 현상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간주하려는 광신주의자들에 의해 참된 신앙이 도전을 받자, 에드워즈는 신앙 체험을 인위적인 상상과 성령의 사역으로 구별하여 구원에 이르는 신앙과 구원 그 이후 성도들이 살아야 할 방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에드워즈가 대각성운동 과정에서 광신주의자들과 합리주의자들과 벌인 믿음의 본질에 대한 논의,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쓴 여러 편의 글²⁾에 나타나는 바른 신앙에 대한 이해를 고찰함으로 에드워즈의 심중에 있던 구원과 성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먼저 에드워즈가 이끌었던 대각성운동에 대해 약술하고, 신앙의 본질에 대한 광신주의자와 합리주의자들의 논쟁, 그리고 이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반응과 성화에 대한 입장을 고찰하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주는 교훈을 찾

1) 20세기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Martyn Lloyd Jones)는 “청교도들을 알프스 산에 비교하고, 루터와 칼빈을 히말라야 산에 비교할 수 있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에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2) 에드워즈는 광신주의자들과 합리주의자들의 신앙에 대한 극단적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 노샘프턴에 일어난 부흥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서술인 「놀라운 회심 이야기(A Faithful Narrative of the Surprising Work of God, 1737)」, 「성령의 사역에 대한 특징적인 표지들(The Distinguishing Marks of a Work of the Spirit of God, 1741)」, 「뉴잉글랜드에서의 종교 부흥에 관한 고찰(Thoughts on the Revival of Religion in New England, 1742)」, 그리고 「종교적 감성에 대하여(A Treatise Concerning Religious Affections, 1746)」를 출간했다. 그는 이 책들을 통하여 신앙에서의 균형과 중용적 자세를 취함으로 바른 신앙 운동을 이끌었다.

아보고자 한다.

1. 에드워즈와 대각성 운동

에드워즈는 1730년대 중반 노샘프턴(Northampton) 부흥운동을 경험했고, 1740년대 초반에는 대각성운동을 이끌었다. 노샘프턴 부흥운동은 에드워즈가 노샘프턴에 도착한 후, 그의 할아버지 솔로몬 스타다드(Solomon Stoddard)를 도와 2년간 동사 목회를 하다가 1729년 담임목사가 된 지 4년 만에 일어났다. 당시의 노샘프턴은 200여 세대가 모여 사는 마을로, 처음 스타다드에 의한 부흥이 있던 후 18년 동안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채 침체 상태에 있었다. 젊은이들은 방탕하여 밤마다 주점에서 주연(酒宴)을 즐겼고, 가정들의 파괴가 만연하였다. 1733년 에드워즈가 부도덕한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설교하면서 청년들 사이에 반응이 나타났고, 그 해 가을 노샘프턴 여러 곳에서 저녁 기도 모임이 열렸으며 장년들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³⁾

(1) 대각성운동

에드워즈는 1734년 가을 아르미니우스주의(Arminianism)가 노샘프턴 지역에 번지기 시작하자 “오직 믿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칭의(Justification by Faith Alone)”라는 일련의 설교를 통하여 그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믿음을 새로운 종류의 순종으로, 복음을 새로운 종류의 율법으로 간주하는 신율법주의(Neo-Legalism)라고 규정한

3) 특히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본문으로 “성령께서 인간 영혼에 직접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신적이고 초자연적인 빛의 교리는 성경적인 동시에 이성적인 교리이다(A Divine and Supernatural Light Immediately Imparted to the Soul by the Spirit of God, Shown to be Both a Scriptural and Rational Doctrine)”라는 설교를 했을 때 청중은 크게 반응을 보이면서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하였다.

후,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미덕이나 순종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복음의 본질과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과 목적은 사람을 낮추고, 구원에 관한 모든 영광을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 돌리는 데 있기 때문이다.”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어떠한 인간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 “즉 우리 영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주를 영접하고 그 분과 연합함으로 가능하다”고 하였다.⁵⁾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고,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기 때문이다.⁶⁾

이신칭의에 대한 에드워즈의 설교가 끝난 12월부터 비상한 부흥운동이 전개되었다. 대역섯 사람이 갑작스럽게 회심하면서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에드워즈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들의 각성 소식은 온 마을에 걸쳐 젊은이들과 기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전광석화처럼 퍼졌다. 진지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악용할 것이라고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크게 각성하였다. 이 일이 있는 직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마을 전체의 주민들이 기독교의 위대한 일들과 영원한 세계에 대한 크고도 엄숙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마른 뼈들이 부딪치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모임과 만남에서 모든 대화의 내용은 오직 종교적인 일에 관한 것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세상으로부터 신기할 만큼 멀어졌다. 그리고

4) Jonathan Edwards,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태복 역, 『기독교 중심』(서울: 개혁된신앙사, 2002), 85, p. 139.
5) *Ibid.*, p. 182.
6) *Ibid.*, p. 52.

종교적 목적을 위해 개개인의 집에서 자주 함께 모이곤 하였다. 그러한 모임이 예고되면 늘 그 집은 만원을 이루었다.⁷⁾

이렇게 부흥운동이 시작되어 구원을 체험한 성도의 수가 늘어나면서 주민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대화의 내용이 바뀌고, 예배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에드워즈의 서술을 살펴보자.

1735년 봄과 여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동네에 가득해 보였다. 마을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영적) 고뇌로 가득 찬 적은 없었다.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놀라운 표시가 있었다. 곧 가족에게 임한 구원으로 인한 기쁨으로, 부모들은 거뜨난 자녀들로 인해, 부부들은 상대방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에서도 일어났다. 주의 날은 기쁨 날이었고, 그의 장막은 사랑스러웠다. 공중 예배는 아름다웠으며, 예배드릴 때 청중은 생기로 넘쳤다. 모든 사람들이 공중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고, 청중들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마디도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고,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 수시로 눈물을 흘렸다. 어떤 이는 (죄에 대한) 슬픔과 고뇌로 울었고, 다른 이는 기쁨과 사랑으로 눈물을 흘렸다. 어떤 이들은 이웃의 영혼에 대한 염려와 동정으로 울었다. 우리의 공중 찬양도 훨씬 활기를 띄게 되었다.⁸⁾

1735년 3월과 4월에는 “대개 하루에 네 사람, 일주일에 거의 삼십 명이 회심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보통 때 같으면 사람들이 가능한 모든

7) Jonathan Edwards, *A Faithful Narrative of the Surprising Work of God*, 양낙홍 역, 『놀라운 회심 이야기』(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pp. 48-49.
8) *Ibid.*, p. 49.

노력을 다 동원하고 일상적인 축복을 다 사용해서 일 년 동안에 얻을 수 있는 성과를 불과 며칠 만에 완수한 셈이다.”⁹⁾ 그 결과 6개월 만에 300명이상이 회심을 체험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620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사실상 노샘프턴의 성인을 거의 총망라한 숫자였다.¹⁰⁾

노샘프턴의 부흥은 주변의 도시들에게 알려졌고, 방문자들에 의해서 1735년 3월에는 사우스 해들리(South Hadley), 서필드(Suffield), 디어필드(Deerfield), 햇필드(Hatfield)로 퍼졌고, 4월 둘째 주에는 서부 스프링필드(West Springfield), 롱메도우(Long Meadow), 엔필드(Enfield), 웨스트필드(Westfield), 노스필드(Northfield) 등 군(county)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이어서 에드워즈의 부친 디모데(Timothy Edwards)가 목회하던 이스트 윈저(East Windsor)를 중심으로 코벤트리(Conventry), 레바논(Lebanon), 더럼(Durham), 스트랫퍼드(Stratford) 등 코네티컷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되었고, 1736년에는 뉴헤이븐(New Haven), 길퍼드(Guilford), 헤브론(Hebron), 볼턴(Bolton) 등 뉴헤이븐 식민지 내에도 부흥운동이 일어났다.

5년 후에는 에드워즈와 조지 휘트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에 의해 대각성운동이 시작되었다. 휘트필드는 1739년 8월 필라델피아에서 설교한 후 뉴욕으로 여행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였다. 필라델피아에서 8,000명, 필라델피아 근교의 작은 도시 네샤미니(Neshaminy)에서 5,000명, 팩스 매너(Fagg's Manor)와 같은 작은 마을에 서도 12,000명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1740년 가을, 휘트필드가 6주간에 걸쳐 뉴잉글랜드에서 순회 전도를 하자, 신문들은 그의 부흥운동을 톱뉴스로 게재하였다. 그가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어 보

스턴에서는 몰려 온 사람들을 수용할 장소가 없었고, 마블헤드(Marblehead)와 세일럼(Salem)과 같은 해안 도시에도 사람이 사람 위로 걸어 다닐 정도로 군중이 운집하였다.

휘트필드는 1740년 10월 중순 노샘프턴에서 4일간 설교하였다. 그가 성도들의 영적인 퇴보를 질책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역설하자, “교인들은 전혀 없이 녹아 내렸으며, 거의 온 교인들이 설교 시간 내내 울었다.” 그 후 주민들은 “신앙을 대화의 주제로 삼고, 신앙적 모임을 자주 가지며, 모든 기회를 포착하여 설교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 적극성을 보였다.”¹¹⁾ 그해 12월 중순경 청년들 사이에 다시 한번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 운동이 일어났고, 1741년 5월이 되면서 노샘프턴의 부흥운동은 절정에 달하였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서술했다.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일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랑하며, 기뻐하며, 높이 받들었다. 스스로 자연인으로 간주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깊은 동정심을 드러냈으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 되고 비참한 처지와 상태에 대한 근심으로 압도당했다.¹²⁾

이와 함께 예배 중 부르짖음과 기절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큰 소리로 울며 거리를 지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1741년 여름, 예배당에 모여 부르짖는 소리가 처음으로 들리기 시작했고, “많은 교인들이 공중예배가 끝난 후 예배당에 머무르면서 종교적 각성과 감동에 사로잡힌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자 했다.” 그들의 영향으로 기

9) *Ibid.*, p. 57.

10) *Ibid.*, p. 55.

11) Jonathan Edwards, “An Account of the Revival of Religion in Northampton 1740~1742” In 『놀라운 회심 이야기』, p. 126.

12) *Ibid.*, p. 127.

도와 찬송, 금식이 시작되었고,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그들 중 일부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았다고 믿었다.”¹³⁾ 이때부터 광신적 신앙 운동이 유포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대각성운동은 죄에 대한 각성과 회심으로 나타났다. 많은 사람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자기 본성과 생활의 죄들을 더 깊이 깨달았다.” 이러한 각성은 생활의 껍비로 이어졌다. “더욱 겸손해졌고, 자신을 비우게 되었으며, 더 상한 마음이 되었고, 더 순수하고, 높은 기쁨을 가지게 되었으며, 거룩한 삶에 대한 큰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에 자기에 대한 자신감은 훨씬 작아졌고, 자기의 거저된 마음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졌다.”¹⁴⁾ 이와 같은 대각성운동을 통하여 뉴잉글랜드 인구 30만 명 가운데 25만 명이 회심을 체험하였다. 사회적으로 경건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선교 운동과 함께 신대륙을 이끌어 갈 젊은이 등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들이 속속 설립되었다. 하나의 국가적인 정체감이 형성되어 독립을 위한 새로운 준비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2) 광신주의의 출현

반면에 대각성운동은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뉴잉글랜드의 부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과격한 부흥운동가들은 목사를 구분하기 시작해서 개종한 목사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었으며, 말씀보다는 성령의 은사와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극단적인 광신주의운동은 제임스 대븐포트(James Davenport)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신앙 체험에서 감정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방언, 예언, 신유, 환상 등 신비적인 은사 체험을 강조하였고, 성경 이외의 책들은 모두 불사르는 등 광신적으로 행동

했다. 광신주의자들은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모든 종교적 현상들을 하나님에게서 온 것처럼 간주하며 신앙을 주관화하였다.

이러한 광신주의는 대각성운동 과정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대각성운동을 통해 죄를 깨닫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 기쁨과 놀라움으로 인해 필쩍필쩍 뛰었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는 동시에 눈물이 홍수처럼 흘러내리면서 큰소리로 울기도 하였다.¹⁵⁾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를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껍비해지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싶어하였다.”¹⁶⁾ 이러한 신앙의 감정적 표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과격하게 나타났고, 인위적인 상상과 확신을 추구하면서 신비 체험을 신앙의 본질로 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회심에 대한 확신을 다지기 위해 회심 날짜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종교적 감정과 체험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1741년 이후 광신주의자들이 조금씩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을 때 에드워즈는 당시의 현상을 이렇게 서술했다.

어떤 사람들은 일종의 황홀경에 빠져 24시간 계속 꿈쩍도 않고 누워 있었다. 그들의 감각은 마비된 것 같았다. 그동안 그들은 강력한 상상 속에서 마치 천국에 올라가 영광스럽고 희열을 주는 물체를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사단이 즉시 기회를 타서 역사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들 다수가 이성을 잃고 날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수고를 쏟는 것이 필요했다.¹⁷⁾

13) *Ibid.*, p. 128.

14) *Ibid.*, pp. 129~130.

15) *Ibid.*, p. 76.

16) *Ibid.*, p. 73.

17) *Ibid.*, p. 131.

광신주의자들은 영적 황홀경을 통해 하늘에서 오는 직접적인 계시를 구하였고, 직접 계시를 통해 “모든 광신적 인상(印象)들을 발견하고 적용하고자 했다. 그들은 광신적 인상들을 마치 방금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새로운 의미로 주신 말씀처럼, 그리고 성경의 말씀보다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¹⁸⁾ 그 후 그들은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분리시키며 성령의 역사를 마술로 바꾸었다.¹⁹⁾ 한걸음 더 나아가 감정에 사로잡혀 이웃과 목자들이 거둬나지 못하였다고 정죄하였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지적하고 멋대로 분별하거나 그들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광신주의 운동이 확산되자 에드워즈는 광신주의로부터 노샘프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1741년 3월 교회 계약을 맺고, 건전한 부흥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광신주의의 공격에 대해 대부분의 뉴잉글랜드 교회들은 속수 무책이었다. 심지어 나중에는 에드워즈의 교인들까지도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1742년 이후 광신주의가 노샘프턴에 은밀하게 들어온 후²⁰⁾ 광신주의자들이 황홀경과 격렬한 감정을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자, 교인들은 광신주의자들의 영성이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나며 은혜롭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에 대한 경외심마저 나타냈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다.

광신주의자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 교인들은 스스로의 눈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복하고 그들의 행동을

18) Jonathan Edwards, *A Treatise Concerning Religious Affections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ume 2, Edited by John E. Smith(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9), p. 289.

19) *Ibid.*, p. 280.

20) 에드워즈는 1740년에서 1741년에 일어났던 부흥이 1735년과 1736년의 부흥보다 훨씬 더 순수해졌다고 하였고, 1742년 이후에는 광신주의가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언급하였다(“*An Account of the Revival*”, p. 136).

따르고자 하였다. 그들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당연하고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 일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영향을 주었으며, 결국 그들 다수에게 깊은 상처와 불행한 결과를 남기게 되었다.²¹⁾

(3) 합리주의의 도전

광신주의가 확산되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자 일부의 지성인들은 부흥운동이 수반하는 광신주의, 그로 인한 교회의 혼란과 무질서를 지적하면서 부흥운동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하버드대학의 교수들은 신앙이 지적, 이성적 판단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정을 강조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1745년에는 부흥운동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부흥운동의 주역인 휘트필드를 “열광주의자요, 흠잡기 좋아하는 무자비한 자요, 백성을 기만하는 자”²²⁾이며 그의 설교는 즉흥적이고, 순회 전도는 “가장 악하고 해로운 경향이 있다”²³⁾고 비난하였다. 예일대학교 교수들도 이 성명서를 지지하였고, 그 뒤로 하버드대학 졸업자들이 이에 가담하였다. 그들은 신학은 감정이 아닌 머리로 하는 학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보스턴제일교회 목사였던 찰스 촌시(Charles Chauncy, 1705~1787)였다. 그는 1742년 「열광주의를 서술하고 경계함 (*Enthusiasm Described and Caution'd Against*)」이라는 책을 써서 부흥운동의 광신주의를 비판하였고, 1743년에는 부흥에 대한 공격에 박차를 가하여 「뉴잉글랜드 종교 상태에 대한 시기적절한 사색(*Seasonable Thought on the State of Religion in New England*)」이라는 책을 발간하

21) *Ibid.*, p. 137.

22) H. Selton Smith, Robert T. Handy, and Lefferts A. Loetscher, *American Christianity: An Historical Interpretation With Representative Documents*, 2 Volumes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3), 1:330.

23) *Ibid.*, 1:334.

여 부흥운동이 광신주의의 열매임을 역설하였다. 촌시는 1742년 조지 위샤트(George Wishart)에게 쓴 편지에서, 휘트필드는 어린이나 여자들의 감정만 건드려 놓을 뿐 사실상 도덕성의 변화를 가져온 일이 없으며, 도리어 무자비하고, 남의 흠잡기 좋아하는 쓴 마음만 심어 주고 갔다고 했고,²⁴⁾ 제임스 대븐포트를 광신주의자 가운데 “가장 거친 열광주의자”라고 지적하였다.²⁵⁾ 촌시는 “목사들이 순회 사역을 위하여 자신의 양떼를 버리는 것, 교인들의 비명 소리와 몸부림, 사람들이 종교적인 일에 몰두하게 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직업을 무시하는 등 광신주의자들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대각성운동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방종적 광신주의라고 비난하였다. 대각성운동으로 회심한 사람들의 큰 소리로 우는 것, 쓰러지는 행위, 줄도하는 것, 소리 지르는 것,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한다는 황홀경, 밤중에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것, 불학무식한 아녀자들이 회심을 체험했다고 하여 다른 사람을 상담하는 행위 등은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단의 궤계라고 통박했다.”²⁶⁾

촌시가 부흥운동을 정죄하고 부흥운동의 본질을 비난한 것은 이성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그의 인식론 때문이었다. 그는 한때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때 인간의 감정이 뜨거워질 뿐 아니라 정신이 맑아진다고 언급하여 종교에서의 감정의 중요성을 인정했으며,²⁷⁾ “믿음은 단순히 사색적인 것도 아니고 비활동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과 생활에 강력한 영향력을 준다”²⁸⁾고 하여 에드워즈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계몽주의에 빠지면서 신앙생활에서 감정보다 이성의 역할을 중시하여 에드

워즈와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는 고조된 감성과 계몽된 이성의 균형은 이성의 권위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곧 믿음의 감정적인 측면은 이성의 지배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분명한 진리는 고조된 감정이 아니라 계몽된 지성이 항상 인간을 지배하는 안내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도 역시 그러하다”²⁹⁾고 말하였다. 진정한 신앙인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의 지배를 받는 자로, 거듭난 사람은 그 신앙적 열정을 이성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새롭게 된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들 중 하나는 열정을 적절한 지배, 즉 성화된 이해력의 지배 아래 복종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전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를 수는 있어도 새롭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비록 그 대상이 하나님 또는 다른 세계에 속한 것이라 할지라도, 열정이나 감정에 의해서 이성적인 존재가 이끌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에도 그들은 잘 교육된 판단력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한다.³⁰⁾

그러므로 이성에 의해 조절되고 지배되지 않은 열심이나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부흥운동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사단의 역사라고 하였다. 성령의 영향력은 이성의 계몽에 관한 것이므로, 신앙적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동물적인 열정을 이성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24) Richard L. Bushman, ed. *The Great Awakening: Documents on the Revival of Religion 1740-1745* (New York: Atheneum, 1970), p. 118.

25) *Ibid.*, p. 121.

26) Charles Chauncy, *Seasonable Thoughts on the State of Religion in New England*(Boston: Rogers & Fowle, 1743), p. 35ff.

27) *Ibid.*, p. 324.

28) *Ibid.*, p. 31.

29) *Ibid.*, pp. 326-327.

30) *Ibid.*, p. 324.

2. 에드워즈와 종교적 감성

에드워즈는 광신주의자와 합리주의자의 극단적인 신앙관을 바로잡고자 노력했다. 신앙 문제에서 이성적 기능만 강조하고 감성적인 것을 지나치게 무시하다 보면 긴요한 개인적 체험을 배제하는 정반대의 극단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고조된 감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다가 열정적인 설교와 그에 대한 열정적인 반응을 비난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신앙 체험의 합법적인 부분인 감정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역사할 때 믿음이 주입되며, 감정이 고조되고, 성향이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이성이 계몽되므로, 인간의 연약함에서 기인된 오류나 고조된 감정에서 기인한 이상한 육체적 현상들을 성령 사역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1) 합리주의 신앙 비판

에드워즈는 먼저 지성 또는 이성의 우위적 역할을 강조하는 합리주의자들의 오류를 지적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신앙(saving faith)을 옹호하려고 하였다. 합리주의자들은 신앙에서의 감정의 역할을 부인하지만, 성경은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그는 「종교적 감성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하나님이 요구하는 종교는 냉담하거나 침체적인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은 감성적 종교이며,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성 기능을 주셔서 인간 행동의 원천이 되게 하였다. (2) 사랑과 미움, 소망과 두려움이 없는 세상은 죽은 세상과 같으며, (3)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은 감성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감성이 없는 실체는 있을 수 없다. (4) 성경에는 경외, 소망, 사랑, 미움, 거룩한 열정, 슬픔, 애통, 감사, 연민, 열심 등의 감성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5) 성경은 감성 가운데 최고인 사랑을 참된 종교의 핵심으로 간주했다. (6) 성경의 인

물들은 거룩한 감성을 소유했다. (7)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부드럽고 감성적인 마음의 소유자로 하나님과 인간을 향한 강렬한 사랑을 드러내셨다. (8) 성경이 묘사하는 천국은 사랑과 기쁨과 같은 감성으로 가득 차 있다. (9) 하나님이 제정하신 교회 의식들은 감성을 그 중요 내용으로 한다. 감성 없는 기도는 메마르고, 감성 없는 찬양은 공허하고, 감성 없는 성례는 형식적이며, 감성 없는 설교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10) 성경은 감성이 부족한 마음을 굳은 마음 혹은 완악한 마음, 죄라고 선언한다.³¹⁾ 에드워즈는 이와 같이 종교에서의 감성적인 요소가 성경적임을 지적하고, 신앙에서 감성적인 면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에드워즈의 이러한 입장은 1741년 9월 예일대학교 졸업식장에서 행한 설교를 모아 출판한 「성령의 사역에 대한 특징적인 표지들」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대각성운동이 신비적이며, 무질서한 사단의 역사라고 비난하는 합리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부흥운동에서 나타나는 감정적 현상은 무조건 배격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어난 것이라면 수용하라고 권하였다.³²⁾ 그는 성령의 특징적인 사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1) “성령은 성경에 제시해 놓은 원칙을 결코 어기시지 않지만, 그 범위 내에서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나타난 현상들이 예외적이라고 해서 거부해서는 안 된다. 초대 교회의 성령 사역이 유별났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성령의 사역이 비상할 것이기 때문이다.³³⁾

(2) “사람들의 육체에 나타난 현상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역사인지

31) *Religious Affections*, pp. 99-119.

32) Jonathan Edwards, *The Distinguishing Marks of a Work of the Spirit of God* 「부흥을 원하면 고정관념을 버려라」, 배웅준 옮김(서울: 도서출판 나침반, 1998), p. 24.

33) *Ibid.*, pp. 24-26.

아닌지 단정할 수 없다. 흐느껴 울거나 두려움에 떨거나 절망으로 신음하거나 큰 소리로 울부짖는 일,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거나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듯한” 경험을 하였을 경우, 이는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³⁴⁾

(3) “부흥운동 때문에 기독교가 사람들의 잦담거리가 되었다고 하여”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왕국을 침노하면 세상에 동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³⁵⁾

(4) 영적인 황홀경과 같이 사람들의 상상력에 어떤 인상이나 환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사단의 역사라고 할 수 없다.³⁶⁾

(5) 다른 사람의 감성을 보고, 비슷한 감성을 체험했다고 해서 참된 체험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남의 모범을 따르는 것은 성경적이며 합리적이기 때문이다.³⁷⁾

(6) 부흥을 체험한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하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부흥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 교회는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받은 성령의 은혜는 참된 것이었기 때문이다.³⁸⁾

(7) 일부 부흥 사역에 오류나 사단의 역사가 혼합되었다고 해서 전체 부흥운동을 거부하거나, 일부 부흥사들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전체 부흥을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안 된다. 이는 일곱 집사 중 하나였던 니콜라가 이단자가 되었다고 해서 전체 일곱 집사를 이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³⁹⁾

34) *Ibid.*, p. 27.

35) *Ibid.*, pp. 34-37.

36) *Ibid.*, pp. 37-41.

37) *Ibid.*, pp. 41-42.

38) *Ibid.*, pp. 49-50.

39) *Ibid.*, pp. 52-53.

(8) “예외적이고 특별한 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던 사람들이 지독한 이단과 죄악에 빠져 버렸다고 해도” 부흥운동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입증할 수 없다. 언제나 가짜가 있는 것처럼 그 속에 진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⁴⁰⁾

(9) 설교자가 열정적인 감성을 갖고 지옥의 공포를 설교한다고 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⁴¹⁾

에드워즈는 이와 같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비상하다거나 육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거부하지 말고, 그것이 먼저 성경적인지를 살펴라고 하였다. 곧 합리주의자들은 부흥의 결과가 말씀과 일치하는지 살펴보려고 하지 않고 단지 부흥운동에 수반되는 감정적 현상만을 비판하였고, 성경이 아닌 철학이나 역사적 지식, 자신의 경험으로 부흥운동을 판단하려고 했으며, 일부 부흥운동가들의 허물을 보고 부흥운동 전체를 비난하고 부인하려고 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에드워즈는 신앙을 단순히 이성적 기준에 따라 해석하지 말고 오직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확인하라고 주문하였다.

(2) 광신주의 신앙 비판

비록 에드워즈가 합리주의자들을 비판하면서 신앙에서 감정의 중요성을 주장했지만 부흥사들의 광신주의에 대해서 동의한 것은 아니다. 휘트필드가 너무 충동적이며 성급하게 다른 이들의 회심 체험 여부를 평가한다고 비난하였으며,⁴²⁾ 대각성운동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의한 조명을 “감각적인” 환상과 혼동하자 광신적 신앙 운동을 비판하였다.

40) *Ibid.*, p. 54.

41) *Ibid.*, p. 58.

42) Jonathan Edwards, “Some Thoughts on the Revival”,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ume 4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p. 100-101.

상상력을 통해서 본 광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형상을 보는 환상과 혼동할 때, 그러한 환상은 성령의 조명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불신자도 신자들만큼 거룩한 것에 대한 생생한 상상력을 가질 수 있고, 마귀도 그러한 조명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환상이나 상상을 지나치게 중요한 것으로 여긴다. 그들은 자신이 본 환상이 곧 선지자들이 보았던 환상과 동일한 것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요, 장차 나타날 사건을 암시하는 하늘의 특별하신 은혜로 간주한다. 정말 그렇다면,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바를 근거로 말하건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⁴³⁾

에드워즈가 광신주의를 거부한 것은 광신주의가 그릇된 원리에 기초해 있고, 잘못된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광신주의는 오성의 빛을 배제하고 영적 열기만 고조시켜서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중시하고, 환상 등 인간의 체험에 대해 과도하게 관심을 갖게 함으로 결국 영적 자만에 빠져들게 만든다고 보았다.⁴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보면서 자신의 종교적 체험이 유한하고 불순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겸비한 자세를 취하지만, 광신주의자는 성령의 조명을 객관적인 말씀과 분리시키며, 체험을 그 자체의 규범으로 삼음으로 믿음의 본질을 완전히 주관적이고 내적 체험으로 격화하여 부패시킨다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이러한 광신주의의 오류 배경에 영적 교만과 그릇된 원리, 마귀의 전략에 대한 무지가 있다고 보았다.⁴⁵⁾

43) *The Distinguishing Marks of a Work of the Spirit of God*, p. 40.

44) *Ibid.*, pp. 51~61.

에드워즈는 광신주의를 하나님의 일을 오도하는 사단의 역사로 규정하였다.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로 모든 오류를 동원하여 교회를 혼동으로 이끌고 부흥을 방해한다. 곧 성도들을 영적으로 잠재위 부흥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일단 부흥이 일어나면 지나치게 극단으로 몰고 가서 광신, 미신으로 이끌어 가고, 반대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를 갖게 함으로 교회를 나뉘게 한다고 하였다. 에드워즈의 진술을 살펴보자.

사단은 빛의 사자로 가장하고, 이 같은 광신주의를 통해서 나타난다. 기독교회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광신주의를 이용하여 성스럽고 복된 신앙 부흥을 파괴하는 데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다. 성령이 영광스러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쏟아 부어질 때, '옛 뱀'은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사악한 신앙을 끌어들이며 참된 신앙과 섞어 놓는다. 때를 따라 금방 모든 것들을 뒤죽박죽 어지럽게 만들어 놓는다. 그것이 초래하는 암담하고 황폐한 결과를 목격하고 놀라기 전에는 아무도 그 해악의 정도를 상상할 수 없다. 진정한 신앙 부흥이 크게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만약 이 사악한 것이 들어온다면, 이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저지른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는 도망간 한 멍을 제외하고 자기의 친형제 70인을 죽였다.⁴⁶⁾

45) 광신주의자들의 영적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빛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온다. 영적으로 교만해질 때 심한 언어로 남을 공박하거나 남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증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그릇된 행동은 그릇된 원리로부터 나온다. 곧 광신주의자들은 성경보다 성령의 직접 계시를 의존하거나(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보다는 어떤 형태의 응답이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확신에 근거하여 행동하며, 성령의 뜻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수행되어야 하고(예를 들어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 지나치거나 무분별하거나 절제 없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의 유익이 있다면 미래의 결과를 고려할 필요 없이 실행해야 한다는 그릇된 원리에 따라 행동한다. 광신주의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원리에 따라 신적인 체험과 자연적인 체험을 혼합함으로써 신적인 것은 점점 약해지고, 자연적인 것들을 신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종교적인 감성의 많은 부분들은 상상력에서 오는 자연적 인상에 근거한 것들인데, 마귀는 이런 것들을 집착하도록 만들어 교만의 영을 조장하고,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따르는 외적 효과들을 악용한다고 하였다.

46) *Religious Affections*, p. 287.

광신주의가 거짓 교훈으로 신앙의 본질을 훼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완전히 붕괴시킨다고 본 것이다.

사단은 교회를 공략하기 위해 성도들로 하여금 체험과 환상을 중시하게 만든다. 환상과 환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고 여기게 만든 후, 참된 감성에 거짓을 혼합시켜서 신앙적 혼란을 유도한다. 사도 시대 이후에 나타난 에세네파와 “고대 영지주의자들이나 몬타누스주의자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의 체험이 바로 그랬다.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자들이나 하늘의 천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러한 상상에 빠졌던 자들이다.”⁴⁷⁾ 중세의 신비주의자들, 종교개혁 당시의 광신주의자들, 재세례파, 퀘이커, 율법 폐지론자 등 감정 위주의 광신주의를 통하여, 사단은 바른 신앙을 거짓된 것으로 왜곡시키며, 참된 종교를 거짓된 종교와 혼합시킨다. 에드워즈는 이처럼 신앙적 감정주의가 교회를 공격해 오는 사단의 대로(大路)라고 보았다.

에드워즈는 사단이 상상력⁴⁸⁾과 공상을 통하여 기만함으로 자연인들로 하여금 거짓된 종교, 가짜 은혜, 그릇된 감성의 영향을 받게 한다고 가르쳤다. 상상력은 “사단이 자주 나타나는 영혼의 방으로”, 사단은 “사람의 기질이나 몸의 체질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공상에 암시를 집어 넣고 불화살을 쏜다”는 것이다.⁴⁹⁾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내면

47) *Ibid.*

48) 에드워즈는 상상력을 “현재에 존재하지 않고 또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외적인 본질(즉 외적인 감각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 대한 개념을 얻을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Ibid.*, p. 286.

49)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은 안소니 버지스(Anthony Burgess)의 말을 인용하였다. “상상은 마귀가 자주 나타나는 영혼의 방이다. 마귀는 사람의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역사하지 못한다. 사람의 의지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마음을 바꿀 수도 없으므로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도록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암시나 설득을 통한 것뿐이다. 그러나 마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가? 상상력에 작용함으로써 하는 것이다. 그는 그 사람의 기질이나 몸의 체질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의 공상에 암시를 집어넣고 불화살을 쏜다.” *Ibid.*, p. 289.

적인 속삭임을 통해 성령의 조명이나 은혜로 위장한다.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즉각적으로 암시하거나, 유쾌한 소리를 듣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상상력이 다른 인상을 갖게 하여 사람들이 그를 초창하게 한다.”⁵⁰⁾ 이렇게 될 때 자연인들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광신주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단은 이 때 그들의 “심령에 보금자리를 꾸민다”는 것이다.⁵¹⁾

이와 같은 논리에 기초하여 에드워즈는 광신주의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비성경적인 것들을 아무런 여과 없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그는 참된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감성과 유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른 것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영적인 체험을 주의 깊게 살펴 그릇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을 권하였다. 그는 「종교적 감성에 대하여」 제2부에서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없는 12가지 중립적인 현상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1) 종교적 감성이 강렬하게 일어나는 것이 정서의 진위를 가리는 표증이 아니다. 성경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군중이 보여준 것과 같이 고도의 감성이 있다고 해서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⁵²⁾

(2) 육신에 나타나는 반응이 참된 정서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감성이 고조되면 몸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만 그 느낌만 가지고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없다.⁵³⁾

(3) 종교에 대해 뜨겁게, 확신 있게 말함이 참된 은혜의 표증이 될 수 없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마련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50) *Ibid.*, p. 290.

51) *Ibid.*, p. 289.

52) *Ibid.*, pp. 127~131.

53) *Ibid.*, pp. 132~135.

있다. 마음에 선한 것이 가득해도 표현이 빈약하고, 악한 생각이 넘쳐도 언어가 유창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⁴⁾

(4) 내적으로 형성된 정서가 아니고 외부로부터 급작스럽게 들어온 정서도 은혜의 정서를 가리는 표준이 될 수 없다. 성경은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시험해 보라고 하였다. 사람의 상상 속에 떠오른 인상의 근원이 성령일 수도, 마귀일 수도 있다.⁵⁵⁾

(5) 종교적 정서가 성경과 연관되어 있고 마음에 큰 인상을 남겼다고 해서 신령한 정서라고 할 수 없다. 마귀가 그리스도를 시험할 때처럼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성경 전체가 달게 느껴지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기쁨이 충만하며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없다. 이단 교사들도 종종 유사한 체험을 고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험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타락성이 혼합되어 일어난다.⁵⁶⁾

(6) 사랑이라는 종교적 감성이 나타났다고 해도 구원에 속한 은혜의 표징임을 결정하는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다. 종교적 감정 가운데는 사랑이 최고이지만 모조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⁵⁷⁾

(7) 사랑 이외의 슬픔, 기쁨, 열망 등 다른 종교적인 감정들도 신앙적인 정서인지의 여부를 가리기에는 불충분하다. 참된 사랑에서 그리스도인의 감성이 나오는 것처럼 거짓 사랑에서도 온갖 거짓 감성이 나올 수 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후에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보인 고도의 존경심과, 사울이 왕위에 오르면서 드러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등이 곧 사그라진 것은 그것이 거짓 감성이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⁵⁸⁾

54) *Ibid.*, pp. 136-137.

55) *Ibid.*, p. 142.

56) *Ibid.*, pp. 145-147.

57) *Ibid.*, p. 147.

58) *Ibid.*, p. 148.

(8) 양심의 각성과 각성 후에 기쁨과 위안이 오는 것도 신앙적 정서의 본질을 아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정죄 상태가 지난 후에 칭의와 축복 상태가 오고, 두려움의 단계가 지난 후에 위로의 단계가 있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마귀도 이런 순서를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⁵⁹⁾

(9) 예배에 참석하여 찬송하며 설교를 듣고 경건 서적을 읽는 등 종교적인 일에 전력한다고 해서 그 정서가 참된 신앙의 본질을 보여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바리새인, 로마 천주교회의 수도승,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은 외적 종교 행위에 열심이었으나 구원과는 무관했다.⁶⁰⁾

(10)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신앙적 정서의 본질을 지녔다고 할 수 없다. “은혜 없는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단히 높은 정서를 가질 수 있으며, 강한 정서가 입으로 충만하게 나타나 감동 받은 일에 대해서 매우 열심히 전하지만” 그것이 신앙적인 정서라고 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였고,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였지만, 그들은 모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감성을 잃었다.⁶¹⁾

(11) 자신의 체험이 신적인 것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준다고 해도 그 감정이 신앙적 정서라고 단언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다.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성경적이지만 자기도취일 수도 있다. 위선자가 거짓 확신을 가지면 그 확신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다. 위선자 가운데는 자신의 외적 도덕성이나 종교성에 확신의 근거를 두는 율법적 위선자와, 거짓된 환상이나 계시에 확신의 근거를 두는 복음적 위선자가 있다.⁶²⁾

59) *Ibid.*, pp. 151-157.

60) *Ibid.*, p. 163.

61) *Ibid.*, pp. 165-166.

62) *Ibid.*, pp. 167-172.

(12) 종교적 정서의 외면적 모습이 경건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며, 또 사랑을 느끼게도, 기쁘게도, 마음을 열게도 할 수 있으나 신앙적 본질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성도들은 판단력이 미숙하고 교만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구원 여부를 종교적 감성에 근거해서 분별할 수 없다.⁶³⁾

에드워즈는 이와 같이 신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감성적 현상의 불확실성을 지적한 후, 모든 감성을 믿지 말고 성경에 비추어 그 진위를 살피라고 하였다.

에드워즈가 이처럼 감정주의적 신앙을 거부한 것은 바른 신앙이 감정적 체험의 정도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이다. 외견상 은혜로운 감정들이 많았고, 육체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만 사람들의 기질과 삶의 방향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은혜의 정도는 결코 기쁨이나 열심의 정도에 의해 측정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그러한 것들로 은혜를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전혀 판단할 수 없다.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종교적 감정의 정도가 아니라 그것의 성격이다. 어떤 이들은 아주 큰 기쁨의 황홀경을 체험하고, 비상한 충만함을 느끼며, 육체적으로 압도당함을 자주 경험한다고 외치나 별다른 외적 과시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독교적 기질을 훨씬 덜 드러내었다. 반면에 육체에 미치는 비범한 기쁨과 감정들을 체험한 다른 이들은 겸손하고 사랑스러우며, 뛰어난 그리스도인으로 부각되기도 했다.⁶⁴⁾

63) *Ibid.*, pp. 181~183. 이 점에서 에드워즈는 조지 휘트필드나 길버트 테넌트(Gilbert Tennent)가 다른 사역자들에게 종교적 감성이 부족하여 중생하지 못하였다고 비난을 퍼부은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64) Jonathan Edwards, "An Account of the Revival", p. 138.

따라서 에드워즈는 바른 신앙은 고도의 종교적 체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실천 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였다. 광신주의나 합리주의는 감정 체험이나 지성적 이해만을 추구함으로 신앙적 균형감을 깨고 극단으로 몰아감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에⁶⁵⁾ 복음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은 신앙이 감정적이나 지성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지·정·의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복음적 신앙과, 광신주의와 합리주의 신앙의 차이점을 밝히면서 신앙적 균형이 파괴된 신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다.

위선자들은 종교적인 여러 종류의 정서에 대해 본질적인 부족함을 자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들을 향한 종교적 정서에서 이상한 치우침과 불균형을 보인다. 말하자면 사랑의 정서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대단한 감정을 내비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기도 한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크게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을 향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질투와 시기와 복수심 어린 악한 말을 서슴없이 내뿜는다. 그들은 이웃을 향해 악한 뜻과 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다. 이웃에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인자함을 나타내고 매우 선량하고 관대하게 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런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⁶⁶⁾

65) Jonathan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p. 365.

66) *Ibid.*, p. 366.

에드워즈는 이러한 논리에 기초하여 신앙에서의 균형 감각을 상실하고 지나친 감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이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회심을 체험하지 못하였다고 이웃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멋대로 분별하는 일, 다른 사람들이 자기만큼 기록하지 못하다고 스스로 분리하고, 믿음과 실천을 분리하는 것을 사악하다고 단언하였다. 또한 감정이나 지성에 치우친 신앙, 하나님만 사랑한다거나 인간만을 사랑하는 극단적인 신앙은 기독교 윤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인간 사랑은 천박하고 도덕을 이상화하는 것이며,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은 비활동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원 이후의 성도들은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기록을 실천함으로 건전한 신앙 운동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⁷⁾

(3) 에드워즈의 전인적 신앙

일부 학자들은 에드워즈가 반지성적 전통을 강조하는 감정주의에 서 있다고 비판하지만,⁶⁸⁾ 에드워즈의 심리학은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포괄하는 전인적(全人的)인 것이다. 그는 감정(affection)을 “경향성 내지는 의지를 더욱 강렬하고 민감하게 활용하는 것”으로, 걱정(passion)을 급작스럽고 격렬해서 마음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으로 비교 설명함으로 감정과 걱정을 조심스럽게 구별하였다. 참된 감성은 이성적이나 걱정은 반이

67) Conrad Cherry, *The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Gloucester, Ma: Peter Smith, 1874), p. 185.

68) 윈슬로우(Ola Winslow)는 “18세기 어법으로 미루어 볼 때 에드워즈는 단순한 감정이 지성보다 종교적 인식의 원천에 가깝게 있으며, 지성은 종교적 지식과 구별되는 종교적 체험에 이르는 통로라고 인식했고, 그에게 있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지적 경험이 아니라 감정적인 경험이었다”고 주장하였다. Ola Elizabeth Winslow, *Jonathan Edwards 1703-1758: A Biography*(New York: Octagon Books, 1979), p. 216. 또한 페리 밀러(Perry Miller)는, “에드워즈는 단순한 개념적 이해와 마음의 인식 사이를 날카롭게 구분함으로써 이해력을 감정에 종속시키고자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Perry Miller, *Jonathan Edwards*(Westport, Connecticut: Greenwood Press Publishers, 1949), p. 184.

성적이기 때문에 참된 종교는 걱정에 근거하지 않고, 감성에 근거한다. 곧 “종교는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포용하는 것이며,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⁶⁹⁾

에드워즈는 기독교 신앙이 지적, 정적, 의지적 요소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 영혼에 오성(understanding)과 경향성(inclination)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주셨는데, 오성은 인식, 분별, 판단하는 기능이며, 경향성은 좋고 싫음을 결정하는 기능이다. 경향성은 의지나 감성을 통해서 행동으로 표현되고, 의지와 감성은 그 본질상 같은 것으로서 단지 경향성을 활용하는 정도와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며, 경향성이 조금 더 강렬하고 민감하게 활용될 때 감정(affec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 행동의 궁극적인 원인인 마음(heart)으로부터 좋고 싫음을 분별하는 경향성(inclination)이 생기고, 행동의 직접적 원인인 의지 혹은 감성이 나오며, 의지로부터 행동이 나온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나 감성은 독립되어 있지 않고 같은 뿌리에 근거하고 있다. 곧 마음에 있다.⁷⁰⁾ 따라서 인간의 개혁은 먼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마음이 변해야 경향성이 변화하고, 의지나 감성에도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에드워즈는 이와 같이 지·정·의가 조화된 통전적(通典的) 심리학에 기초하여 신앙에서 열기와 빛,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주장했다. 믿음의 행위는 지성과 의지가 조화롭게 결합된 마음의 인식에서 나오며, 성령께서는 지·정·의의 요소가 조화된 통일체로서의 인간에게 은혜를 내리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앙의 본질을 논할 때 이성과 감정 가운데 우위를 논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감정과 함께 진실한 감정이 병존할 수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종교적 감성에 대하여」 제3부에서 참되고 거룩한

69) Jonathan Edwards, *Religious Affections*, p. 96.

70) *Ibid.*, pp. 96-97.

감성과 그릇되고 조작된 감성을 구별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신령하고 은혜로운 정서들은 마음에 미치는 신령하고 초자연적이며 신적인 감화와 작용에서 온다. 거듭남의 결과는 나무가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는 것과 같이 내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다.⁷¹⁾

(2) 은혜로운 정서의 기본 바탕은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것 자체가 지닌 탁월하고도 초월된, 감각 어린 본질이며, 이기심이나 탐욕스런 자기 사랑에서 온 것이 아니다.⁷²⁾

(3) 참으로 거룩한 정서들은 하나님께 속한 일들의 도덕적 탁월성의 아름다움과 선함 때문에 사랑하게 한다.⁷³⁾

(4) 신적인 조명을 받음으로써 신적인 것들을 영적으로 이해하거나 깨달은 마음으로부터 은혜로운 정서들이 나온다. 영적인 이해는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의 터득이 아닌 성령의 조명에 의하여 마음으로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얻었다는 뜻이다. 성령의 조명으로부터 나온 지성은 하나님의 것을 이해하는 열쇠이다.⁷⁴⁾

(5) 참으로 은혜롭고 신령한 정서들은 신적인 것의 실상과 확실성에 대한 논리적이고도 거룩한 확신에 따라 나타난다. 신적인 진리에 대하여 합리적이며 영적인 확신을 가진 사람은 진리에 관하여 우왕좌왕하지 않는다. 거듭난 성도는 확신에 기초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⁷⁵⁾

(6) 은혜로운 정서는 복음적인 겸손을 수반한다. 자연적 양심에서 나오는 율법적인 겸손과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초자연적인 원리에 기초한 복

음적 겸손이 있는데, 후자는 ‘나는 죄인이므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복음적인 겸손이 수반되지 않으면 참된 기독교가 아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업적을 남과 비교하여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겸손을 자화자찬하는 것은 겸손의 탈을 쓴 영적 교만이며, 바리새인이나 로마천주교회의 수도승에게서 그런 예를 찾을 수 있다.⁷⁶⁾

(7) 은혜로운 정서와 그렇지 않은 정서의 또 다른 차이점은 성품의 완전한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 감성은 고조되었으나 본성의 변화가 없는 것은 거짓이다. 본성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⁷⁷⁾

(8) 은혜로운 정서는 그리스도의 심령과 성품(사랑, 은유, 자비, 용서 등)을 드러내지만 그릇된 정서는 그렇지 않다.⁷⁸⁾

(9) 은혜로운 정서는 부드러운 마음과 그리스도인다운 자애로움을 수반한다. 참된 감성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만, 거짓된 감성은 마음을 더 굳게 한다. 영혼의 부드러움을 수반하지 않는 감성은 거짓이다.⁷⁹⁾

(10) 은혜롭고 거룩한 정서들은 아름다운 대칭과 균형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거짓 정서와 구별된다. 참된 감성에는 균형감과 적절한 분배감이 있다.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적절한 분배감을 상실한 것이다.⁸⁰⁾

(11) 은혜로운 정서가 고양되면 될수록 신령한 은혜를 추구하고자 하는 영적 갈망이 더 커지지만, 거짓된 정서는 그 자체에 만족하여 안주한다. 참된 감성은 감성이 고조될수록 다른 영적인 욕구를 요구하지만, 거짓 감성은 감성적 체험 그 자체에만 만족한다.⁸¹⁾

71) *Ibid.*, p. 197ff.

72) *Ibid.*, p. 240ff.

73) *Ibid.*, p. 253ff.

74) *Ibid.*, p. 266ff.

75) *Ibid.*, p. 291ff.

76) *Ibid.*, p. 311ff.

77) *Ibid.*, pp. 340~343.

78) *Ibid.*, p. 344ff.

79) *Ibid.*, p. 357ff.

80) *Ibid.*, p. 365ff.

81) *Ibid.*, p. 376ff.

(12) 참된 감성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열매를 맺는다. 열매로서 나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열매를 맺는 감성은 참된 것이다. 사람들도 열매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다.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선행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일반적 원리이다. 선행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고백은 위선이다.⁸²⁾

결론적으로 에드워즈는 참된 신앙적 정서가 성화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곧 참된 신앙적 감성은 신적인 감화에서 나오고, 신적인 본질에 기초하며,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거룩한 확신과 복음적 겸손을 동반하며, 성품의 변화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부드러움과 자애로움, 대칭과 균형, 신령한 성취를 향한 영적인 갈망이 있으며, 실천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에드워즈는, “빛은 없고 열기만 있는 곳에는 거룩한 것이 있을 수 없고”, “진정한 신앙은 주로 거룩한 감정 가운데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⁸³⁾ 참된 신앙적 정서는 단순히 감정이나 지성에 의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에 의해서 이해되고 표현되어 균형과 대칭을 이루는 전인적인 것이며, 성화를 통해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신앙적인 사람은 열정을 이성의 지배에 종속시키는 자가 아니라 이성이 열정적이고, 감정이 지적인 자이며, 성화의 과정에 있는 자라고 보았다.

3. 에드워즈와 성화

지금까지 우리는 대각성운동 이후 일어난 신앙 현상에 대한 에드워즈의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가 영적 현상을 다 수용하지 않고 성경적

82) *Ibid.*, p. 383ff.

83) *Ibid.*, p. 95, p. 120.

가르침에 따라 진위를 파악하고, 바른 신앙적 정서를 회복하고자 한 것은, 바른 신앙적 정서가 진정한 성화의 기초가 되며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얻어지기 때문이었다. 곧 “칭의를 위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조건은 오직 하나, 바로 믿음”⁸⁴⁾ 믿음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체험으로 오해할 경우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신득의 사상을 허물게 되고, 믿음의 대상과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결핍된 도덕을 지향하는 합리주의자나 무책임하고 비활동적인 믿음을 지향하는 광신주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에드워즈가 이해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성격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추구해야 할 성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1) 믿음, 구원의 조건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을 구원과 성화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은 구원이 인간의 적선(積善)에 의한다는 로마천주교회의 공로사상을 배제하고 믿음에 의한 칭의를 주장했다. 루터는 믿음을 칭의(稱義)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았고, 칼빈은 “믿음을 통하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의를 옷 입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나타난다”⁸⁵⁾고 하였다.

칭교도들은 이러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발전시켜 신앙이 지정의의 전인적 활동으로 설명했다.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는 믿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모든 은혜를 적용하며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장사지냄과 교체하는 수단”이라고 정의했다.⁸⁶⁾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84)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p. 245.

85)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3,11,2.

86) William Perkins, “A Treatise Tending unto a Declaration, Whether a Man be in the Estate of Damnation, or in the Estate of Grace.” In *Works of William Perkins*, volumes 3 (London 1626), 1:362.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죄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여 죄를 슬퍼하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룩한 절망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⁸⁷⁾ 곧 그는 믿음의 사역을 단순한 감정이나 이성적 활동으로 보지 않고 지성과 감정 가운데 뿌리내리고 있는 전인적 행동, 또는 지·정·의의 통합적 활동으로 이해했다. 존 프레스턴(John Preston)은 믿음을 “사람의 모든 마음 또는 지성과 의지”의 행동으로 보았고,⁸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신앙을 인간의 감정이나 지성적 활동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보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며, 증가되며, 강화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14장 1절).

에드워즈는 청교도 전통에 기초하여 믿음과 구원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구원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 성취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구원은 “하나의 선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며,⁸⁹⁾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함께 시작하고 마치게 되며,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통해 다 이루셨다고 보았다.⁹⁰⁾ 구원과 하나님의 의는 인과관계에 있으며,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의 또는 계약적 자비(covenant mercy)는 구원이 열매로 나타나는 뿌리이다.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은혜 계약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계약적 자비와 신실성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 이 계약적 자비에 의해 열매를 맺게 한다. 왜냐하면 구원은

87) *Ibid.*, pp. 362~365.

88) John Preston, *The Breast-plate of Faith and Love*(London, 1630), pt. 1, 55

89) Jonathan Edwards, “Original Sins”,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volume 3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0), p. 11.

90) Jonathan Edwards, “A History of the Work of Redemption”,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p. 117.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총체요, 은혜 계약에 의해 주어지는 모든 이익이 얻어지고 배풀어지기 때문이다.⁹¹⁾

에드워즈는 성자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계약을 이루시고, 우리의 빛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에 대한 보증을 주셨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지불한 만족은 우리를 모든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우리를 위해 행복을 사서 주신 것이라고 부연하였다.⁹²⁾

에드워즈는 십자가 사건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보았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실재와 선하심에 대한 인식과 확신 가운데 복음이 제시해 준 대로 구세주를 받아들이는 “오성의 활동”으로, 믿게 하도록 하는 “성향과 선택과 감정이 몰입” 되는 것이며, “전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⁹³⁾ 곧 믿음은 그리스도와의 역동적인 연합이며,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⁹⁴⁾ “마음의 인식이며, 의지적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논하였다.⁹⁵⁾

에드워즈는 믿음의 주입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다고 보았다. 구원은 인간의 영혼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전달되고, 인간이 성령의 조명에 동참할 때 유효해지며, 성령의 조명에 동참하면서 인간은 “지성, 즉 인식하고 사색하는 능력, 성향(감정) 또는 의지, 즉 인간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능력을 갖게 되며), 이러한 능력이나 감정은 구별된 능력이 아니라 의지

91) *Ibid.*, p. 115.

92) *Ibid.*, p. 304.

93) Jonathan Edwards, “Observations Concerning Faith” In *Works of President Edwards* volume 4, reprinted edition(New York: Jonathan Leavitt & John F. Trow, 1843~1844), 4:604, 623, 625.

94) Cherry,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p. 157.

95) *Ibid.*, 4:606.

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고, 인간의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하게 한다”고 하였다.⁹⁶⁾ 곧 성령의 조명으로 오성이 파악하여 감정, 곧 경향성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에드워즈는 믿음을 인간의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적 요소가 전인적으로 동역하는 것으로 보고, 이 세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보았다.

(2) 구원 그 이후, 성화

믿음은 구원의 수단으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이고도 계속적인 의존 관계를 이룬다. 믿음의 사람은 은혜 그 자체의 내재적 능력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그러나 성화의 은혜는 성도 안에서 죄 없는 완전성을 창조하지 않으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성화의 노력이다.

윌리엄 퍼킨스는 성화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차 벗어나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서 새롭게 회복되는 것으로,⁹⁷⁾ “첫째는 자기 본성의 부패로부터 정결케 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내적인 의로 옷을 입는” 죽음과 소생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⁹⁸⁾ 곧 “죄성을 죽임으로 신자 안에서 죄의 권능이 약해지고, 죄의 권능을 억누르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던 것처럼 자신을 죽이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살아남으로 “내재적 거룩함이 존재하기 시작하고, 증대되며, 성령의 첫 열매를 맺고 계속적으로 은혜가 증가됨”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⁹⁹⁾ 성화는 이 세상에서 시작되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죄를

96) Jonathan Edwards, “Freedom of Will”, In *Works of Jonathan Edwards*(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7), 1:137.

97) William Perkins, “A Golden Chain”, In *The Works of William Perkins*, 3 volumes(London 1626), 1:83

98) William Perkins, “The Foundation of Christian Religion”, In *Works of William Perkins*, 3 volumes (London 1626), 1:6.

99) William Perkins, “A Golden Chain”, 1:83.

미워하게 되고, 의를 사랑하게 되며, 이를 실천하는 가운데 회개가 부수적으로 따른다.¹⁰⁰⁾ 성화의 영역은 우리의 몸과 영혼, 특히 기억, 양심, 의지, 감정만이 아니라 몸에 이르기까지도 거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¹⁰¹⁾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화를 “몸 전체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욕심이 점점 약해져서 죽고, 모든 구속적인 은혜 안에서 참다운 거룩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하여 점점 자국을 받고 강건하게 되는 것”(13장 1절)으로 정의하고,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실제적이며 점진적으로 완성된다고 하였다. 곧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초보적인 성화(initial sanctification)와 점진적인 성화(progressive sanctification)로 이루어지는데, 전자는 신자에게 주시는 성령과 새로운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후자는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적용 수단은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성도는 “육체의 모든 부분에 부패된 어떤 부스러기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없고, 계속되는 영적 투쟁의 과정을 거쳐서 죽음에 이를 때에야 완전해진다고 하였다(13장 2-3절).

에드워즈는 이러한 신앙적 선배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화를 인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활동이라고 보았다. 성령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며, 의롭게 하신 후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심으로 성화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성령은 ‘새로운 본성의 원리’ 또는 ‘생명의 샘’으로 성도 안에서 거하시면서 성화 과정에 개입한다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이렇게 말했다.

100) William Perkins, “The Foundation of Christian Religion”, 1:6.

101) William Perkins, “A Golden Chain”, 1:84-86.

하나님의 성령이 참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 속에 항상 거하시는 분으로 계시고, 새로운 본성의 원리나 생명과 행위의 초자연적인 샘으로서 감화시키기 위해서이다. 성경은 성령을 다만 성도를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분이 아닌 그들 속에 거하시는 분으로 말한다. 그래서 그들을 성령의 진, 성령의 거처, 성령의 영원한 처소라고 칭한다(고전 3:16; 고후 4:16; 요 14:16-17). 또한 성령을 영혼의 여러 기능들과 연합되어 새로운 성품과 새 생명의 원리, 그리고 샘이 되시는 분으로 표현한다.¹⁰²⁾

곧 성령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며, “그들 안에서 생명의 원리로 연합해 계시면서 생명수를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항상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성화로 이끈다고 주장하였다.¹⁰³⁾ 성화의 주된 동인이 성령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성화는 성령의 사역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성도들이 성령의 도움 가운데 “끝없이 전개되는 죄와의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다.¹⁰⁴⁾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택한 자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경주를 하게 도우며, 성도들은 옛 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투쟁하게 된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중생한 사람에게도 악의 연기를 내는 재가 남아 있기 때문”에¹⁰⁵⁾ 성도들은 전 생애를 통하여 영적인 긴장 속에서 성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화가 “단순히 과거에 한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한 것이 아닌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죽

102) *Religious Affections*, p. 200.

103) *Ibid.*, p. 201.

104) Jonathan Edwards, “Ecclesiastical Writings”,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Edited by David D. Hal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4), p. 33.

105) John Calvin, *Inst.*, 3.3.10.

어야만” 하고,¹⁰⁶⁾ 영적인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¹⁰⁷⁾

에드워즈는 영적인 긴장 가운데 거룩을 실천함으로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곧 광신적 신앙에 빠져 하나님 사랑만 주장하거나 합리주의적 신앙에 빠져 인간 사랑만 주장한다면 극단주의에 빠져 기독교 윤리를 부정할 수 있다고 보고, 균형 잡힌 신앙에 기초한 성화의 실천을 주장했다. 그에게 있어 성화는 “마음과 생활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거룩하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예수를 따름”,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¹⁰⁸⁾으로, 인간적인 면과 신적인 면, 곧 지성과 감성이 내포되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과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생활을 통해 이루어진다. 외적으로는 성경, 설교, 안식일, 기도, 세례, 성찬, 그리스도인 부모의 가르침, 교회의 생활과 같은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고, 내적으로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¹⁰⁹⁾ 그는 “거룩의 길(The Way of Holiness)”이라는 설교를 통해 성화는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게 하는 척도로, 성도들은 자기 성찰을 통해 성화를 이루어 가기 위해 (1) 우리의 생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단을 위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관련하여”, (2) 우리 자신이 근신, 겸손, 그리고 절제하며, 고난 중에도 인내하는지 “자신과 관련하여”, (3) 이웃에 대해 공의, 사랑, 관용 등을 실천했는지 “우리의 이웃과 관련하여” 자기 점검을 할 것을 권하였다.¹¹⁰⁾ 자기 성찰을 통하여 죄를 회개하고,

106)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pp. 185-186.

107) 에드워즈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도 안에 남아 있는 죄 사이의 긴장을 통해 거룩한 절망을 체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이 절망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의 자기 파멸적인 것과는 다르다. 죄와 은혜 사이의 긴장과, 그 결과로 생기는 자기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절망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붙잡으며, 복음적인 순종을 통해 성화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절망은 진정한 소망의 근거가 되므로, 이를 위해 부단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08) Jonathan Edwards, “The Way of Holiness”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Edited by Wilson H. Kinnach, volume 10(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pp. 471-473.

109) *Theology of Jonathan Edwards*, p. 61.

110) *Ibid.*, pp. 486-488.

믿음을 강화함으로써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본 것이다.

에드워즈는 성화를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성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그는 18세에 회심을 체험한 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70개의 ‘결의문(resolutions)’을 작성하였고, 결의문의 시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일기를 쓰곤 했다. 그의 결의문에는 성화를 위해 수단들, 곧 죄와의 투쟁, 본능적인 욕구의 억제, 철저한 시간 관리, 경건 실천을 위한 지족하는 자세 유지, 올바른 인간관계를 위한 다짐 등이 나타나 있다. 예를 들어 ‘결의문’ 22에 “내가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부패와의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고 조금도 긴장을 풀지 말자”고 죄와의 투쟁을 다짐하였고, ‘결의문’ 31에는 “결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말자”고 결심하였으며, ‘결의문’ 33에서는 “다른 면에 그다지 손해되지 않는다면 화평하고, 화평을 유지하고, 화평을 지키는 방향으로 내가 가능한 것을 항상 하도록 하자”고 다짐함으로써 인간관계에서 화평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퍼킨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 곧 기억, 양심, 의지, 감정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새롭게 하고 말씀이 다스리게 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였다.

에드워즈의 일기는 신앙고백서의 대응물로, 일기를 통해 자기 마음속에 있지만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두려움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곤 하였다. 1720년대 정기적으로 쓴 일기에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길 때 자신의 무능에 대한 거룩한 절망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아! 나는 얼마나 빨리 부패하는가! 오, 나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허약하며, 얼마나 자신이 일을 할 수 없는가! 나는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내가 서 있는 동안 나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나의 다리로서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나 자신이 영적인 적을 물리친 것처럼 승리감에 도취된다.

아!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아 주시는 불쌍한 어린아이에게 지나지 않는다.¹¹¹⁾

그는 이 같은 절망을 토로하고, 얼마 후 1723년 1월 14일의 일기에 다음과 같이 다짐하였다.

죄를 크게 죽여 본 경험을 갖는 것은 죄 자체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다. 또한 죄에 강타를 퍼부어서 비틀거리게 하고 주춤거리게 하는 것이다. 죄에 대항함으로써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는 튼튼한 기반과 발판을 얻게 되며, 죄는 쓰러지기 직전이 되고, 다음번에 우리는 죄와 더 쉽게 싸울 수 있게 된다. 죄는 점점 겁을 먹게 되어 우리는 쉽게 죄를 굴복시킬 수 있으며, 적어도 죄와 싸우는 것이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마음대로 죄를 죽일 수 있게 된다. 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해 본 경험이 없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옛사람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다. 옛사람은 억세고 끈질기기 때문에 작은 타격에 요동도 하지 않는다. 의심할 여지없이 왜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민감하게 성장하지 못하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것이다. 크게 죄를 죽이고 난 후에 나는 언제나 가장 큰 위로를 체험한다.¹¹²⁾

에드워즈는 이와 같이 감정이나 지성에 치우치지 않고 전인적인 신앙을 주장하고, 자기 성찰을 위해 결의문과 일기를 쓰며, 매일의 생활을 점검하고, 죄와의 투쟁을 벌임으로써 성화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그는 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 경건을 실천하였고, 미국 역사상 전대

111) Jonathan Edwards, *Works of President Edwards*, edited Sereno E. Dwight, 10 volumes(New York: S. Converse, 1829~1830), 1:81.

112) *Ibid.*

미문의 사건으로 알려진 대각성운동을 이끌 수 있었다.

나가는 말

우리는 지금까지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흥과 신앙적 정서에 대한 입장, 그리고 바른 신앙의 유지와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고, 신앙의 성격이 좌로나 우로 치우칠 때에 극단적인 신비주의나 합리주의가 나올 수 있으며, 그 결과 교회는 혼란과 무질서에 빠질 수 있고, 교회의 성장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종교생활에서 신비와 체험만을 강조하는 광신주의나 이성과 상식에 의해 신앙 현상을 설명하려는 합리주의가 교회를 무너트리는 사단의 공격 방법이므로 건전한 신앙운동을 위해서는 감정과 지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터득할 수 있었다. 또한 구원적 신앙이 단순히 감성에 의한 체험이나 지적인 동의가 아닌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신 목표이면서 유효 소명의 종착점¹¹³⁾인 성화는 성령의 내적 사역과 인간의 자기 점검과 노력에 의해 완성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에드워즈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한국 교회는 신앙적 균형 감각이 없는 극단적 광신주의나 합리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대각성운동 이후 미국 교회가 광신주의와 합리주의에 의해 공약을 당한 것처럼, 한국 교회도 1970년대에 일어난 Billy Graham Crusade(1973), Explo 74(1974), 민족 복음화대성회(1977) 등의 부흥운동 이후에 신비적 은사만을 강조하는 광신주의 운동과 상식과 이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의해 공격을 당해 오고 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사상

이 침투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소견에 좋은 대로 믿고, 예배하며, 교회를 운영하려는 사상들이 교회를 포위하고 있으며, 영적이며 신비적인 것이라면 무조건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것과 혼합하여 무질서와 혼란으로 이끌어 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믿음의 선각자였던 에드워즈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상황에 적용함으로, 성령의 은사와 신비와 이적을 믿지만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지성적이나 감성을 부정하지 않으므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신앙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앙을 지식이나 체험으로 국한하지 않고, 알고 느끼며, 실천함으로 생활로 이어지게 하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통해서 자아를 죽이면서 기록해져 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한국에서 교회 부흥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균형감 있는 신앙을 회복하고, 성화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 가야 할 것이다.

113) Jonathan Edwards, "Charity and It's Fruits", In *The Works of Jonathan Edwards*, 8 volum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pp. 161-162, pp. 169-170.

변화하는 세계와 기독교인의 윤리



임성빈 목사



I. 들어가는 말

기독교 윤리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하여서는 다음에서 묘사되고 있는 매우 대조적인 두 입장들을 분석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1)어떤 이들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윤리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한다.

■ 임성빈 목사

- 미국 프린스턴신학대학교(Ph. D.)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 문화선교연구원장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그들은 외친다. “현대는 윤리의 시대이다. 공해 및 핵에너지 사용에 대한 생태환경의 문제, 낙태 및 미혼모 등의 성윤리 문제, 시험관 아기, 유전자 조작, 뇌사, 장기이식 등의 의료윤리 문제 등 기독교인들이 새롭게 관심을 져야 할 분야가 많다. 이러한 시점에서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역사와 힘의 정치의 소산으로서 고대종교회의가 결정한 교리들이 오늘의 삶에 무슨 직접적인 유익이 있다는 말이나! 이보다 이제부터 우리가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정치, 경제학, 사회학, 인문문화학, 자연과학과 의학 등으로 이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이다. 현대의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제 1과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윤리이다.” (2)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다. 기독교는 신앙이다. 윤리를 너무 강조하면 복음의 근본인 은혜와 신앙을 저버리게 되며 결국에는 인본주의에 빠지게 된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너무 윤리적인 것 좋아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오!”

우리는 이러한 상반된 주장 가운데에서 기독교와 윤리가 이분화되는 위험을 본다. 후자의 주장은 기독교의 출발점은 명확히 하였으나 기독교의 복음이 가지는 그 폭과 넓이의 무한함을 축소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자칫하면 인간의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과 결합하여 신앙을 우리의 실제적 삶과 격리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값싼 은혜의 차원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즉 ‘오직 믿음으로’ 라는 명제 자체는 나무랄 것이 없으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어떤 삶이어야 하는 각론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자아낸다. 또한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보다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일에 이러한 태도가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는가도 심각히 논의될 문제이다.

반면 전통적으로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고민하였던 믿음에 관한 고민보다는 보편적인 윤리 문제에 더욱 관심하게 되는 전자의 입장은 기독교인의 현대사회에의 참여에 보다 적극적이어서, 적어도 기독교가 사회와는 유리된 배타적인 관심과 그들만의 폐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님을 변증하여 준다. 이러한 입장은 앞에서의 입장과는 대조적으로 각론에 있어서는 참으로 예리한 장점이 있으나 자칫하면 그들의 출발점, 즉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모호해진다는 치명적인 취약성을 띄게 된다.

논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금은 단순화하여 묘사한 위의 상반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주장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요점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Christian identity)과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세계의 시민으로서의 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을 어떻게 조화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제 이러한 근본적 과제를 의식하면서, “기독교인의 삶을 하나님의 계시에 비추어 반성하고, 점검하며, 계획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다 책임있는 신앙인이 되려는 노력”이라는 필자 나름대로의 기독교 윤리에 대한 정의를 근간으로 하여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의 기독교인의 윤리라는 주제에 답해 보려고 한다.

II. 우리의 삶의 자리: 변화하는 세계?

무엇이 달라지는가?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체험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보다 구체화될 21세기를 일컬어, 후기산업화(post-industrial) 시대, 정보화(information) 시대, 지구화(globalization) 시대,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시대 등의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용어들은 나름대로의 철학적, 사회 구조적인 배경을 담지하고 있다.

후기산업화 시대란 경제 생산 및 소비의 기본 요소들이 산업화 시대의 그것에서 변화되어 감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여러 가지 징후들을 들 수 있

겠으나 정보화라는 용어으로써 그 특징을 상징할 수 있다. 즉, 정보화 시대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의 기본 요소가 노동에서 자본으로 바뀌었듯이, 이제는 금융 자본보다는 지식과 정보가 더욱 중요한 경제활동의 요소로 부각되어 가는 현상을 상징한다.

지구화 시대란 교통 및 통신 수단의 획기적 발달로 전 세계가 거의 일생활권으로 압축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넓은 의미에서 최고의 자본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식 정보와 고전적인 의미에서 자본인 금융 자본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이동할 수 있음을 뜻한다. 즉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권으로 형성되어 감을 의미한다. 근원적인 의미에서 지구촌 시대는 19세기 중반 이후에 본격화된 선발 자본주의 세력들의 해외 무역과 투자의 폭발적인 증가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로 각 나라의 영토는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조정되어 왔다.¹⁾ 그러나 강대국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자 전쟁이 줄을 잇게 되었다. 조선이 바로 이러한 초기 지구화 시대의 희생양 중 하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원료 공급지와 시장으로서의 약소국들을 둘러싼 영역 다툼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최초의 범지구적 전쟁을 발생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 및 다가올 미래사회에서는 20세기 초반과는 그 양상을 매우 달리하는 지구화 현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더욱 심화되어 갈 것이다. 소위 후기산업사회인 정보사회에서는 발달된 정보통신으로 인하여 컴퓨터 화면 하나로 지구 저편 영역에서의 정치,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삶의 영역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왔던 기존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비(David Harvey)는 이러한 현상을 포스트모더니즘

1) David Harvey,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Cambridge, Massachusetts: Basil Blackwell, 1991), p. 264.

이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압축(time-space compression)”이라고 묘사하였다.²⁾

요즘 문화 전반에 걸쳐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단어 중 하나인 포스트모더니즘은 그것이 인용되고 있는 빈도수만큼이나 다양한 의미를 품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 연속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17세기 계몽주의의 결실로서 현대 서구 문명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모더니즘(modernism)과의 반동적, 혹은 발전적 관계에서 그것을 논할 수 있다. 먼저 모더니즘의 반동이라는 측면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획일적인 것으로부터의 탈피, 즉 이성 중심에서 느끼는 대로의 감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또한 이성의 보편성(universality)에 기초한 진리(truth)의 개념이 지역과 공동체의 문화적 개별성(particularity)에 기반을 둔 다원적(pluralistic)인 진리의 개념으로 바뀌어 감을 뜻한다. 발전적인 관계에서 본다면 어떠한 형태의 권위도 그것이 자신에게 이해가 안 된다면 거부하며,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하는 사고 및 문화의 현상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간단히 살펴본 바대로 21세기 세계는 분명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그 변화는 속도가 무척 빠르다는 면에서, 또한 변화의 영역이 개인적인 사고에서 전체적인 문화, 경제생활 전반에까지 넓고 깊게, 광범위하게 미친다는 면에서 문자 그대로 근본적인(radical) 변화임을 확인할 수 있다.

III. 기독교 윤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기독교 신앙의 유용성에 대한 근본적 물음에 대하여

2) *Ibid.*, vii.

찬란한 기독교 문명을 자랑하던 서구사회가 후기 기독교사회를 지나 탈종교사회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한국의 기독교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후기산업 사회, 정보화 사회, 지구촌 시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내일의 미래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한경쟁’으로 상징되는 현대판 적자생존 시대에서 기독교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과연 존립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어느덧 무한경쟁의 한 중심에 위치한 현대 기독교회들과 그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은 성서의 말씀들을 통하여 어떠한 자리매김을 당하고 있을까?

위에서 제기한 질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빌어서 신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그리 어렵지 않게 변증할 수 있다. 레바논이나 이란을 비롯한 중동의 여러 나라들, 북아일랜드에서의 신·구교 갈등, 보스니아 사태에서 보는 희랍정교회, 로마 가톨릭, 회교간의 갈등 등에서 어렵지 않게 보듯이 여전히 종교적 신앙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앙을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히틀러나 무솔리니, 김일성 등에게서는 세속화된 형태를 가진 신앙의 광신적 힘을 여실히 목격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위의 예들에서 확인되는 종교적인 신앙이 가지고 있는 힘의 존재(?)는 그 영향력이 이 사회의 공존과 공영을 위하여 건설적이기보다는 파괴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종교개혁 이후 유럽을 휩쓸었던 종교전쟁으로 인한 지식인들의 종교에 대한 회의가 계몽주의를 촉진하였듯이, 이러한 종교의 파괴적 영향력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소위 지식인층 가운데 종교기피현상 및 불신현상 내지는 종교를 혐오하는 현상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책임있는 지식인이라면 어떠한 형태로든 종교적 신앙의 문제를 그저 회피할 수만은 없음도 엄연한 현실이다.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관심하여야 할 이유는 또 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에 관심을 갖는 보다 궁극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활동은 선택으로부터 시작된다. 또한 보다 책임있는 선택은 선택하는 주체의 가치관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한 사람의 가치관은 곧 그의 신념 체계와 직결되어 있다. 우리 각자에게는 누구나 나름대로의 신념 체계가 있다. 그 신념 체계는 단지 초월성(transcendence)과 통전성(integrity)과 보편성(universality)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의 신념 체계는 우리가 가지는 세계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내가 이 세계를 보는 관점과 나의 신념 체계는 서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유물론자들의 세계관과 그에 대한 그들의 신앙, 또한 그에 따른 그들의 삶의 선택은 세속화된 신앙의 현실적인 영향력에 대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물론을 신앙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잘 보여 주고 있듯이, 신앙은 그것이 거저된 세계관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믿는 대상에 대한 신뢰(trust)와 충성(loyalty)으로 표현된다. 신앙의 대상에 대한 신뢰와 충성은 곧 우리의 일상적 삶에 있어서의 선택과 결단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불문하고 아직도 우리가 신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충분한 것이다. 소위 ‘탈종교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신념 체계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신앙적’ 생활에서 도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지 각자의 신앙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다. 아무리 종교적인 신을 부정하는 이들과 할지라도 결국 어떤 이들은 물질의 축적으로 혹은 명예를 추구함으로써 세속적인 힘(power)을 숭배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쾌락을, 또 어떤 이들은 그저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함을 숭배하며 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이 세계에 도전할 책임을 가진다. 우리의 이러한 도전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바람직한 가치관을 좌우하는 신앙으로서의 기본적 잣대라 할 수 있는 초월성(Transcendence, 이것은 세계 내에 유한한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한

신뢰와 충성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배타성(exclusiveness)과, 하나님 이외의 신앙의 대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차별받을 수 없고, 또한 분열될 수 없다는 포용성(inclusiveness)을 동시에 포괄한다)과 보편성(universality,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는 극장”인 자연을 포함한 우주이다)에 있어서 탁월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우리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2. 신앙적인 삶이란?

기독교 윤리가 일반 윤리와 구별되면서, 또한 세속의 가치관들에 대하여 근본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기초는 초월성과 보편성을 유지하면서도 유한한 우리 인간들과 역사적 관계를 가져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서 비롯된다. 즉, 일반사상과 이념들 속에서도 신념의 체계 및 그에 대한 신뢰와 충성으로서의 신앙(“faith in god”)을 논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신앙의 대상, 즉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신뢰와 충성을 헌신할 하나님(God of faith)³⁾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집중한다는 점에서 기독교 윤리는 신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들이 막연히 설정해 놓은 미지의 이념이나 이상(ideal)이 아님을 기독교 윤리는 전제한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한다. 신앙은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전인적인 응

3) H.R. Niebuhr, *Radical Monotheism and Western Civilization*(Lincoln, Nebraska: The University of Nebraska, 1960), p. 3.

답이며, 그 응답의 장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나아가 전우주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곧 우리의 삶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여 응답함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그것은 곧 우리의 삶인 것이다. 사실 “성서 어디에서도 신앙과 삶의 태도(behavior)를 구분하지 않는다.”⁴⁾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삶이란 곧 윤리적인 삶을 의미한다.

우리가 신앙적인 삶, 즉 윤리적인 삶을 “기독교인의 삶을 하나님의 계시에서 비추어 반성하고, 점검하며, 계획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보다 책임있는 신앙인이 되려는 노력”이라 정의할 때, 윤리학의 기본 근거, 즉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이자 결정적인 기초는 물론 성경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 지어 주신 인간의 이성, 감정, 의지 등의 전인적 판단능력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제반 학문의 분야에서 얻어지는 축적된 지식들도 우리의 윤리적 반성과 점검과 계획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될 주요한 참고 자료들이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역사의 주관자 되심, 궁극적인 구원자 되심을 바탕으로, 자연도 인간이 거하는 삶의 자리로서 주요한 윤리적 노력의 대상이자 우주적 공동체 안에서의 동반자로 부각될 것이다.

IV. 변화하는 삶 속에서 제기되는 기독교 윤리적 과제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급격한 변화는 보다 신앙적으로, 즉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보다 책임있는 응답을 하며 살아가려는 신앙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윤리적 과제들을 제기한다.

⁴⁾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3), p. 54.

1. 미래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이러한 적극적인 관심은 곧 미래에 대한 예측의 불가피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대로 정보화 사회, 지구화 사회,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새로운 도전을 감당하여야 하는가? 미래는 ‘내일의 오늘’이므로 오늘 우리의 준비는 곧 내일에 대한 준비이기에, 미래 사회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결코 사치스럽거나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참으로 흥미있으면서도 필수적인 관심이자 연구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세기, 심지어 지난 1970-80년대에 행해진 미래(지금의 우리에게 ‘현재’가 된)에 대한 예측 보고서들을 평가할 때 적지 않은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사실 대부분의 미래 예측 보고서들은 너무 비관적이었던지, 반대로 너무 낙관적이었던 것이 오늘날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음의 이유로 여전히 과감하게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감행해야 한다. 그것은 지난 시대에 행해졌던 예측들이 확률적으로 정확하게 적중된 것은 적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예측들을 경고 삼아 인류는 많은 재난을 모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특별히 에너지 자원의 고갈에 대한 경고는 적어도 인류에게 우리가 가진 기존의 에너지가 무한한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계속적으로 깨우치고 있다. 또한 장차 다가올 지진이나 천재지변에 대한 예측들은 비록 경고에 그칠 때가 많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많은 인명을 구할 때가 있었음이 사실이다. 1983년의 일본이나 1989년 미국에서의 지진 조기 정보는 그 좋은 예이다.⁵⁾

미래에 대한 예측은 곧 우리로 오늘 무엇인가를 준비케 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에서 흥미 위주나 자신의 생

⁵⁾ Roger Shinn, *Forced Options*(The Pilgrim Press: Cleveland, 1991), p.246

존 보장만을 위해서가 아닌 온전한 하나님 주권의 실현이라는 책임적 소망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연과학 분야에 치우친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은 충분한 것이 아니다. 이보다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기독교 윤리 영역에 대한 우리 시야의 확장(expansion of our ethical horizon)이라는 측면에서 미래 및 미지의 사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다. 즉, 변화하는 세계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미래 사회에서 책임적인 기독교인이 되려면 미래 삶의 전 영역이 곧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야 할 영역이라는 인식 하에서 우주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인의 소명 및 사명의 영역이 문화 전반에 걸친 것임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인으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 경제, 기술과학, 의학 전반에 걸쳐 참여하여야 한다는 적극적인 과제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요구된다.

2. 중요한 자산인 정보와 지식

이는 그것들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을 수 없다는 것과, 소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요즈음 미국 및 서구의 선진국들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소위 지적 소유권의 보호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풍부한 물질, 인적 자원에 힘입고 있는 후발 개도국들의 활기찬 추격에 쫓기는 그들로서는, 자신들이 이미 확보하고 있는 최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정보와 금융 자본을 자신들의 현상유지(status-quo)에 도모하는 것이 당연한 정책일 것이다. 그들은 세계 시장의 게임규칙을 축적된 지식 정보와 풍부한 자본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그들의 기득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정보화 사회를 논할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치열한 시장 경제 논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구화

라는 개념 역시, 이미 19세기에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출발부터 그러했듯이, 자신들의 시장을 확장하려는 지극히 목적적인 배후 의도가 항시 동반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보화, 지구화는 현존의 세계 경제 체제로부터 시장 경제의 고질적 문제인 국가간, 계층간의 부익부 빈익빈을 계승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⁶⁾ 한 예로 하나의 동네, 즉 지구촌(global village)이 된 상태에서 가능하게 된 금융 자본과 지식 정보의 급격한 이동은 다국적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지역이라면 어느 때고 자신들의 투자지를 옮길 수 있게 할 것이다. 후기산업사회에서 공장 및 사업처를 이동하는 것은 산업사회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손쉬운 일일 것이다. 이때에 예상되는, 아니 이미 일어나고 있는 부정적 현실은 개도국들간의 선진 자본의 치열한 유치 경쟁으로 인하여 개도국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날로 줄어들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곧 1, 3세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멀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보장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즉 건전한 노조 활동이 기업의 이익 취득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그들은 주저없이 자신들의 투자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미래를 장밋빛으로만 말하는 상업주의자들을 경계해야 한다. 정보화와 지구화가 이익 추구 일변도의 세계 시장화라는 근본적인 대세 속에서 운용될 때, 1세계와 3세계, 정보와 자본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빈부격차의 심화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물음은 이웃사랑의 영원한 윤리적 과제 앞에 지금도 힘겨워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더욱 버거운, 그러나 회피할 수는 없는 과제로 부각된다.

소위 지식정보사회, 후기산업사회는 기술 진보에 대한 막연한(?) 소망

6) *Ibid*, p. 247

에 그 믿음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윤리적 무책임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것은 특별히 유전자 조작, 인공수정, 뇌사와 장기이식 등의 의료 분야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기술사회의 도전들은 생명의 창조주인 하나님 신앙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창조 신앙만이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다. 창조 신앙에 대한 위협은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 인간의 존엄성과 피조성에 대한 도전이기도 한 것이다. 특별히 지식정보화 사회를 상징하는 컴퓨터의 발달과 사용의 보편화로 인한 인간 개성 상실의 위기는, 대부분의 보통사람들을 정보와 지식의 홍수속에서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빈곤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정보화 사회의 특징인 빠른 정보와 정보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신속한 처리는 사회의 기본가치를 ‘편의(expediency)’와 ‘빠름(speed)’으로 유도함으로써 보다 깊은 의미에서의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을 위한 여유있는 관계성을 이야기하며(예, 신구약 성서를 통하여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간에 이루어지는 오랜 관계 맺음의 역사적 모습을 상기하자),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다짐하는 기독교를 더욱 비실용적(?)인 신념의 체계로 보이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적 가치를 확인하며 공고히 해야 한다는 과제를 가진다.

3. 지구화와 개인의 종교적, 민족적 전통의 조화

지구화라는 명제에 걸맞지 않게 우리는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오히려 인종, 민족, 종교 또는 자신의 성별(gender)의 정체성을 이념화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상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교리적 권위나 이성의 권위라는 특정한 잣대 아래에서 획일화되던 개인들이 자신들 고유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현상이 그것이다. 자신의 소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전통은 한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발견되고 계승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근거 집단에 대한 애착은 앞으로 그 도를 더할 것이라 예측된다. 또한 지금까지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억압해 왔던 세력들에 대한 자각은 그들로 하여금 과거와 현재에 걸쳐 그 세력들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자세로 도전할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주의의 발흥과 동서 냉전체제의 몰락 이후에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지역 분쟁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소위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현상은 “전통에의 강조(emphasis on the tradition)”, “억압으로부터의 해방(liberation from oppression)”, 과 “다양성의 추구(celebration of plurality)”⁷⁾ 라는 다소 모순되어 보이는 복합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과연 지구화와 자신의 종교적, 민족적 전통 등에 대한 애착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는 참으로 주요한 문제 제기이다. 기독교가 다소 상충되어 보이는 시대적 흐름들의 접합점에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소위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감당하여야 할 시대적 사명이다.

V. 보다 책임적인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우리의 윤리적 노력들

1. 신앙과 책임

⁷⁾Mark K. Taylor, *Remembering Esperanza: A Cultural-Political Theology for North American Praxis*(Maryknoll, New York: Orbis Books, 1990), pp. 31~34.

반복하여 강조되는 요점은 우리가 보다 책임 있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책임(responsibility)”과 우리의 신앙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겠는가? 한 마디로 우리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곧 우리의 책임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즉, 매 순간 순간의 회개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자기 중심성을 절감케 함으로써 동시에 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러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나의 생각보다 크신 분임을 깨달으며 종전에 가지고 있던 나의 편견에서 비롯된 온갖 우상들을 부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앙의 우상 타파적인 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서 연유하는 회개는 우리의 이웃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회개하기 전에는 원수였던 사람이, 혹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 아버지의 또 다른 자손이라는 점, 즉 나의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나의 이웃은 더욱 확대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모든 세상이, 물론 자연까지도 포함하여,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삶의 책임 영역을 전 우주적으로 인도한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책임적인 행동은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실현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먼저 우리가 나에게 부딪히는 사건을 잘 해석함으로부터 출발한다. 잘 해석함이란 그 사건의 전후 맥락을 명료하게 파악함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해석함에 있어서 보다 결정적인 요소는 해석자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준거의 틀(frame of reference)이다. 또한 준거의 틀은 사실 해석자와 그 해석자가 속한 경험 공동체마다의 전경험들에서 비롯되는 전이해(pre-understanding)에 기초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해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논의의 편의상 각 해석자가 지니고 있는 큰 상(Gestalt)이라는 용어로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간은 무엇인가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존재

한다(Man-the Maker)는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건도 목적 지향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들은 주어진 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죄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간은 항상 어떤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Man-the Citizen)라는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건과 그에 따른 윤리적 반응을 어떻게 하면 주어진 법을 잘 지키며 옳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하는 경향성을 띄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이다. 우리는 전자에 해당하는 윤리적 노력들을 목적론적 윤리(teleological ethics)라고 하며 후자를 의무론적 윤리(deontological ethics)라고 한다.

위에서와 같은 윤리적 노력들은 나름대로 기독교 공동체를 위하여, 또한 인류 일반을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해 왔다. 목적론적 윤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들에게 이제까지와는 다른 보다 높은 삶의 목표를 설정케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산출하여 왔다. 또한 의무론적 윤리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남이야 어떻든 성경이 명령한 계명을 지키며 사는 깨끗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의무론적 윤리의 결정적인 취약점은 그것이 우리를 율법주의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율법주의는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복음 되게 못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역사적이며 역동적인 관계성을 인간의 교리적 율법으로 화석화하는 단점이 있다. 율법주의의 결정적인 약점은 온 우주에 걸친 창조주이자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을 율법 안으로, 아니면 인간의 죄성과 씨름하는 존재로만 축소시킨다는 점이다. 율법적인 신앙과 그에 따른 윤리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상(Gestalt)만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와 부활로 상징되는 구속주로서의 하나님 모습이 매우 미약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며, 손을 내밀어 오시는 화해자라는 것

이 보다 근본적인 복음이 아니겠는가?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은 현재 율법을 어기고 있는 이들에게마저도 오늘의 삶에서의 생존과 (약한 자와 선한 자 모두에게 비를 내리어 주시는 하나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거두시지는 않으신다. 결국 의무론적 윤리와 그에 따른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상을 갖고 있는 이들의 세상에 대한 태도는 자연히 소극적인 경향을 띠기 쉽다는 점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이 세계 속에서의 기독교 윤리를 이끌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의미에서 목적론적 윤리는 의무론적 윤리와는 달리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히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한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지음받은 몸이라는 신앙은 참으로 역동적인 삶의 활력을 더할 것이다. 그러나 목적론적 유형의 윤리 의식을 가진 이들은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의 자기 중심성과 결합되었을 때, 경쟁적인 모습을 띄면서 너무도 쉽게 오히려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파괴적인 경향을 펼 수 있다. 목적을 중시하다가 과정에 대하여 소홀해진다는 것이 신앙인의 윤리로서는 치명적인 모습이다. 정보기술 사회에서 향유할 수 있는 온갖 편리함과 즐거움을 위주로 하는 가치관들과 목적론적 윤리 유형이 만나게 된다면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의 모습과 십자가 종교로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경시하는 변질된 형태로서 대표적인 기독교의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책임 윤리는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윤리들에 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보다 강조하며 또한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이자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을 통전적으로 신앙함으로 비롯되는 윤리적 삶의 양식이다. 하나님에 대한 통전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온 우주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윤리적 삶의 영역은 무한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그에 대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농촌과 도시 빈민 지역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 저편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빈곤과 기아 문제에 대해서도 응답하도록 한다. 물론 그 응답은 사건들 속에서 고난받는 이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해석에 의하여 보다 구체화되기 시작한다. 나아가 우리의 윤리적 응답은 나 자신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닌 이웃을 위한 삶의 계획과 결단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대중적인 책임을 가진다. 동시에 나의 이러한 계획과 결단이 사회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책임적인 윤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나와 다른 너(Thou)를 포함한 다른 사회 및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로부터의 검증과 협력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항상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세상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사회적 연대(social solidarity)는 필수적인 것이다.

기독교인들의 삶이, 곧 기독교 윤리가 우리를 부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응답으로 시작되듯이, 세상적인 삶들도 나름대로 그들이 믿고 바라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행위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기독교 윤리와 세속적 윤리는 각자에게 반응을 초래하는 대상에 있어서 구별된다. 즉 전자는 창조주, 구속주인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이 대상이 되지만 후자에서는 자신의 이념, 목표(편안한 삶, 안전한 삶, 남을 지배하는 삶) 등이 그 대상이 된다. 또한 그 반응이 적합한 해석과 대중적인 책임과 사회적인 연대를 담보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윤리적 행위의 책임 윤리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수평적인 차원,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나아가 자연과도 함께하는 통전적인 관계성 안에서 사건을 해석하고 책임성을 고민한다는 점에서, 또한 뿌리 깊은 죄성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며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힘입어 매우 포괄적인 사회적 연대를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기독교 윤리는 그 어떤 윤리보다도 책임적인 윤리를 지향하고

있다.

2.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들

우리가 변화하는 세계에 대해 논의하고, 더 나아가서 예상되는 오류를 무릅쓰면서 미래 사회에 대해 예측하려는 것은 우리가 보다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세계가 제기하는 윤리적 과제들은 우리의 역사를 보다 성실히 바라볼 때 사실 아주 새로운 것들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는 더욱더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지구화에 따른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의 윤리적 행위의 기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웃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는 참으로 심각한 과제이다. 자신의 이익과 생존, 편안하고 안락한 삶, 이러한 시대 풍조를 좇다 보면, 아니 휩쓸려 살다 보면 천재지변으로 고난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이웃이라는 인식을 할 여유가 없을 것이다. 이전에는 서구 열강들의 불공정한 정책이나 침략에 대하여 분개하던 개도국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침략자들에게서 배운 방법으로, 아니 그보다 더욱 철저한 방법으로 자기들보다 약하고 가난한 나라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어느덧 가해자가 되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느 때보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신앙적인 분별력이다.

그러면 신앙적인 분별력은 어디에서 얻어지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계시하여 주는 성서에서 비롯된다. 성서에서 전개되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간의 역사적 관계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 그 새로운 세계는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

랑을 위한 '쾌락', '편안함', '부유함' 등의 썩어질 가치가 아닌, 영원히 변치 않으면서도 생태환경에 오히려 도움을 주며, 또한 아무리 개발하고 사용해도 고갈을 염려할 필요 없는 '사랑', '정의', '자유'와 '평화' 등의 가치들에 대한 꿈(vision)을 제공한다.

책임적인 윤리를 위하여 우리가 이제부터 보다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영원한 가치의 세계 속에 보다 더 깊이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구성원들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꾸며 (envisioning) 살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학교 교육은 이전보다 더욱 성서 연구에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강조는 무엇보다도 성서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빨려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가치관과 인격이 그 안에서 형성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성서의 강조는 결코 세상과 담을 쌓는 분과주의적인 시도여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 책임적인 윤리의 기본 요소 분석에서 확인하였듯이 우리의 책임 윤리적 결단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윤리적 결단을 위하여서는 성서의 직접적인 증언을 기초로, 또한 성서 안에 담겨 있는 새로운 세계를 맞본 새로운 인격으로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문화 일반에 걸친 맥락과 일반 계시로서의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들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식 정보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식 정보 사회는 우리의 책임 윤리적 결단에 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도 풍부해질 지식 정보 앞에서 인간이 소외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그러므로 보다 책임적인 기독교 윤리적 삶을 위해서는 성서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동체 형성과 그를 통한 인격 형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국 기독교는 세계화와 민족주의의 갈등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적 정황에 처해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보편

적인 하나님 사랑에 바탕을 둔 세계화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로서 “우상적이지 않은 자기 존중(non-idolatrous self-esteem)”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라는 화해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함께, 아니 보다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것이 ‘한국’, ‘기독교’의 정체성 확립이다. 사실 한국과 기독교는 상호배타적인 개념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단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기독교를 믿는 이들이다. 즉 한국이라는 개별성을 통하여 기독교라는 보편적인 진리를 믿고 실천하는 이들이 한국 기독교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이라는 개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그동안 소홀했던 우리 문화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물론 그 문화는 성서의 새로운 세계를 우리와 함께 경험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적합한 문화로 변혁되어야 할 것이다.

군소(群小) 이교(異敎)와 이단종파(異端宗派)들 고찰(考察)



박영관 목사



1. 들어가는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교종파(異敎宗派)들이 약 500종류가 있고, 기독교회의 이단종파(異端宗派)들은 약 140종류가 있다. 군소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 가운데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修道院), 프레스 디아스, 박옥수의 기쁜소식선교회, 미국의 이단감별의 캔(CAN)집단 등을 고찰하려

■ 박영관 목사

-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졸업(Ph. D.)
- 대한예수교장로회 중곡중앙교회 담임목사
- 한국기독교이단종파연구소장
- 세계선교신학원 교수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고 한다. 그리고 유불선(儒佛仙)의 증산교(增刪敎), 토착(土着) 불교의 원 불교(圓佛敎), 일연법화종(日蓮法華宗) 등등이다.

2.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修道院)

1930년 초반에 한국 기독교회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광적 신비주의(狂的神秘主義)의 이용도파(李龍道派)는 역사적 기독교회의 분별력 있는 권징조례(勸懲條例)에 의해 잠적했었다. 그러나 20년 후인 1950년에 그의 신앙과 원리가 변형(變形)되어 삼각산 기슭에서 다시 나타나기 시작 하였으니, 이것이 소위 김백문(金百文)의 이스라엘 수도원이다.

1. 이스라엘 수도원의 역사적 배경

김백문은 1916년 음력 9월 4일에 경북 대구에서 출생했으며 일제시대에 대구의전 3년을 중퇴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적 전환점은 함경북도 청진(淸津)에서 신적인 은혜를 받은 데 있다고 한다. 그것은 1930년대의 광적인 신비주의자들의 집회에서 받은 감화요, 특히 이용도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여 많은 신앙적 영향을 받은 데 있었고, 그의 자신적 결단에서 오는 신앙이었다. 우리가 여기서 상기해야 할 것은 김백문이 1946년 3월 2일 오전 11시 23분에서 12시 사이에 경기도의 한 산골에서 몇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1927년 원산에서 유명화(劉明花)라는 여자가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고 했고, 그 다음으로 김백문에게 나타나신 꼴이 되었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회 이단종파들의 교주(敎主)나 창시자(創始者)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장이다. 가령 문선명 집단의 문

선명(文鮮明)은 그가 16세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략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므로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대신 하라”는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여, 자신을 문예수, 문재림주로 자처하고 있다. 그리고 문선명 집단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국제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신앙적, 윤리적으로 문제 투성이의 이단종파인 것이다. 또한 전도관의 박태선(朴泰善) 역시 신앙 생활을 시작한 지 21년이 되던 해에 “신으로부터 성령의 새 피를 받았다”고 했었다. 전도관의 박태선은 그때부터 자신을 감람나무, 이긴 자, 영모(靈母)라고 하며 군림하였다. 그리고 그의 신앙촌 운동은 한국 교회에 큰 반응을 일으켰다. 물몬교의 요셉 스미스는 15세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에게 들으라”는 신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며 자신을 예언자라고 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에디 부인은 17세 때에 신앙적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자신을 말세의 여종이라고 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의 찰스 러셀도 17세 때에 깊은 신앙적 회의주의에 빠져 자아(自我)의 돌파구를 찾고 있을 때에 신비적인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여호와의 왕국 선포를 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대로 김백문에게 나타났다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顯現)은 그의 나이 30세 때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돌연변이 현상으로서, 민족의 해방과 더불어 신앙적인 황홀 상태에서 그와 같은 환상을 본 것으로 간주될 뿐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의 기독교회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현현은 없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적 나타나심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되므로, 이 땅 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었고 세상의 종말이 되는 것이다.

그 후 김백문은 경기도 파주군 임진면 섭전리에 기도처를 두고 그의

새 원리를 강론하기 시작했다. 그의 첫 시도는 「성신신학(聖神神學)」을 쓴 것인데, 이 책은 1954년 3월 2일에 발행한 것으로 그 내용은 요한복음 1장부터 17장까지를 이용도식으로 풀이한 것이다. 여기서 이용도식이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주관적인 신비 체험을 성경의 교리들에 합리화시킨 것을 뜻한다. 지난날 전도관의 박태선은 이 책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면서 애독하였으며, 그의 신앙적 원리로 삼았다. 그리고 전도관의 오묘(奧妙)한 원리가 여기에서 기인된 것이다.

또한 김백문은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방대한 책을 1958년 3월 2일에 내놓았으며, 만 3년씩 3차에 걸쳐서 임상학적 실험과 심령학적 체험을 통해 완성했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 책은 한국 기독교회에 있어서 신앙과 신학적으로 큰 문제를 갖고 있다.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는 문선명 집단의 「원리 강론」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1970년 3월 2일 그는 또 하나의 책 「신앙인격론」을 썼다. 김백문은 여기서 신령적으로 신인(神人) 통일을 내세우며 성약적(成約的) 시대론을 말하였다. 그것은 구약이 성부의 사역적 시대요, 신약이 성자의 사역적 시대요, 지금은 성신의 사역적인 성약 시대라는 것이다. 김백문은 지금까지 고찰한 책의 원리들을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주입식으로 가르쳐 왔다.

2. 김백문과 기독교 청수교회

지금까지 김백문은 이스라엘 수도원 중심의 포교활동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릉에 있는 기독교 청수교회 중심으로 바꾸었다. 기독교 청수교회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 산 1번지 467호에 있으며 현재 담임자는 박일한(朴一韓)이다. 여기서 한 가지 밝혀 둘 역사적 사건은 1970년 11월 초순에 박일한이 그의 일행들과 함께 서울 사당동의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신학대학의 학장 박형룡 박사의 집무실에 두 차례나 찾아와서 소란을

피운 것이었다. 그것은 필자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의 대학원 졸업논문을 1969년 12월에 「복음과 이단」이란 제목으로 펴놓았을 때, 본서의 발행인이 박형룡 박사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박형룡 박사님에게 필자의 저서에 대해 발매 중지와 지상보도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농성을 벌였다. 그들이 생각하기는 김백문을 소위 문선명 집단과 같은 계열로 취급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이단종파 발생과 역사(歷史)에서 밝힌 대로, 1930년대의 광적 신비주의와 이용도 목사 그리고 1950년대의 김백문과 그들의 후예인 문선명과 박태선 등 하나의 역사적 계보가 있는 것을 밝혔을 뿐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그밖에 많이 있었음을 고찰했다.

기독교 청수교회는 산동내의 한 가옥에서 매주일 불과 20명 내외가 모여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모인 대부분의 추종자들은 50대가 넘는 아낙네들이요, 젊은이들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러나 과거 김백문의 전성기에는 곳곳에서 집회가 잘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때에는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대구, 광주에까지 퍼졌고, 그는 그의 추종자들을 집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총회를 조직하기도 했었다. 김백문은 이스라엘 총회의 대제사장격으로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으나, 지금은 고통으로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며, 청수교회 역시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한다. 정릉 청수교회 박일한에 의하면, 김백문을 신의 사람이라고 하며, 그와의 면담은 신적 지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김백문은 은둔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포교활동은 중단된 상태에 있다.

3. 기독교 근본원리 비판

김백문이 그의 신앙적 원리를 체계화한 것은 「기독교 근본 원리」이며,

그는 소수인에게만 3년씩 3차의 강의를 소위 임상학적(실험)으로 거듭해 오는 과정에서 신앙의 심령학적(체험) 성과를 하나하나 재검토하면서, 어디까지나 성서 신학에 입각한 기독교 근본 원리를 신학적으로 밝힌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은 새 종교의 원리로서 모든 종교는 통일을 이룩할 것이라 했고 모든 인간은 구원의 생(生)으로 귀일 혹은 구원될 것이라고 한다. 또한 기독교 근본 원리의 구조는 삼일론적인 시대론 입장에서 창조 원리, 타락 원리 그리고 복귀 원리로 성경을 풀이했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김백문은 인류 역사의 근본적 기원 문제를 인류의 창조와 타락의 상대적 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창조와 타락으로 원인한 복귀의 원리를 제창한 것이며, 창조 원리에서 신관 문제를 취급하고, 타락 원리에서 인간의 죄악이 성(Sex)으로부터 유래된 것과 악령 정체를 밝혔고, 또한 복귀 원리에서 양자의 원리로 말미암은 해결과 결과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위와 같은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역사적 칼빈주의 신앙과 신학적 입장에서 비판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깊은 수렁의 범신론적인 이원론에 빠져 있기 때문이며, 지지주의적인 신비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형이상학적 실체로만 보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기독교 근본 원리에 있어서 창조 원리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아니고 유에서 유의 창조를 말하고 있으며, 타락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타락한 천사의 성적인 관계로 보고 있으며, 복귀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고 자신적 노력으로 인한 복귀를 말하고 있다.

1) 유(有)의 창조 원리

역사적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무(無)로부터의 기원(起源)이라는 엄밀한 의미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최초 사역이라고 믿는다. 다

시 말하면 만물이 단번에 성부로부터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나왔으며, 여기에 있어서 실유(實有)는 성부로부터, 이념은 성자로부터, 생명(生命)은 성령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자유적 행동이며 그리고 시간적 행동으로서 무(無)로부터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백문은 「기독교 근본 원리」의 창조 원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것은 창조 전 신관 문제를 위시하여 창조 역사의 신관문제, 그리고 창조 후 피조세계와 신관 문제를 분해하여 언급하였고, 여기에서 김백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창조 전의 신은 신령적 본체 본질로서 존재하며 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창조 세계는 하나의 물질적 실상 세계이면서도 영원한 실재 세계를 기본한 그 실재 대상의 현실세계로 피조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창조 후 피조 세계와의 관계는 조물주로서 나타난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볼 때 김백문은 창조 원리에서 신의 과정적 변천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창조 전의 신령적 세대로부터 창조와 역사적 세대를 거쳐 만물의 조물주 된 세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삼일론적 시대론의 구분으로써, 성부의 창조 시대가 있고 다음은 성자의 구속사역 시대가 있고 또한 성령의 역사 시대가 있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대적 사역으로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미 언급하였지만 창조와 구속 그리고 세계의 보존과 섭리 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요, 상호 관계의 역사인 것이다. 우리는 김백문의 창조 원리에서 또 하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신의 창조는 유(有)에서 유(有)의 창조를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요한복음 17장 5절의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를 인용하여, 창조 전 세계가 있고 그 세계란 실유신(實有神)의 본체 세계인 실재 세계를 말하며 신의 창조 현실은 그 세계를 실재 대상으로 하여 빚어진 사실이라는 것이

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지적한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고, 영계와 세상을 무(無)에서 유(有)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근본 원리에 있어서 창조 사역의 신(神) 문제는 피조 인간의 원상적 본질 문제를 통해서 밝혔으며, 만물의 조성 원리를 유추해서 신을 정의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신의 피조물로서 인간에게 개격성(個格性)이 있으며 삼위 신성적 본성이 있다는 것이다. 곧 부위 신성인 의(義)의 본격, 자위 신성인 애(愛)의 본격, 그리고 성령 신성인 선(善)의 본격이다. 그러므로 김백문은 신을 유일 절대한 개격자(個格者)요, 인격적 삼위 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2성성상(二性性相)의 존재자이므로 신 역시 2성성상의 중화적인 존재자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통일교의 원리 강론에 더욱 잘 천명되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만물의 조성 원리를 볼 때에 우주만물은 태초부터 생존 현실에 있어서 천리법도(天理法度)로 말미암아 생존 지속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주야의 윤회법칙이요, 선악의 상대법칙이요 그리고 음양의 상용법칙의 상대적 관계로서 조성되고 유지되며 또한 소멸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백문의 창조 원리에 있어서 세계는 하나님의 자신적 세계이지 결코 창조 세계의 원형적인 전 세계가 아니며, 창세 전에 창조된 실유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자존적 세계뿐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과 같은 만물의 조성 원리와 같은 합성된 실유가 아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 큰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그것은 마치 신을 인간과 자연의 만물유생론(Hylozoism)으로 보며 하나님을 세계의 존재 형식으로 보는 범신론에 있는 점이다. 후론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신의 이상 세계의 복귀가 아니며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자로서 성육신하셨으며 새 창조의 역사를 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신 것이다. 그의 초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구현되었고 영광의 재림주로 오실 때 완성을 볼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의 창조론을 고찰하였다. 그의 원리는 고대 헬라 철학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상(形相)과 질료(質料)의 상호관계를 말하는 창조론과 유사하며, 유(有)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신의 창조를 주장했다. 결국 「기독교 근본 원리」의 창조론은 범신론(汎神論)이며, 초연론적이고, 섹스(Sex)를 모티브로 한 신을 말하고, 동양 철학의 역학을 중심으로 한 상대적 신(神)과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2) 성적 타락 원리

「기독교 기본 원리」에 나타난 타락의 원리는 성적 타락론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기독교 근본 원리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원리를 자세히 고찰하려고 한다. 김백문은 언급하기를 영적 세계의 타락, 악령문제, 선악과의 정의, 그리고 인류 조상의 타락 등을 일괄적으로 취급했다. 여기에 나타난 근본적인 원리는 에로스적인 성(Sex) 문제이다. 김백문은 말하기를 영적 세계의 타락은 영적 세계의 피조물인 한 천사가 하와의 아름다움과 그 여자의 육체를 부러워했다는 것이며, 그들은 마침내 혈연적인 관계를 맺어서 타락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와가 에덴동산의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것은 하와가 천사와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기독교 근본 원리」에 의하면 선악과를 사랑의 결정체요, 사랑의 조화를 이룩하는 섹스적 상징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기독교회는 선악과 문제를 미해결장으로 남겨 두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선악과를 하나님의 시취 도구로써만 언급하였기 때문이요, 그 이상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일부 자유주의 계통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적 상태를 보고, 타락을 성적 요인에 귀착시키려고 하고 또한 말하기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고 난 후에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성적인 의식이 격발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어떤 치욕감이 생기게 되어서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기의 벌거벗음을 감추었다고 한다.

그러나 천사의 타락은 하나님에 대한 고의적 자결정적 반역(故意的 自決定的 反逆)으로 인한 것이며,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기를 높여 최고의 권위를 야망한 것이지 결코 혈연적 관계의 사랑으로 한 간음의 타락이 아니며,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하체를 가린 것은 하와가 뱀과의 육적 관계로 인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그들의 눈이 열렸고 벌거벗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실로 그들은 지식은 얻었지만 순결(무죄)을 잃었고, 마음은 열렸으나 윤리적인 죄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양심은 밝아졌으나 죄책을 경험하게 되었으므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몸을 가린 것뿐이다.

우리가 「기독교 근본 원리」의 타락론에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처음에 천사와 하와의 혈연관계로 인한 타락을 말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하와와 아담의 육적관계로 인한 타락을 말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이 소위 더러운 천사의 피를 가름하는 원리이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오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양하여 선악과를 따 먹은 데 있으며,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단절되어 타락한 것이요,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된 것이며 그 죄는 영구한 오염을 후대하였으니 그 오염은 인류의 연대성(連帶性) 때문에 아담 자신에게 퍼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전달된 것이다. 아담은 인류의 시조로서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의 대표로서 범죄했으므로 그의 범죄 책임은 그들에게 지워져서 그들이 타락한 것이다.

우리는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에 나타난 타락론을 고찰하였다. 그의 타락론은 범성욕주의적(汎性慾主義的)인 것이요, 섹스적인 원리인 것이다. 이것은 이용도 목사와 황국주의 영체 교환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결과요, 그의 원리는 또한 정득은과 문선명, 박태선에게 영향을 준 것이다.

3) 자력적 복귀 원리

「기독교 근본 원리」에 나타난 복귀 원리는 복귀의 탕감적 회복론이며 복귀 원리의 주제요, 「기독교 근본 원리」의 결론이다. 김백문은 복귀원리의 성경적 근거를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는 말씀에서 복귀 원리를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본 절은 삼위일체의 창조적 사역을 말한 것으로서, 영원한 근원(of him), 영원한 도모(though him) 그리고 영원한 결과(to him) 등이 삼위일체로 말미암은 창조 사역에 있어서 동등함을 뜻한다.

4. 이스라엘 총회의 전망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과 그들의 교주나 창시자들은 처음에는 기독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는 성도로서 부각되어 목회자들에게 많은 신임을 얻게 되었다. 그다음부터 그들은 의도적으로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고 자기 그룹을 형성한 것이 통례적이다. 김백문 역시 그의 신앙적인 출발은 매우 고무적이었으나, 독자적인 성경풀이에서 자기 도그마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기독교회에 대해서 아전인수격(我田引水格)으로 비판하고 자기들의 신앙 집단만을 유일한 것으로 나타내었다. 그는 그의 추종자들과 이스라엘 총회를 조직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구약적으로 혹은 유대교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지나치게 광적 신비주의에 치우쳐 신앙과 생활의 조화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배타적이고 모순적인 신앙생활만 초래하게 되었다. 당연히 그들의 신앙 원리는 추종자들에게 부합되지 못하여 소위 이스라엘 총회는 발전과 부흥보다는 퇴보와 쇠퇴를 빨리 가져오게 되었다.

3. 트레스 디아스(Tres Dias)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이단사이비 종합자료 2004’에서 트레스 디아스를 기독교회의 이단으로 취급하였다고, 일부 한국 교회와 교계신문들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여기서 트레스 디아스의 정체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17개의 트레스 디아스들이 있고, 그들은 개교회와 단체에서 제자훈련 혹은 영성운동을 하고 있다.

1. 트레스 디아스의 명칭적 유래

트레스 디아스(Tres Dias)는 스페인어로 ‘사흘(three days)’이라는 뜻이다. 트레스 디아스는 1949년에 로마 가톨릭의 꾸르시요(Cursillo)에 근원을 두고 있다. 꾸르시요는 ‘기독교 세미나’라는 뜻이다.

스페인의 헤르바스(Juan Hervás)와 보닌(Eduardo Bonnín) 주교(主教),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스페인의 성 야고보의 무덤에서 순례자들을 안내하는 종사자들이었다. 그들이 이 일에 권태감과 지루함을 느낄 때에, 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기 위한 하나의 신앙 훈련 방법을 착안하여 개발한 데 있었다. 그리고 이 신앙 훈련을 33차례 거친 후인 1951년 3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완성하였고, 1966년에 로마 교황이 이 꾸르시요를 전 세계의 교구에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로마 가톨릭의 꾸르시요 프로그램은 1972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기독교회에서도 실시하게 되었고, 1980년에는 전 미국 기독교회에 확산되었다. 그리고 미국의 한인 교회들에게까지 퍼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로마 가톨릭은 1967년 5월부터 국내 14개 교구에서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트레스 디아스는 3박 4일간 실시하는 신앙 훈련으로, 명상과 묵상 강의와 토의, 찬양과 율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트

레스 디아스는 스페인 로마 가톨릭의 꾸르시요에서 시작하여 미국의 기독교회에 확산되었고, 한국 교회에 전래되어, 현재 17개의 트레스 디아스들이 각각 제자훈련 혹은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트레스 디아스라는 명칭은 스페인어의 꾸르시요에서 기독교회의 트레스 디아스로 변형된 명칭이다.

2. 트레스 디아스의 역사적 배경(背景)

트레스 디아스(Tres Dias: 약자 T.D.)는 스페인어의 꾸르시요에서 유래되었고, 1949년 로마 가톨릭의 신앙 훈련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꾸르시요는 1972년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미국 뉴욕 뉴버그에서 시작되었고, 뉴잉글랜드,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의 기독교회로 확산되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1982년에 전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회의 이단 종파인 레마 선교회의 이명범이 미국 뉴욕에 있는 미드 허드슨 트레스 디아스에 참석했고, T.D와 자신의 전도 프로그램을 함께 적용하여 미8군 내에서 실시하였다. 그뒤 1987년에 이명범의 트레스 디아스에 문제가 발생하자, 1989년 1월 아름다운교회의 김기홍 목사가 서울 트레스 디아스를 만들었고, 서울, 부산, 대구 등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서울 금호제일감리교회의 장광영 목사가 미국 뉴저지 트레스 디아스를 경험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 은혜교회 김광신 목사의 도움으로 1989년에 끝난 트레스 디아스를 1회부터 5회까지 운영하다가, 제6회부터 장광영 목사가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그 후에 트레스 디아스는 한국 교회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 무려 17개가 되었다.

3. 트레스 디아스의 신앙적 문제

프레스 디아스는 개교회의 신앙 프로그램으로 전개되어 제자훈련 혹은 영성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신앙적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적 색체가 있다는 점이며, 또한 개교회의 과당 문제이다. 그리고 영성 문제이다. 여기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로마 가톨릭의 색체

프레스 디아스의 프로그램에서 로마 가톨릭적 색체는 로마 가톨릭에서 시작하였고, 개발되었으며, 많은 방법과 용어 등이 로마 가톨릭적이라는 것이다. 가령 프레스 디아스를 시작할 때 촛불을 점화하고, 끝나면 촛불을 끄는 의식이 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만일 촛불이 꺼지면 성령께서 사라진다는 논리가 생기기 때문에 기독교회는 이런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2) 개교회의 파당(派黨)

프레스 디아스의 제자훈련과 영성훈련은 마치 개교회의 일부 특권층이 누리는 신앙적 특혜처럼 보이고, 그들은 일반 성도들로서 구성되어 보이지 않게 하나의 그룹, 즉 선교회 혹은 모임을 가지고서 독자적으로 이웃에게 봉사와 구제를 하고, 그것을 위한 연보(捐補)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개교회와 목회자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개교회의 과당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개교회의 분열이 생기는 것이다.

3) 영성 문제

프레스 디아스의 영성훈련은 명상과 묵상, 기도와 예식, 성경공부와 영성자료 등을 통해서 영성을 개발하고, 영성의 표현으로 찬양과 감사를 하는 것이다. 일부 프레스 디아스는 개인의 영적 품성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소위 개인들에게 내적으로 잠재하고 있다는 어떤 영적 성질들

을 깨우치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적인 영성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적 인격적 삶이다. 그리고 영성훈련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충만과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교회의 봉사와 구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 프레스 디아스는 교회 안에서보다는 교회 밖에서 신앙적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고급 호텔과 수양관, 경치 좋은 해변과 휴양지 등을 이용하고 있다.

4. 프레스 디아스의 평가

한국 기독교회는 현재 17개의 프레스 디아스를 전부 기독교회의 이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과 관련이 있고, 제자훈련과 영성운동을 성경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단체를 말한다. 그들 가운데 비성경적 프레스 디아스와 광적 신비주의 프레스 디아스, 그리고 기복적 프레스 디아스 등의 경향이 있는 프레스 디아스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레마선교회의 이명범의 한국 프레스 디아스, 로스앤젤레스 은혜교회 김광선의 골든 혹은 서울 프레스 디아스, 부활의 교회 이태화의 지저스 프레스 디아스 등등이다. 한국 기독교회는 프레스 디아스에 대한 대안으로 초대 한국 기독교회에서 행하였던 성경사경회(聖經査經會)를 부활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경사경회가 진정한 제자 훈련이요, 영성 훈련이다.

한국 교회는 변화하는 사회 제도와 교회의 양식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일부 한국 교회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소위 성공했다는 개 교회의 신앙 프로그램을 국내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예를 들면 목요찬양 예배, 뉴에이지운동, 빈야드운동, 총동원주일, 그리고 프레스 디아스 등등이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한국 교회의 토착적인

성경사경회, 네비게이트 등이 있지 않는가? 또한 젊은 대학생들을 위한 C.C.C.와 U.B.F 등의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는가? 한국 교회는 자체의 좋은 신앙훈련 방법과 교재가 있는 데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기쁜소식선교회

최근 기쁜소식선교회의 박옥수가 매년 복음대전도집회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었다. 지난해는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했고, 금년에는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했다. 그 신앙 집단은 대회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방송과 신문 등에 대대적인 광고를 하였고, 가정과 아파트 단지 등에 무차별로 전단지들을 뿌렸다. 또한 그 집회를 위해서 중요한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리고 일부 기독교회의 성도들이 이 집회에 현혹되기도 했다. 차제에 다시 한번 기쁜소식선교회와 박옥수의 정체를 밝히려고 한다.

1. 기쁜소식선교회와 박옥수의 배경(背景)

기쁜소식선교회의 박옥수(朴玉洙)는 1944년 6월 2일 아버지 박재득과 어머니 최수만의 사이에서 4남 1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본적은 경북 선산군 선산면 노량동 105이며, 그곳에서 선산장로교회를 다녔고 선산중학교 3학년을 중퇴하였다고 한다. 그는 화란인 선교사 림옥이 주관하는 금오산 집회에서 감화를 받았다고 하며, 그 후에 한국기독교복음침례회 권신찬의 소위 구원파(救援派)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그는 구원파의 소속이었음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옥수는 현재 60세로, 1962년 대구시 삼덕동에 미국인 딕 욕(Dick York)과 영국인 데릭 얼 그리고 미국인 마론 베이커(Marlon Baker) 등이 설립한 방패신앙선교회(Shield of Faith Mission)

의 선교학교를 1964년에 나왔다고 하며, 1971년에 딕 욕 선교사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1976년에 '한국복음선교회' 및 '기쁜소식선교회'를 조직하였고, 1985년에 아세아 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 1990년 이후로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TV 및 라디오 방송, 1995년 국제 청소년 연합을 조직하였다. 박옥수는 현재 매년 대도시 전도집회, 전도책자 발행과 보급, 월간 기쁜소식, 인터넷과 방송 및 영상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과 그의 말씀 시리즈 10개 등, 여러 권의 소책자가 있다. 현재는 대전 한밭중앙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며 기쁜소식선교회의 대표로 총지휘하고 있다.

우리는 이상에서 보는 대로 기쁜소식선교회의 박옥수는 소위 한국 복음침례회의 권신찬파에서 나온 여러 개의 분파 가운데 하나이며, 한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은 기독교회의 이단종파인 것이다.

2. 기쁜소식선교회의 핵심 원리

기쁜소식선교회의 원리들은 박옥수의 저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서울 기쁜소식사, 1996, 1~3권)과 2002년과 2003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전한 메시지 등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저서를 통한 핵심적인 원리들을 기독교회의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적 입장에서 간단하게 비판하려고 한다.

1) 기쁜소식 선교회의 죄 사함

기쁜소식선교회의 죄 사함은 박옥수 씨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에서 언급되어 있다. 그는 1962년 10월 7일에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다(머리말). 여기에 신앙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구원을 몇 년, 몇 월, 며칠

에 받았다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사함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언급하기를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4-6)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좋게 이해한다면, 박옥수가 받았다는 죄사함의 구체적인 날짜는 소위 그의 속죄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 체험 혹은 자신적 신앙 결단을 한 날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자신의 죄사함 받은 날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며, 그와 같은 신앙적 체험을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더욱 성경적이지 않다.

또 그의 저서에서 “나는 죄를 사함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안 됩니다.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오늘 저녁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한다. 박옥수는 죄사함이 자력적(自力的)인 결단과 인위적인 판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본주의이며, 알미니안적 구원관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죄사함, 곧 구원은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신본주의이며, 개혁주의이며 칼빈주의이다.

그리고 박옥수는 죄사함을 소위 구원의 확신으로 말하고 있다.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 신앙적 인격의 변화이다. 성도의 구원은 원죄와 행위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으로 단회적으로 사함 받는 것이

다. 그리고 구원 받은 성도들은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완전히 성화되기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또한 행위죄는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구원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다.

2) 기쁜소식선교회의 죄악관

기쁜소식선교회의 죄악관은 박옥수 씨의 소위 말씀 시리즈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첫 말씀 시리즈 「나무잎의 옷과 가죽 옷」과 그 밖의 것에서 보면 대부분 죄사함에 관한 것이다. 그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과정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뭇잎 곧 무화과나무의 잎으로 하체를 가렸음을 말하면서, 그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행위죄를 아무리 회개하고 씻으려고 해도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반면에 그들은 가죽 옷을 입음으로 죄에 대해서 온전해졌다고 했다.

이와 같은 그의 성경 해석은 너무 비유적이다. 여기서의 신앙적인 문제는 죄사함이다. 박옥수는 한번 죄를 사함 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고, 온전해진다는 것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죄 사함은 단회적이다. 그러나 원죄의 죄를 사함 받은 성도라도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행위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옥수는 죄사함 받으면 온전해지고 행위죄와는 상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완전주의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에 있어서 행위적 죄를 짓고 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고 했다(롬 3:10).

3) 기쁜소식선교회의 교회관

기쁜소식선교회는 기독교회의 유형교회(有形教會)보다 기쁜소식선교회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독교회는 죽은 교회, 구원이 없는 교회라고 비판하고, 자신들의 집단만이 참 구원이 있다고 한다. 박옥수의 교회관은 기독교회의 예배당을 부인하고 소위 구원받은 자기 집단의

모임만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무교회주의적 원리이다. 그러면서도 자신과 자신의 집단은 유형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정기적인 집회를 하고 있다.

기독교회는 하나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기독교회는 이것을 두 가지 유형으로 말한다. 그것은 무형교회, 곧 천상교회(天上教會)와 유형교회 곧 지상교회(地上教會)이다(엡 5:25; 고후 11:28). 지상의 유형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는 정당한 성례전(聖禮典)이 거행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 기도와 간구를 하는 예배 장소이다.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그러나 기독교회의 이단집단들은 아니다.

3. 기쁜소식선교회의 현황

박옥수는 1964년 경남 합천군 봉산면 압곡동에 교회를 개척하여, 김천과 거창 등지에서 포교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의 조직체인 기쁜소식선교회의 현황은 그들에 의하면, 서울과 인천 지역에 18개, 경기도에 15개, 강원도에 11개, 대전과 충청에 21개, 대구와 경북에 27개, 부산과 경남에 40개, 그리고 전남북과 제주에 32개, 기타 지역으로 국내에 250개, 해외 35개국에 100개 등이 있다고 하며, 추종자는 약 2만 명이라고 한다. 특별히 경상남북도와 부산과 대구에 그들의 포교소가 많다. 그것은 그의 출생 연고 때문이기도 하다. 기쁜소식선교회는 방송매체 이용과 박옥수의 저서들을 출판하여 포교에 전념하고 있다. 특별히 박옥수의 말씀 시리즈 10권을 가지고 포교하고 있다. 그 시리즈는 「나뭇잎과 가죽옷」,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마음의 문을 닫은 인간」, 「심판의 창고를 여시는 하나님」, 「여자의 후손과 사단」, 「속죄한즉 사함을 얻으리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렇지 않다」, 「뿌리가 거룩한즉」, 「친히 나무에 달려」 등이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후론하기로 한다. 이것들은 2002년 5월 20-23일과 2003년 5월 12-16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전한 오전과 오후의 메시지라고 한다. 그 내용은 전부 죄 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말하고 있다. 그의 추종자들은 박옥수의 말씀 시리즈를 신앙생활의 원리로 삼고 있는 것이다.

4. 맺는 말

최근 한국 교회와 사회에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이 대중집회를 자주 하고 있다. 한국 예루살렘교회의 이초석, 다락방전도회의 류광수, 만민중앙교회의 이재록, 그리고 기쁜소식선교회의 박옥수 등등이다. 이미 한국 교회에 있어서 대중집회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절정기를 이루었고, 2000년대 와서는 그 열기가 식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은 단일체제의 카리스마적 조직과 재정을 가지고 자신들을 홍보 혹은 과시하고 있다. 이것은 그들의 추종자들의 피와 땀의 물질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요, 그 피해는 그들의 추종자들 뿐이다.

기쁜소식선교회는 권신찬의 한국복음침례회를 개혁한다는 미명 하에서 이탈한 하나의 분파이며, 한국 기독교회가 이단으로 정죄한 집단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옥수는 한번도 자신의 뿌리가 소위 구원파였다고 하지 않았다. 구원파는 현재 권신찬의 한국기독교복음침례회, 박옥수의 기쁜소식선교회, 이복철의 대한예수교침례회, 김갑택의 셋별남원교회 등으로 분파되었다. 기쁜소식선교회는 한국 기독교회에 강하게 도전하고 있고, 일부 기독교회의 목회자(군목)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정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법정 투쟁 이면에는 자신들이 기독교회의 이단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국 기독교회는 기쁜소식선교회를 기독교회의 이단으로 이미 정죄하였고, 그들의 법정 투쟁도 민형사 재판은 패하

였고, 일부 국가에 대한 것은 인정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항소 중이다. 그러나 그들의 승소는 매우 희박한 것이다.

5. 이단감별 의 캔(CAN)집단

최근 미국 기독교회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소위 캔(CAN: Cult Awareness Network)이라는 합법적인 사회 단체가 있다. 그들은 반기독교인들과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청탁을 받아 소위 청부사업(請負事業)을 하는 범죄 조직 집단이다. 그들의 영문 첫 자를 따서 캔(CAN)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말로 의역하면, 이단감별집단(異端鑑別集團) 혹은 이단청부집단(異端請負集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과 불신 가정 부모들의 청탁을 받아서 기독교회에 다니는 자녀들을 납치와 감금하고, 구타와 성폭행을 통해서 소위 전향케 하는 하나의 해결 사적 테러 집단이다.

그들은 주로 미국의 가장 복음주의적인 신앙 기관인 빌리 그레이엄 전도집회, 스위스의 성경적 경건주의 프랜시스 웨퍼의 라브리, 대학생들의 정신적 보류인 대학생선교회(C.C.C.), 대학생들의 건전한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 네비게이트, 복음주의 출판사인 생명의말씀사, 영 라이프(Young Life)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디프로그래밍(Deprograming, 제거 계획)을 하는 반기독교적 테러집단이다.

1. 캔(CAN)의 배경

캔(CAN)은 주로 전과자, 마약 중독자, 유괴범, 전문적 고문기술자, 탈옥수, 윤락녀, 타락한 일부 성직자, 그리고 성 범죄자들이 결성한 하나의

사회악의 범죄 집단이다. 그러나 그들은 합법적인 조직을 가지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핵심 인물들이 있다. 그중에 1974년에 창설된 시민자유재단(CFF: Citizens Freedom Foundation)의 테드 패트릭(Ted Patrick)이 있다. 그는 범죄와 약물 복용 중독으로 수시로 교도소에 드나들었고, 폭행, 납치, 불법구금, 집행유예 위반 및 코카인 소지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사람이다.

또 한 사람 캔(CAN)의 행정 책임자인 신디아 키셀(Cynthia Kissler)이 있다. 그는 캔(CAN)의 본부 행정 책임자이다. 캔(CAN)의 본부는 미국 일리노이(Illinois) 주 시카고의 바밍톤(Bamington)에 있다. 그들의 주소는 전화번호부에 없고, 익명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디프로그래밍을 당하고 있다. 그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가를 거짓 진술하게 한다. 이곳은 가혹 행위의 고문실이고, 사단의 소굴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문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했으며 그 가족과 관련 기관들이 피해를 보았다. 키셀은 1987년 캔(CAN)의 실무 총무로서, 종교인이 아니며, 대중광고 매체에서 종교에 관한 정보요원으로 일을 했고, 1991년에는 애리조나 주의 턱슨(Tucson)에서 나체 댄서로 일하기도 했다. 그녀는 교활한 방법과 수단으로 수많은 종교인들, 특별히 기독교인의 자녀들을 협박하여 반기독교인으로 전락하게 했다. 키셀의 캔(CAN) 활동은 사단의 어미적 역할이었고, 가장 악랄한 반기독교적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이다.

그리고 스티븐 하산(Steven Hassan)이 있다. 그는 캔(CAN)의 허위 문서 작성, 유괴, 납치, 고문 전문가이다. 그의 고문과 구타는 혹독하며 잔인하다. 그의 고문에 견디지 못한 일부 기독교인들이 허위 문서에 서명하게 되고, 기독교회와 기관은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된다. 그는 반종교, 반기독교 테러자이다.

또 캔(CAN)의 행동대원 릭 로스(Rick Ross)가 있다. 로스는 6세 때부

터 사기 및 정신 질환자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 그 후 그는 청년 시절에 세 번이나 경찰 당국에 체포되었다. 그는 보석 절도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로스는 1993년 텍사스 주 와코(Waco)의 다윗과 82명의 죽음을 가져 오게 한 장본인이다. 그는 다윗과의 블락(David Block)을 매수하여 그를 배교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블락은 교주 다윗 코레스(David Koresh)가 불법적으로 무기를 쌓아 두고 있다고 당국에 고발하여, 경찰과 대치한 가운데 집단자살을 하게 하였다. 로스는 무서운 악마이며 악행자이다.

그리고 캔(CAN)의 현재 회장인 미카엘 로코스(Michael Rokos)가 있다. 그는 캔(CAN)의 우두머리로 선두지휘자이다. 로코스는 비밀경찰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던 전과자이다.

위와 같이 캔(CAN)의 핵심 인물들은 정상적인 종교인도 아니며 기독교인은 더욱 아니다. 그들은 비정상적 성장과 범죄적 과거가 있으며, 국가의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겉으로는 합법적인 단체로 위장하고, 속으로는 반종교적 반기독교적인 청부업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미국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기관과 단체들이 있다. 특별히 기독교회의 단체나 조직을 가지고, 기독교회의 이적 행위를 하며, 금품을 노리는 감별사 혹은 해결사들이다.

2. 캔(CAN)의 행동 지침과 활동사례

1) 캔(CAN)의 행동 지침

캔(CAN)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종교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그리고 가정 식구와 친척들을 캔(CAN)에 동조하여 납치와 감금의 보복 심리를 일으켜서 반감을 갖게 한다. 또한 기독교회와 선교단체, 다른 종교에 미혹된 자들을 유인하여 신앙적 적대행위를 하게 한다. 심지어 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기독교회와 종교 단체들을 말살하게 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방화, 테러, 비행유포, 납치, 감금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캔(CAN)의 행동은 종교 방해 청부업인 것이다. 그들은 기독교회 이단종파들의 일부 수법을 역이용하고 있다. 캔(CAN)는 세뇌교육과 간첩교육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그들이 사용하는 몇 가지 용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청부납치는 중재(仲裁), 감금장소는 갱생센터, 청부납치는 고객(顧客), 납치와 강제강금, 폭행과 구타는 정보 제공 등이다. 그리고 그들의 치료(治療)는 협박과 감금, 심리적 불안와 정신적 파괴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캔(CAN)은 독일의 나치식, 미국의 케이케이케이식(KKK), 일본의 야쿠자식 등과 유사한 것이다. 캔(CAN)은 살인적이고 악랄한 범죄 단체이다.

2) 캔(CAN)의 활동 사례

캔(CAN)의 활동 사례는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92년 5월 갈렌 켈리(Galen Kelly)의 데보라 도브코우스키(Debor Dobknowski) 유괴와 릭 로스(Rick Ross)의 파기적인 영향으로 1993년 2월 28일 텍사스 와코의 82명이 집단자살한 사건이 있다. 그리고 1979년 문선명 집단의 추종자 아더 로셀레(Arthur Roselle)를 강제 납치, 1964년 남아프리카의 포트 엘리자베스(Port Elizabeth)의 자기 아버지 살해 음모, 1991년 1월 델타 항공기의 안내원 아미 프리스(Amy Frith)가 어머니에 의해 납치당한 사건 등이다. 이와 같이 캔(CAN)의 활동 사례는 다양하다. 유괴, 납치, 살해, 감금 등이다. 분명히 캔(CAN)은 인권 착취, 불법 감금, 살인 교사 등의 집단이다.

3. 캔(CAN)의 현황과 전망

캔(CAN)의 현황과 전망은 반종교적 반기독교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하였지만 캔(CAN) 집단은 기독교회의 일부 복음주의 기관들을 협박, 위협하고 있다. 그들은 특별히 대학생 선교회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생 선교회(C.C.C.)와 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U.B.F.), 로마 가톨릭, 감독교회, 침례교회, 암만파(Amish) 등등이다. 그리고 이슬람교, 불교, 몰몬교, 헬라 정교회, 문선명 집단, 크리스천 사이언스, 안식일교 혹은 토요일교 등이다. 그들은 기독교인들과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 다른 종교들로부터 동시에 청탁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다. 일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회 이단종파에 빠진 자녀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캔(CAN)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반기독교회인들은 기독교회에 빠진 부모나 자녀들을 기독교회로부터 빠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캔(CAN)을 이용한다. 캔(CAN)에 대한 아무런 예비 지식이 없는 일부 기독교인들은 캔(CAN)을 이용하여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와 신앙적 부작용을 겪게 된다.

4. 맺는 말

미국의 이단감별집단(CAN)은 예사로운 단체가 아니다. 우리의 속담에 병 주고 약 주는 식이다. 여기에 대해 기독교회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 주변에 이런 유사한 단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겉으로는 기독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이 기독교회의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부 기독교회와 목회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폭행하고, 심지어 암매장까지 한다. 기독교회는 이단감별집단들과 반기독교회적인 단체를 식별하는데 주력해야 하고, 그들에게 절대로 인적·물적 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독교회는 양적 성장보다 질적 성장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 사경회(查經會)를 부활시켜야 한다.

6. 유불선(儒佛仙)의 증산 교(甌山教)

증산교(甌山教)는 유생(儒生) 강일순(姜一淳, 1871-1910)에 의해 창건된 신앙 집단이다. 강일순의 호(號)가 증산(甌山)이다. 그는 1871년 11월 1일, 전북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 540-4에서 아버지 강홍주와 어머니 권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사후에 그의 추종자들이 '증산교'라고 명명하여 하나의 토착화 민속신앙 집단이 되었다. 강일순은 최수운(崔水雲)의 천도교(天道教)를 추종하였으나, 천도교로서의 구세제민(救世濟民)이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소위 대도(大道)를 만든 것이다. 그것이 증산교이며, 현재 증산교는 무려 60여 개의 분파가 있다.

1. 증산교의 역사적 배경

증산교의 역사적 배경은 강일순이 유불선(儒佛仙)의 교의(教義)와 음양(陰陽), 풍수(風水), 복서(卜筮), 의술(醫術) 등을 통해서 만든 혼합 민속신앙이다. 그는 30세에 신술적(神術的) 치병(治病)과 기행이적(奇行異蹟)을 행하면서 신인(神人)으로 자처하였다. 뿐만 아니라 강일순은 자신이 하늘의 신, 혹은 황제, 곧 옥황상제(玉皇上帝)로서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고 했다. 그리고 1902년 4월에 전주 우림면 화운동 김형열(金亨烈)의 집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원리를 포교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는 자기의 추종자들에게 수십 가지의 주문을 외우게 하였고, 부적을 사용하여 치병(治病)과 기복(祈福)을 얻게 하였다.

반면에 강일순은 포교 집회가 당국에서 의병(義兵) 모의 혐의로 간주되어 그 주동자로 1907년 12월에 체포되었고, 40일간 수감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1909년 6월 24일 39세의 나이로 죽었다. 강일순이 당대에 자기 포교의 큰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이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사분오열(四分五裂)로 분열되었고, 증산교의 명맥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다.

2. 증산교의 원리

우리는 증산교의 원리를 고찰하면, 그들은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증산교는 최수운의 천도교 혹은 동학의 신앙을 밑바탕으로 시작해서, 불교와 유교의 원리를 융합한 것이다. 그리고 그밖의 외래신앙으로 얼룩진 혼합주의 신앙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증산교의 원리는 강일순의 유불선(儒佛仙) 원리, 전통적인 민속신앙이 이루어진 혼합주의(混合主義, Syncretism)이다. 증산교는 재겁(災劫)의 말세(末世)에서의 구제와 지상선계의 개벽을 증산의 천지공사로 이룬다는 것이다.

1) 증산교의 천지공사(天地公事)

증산교의 대순경전(大巡經典)에 천지공사는 인류 구제의 제도창생(濟度蒼生), 백성들 앞의 보국안민(保國安民), 그리고 후천선계의 화민정세(化民靖世)이다. 다시 말하면 천지는 세상의 재화(災禍)와 불안, 고난과 험난의 세태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요, 공사(公事)는 그것들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증산교의 천지공사는 타락하고 부패한 현세(現世), 혹은 말세(末世)에서 소위 이상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천지공사의 3대 요강은 추종자들의 운을 점치는 운도공사(運道公事), 천신(天神), 지신(地神), 인귀(人鬼) 등의神明공사(神明公事), 그리고 지상선인(地上仙人)의 인도공사(人道公事) 등이다. 증산교의 천지공사는 한 마디로 정의하면, 인위적으로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회는 타락한 세계와 범죄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생복락(永生福樂)을 이룩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

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에서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최후 심판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천신지(新天新地)이며, 세상의 나라와 지구의 형태적 변형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우주적이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범주를 초월한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2) 증산교의 후천선계(後天仙界)

증산교의 천지공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후천선계의 개벽(開闢)이다. 이것은 현세의 재화(災禍)와 불안한 세계에서 더 나은 이상계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천지의 개벽이 되면,神明(神明)과 인간이 서로 통할 수 있고, 인간은 누구나 무병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신적 조화가 가능한 지상선신(地上神仙)이 된다는 것이다. 소위 유토피아의 세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 이래 이 땅에 지상천국 혹은 유토피아는 형성되지 않았다.

3) 증산교의 주축(呪祝)과 부적(符籙)

증산교의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할 때에, 주축(呪祝)과 부적(符籙)으로 주술적(呪術的) 행위를 한다. 증산교의 주문은 최수운의 천도교와 같이 한두 가지 주문이 아니고, 때와 장소를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는 주문은 수십 종류가 있다. 그 가운데 태을주(太乙呪)와 시천주(侍天呪)를 최고로 하고 있다. 증산교의 주축과 부적은 하나의 주술적인 행위로서, 사람의 치병(治病)과 자연계의 이적(異蹟)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 것이다. 증산교의 부적 가운데, 호부(戶符)는 문지방이나 지붕에 붙여 잡귀와 재앙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태을주(太乙呪), 정의도(情誼圖), 두문(杜門) 등이 있다. 그러나 증산교의 주축과 부적은 미신적(迷信的) 행위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기독교회(基督敎會)는 인간의 생사화복(生死禍福)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을 믿는다.

3. 증산교의 분파와 현황

강일순이 죽자 소위 증산교는 몇 년도 되지 않아 수십 개로 분파(分派)를 하였다. 그중 1914년 고판례의 태을교(太乙教), 1921년 차경석(車京石)의 보천교(普天教), 1922년 통령(通靈)을 받았다는 김형열(金亨烈)의 미륵불교(彌勒佛敎) 등이다. 또한 1925년 안내성(安乃成)의 증산대교, 1916년 이치복(李致福)의 제화교(濟化敎) 등이다. 그리고 1916년 박공우(朴公又)의 태을교(太乙敎), 1916년 문공신의 문공신파, 1926년 김광찬(金光贊)의 도리원(桃李園)파 등이다. 현재는 분파에서 분파를 거듭하여 60여 개의 분파들이 있다.

강일순의 증산교에 있어서 분파가 많은 것은 서로 정통성(正統性)을 주장하면서 포교하는 것에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증산교의 신앙적 문제점과 교권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증산교의 분파 가운데, 가장 변형된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 박한경)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증산교 추종자는 약 50만 명이다.

4. 맺는 말

증산교는 유불선(儒佛仙)의 혼합신앙 집단이다. 증산교의 교주 강일순은 유교를 근간으로 천도교, 불교와 선교를 혼합하여 혼합주의 민속신앙 집단을 만들었다. 이점에서 증산교는 유교도 아니요, 불교도 아니요, 선교도 아닌, 혼합신앙 집단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의 미신신앙 집단이다. 그리고 증산교의 신(神)은 기독교회의 유일신이 아니고, 샤머니즘적 일신(一神)으로 잡다한 다신주의(多神主義)이다. 증산교는 60여 개의 분파들이 있고, 각 분파들은 서로 강일순의 정통성을 말하고 있으나, 그들은 전부 증산교의 이단종파들이며, 이교의 이단종파들이나 것이다. 또한 그들

은 강증산에 의하여 후천선계의 개혁은 지상낙원과 이상세계의 추구이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 세상은 유토피아를 이룩할 수 없다. 그것은 세상은 끊임 없이 최악이 성행하고 있고, 사단의 세력이 왕성하기 때문이다.

기독교회는 이 세상의 역사적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최후 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 곧 신천신지(新天新地)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된 것을 믿는다(계 22:1). 증산교는 이교(異敎)들 가운데 이교의 이단종파이다. 우리는 증산교와 같은 이교들의 이단종파들이 우후죽순(雨後竹筍)격으로 일어나는 것을 방관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기독교회의 공동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7. 토착(土着) 불교의 원불교(圓佛敎)

우리나라의 원불교는 전통 불교에서 파생되어, 토착화(土着化)된 불교의 이단종파들 가운데 하나이다. 원불교에 대한 기독교적 신앙과 신학적 입장에서 비판하려고 한다.

1. 원불교의 역사적 배경

원불교는 전통 불교에서 파생된 소위 우리나라의 토착화된 불교의 이단종파(異端宗派)이다. 원불교는 1916년 박중빈(朴重彬)이 법신불(法身佛)로서 하나의 동그라미상(一圓相)을 깨닫고 창설하였다. 그는 1891년 5월 5일 전남 영광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도통천자(道通天子)라고 자칭하던 차천자의 한 보천교(普天敎)의 추종자였다. 그의 호(號)는 소태산(少太山)이며, 1943년 6월 53세의 일기로 죽었다. 박중빈은 7세부터 자연현상과 인생에 대하여 특별한 의문을 가졌다고 하며, 그후

20년간의 구도고행(求道苦行) 끝에 대각(大覺)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물질(物質)이 개벽(開闢)되니 정신(精神)을 개벽하자”고 했다. 박중빈은 9명의 제자들과 미신 타파, 문맹 퇴치, 저축조합 운동을 전개하였고, 길용리(吉龍里)의 해변 앞 2만 6천여 평을 간척지(干拓地)로 조성하였다고 한다.

박중빈의 사후에 송규(宋奎)사가 제1대 중법사가 되었다. 그에 의하여 오늘의 원불교라는 교명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원불교의 역사적 배경에서 교주 박중빈이 농부의 출신인 것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 가난한 백성들에게 유일한 꿈은 농토를 많이 소유하고, 농사를 일구는 것이었다. 박중빈은 소위 산중 불교와 은둔 불교를 개혁하여 생활 불교, 대중 불교를 만들었다. 전통 불교에서 보면, 원불교는 자유주의(自由主義)의 불교이며, 하나의 혼합불교이다.

2. 원불교의 원리

원불교의 원리에는 법신불(法神佛) 일원상(一圓相), 인과보응(因果報應) 신앙문,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수행문 등이 있다. 그것들의 원리를 간단하게 고찰하려고 한다.

1) 원불교는 법신불(法神佛) 일원상(一圓相)이다.

원불교는 우주의 궁극적 진리를 일원(一圓)의 진리라 이름하고, 일원의 진리를 O으로 표현하여, 법신불 일원상이라 하며, 신앙의 대상이요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있다. 원불교는 어느 법당이나 내외각에 O를 표시하며, 법당의 중앙에 O를 붙여 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형상수배(形像崇拜) 혹은 우상숭배(偶像崇拜)에 지나지 않는다. 원불교의 경배 대상은 창조주(創造主)가 아니고 피조물

이 고안한 사물인 것이다. 원불교는 석가모니 불상(佛像) 대신에 일원(一圓)을 만든 것이다. 전통 불교의 입장에서 보는 원불교의 일원은 석존(釋尊)을 훼손시키는 것이요, 망령되게 하는 것이다.

2) 원불교는 인과보응(因果報應) 신앙문이 있다

원불교는 인과보응(因果報應) 신앙문이 있다. 여기에는 사은(四恩)과 사요(四要)가 있다. 사은은 곧 천지은(天地恩), 부모은(父母恩), 사구은(司龜恩) 혹은 동포은, 법률은(法律恩)이다. 그리고 사요(四要)는 곧 공도자 숭배(公道者崇拜), 지자본위(智者本位), 타자녀교육(他子女教育), 자력양성(自力養成) 등이 있다. 원불교의 인과보응 신앙문은 신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다. 신앙에 있어서 인위적인 것은 종교가 아니라 철학과 도덕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사람은 자기의 노력, 자신적 공덕, 그리고 스스로의 수양으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타락한 존재요, 죄의 근본악이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사람이 되었다고 했다(창 2:16-17).

3) 원불교는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수행문이 있다

원불교는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수행문이 있다. 여기에는 3학과 8조가 있다. 3학은 정신수양(精神修養), 사리연구(事理研究), 작업취사(作業取捨)이다. 그리고 8조는 신분(信忿), 분발(分發), 의문(疑問), 불신(不信), 탐욕(貪慾), 나태(懶怠), 우치(愚癡) 등등이다. 원불교의 수행문으로 사람은 해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를 그들은 비존재로 여기기 때문이다.

3. 원불교의 현황

원불교의 현황은 국내에 15개 교구와 450개 교당이 있으며, 추종자는

약 10만 명 정도이다. 그리고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호주, 남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 프랑스, 중국 등 국외에 4개 교구와 13개국 30여 개 교당이 있고, 추종자는 3~4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원불교의 자선사업은 원광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종합사회복지관 15개, 개별복지시설 47개를 운영하며, 종합병원, 한방병원, 보화당 한의원 등 의료 사업도 하고 있고, 원불교신문, 월간 원광, 원불교사상 연구원, 종교문제연구소 등 문화사업도 한다. 그밖에 충부직영농원, 수계농원, 원음합창단, 원불교 미술제 등의 문화 행사도 하고 있다. 교육기관으로 전북 익산의 원광대학교, 영산 원불교대학교, 원광보건전문대학교 외 9개가 있다.

원불교는 약 90년 동안 국내외에 포교와 사업을 하였다. 그들의 역사에 비해서 괄목하다.

원불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군소 이교종파들과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도 마찬가지로 포교와 사업을 하고 있다. 그중에 증산교, 대순진리회, 문선명 집단 등이 있다.

4. 맺는 말

원불교(圓佛敎)는 전통 불교의 이단종파이며, 유교, 불교, 천도교, 증산교 등의 원리와 사상을 혼합한 하나의 혼합 불교이다. 원불교는 산중불교, 은둔불교에서 소위 생활불교와 대중불교로 나타난 것이다. 원불교는 정통주의 불교에서 보면 자유주의 불교이며, 불교의 이단종파인 것이다.

8. 일연법 화종(日蓮法華宗)

최근 일본 이교의 이단종파들이 세계 도처에서 성행하고 있다. 그 중에 신도계(神道系)의 천리교(天理敎), 금광교(金光敎), 삼오교(三五敎), 그

리고 불교계의 일연의 일연법화종이 있다. 그중에 일연의 일연법화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일연의 일연법화종은 일명 ‘호랑이교’, ‘호랑교’, ‘남너교’, 일본어 발음으로는 ‘남묘호랑계교’라고 하는데 도시의 저소득층과 농어촌에서 소위 치병(治病)과 구복(求福)을 내세워 포교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에서 발생한 불교의 이단종파(異端宗派)요, 혼합 불교이다. 소위 남묘호랑계교(南無妙法蓮華經) 혹은 일연정종(日蓮正宗)이라고 불리는 이 집단은 일연법화종(日蓮法華宗) 또는 일체의 다른 신앙 집단을 사교(邪敎)라고 하는 독선주의이다. 그들은 일본의 국조 천조대신(天照大神)과 일본의 수호신 팔번보살(八幡菩薩)이 들어 있는 본존(만다라, 曼荼羅)을 모시며, 동방요배(東方遙拜)를 하는 신앙집단이다. 정부 당국은 일연법화종을 반국가적 반민족적인 일본의 국수주의 신앙집단으로 규정하고, 1964년 1월에 문교부(文敎部)에서 일연법화종의 포교(布敎)금지를 시켰다.

1. 일연법화종의 역사적 배경

일연법화종은 일연이 창시자이며, 교명은 묘법화경종, 또는 묘법화경교, 그리고 법화종(法華宗)이라고 불렸다. 일반적으로 일연법화종이라고 한다. 일연(日蓮)은 불교의 한 분파인 천태밀파(天台密派)의 승려였다. 그는 1211년에 일본 안방국의 동조촌에서 빈한한 어부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1223년 12세 때에 천태밀파에 입교하였고, 1243년 32세에 삭발하고 승명을 일연이라고 하였다. 일연은 자신이 말법시대(末法時代)의 구세불(救世佛)이라고 자처하였다. 그의 많은 설법과 설문들이 있다. 그것은 30건의 종지(宗旨), 95건의 교훈(敎訓), 86건의 파절(破折), 그리고 기타 178건 등의 글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일연은 1272년 10월 13일 61세의 나이로

죽었다.

우리나라에는 1963년 2월에 들어왔고,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656에서 박소암(朴素巖)에 의해 시작되었다. 일연종교학회를 조직한 박소암은 1910년 생으로 8·15 해방 직후에 동국대학 불교학과를 나왔고, 경찰에 투신하여 경위로 근무한 적이 있었으며, 1950년 6·25 한국전쟁 때에는 동양통신사 기자로 인천에 주재하기도 했다. 그는 1969년 2월 5일에 죽었다. 그의 후계자는 동생 박성일이고, 그후에는 6개파로 분파되었다.

일연법화종은 우리나라의 이교종파들 가운데 천도교(天道敎)의 시천교, 단군교(檀君敎)의 대중교, 증산교(甞山敎)의 태을교, 보천교, 대순진리회, 신도계(神道系)의 천리교, 금광교, 삼오교 등과 같고, 우리나라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인 문선명 왕국(王國)을 시도하고 있는 문선명 집단의 문선명, 소위 신앙촌 왕국을 꿈꾸었던 박태선 집단의 박태선, 영생교의 조희성, 장막성전의 유재열 등과 같다. 그밖에 약 130종류의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과 같은 부류인 것이다.

2. 일연법화종의 남묘호랑계교 뜻

일연법화종의 남묘호랑계교는 일본어 발음으로는 남무묘법연화경(南無妙法蓮華經)이며, 7자로 된 하나의 기도 주문이다. 일연법화종에 의하면 남무묘법연화경은 말법시대(末法時代)인 오늘날에 와서는 일체 중생이 성불득도하여 현세안온(現世安穩)과 후생선처(後生善處)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아침, 오후, 저녁 3번씩 이 주문을 외우는 것이다. 남무묘법연화경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들의 능생(能生)의 법이며, 우주 생명의 근원을 말한다고 한다.

남무(南無)는 범어(梵語)이며, 우리말로 귀명(歸命)이라는 뜻으로 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귀의(歸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연의

생명이 중생의 생명 속에 들어와서 약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묘법(妙法)은 최고의 가치 있는 생명을 말한다. 연화(蓮華)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생명을 내포하고 있는 당체(當體)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경(經)은 생명 활동의 나타남이며, 그 생명 활동이 외부로 흘러 나가며 지속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일연법화종의 핵심 원리이다. 그리고 그들은 불교의 석가모니와 일연법화종의 일연과 차별성을 두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점이 있다. 일연은 한 사람의 승려요, 그는 원죄(原罪)가 있는 사람이다. 일연이 아무리 자신적 득도와 성인이 되었다고 해도 그는 피조물이며, 원죄(原罪)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일연의 생명이 중생들의 생명 속에 들어가도 현재의 안녕과 미래를 선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기독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독생성자로서 죄가 없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의 유일한 길(道)이요, 진리(眞理)요, 생명(生命)(요 14:6)이시다. 기독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救世主)이신 것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자기 백성들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며 영생(永生)을 얻게 하는 것이다.

3. 일연법화종의 신앙적 문제점

일연법화종의 신앙적 문제점은 일연을 본존(本尊)이라고 하는 것과 광적 신비주의라는 것이다. 일연법화종은 불교의 이단종파(異端宗派)이며, 혼합 불교(混合佛敎)인 것이다. 그리고 일연법화종은 동방요배(東方遙拜)와 교정일치(敎政一致)를 주장하고 있다.

1) 일연법화종의 일연은 본존(本尊)이다

일연법화종의 일연을 소위 본존(本尊)이라고 한다. 불교에 있어서 본존은 오직 석존(釋尊)뿐이다. 그런데도 일연법화종은 일연을 본존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연히 전통 불교의 입장에서는 일연법화종을 불교의 이단종파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일연은 법화경의 본문 내용에서 자신을 말법시대(末法時代)의 구세불(救世佛)로 자처한다. 그는 일연법화종이 일본을 기단(基壇)으로 하여 온 세계를 구제하고, 교정일치(敎政一致)로 전 세계를 통일한다고 한다.

일연에 의하면 불교의 석존(釋尊)이 육신으로 출세하여 불법을 편 법화경의 적문(迹門) 14품은 앞으로 올 말법시대의 정법인 본문의 삼비(本문의 본존, 본문의 제목, 본문의 계단)를 실제로 행사하므로써 불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가 자신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일연은 석가모니 불의 교지에 따르는 교행을 하면서 석존불을 배척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연은 자신이 본존(本尊)이라는 것이다. 일연은 석가모니 불의 재림불이라고도 자처한다.

일연법화종은 전통적인 불교 입장에서 보면 불교의 이단(異端)인 것이다. 일연은 석가모니의 재림불도 아니며, 야망의 천태밀파의 승려일 뿐이었다. 그리고 일연법화종은 혼합 불교이다. 일연법화종은 전통적 불교의 석가모니 중심 불교 신행을 기반으로 하여 일연법화종은 일연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불교의 석가모니의 자리에 일연을 두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국가주의 신도주의(神道主義) 신앙과 모든 병을 치료하는 치병, 구복, 만사형통을 주장하는 주문적 신앙과 주술적 신앙 등으로 혼합된 하나의 혼합 불교이다. 혼합 불교는 전통 불교가 아니며, 역사적 불교도 아니다. 그들은 석가모니의 불교에서 이탈한 다른 불교의 신앙 집단이다.

2) 일연법화종은 기복신앙(祈福信仰)이다

일연법화종은 병든 자를 공덕(功德)으로 고치고, 심지어 죽은자를 살린다고 한다. 그들은 구복(求福)을 말하고, 미래보다 현재의 윤토피어를

주장한다. 이것은 일종의 기복신앙(祈福信仰)이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말하면, 1969년 7월 6일, 일연법화종의 추종자 김옥현(金玉鉉, 대구시 남산동 3구 726번지) 여인이 병든 김정식(金貞植) 노파를 고친다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이틀 뒤에 그 환자는 죽었고, 김옥현 여인은 6일 후에 죽은 그 노파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했다. 추종자 김옥현은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계시(啓示)를 받았다고 하였다. 그녀는 두 달 동안 죽은 자와 기거했고, 결국 시체유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이것은 일종의 광적 신비주의이다.

그밖에 일연법화종의 추종자들은 말법시대(末法時代)가 도래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각종 병든 자, 노약자, 농어촌의 부녀자들을 미혹하고, 세상의 환란 날에는 일연법화종을 믿어야 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혹세무민(惑世誣民)이다.

3) 일연법화종은 동방요배(東方遙拜)이다

일연법화종은 동방요배를 한다. 동방요배는 일본의 궁성(宮城)을 향배하는 것을 말한다. 일연법화종은 아침과 저녁에 태양이 솟아오르는 동쪽을 향하여 절을 한다. 그것은 만물의 생명이 동방으로부터 약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동방의 신불(神佛)에게 향배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일연법화종은 일연의 대형 초상화를 걸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한다. 그들에 의하면 동방요배가 제천선신(諸天善神)을 향배하는 것이라 한다. 그러면 제천선신이 어찌 동쪽에만 있겠는가? 그리고 일본의 40여 개의 일연계가 일연의 삼대비법, 곧 본문의 보존, 본문의 제목, 본문의 계단을 신앙하면서 다같이 동방요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추종자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말법불교(末法佛敎)에 있어서 일연법화종은 해 뜨는 일본에서 일어나 그 빛이 전 세계에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교정 일치로 전 세계를 통일시킨다는 것이다. 일연법화종은 일

본의 국수주의이며, 그들은 분명히 일본의 천황이 있는 궁성을 향배하는 동방요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일연법화종은 교정일치(教政一致)이다

일연법화종은 종교와 정치의 교정일치(教政一致)를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왕불명합(王佛冥合)이라는 교리를 내세워, 일본의 공명당(公明黨)이라는 정치 단체를 만들었다. 그들은 종교적, 정치적 야심을 가지고 세계 포교를 하는 것이다. 그들은 국립계단(國立戒壇)으로 일본의 일연법화종이 국교(國教)가 되고, 일본의 일연법화종이 동양의 삼국,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을 통일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은 일본의 패권주의와 국수주의(國粹主義)에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일연법화종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주의(敎皇廳主義)와 같다. 이것은 일본의 일연법화종뿐만 아니라, 대부분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이 꿈꾸고 있는 허상(虛像)이다. 우리나라의 문선명 집단, 박태선 집단, 이우성의 여호와 새일교,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미국 요셉 스미스의 몰몬교, 화이트 부인의 토요일교,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에디 부인, 여호와의 증인의 리셀 등도 그렇다.

4. 일연법화종의 현황

일본에서 발생한 일연법화종은 현재 세계 90개 나라에 포교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63년 2월에 들어왔다.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656에서 박소암(朴素巖)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그는 1969년 2월 5일에 죽었다. 당시 일연정종교학회의 추종자들은 250세대였다고 한다. 그후에 동생 박성일(朴成日)이 후계자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일연법화종은 동대문파의 박소암파, 이을형(李乙炯)파, 정릉의 황석환파, 원남동파의 이돈수, 부산파의 임무규, 대구파의 박경식,

여수파의 안남식 등으로 6개의 분파로 분열되었고, 불교의 법화종 계통은 10개가 있다. 일연법화종의 추종자는 현재 약 20만 명이며, 포교소는 20개 정도이다.

5. 맺는 말

일연법화종 혹은 남묘호랑계교는 불교의 이단종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포교가 금지되었다. 일연법화종은 일연을 말법시대(末法時代)의 구세불로 여기며, 주술적인 방법으로 치병, 구복(求福)을 추구한다. 또한 일연법화종은 일본 민족의 성민 사상을 고취하며, 정교일치의 세계 통일을 주장한다. 그들만이 유일한 신앙 집단이라 하며, 다른 불교 종파들과 다른 신앙은 전부 사교(邪敎)라고 하는 독선적인 신앙 집단이다. 또한 일연법화종은 불교의 신행(信行)과 신도(神道) 신앙 그리고 주술 신앙 등으로 혼합되어 있는 하나의 혼합 불교이다. 그리고 일연법화종은 기복신앙을 고취하는 일종의 광적 신비주의요, 흑세무민을 주장한다. 그리고 일연법화종은 우리나라의 원불교(圓佛敎)적이다.

9. 종합적 맺는 말

지금까지 국내외의 군소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 가운데 몇 종파들을 고찰하였다. 앞으로 계속해서 크고 작은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을 비판하려고 한다.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은 매년 매월 발생(發生)하고 분파(分派)되기도 하며 또 스스로 없어지기도 한다.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은 기독교회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대표적인 것이 대순진리회의 한 분파였던 대순진리성도회의 생명수 사건, 문선명 집단의 2003년 피스킵 축구대회, 부천 조희성의 암매장 사건 등이다.

기독교회 이단종파들의 극성적인 포교 활동은 기독교회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 그것은 일부 기독교회가 미신적이고 기복신앙적인 범주에 빠진 것이요, 신유 은사와 영성운동에 치중하고, 자유주의와 세속화되고, 안일주의와 물량주의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기독교회는 신앙적 개혁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먼저 한국 교회가 각 교회들마다 할 것은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처럼 성경사경회를 통하여 성경적 신앙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각 교단과 기관별로 전국적인 교인명부(敎人名簿)를 작성해서,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사전 예방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지교회주의, 교파주의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모든 영역에서 이룩해야 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영유해야 한다.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한 군선교 전략 연구

- 민간교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민상기 군종목사



오늘의 한국 사회를 표현한다면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등 끊임없이 밀려오는 문제들 앞에 대책 없이 서 있어야 하는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여야간의 불신과 대립, 정경유착에 따른 경제계의 불안, 북한 문제와 관련한 외교 위기 및 국

■ 민상기 목사

- 대한신학교 졸업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선교대학원 졸업(Th. M.)
- 특수전사령부 사자교회 담임목사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론 분열 양상 등은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염려해야 할 부분은 우리 한국 교회가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한국 교회의 침체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교회의 침체가 사회의 희망 상실의 원인 제공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이다. 특별히 젊은 계층들이 교회를 외면함으로써 교회의 인구 구조마저도 역(逆)피라미드형을 그려 나가고 있는 현실이 본 연구자로 하여금 이러한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희망의 시대를 그려 나가야만 한다. 이 일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군선교라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건장한 신체를 가진 청년이라면 군에 입대하여 24개월을 지내야 한다(2003년부터 개정된 병역법에 의거 복무 개월 수가 기존 2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군대 안에 이들을 위하여 군종목사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다. 이 제도는 동양권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군종목사들은 이 제도를 통하여 민, 군(軍) 신자들과 함께 마음껏 전도 활동을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비전을 가진 선교 전략이 있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래서 민간교회와 군인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세운 군(軍) 선교 전략이 “비전 2020 실천운동”이다.

이 운동에 대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전(前) 사무총장인 문은식 목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996년을 기준으로 전 국민의 25% 기독교 신자를, 2020년에는 75% 기독교 신자 국가를 건설하자는 ‘비전2020’ 청사진은 이 민족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임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군인교회는 오직 전도와 세례에 힘을 기울이고, 일반교회는 안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군인신자들을 일반교회로 연결하고, 또한 미래 등록 교인으로서 관리하며, 군선교연합회(비전2020실천운동 본부)는 종합적으로 계획, 관리, 추진 점검 등 본부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¹⁾

여기서 보는 대로 2020년에는 이 민족의 75%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자는 데 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은 이렇다.

군에는 매년 30여만 명 정도가 입대를 한다. 이들은 대체로 논산 육군 훈련소를 비롯한 육·해·공군의 각 부대 신병 교육대에서 4~6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현역, 전경, 의경, 공익근무요원 등 각자의 소속대로 흩어진 다. 군(軍)교회는 바로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여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준다. 통계에 의하면 2003년에 15만 명, 2004년에 16만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14회 군종목사 신학세미나, 서울 2005: 40). 그리고 지금도 매년 20만 명을 목표로 세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입대 전 복음을 접하고 세례를 받은 장병 3만 명 정도와 군에서 매년 세례를 받는 22만 명을 합하면 매년 23만 명의 세례자들이 민간교회에 충원되는 셈이 된다. 그래서 비전2020이 실현되는 2020년에는 그 수가 약 620만 명이 될 것이다. 또한 이들은 2020년까지 대부분 한 가정의 가장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본인을 포함하여 평균 4명 정도의 한 가정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2020년에는 2,500만 명의 성도

1)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 실무담당자 교육자료집」(서울 2000), p. 11.

들이 새로 생기게 될 것이고, 기존 1,200만 명의 성도를 합친다면 약 3,700만 명의 성도가 이 나라에 세워지게 되는 셈이 된다. 이는 그 당시 인구 비율로 볼 때 약 75%의 국민이 그리스도인이 됨을 의미하니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단순히 기독교 신자만을 늘리는 것으로 비전2020의 목표가 성취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따로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본부장이었던 이필섭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구의 75%가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진 우리나라는 우선 입법기관인 국회는 대다수 국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것임으로 모든 법의 근원인 성경의 정신에 맞게 입법 활동을 해야 할 것이고, 법원은 그 법에 의해 사회정의의 구현해 가야 할 것이며,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뤄지는 나라가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비전2020을 통해서 이뤄질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한 비전2020의 성취를 통하여 이 땅의 통일도 이뤄져야 합니다. 남과 북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극복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한편 우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분부를 기쁨으로 감당함으로써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인구 5,000명당 1명 정도로 지구촌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인구 1만 명당 1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믿는 백성이 25%에서 75%로 현재의 3배가 되어 3,300명당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의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가장 크게 축복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비전 2020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입니다”²⁾

비전2020실천운동은 몽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비전이다. 군인교회와 민간교회가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실천해 나간다면 이 꿈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연구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비전2020실천운동의 성공적인 성과를 위해 군선교에 대한 이해와 민과 군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군(軍)선교에 대한 이해

1. 군(軍)선교의 의의

2003년 6월 17일 문화관광부가 만든 ‘도표로 본 한국의 종교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교 인구의 비율은 53.6%로 나타났다. 그중 기독교 인구는 18.6%로서 인구 100명 중 11명꼴로 기독교인 것으로 나타났다³⁾. 전체적으로 보면 불교가 가장 많은 23.6%의 신자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연령별로 분석해 볼 때 사뭇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것은 10대, 20대, 30대 연령층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불교에 비하여 많고, 40대 이상에서는 불교 인구가 기독교 인구에 비하여 많다는 것이다⁴⁾. 이것은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인구가 불교 인구를 앞질러서 한국 최대의 종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젊은 연령층에 대한 전

2) *Ibid.*, pp. 14-15.

3) 〈연합뉴스〉, 2003년 6월 5일.

4) 도서출판 두란노,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 활동과 신앙의식」, 1999, p. 35.

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중 대한민국 젊은이라면 누구라도 거쳐 가야 하는 군(軍)은 참으로 중요한 전도 전략 요충지이다. 현재 군(軍)의 통계에 따르면 2002년을 기준으로 군(軍)의 기독교 분포는 병력 대비 75%가 종교 인구이고 그중 기독교 인구가 50%가 넘는 25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⁵⁾. 이렇게 군에서 기독교의 인구가 종교 신자 중 50%를 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육사는 일인 일 종교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신입생도들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3종파를 순회하면서 예배와 미사, 법회를 참가한 후 종교를 선택하게 한다. 이때 결정된 종교가 그의 생도생활과 군(軍) 장교 생활의 신앙 기초를 형성하게 되고 그의 생활은 큰 변동 없이 신앙이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면에 있어 한 생도의 기독교 선택은 장차 장교로서 그의 위치와 역할의 심대한 영향을 생각할 때 실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연무대에서 기독교 세례와 함께 신앙의 선택은 실로 놀랄 만한 군선교의 핵심이 되고 있다. 1970년부터 실시한 전군(全軍) 신자화 운동을 통해 1천 명 이상 하는 합동세례식만도 25회, 1971년부터 1974년까지 약 6만여 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당시 김진영 참모총장의 추진 아래 연무대를 중심으로 한 군복음화의 역사는 매월 3,000~4,000여 명에 이르는 병사들이 세례를 받았으며 이러한 합동세례식을 통하여 1993년에는 군(軍) 세례자 목표 10만 명이 훨씬 초과된 세례교인을 배출하게 되었다.

이처럼 오늘 민족 복음화의 중추적인 뿌리와 기반은 군복음화를 통해 튼튼히 다지고 있다.

그러면 왜 군(軍)선교가 중요한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자.

5) 육군본부, 「군종업무시행지침/운영계획」(2003), p. 59.

가. 군(軍)선교는 한국 선교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는 1993년에 들어 전도 수는 급격히 정체되었다. 특히 1992년 10월,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거짓 예언과 자질이 부족한 목회자의 대량 배출과 수많은 개척교회의 난립, 대형교회의 기업화와 선교 열의 부족, 기독교에 대한 국민 반감 형성과 사회문화의 타락, 대중 전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기독교 반감 등은 이제 기독교 전도가 한계점에 이른 듯한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군대에서는 초대교회의 베드로 전도로 3천여 명이 세례 받은 것처럼 늦은 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군(軍)선교 현장은 정체된 민족 복음화에 계속 활력을 불어 넣어 마지막 민족 복음화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기에 중요하다.

나. 군(軍)선교는 한국 민족의 미래 소망이기 때문이다

씩어져 가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이다. 복음이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썩음을 방지하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이다. 군(軍)에 의무적으로 들어온 대한의 젊은 엘리트 남성들에게 군복음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한민족의 소망이고 밝은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 이 곳에 교회가 있고 군복이 있어 믿음을 통한 복음의 값진 생명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것은 민족의 미래를 밝게 해 주는 유일한 소망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다. 군(軍)선교는 끝없이 사명이 부여되는 황금어장이기 때문이다

군(軍)에 있는 어떤 교회도 2년 이상 그 교회에 머무는 병사 신자는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군(軍)선교를 지원하는 것은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바로 이점이 중요하다. 한국의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전도하여 끝없이 배출할 수 있다는 그 사명이 부푼 기대 속에 계속적으로 부여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군(軍)선교는 한계가 없고 정체가 없으며 한국 선교

의 지속적인 희망을 제공한다. 얼마든지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끝없이 고기가 모여드는 황금어장이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명이 계속적으로 부여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라. 군(軍)선교는 가장 효율적인 선교투자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인이라면, 그리고 교회에서 전도를 해본 성도라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또 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뼈저리게 느낀다. 그러나 커피 한 잔, 빵 하나로 전도되는 곳이 있다. 그곳이 바로 군대이다. 가장 어려운 여건과 환경, 힘든 훈련 속에 찾아오는 따스한 한 잔의 사랑은 '교회에 나오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감사와 위로 속에 스스로 결단케 한다.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군종목사, 군종병, 기독교전우회의 간절한 간구는 그의 마음에 옥토를 만들고 복음이 떨어지기 무섭게 싹을 내게 한다. 따라서 군(軍)선교는 투자에 따른 열매가 가장 효율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최고의 선교지이다(마 13:1-8).

마. 군(軍)선교는 복음 통일과 주체사상 극복의 영적 훈련장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통치 사상인 '주체사상'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복음'이다. 현재 우리는 이 주체 사상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통일 정책이나 대안도 우리 국민과 학생들에게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다. 통일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주장과 이론과 외침은 있지만 실제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지극히 미약하다. 민족 이질화 극복의 중심 사상과 남북한 이념의 하나 됨의 핵심 주제는 '복음'이라고 본 연구자는 믿는다. 영적 훈련과 무장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의 터전이 보장된 곳, 또한 일정 기간 모든 대한의 젊은이가 거쳐 가는 곳인 군대이기에 군(軍)선교는 젊은이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장이다.

바. 군(軍)선교의 과제

그러나 군(軍)선교는 많은 어려움과 과제를 안고 있다. 양적 성장에 비해 지속적인 양육과 제자훈련이 지극히 어렵고 미흡하며, 많은 세례신자에 비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된 제자가 많지 않으며, 군종목사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교회가 5개가 넘어서 과중한 임무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대대, 중대, 소대 군종병의 비인가에 따른 군종병 활동의 제한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대급 교회(군목이 없음)의 재정 부족과 선교 활동의 미약한 현실, 군목의 소신 있는 사명 감당에 어려움을 주는 계급과 진급의 특수성, 중도 전역과 군(軍)이 지닌 통제, 계급사회 그리고 지휘관에 따른 상황 변화 등 군(軍)선교는 항상 변수가 많다.

사. 60만 장병을 그리스도에게로

일은 끝이 없고 변화는 계속적으로 일어난다. 군종목사의 보직이 변동되고 기독교전우회(MCF)의 보직이 변동되며 열심히 일하는 군종병과 일꾼들이 제대해 나갈 때마다, 뒤에서 열심히 돕던 군인 가족들이 떠날 때마다, 군(軍)교회와 소부대 군종 활동 모임은 충격을 받는다. 이러한 면에서 군복음화의 지원은 표시도 나지 않으며 지원해도 밀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끝이 없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한 영혼 한 영혼이 군에서 신앙을 갖고 제대를 하여 민족 복음화의 큰일을 하는 것을 볼 때 군선교는 분명히 보람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군(軍)에 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다고 본 연구자는 확신한다. 하나님은 이 새로운 소망을 군복음화를 통해 이 땅에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 각 군의 부대교회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모시고 군종목사, 기독교전우회, 군종병이 한 지체가 되어 오늘도 묵묵히 '60만 장병을 그리스도에게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군인교회는 민간교회와 연합하여 군복음화를 통한 민족 복음화(2020년까지 75% 기독교 성도의 나라)의 큰 꿈을 비전2020실천운동을 통해 달성할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한국 교회와 군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21세기를 앞두고 큰 전환점에 서 있다.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 깨어 있어야 할 때이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이다.

2. 군선교의 주요 역사

가. 창설기

군중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군대 내에서 신앙 활동을 자발적으로 주도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은 만주 출신으로 일본 육사와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한 강문봉과 제12연대장 중령 백인기였다⁶⁾.

강문봉과 함께 군내에서 종교 활동의 필요성을 역설한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황기호 상사이다. 그는 참모총장 채병덕 장군, 인사참모부장 강영훈 장군의 지원 아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명동성당의 노기남 대주교, 불교 태고사를 방문하여 군중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성직자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한편 전북 군산에 주둔한 제12보병 연대에서는 제1대 연대장이었던 백인기 중령을 비롯한 장병들이 지역 민간 성직자들을 초청하여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육군 최초로 군 부대 안에서 종교 활동이 시작되었다⁷⁾. 이처럼 군이 창설되는 초창기에는 믿는 지휘관에 의하여 혹은 신자 간부들에 의하여 산발적으로 군대 내에서 예배가 진행되다가 1950년 3월에 이

6) 육군본부, 「군중50년사」(2003), p. 67.

7) *Ibid.*, p. 68

르러 공식적으로 육군본부에 군중 제도의 필요성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 한국전쟁

내부적으로는 전쟁이 한창 치열하던 때 한 미군 부대의 한국인 카투스(KATUSA) 병사가 당시 이승만 대통령께 “성직자가 군에 들어와 전투에 임하는 장병들의 가슴에 신앙의 첩관으로 무장시키고 기도로서 죽음의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올림으로써 표면화되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미국 감리교의 쇼우(William E. Shaw) 목사와 천주교의 캐롤 안(George Carroll, 安) 주교의 노력으로 1950년 9월 25일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병참 관계는 군에서, 군중 경비는 각 종단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군중 제도의 승인을 얻게 되었다.⁸⁾ 이 과정에서 군중의 신분은 문관이 좋겠다는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현역이 아닌 문관으로 결정되었다.

다. 육군 군중 제도 창설

대통령의 군중 제도 승인에 따라 1950년 12월 21일 이승만 대통령은 군중 제도 설치에 대한 대통령령 제29호를 국방부에 하달하였고, 이 지시에 따라 1951년 2월 7일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31호에 의거 육군본부 인사국에 군승과(軍僧課)가 설치됨으로써 육군 군중 제도가 창설되었다.⁹⁾ 당시 초대 군승과장은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던 대위 김득삼 목사가 임명되어 군내에서 공식적인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후 1951년 4월 14일 군승과라는 명칭이 천주교 조인원 신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목과

8) *Ibid.*, p. 70.

9) *Ibid.*, p. 70.

로 개칭되었다.¹⁰⁾

라. 무보수 촉탁시대

군승과는 1951년 4월 14일,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55호에 의거, 군목과로 개칭되었고 초대 군목과장으로는 장로교의 김형도 목사가 보직되었다. 이렇게 임관된 군종목사들은 전후방 각지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였는데 1955년 2월 22일에는 군중 3기 윤광섭 군종목사가 금화지구에서 순직하기도 하였다.¹¹⁾ 또한 후방에서는 주로 군 병원을 중심으로 하여 군중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많은 환자들이 이들을 통하여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마. 문관시대

무보수 촉탁시대 1년 3개월 만인 1952년 6월 16일, 국인명 제58호에 의거, 4명이 문관 2급 4호로, 59명이 2급 6호로, 76명이 3급 8호로, 계 139명이 문관으로 정식 임명되어 최초로 유급으로 군에서 일하게 되었다.¹²⁾ 1952년 8월 3일에는 첫 군목 수련회를 울산 목도 해수욕장에서 개최하였고 1952년 8월 9일에는 육본 교회가 천막으로 교회를 세우고 “육본 군인교회”라는 명칭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하였다. 같은 해 9월 28일 제주도 제1훈련소에 석조로 된 강병대 군인교회를 건축하여 훈련 중에 있는 장병들에게 선교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¹³⁾ 이렇게 초기 군종목사들의 열심 있는 활동으로 최초의 육군 종교별 신자 통계가 나왔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기독교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10) *Ibid.*, p. 71.
11) *Ibid.*, p. 75.
12) *Ibid.*, p. 75.
13) *Ibid.*, p. 76.

최초의 육군 종교별 신자 통계 (1953년 4월 29일 기준)

종교별 신급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기타	계
세례/영세	9,856	3,076				12,932
원입교인	18,796	2,618	5,055	8,908	6,842	42,219
계	28,652	5,694	5,055	8,908	6,842	55,151

바. 군종감실 설치

1953년 7월 28일 육군본부 작전 참모부에 군종감실의 기능 및 편제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인사국에 속해 있던 군목과는 폐지되고 1954년 1월 12일부로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9호에 의거, 군종감실 설치령이 하달되어 독립하게 되었고, 동년 2월 18일 경북지구 관제과의 건물을 얻어 군종감실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¹⁴⁾

그 후 1954년 12월 13일 육본 광장에서 육군참모총장 장일권 장군에게 중위부터 대령까지 135명이 임관 신고를 함으로써 군종 역사에 현역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 군선교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였는데 1955년 5월 17일 서울 용산에 육군본부 군인교회가 헌당되어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고 헌당예배를 드렸고, 1956년 10월 1일에는 육군 찬송가를 만들어 일선에 보급함으로써 군복음화의 기틀을 하나하나 다져 나갔다.¹⁵⁾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2월 8일에는 미 8군 수양관에 믿음의 장교들이 모여 기독교교회를 창설하여 군대 내에서의 선교 활동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65년 9월 26일 전투부대의 월남 파병에 따라 맹호사단의 군중참모 중령 박민수 목사를 비롯한 4명의 군종목사가 파월되어 근무하면서

14) *Ibid.*, p. 78.
15) *Ibid.*, p. 80 당시 육군 찬송가는 합동찬송가에서 200여 곡을 발췌하여 팸플릿 165-1로 육군 찬송가를 발간하였다.

군선교에 힘쓰게 된다.¹⁶⁾

사. 전군 신자화 운동(1인 1종교 갖기 운동)

신자화 운동의 동기와 목적은 당시 1군 사령관 한신 장군이 군내에 보호사병, 즉 출감자, 이상 성격자, 무의탁 사병, 극빈 가정 출신 사병 등 군의 문제 장병이 무려 13,200여 명이나 된다는 보고를 받고 “13,200명이라면 1개 사단 병력인데 군의 문제 장병이 1개 사단 병력이나 된다는 것은 국력의 낭비이며 나아가서는 군내에 큰 위협 요소가 되는 것이니 이 문제 장병 해소를 위해 그들을 전부 교회로 보내 전원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 성실한 신자로 만들라”고 지시를 하였다. 그래서 군중목사들은 보호사병 선도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동시에 많은 효과를 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자화 운동을 더욱 가속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른바 “1.21 사태” 및 울진·삼척 공비 침투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반공정신을 군의 정신무장의 기저로 삼고자 지휘관들이 관심을 가졌고 때마침 한신 장군이 1군 사령관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반공을 위한 정신무장 강화는 전군을 신자로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하고 군중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 군을 복음으로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인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군(軍)에는 기독교 신자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 성숙기

1960년대 후반에 일기 시작한 전군 신자화 운동의 성과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장 나타나기 시작했다.¹⁷⁾

16) *Ibid.*, p. 83 당시 군중참모 외 파월된 군중목사는 보좌관 소령 손인화 목사, 기갑연대 김상우 목사, 제1연대 손인화 목사, 근무지원단 기해동 목사 등이다.

신자대 사고자 수 증감 현황

연도	1970	1971	1972	1973
군 신자수	110,033	174,354	243,346	279,102
군 사고자수	19,248	14,708	11,200	9,041

당시 큰 관심사였던 보호 사병들이 감소되자 이에 고무된 육군은 1974년 인사사업 중에서 1973년 말 종교인 수를 50%로 증가시키기로 정책 사업을 채택하여 전군에 하달하였다.

이때 괄목할 만한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첫째는 합동세례식을 통해 대량의 기독교 신자가 만들어졌다. 이 합동세례식은 1971년 9월 13일 보병 21사단 66연대에서 당시 연대장이었던 유정목 대령이 전군 신자화 운동은 지휘관 자신이 솔선하여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직접 153명의 장병들을 이끌고 당시 군중목사였던 중위 이상강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시초가 되어 유행병처럼 전군으로 번지기 시작했다.¹⁸⁾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한 위대한 역사라고 본 연구자는 확신한다.

둘째는 내무반 교회화 운동으로 복음을 좀더 세밀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 내무반 교회화 운동은 보병 제 1사단에서 일어난 총기난동 사건이 당시 군중목사였던 중위 이의현 목사에 의해 잘 수습되자 당시 사단장 문홍구 장군은 문제 사병들의 정신 지도는 군목들의 정신교육보다 제일 효과적이겠다고 판단하고, 사단 전 군목으로 하여금 매일 밤 전 내무반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종교집회를 실시할 것을 명한 것이 효시가 되었다. 당시 이 운동은 사단 내에 사고를 급격히 줄이는 데 큰 공

17) *Ibid.*, p. 89.

18) *Ibid.*, p. 90.

을 세움으로서 전군 최우수부대로 선정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고무된 당시 군중감 대령 권현찬 목사는 이 내무반 교회화 운동을 정식 군중 업무로 채택하게 하였다.

자. 신앙전력화 휘호 하달

1976년 6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신앙심을 통한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신앙전력화(信仰戰力化)' 라는 휘호를 군중감실에 하사하였다. 이것 또한 우리가 선교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군복음화를 통한 민족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차. 종단별 공식 후원 창구 단일화(국방부 인준 918.1-145)

1981년 8월 28일 군 종교단체 운용 정상화에 대한 공문을 국방부에서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전군 신자화 후원회"에서 "군복음화 후원회"로 개칭된 기독교 후원회는 기독교 군선교 후원 단일 창구로 인준을 받아 활동하기에 이른다.¹⁹⁾ 그 후 1988년 9월 11일에는 군복음화 후원회가 사단법인 단체로 문화체육부로부터 인준을 받음으로써, 군복음화 후원회는 군 선교의 단일 창구로서 자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 후 "군복음화 후원회"를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로 개칭을 하고 비전2020운동에 적극 후원하기에 이르렀다.

군(軍)선교의 주요 역사 정리

구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특징	군종목사 제도 창설	전군 신자화 운동	신앙전력화 운동 (제1차진중세례운동)	군복음화 운동 (진중교회당 건축)	비전2020실천 운동 (제2차 진중세례운동)	인류복음화
기록 사항	OCU설립 (1956)	1인 1종교 갖기(1969)	군선교 연합회설립 (1972) - 전군 신자화 후원회 진중세례운동(1973) 신앙전력화 휘호 하달 (1976)	종단별 후원 창구 일원화 (1981) 세계기독교장교대회(1984) 군복음화보창간(1987) 한국군종사단 설립 (1986)	제2진중세례운동(1990) 육·해·공군본부 교회당 건축 (1996) 대북 종교방송(1995) 군인신자연결양육(1998) 21세기 기독교운동선언 (1998)	세계선교의 교두보 (중심) 한국군선교를 모델로 세계 선교에 기여
특기 사항		청와대 침투 사건(1968) 삼척 울진 등 무장간첩 침투 전국 복음화 운동(1965)	새마을운동 빌리 그레이엄 전도집회 (1973) 엑스플로 74 전도집회 (1974) 민족 복음화 대성회(1977) 기독교인수 300만 명 (1974)	한국 교회100주년(1984) 교회개혁운동 서울올림픽 (1988) 기독교인수 764만 명 (1984) 선교 100주년	한국 교회 침체기 한국 교회 군선교 재인식 기독교인수 1,000만 명 (1990)	기독교인수 3,700만 명 (2020년) 러시아 군선교

3. 군(軍)선교의 10대 특징

선교는 그 대상에 따라 각기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늘 다양성을 가지

¹⁹⁾ Ibid., p. 106.

고 있다. 그러므로 선교는 그 특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군(軍)선교도 마찬가지이다. 군(軍)선교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이기에 다음과 같이 10가지 특징을 갖는다.²⁰⁾

가. 대상적인 면

군선교의 대상은 신체와 지성 등 모든 면에서 국가가 공인하는 우수한 젊은이들²¹⁾, 즉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내일의 주역이 되는 세대이다.

나. 기능적인 면

군대는 순환조직 사회이다. 매년 35만 명씩 입대하고 전역을 하게 된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항상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대상들이 새로운 인물이라는 점이 복음 전파에 대한 도전 의식을 갖게 한다.

다. 동원적인 면

군대는 명령계통이 철저한 곳이다. 그러므로 지휘관이 명령하면 일시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집결할 수 있는 곳이다. 지휘관 한 사람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한 것이어서 지휘관 1명만 전도가 된다면 그를 통하여 보다 많은 사람을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 군선교의 특징이다.

라. 심리적인 면

인간은 누구나 종교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 사랑하는 부모형제, 그리고 애인 곁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그들로서는 심리적으로

불안, 위축, 긴장된 상태이므로 선교학적으로도 가장 복음을 잘 받아들일 심리적 상태가 되어 있다.

마. 안보적인 면

장병들이 무엇보다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사생관이 확립되어 있을 때 강한 군대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의 6일 전쟁 당시 소국 이스라엘이 대국 아랍연맹을 대항하여 싸울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승리하였다는 사실은 남과 북이 대치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그러므로 군(軍)선교야말로 필승의 군대로 양병하여 민족과 조국의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라고 볼 수 있다.

바. 교회 선교 역사적인 면

연간 22만 명의 젊은 군인에게 세례를 주는 나라, 1회에 5,6천 명의 젊은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이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축복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 한국이야말로 세계 선교의 마지막 교두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입증하는 증거이다.

사. 파급적인 면

우리는 성경의 백부장 고넬료가 예수를 믿으므로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로마 군대로, 세계로 파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 명이 두 명, 두 명이 네 명이 되는 기하급수적인 파급 효과로 전 국민의 75%를 신자화하겠다는 청사진을 한국 교회에 제시할 수 있는 곳은 군(軍)선교 현장뿐이다.

아. 경제적 면

작은 투자로 결실을 크게 맺을 때 경제적 부가가치는 점점 더 증대될 수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자. 일반교회에서 불신자 한 명을 전도하려면

20)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op. cit.*, p. 23

21) 현재, 현역의 경우 고졸 이상의 학력과 신체등급 2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소요되는 경비가 어느 정도이겠는가? 1년간 약 9백만 원 정도를 들여서 3,000명의 세례 신자를 만들 수 있겠는가? 군(軍)선교야말로 작은 투자로 확실한 결실을 맺는 경제성 있는 선교 영역이다.

자. 시간적인 면

군(軍)선교는 일반적 시제로는 국가가 존립하는 동안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이다.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어도 군은 존재한다. 또한 신앙적인 시제로 볼 때에도 군(軍)선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본 연구자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차. 연합적인 면

군인교회는 교파가 없다. 또한 교단을 초월하여 군(軍)선교에 협력하고 있으며, 군선교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 연합 사업인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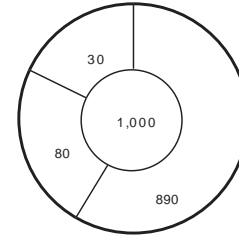
4. 군(軍)선교 현장의 주요 현황

가. 기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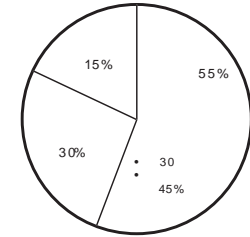
군(軍)선교 사역자				교회 당수	신자수	신자 비율	군별 군종병과장
군목	일반지원 교역자	군종 행정관	군종사병				
약 280명	약 350명	약 30명	약 2,000명	약 1,000 동	약 30만 명	약 55%	국방부 군종실장-목사 육군,공군/목사, 해군/법사

※ 교회당은 약 95%가 교회와 성도들이 후원하여 건축된 기부채납 시설물임

나. 군(軍)별 예배당 현황



다. 종교인 종파별 신자 비율



라. 최근 연도별 세례(침례)신자 현황(단위:명)

연도별	합계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인 원	1,089,000	162,000	156,000	182,000	186,000	187,000	216,000

제2절 비전2020실천 운동에 대한 이해

1. 현 군선교의 문제점

가. 한국 교회 - 전문성 결여, 개교회주의, 실적 위주의 1회성 행사
현재 한국 민간교회는 군인교회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잘 모른다. 어떻게 보면 군(軍)선교란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나 사실인즉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민간교회에 비하여 제약된 사항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군(軍)선교는 전문성이 있는 군종 목사를 통하여 자문을 얻어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또한 개교회, 개교단 중심으로 산발적인 후원을 하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 한국 교회의 군(軍)선교는 전략 부재와 함께 연합적인 응집력이 취약하여 투자에 비하여 그 효력이 미미한 실정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간교

회가 행사 중심의 일회성 지원(연 1회 위문을 군선교로 생각)에 그침으로써 계획성 있는 군선교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많은 교우들의 자녀가 군에 입대할 터인데도 교회 차원의 군선교 전담 부서 및 조직이 부재한 형편이고²²⁾ 교회 청년들의 군 입대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는 것이 미흡하여 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군 생활을 선교의 도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병역 의무로서 매우 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개교회에서는 기독 청년의 입대 전 군 적응 훈련 및 군선교사로 파송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나. 군인교회 - 지도자 부족, 초신자 양육 미흡, 문화프로그램 부재
현재 우리 군(軍)에는 예배당 수에 비해 군종목사가 절대부족(1,000교회 : 280명)한 실정이다. 양적 성장에 비해 양육 및 제자훈련이 미흡하고, 군 세례신자들의 효과적인 관리와 전역 후 일반교회와 연결하는 비전 2020운동의 후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신세대 장병들을 위한 기독 문화 선교 프로그램이 없어서 장병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르게 잡을 힘이 미약하고, 군선교에 협력하는 일반 민간 교역자들에 대한 관리 미흡 및 제도적인 조직 부재로 인하여 일부는 군선교에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주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2. 비전2020실천운동이란?

비전 2020실천운동은 매년 군대에 들어오는 30여만 명의 국군장병들

22) 필자가 2002년 미국의 성장하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갈보리교회(척 스미스 목사 시무) 현장에서 군에 간 성도들의 자녀 사진이 걸려 있고 조직적으로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이미 세례를 받고 들어오는 3만 명을 제외한 27만여 명 중에서 매년 22만 명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2003년에는 156,000명, 2004년에는 162,000명에게 세례를 주었다.²³⁾

또한 비전2020운동은 장병들을 장성한 기독교 신자로 양육한 후 매년 25만 명씩 민간 교회로 안전하게 파송한다는 계획이기도 하다.

이렇게 된다면 서기 2020년경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5000만여 명으로 추산할 때 전체 인구 75%가 기독교 신자가 되어 명실 공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즉 비전2020이란 서기 2020년도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 5000만여 명 중 3,700만여 명을 기독교 신자로 만들어 명실 공히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됨은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선교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웅대한 꿈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전2020 실천운동은 국가에 대해서는 애국애족하는 운동이며, 군에 대해서는 신앙 전력화 운동이 되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21세기를 주도하여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에 이바지하는 운동인 것이다.

3. 비전2020실천운동의 3대 중요 전략과 목표

가. 전도 전략

매년 군대에 들어오는 30여만 명의 국군 장병들 중에서 22만여 명의 영혼을 구원하여 진중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목표를 가진다.

나. 양육 전략

매년 세례 받고 군에 들어오는 3만여 명과 군에서 세례 받은 22만 여명

23)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제 14회 군종목사 영성훈련 세미나」(2005), p. 40.

의 기독교 신자 장병들을 장성한 기독교 신자 장병으로 양육한다는 목표를 가진다.

다. 파송 전략

매년 군대에서 제대하는 25만여 명의 기독교 신자 장병들을 군인교회에서 민간교회로 안전하게 파송하는 것과 인수인계하는 목표를 가진다.

4. 비전2020실천운동의 5단계 실천 전략

가. 1단계 전략 : 입대 전 전도 / 양육

첫째로 민간교회, 대학생 선교단체와 공조한다는 전략이다.
둘째로 민간교회별 군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리는 전략이다.
셋째로 군선교사 훈련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전략이다.

나. 2단계 전략 : 입대 후 전도·세례 / 양육

첫째로 적극적인 진중 전도와 세례를 통하여 신자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둘째로 진중 군인신자를 양육(성경공부)하는 전략이다.

다. 3단계 전략 : 군인신자 교적카드 수집

이 전략은 통일된 군인신자 교적카드 양식 및 발송 봉투를 활용하여 군인신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되 연대급 이상 군인교회 담임목사가 책임지고 군인신자 교적카드를 작성·발송하고, 대대 군종병/연대급 군종병/기독교간부/여전도회원 중 실무책임자로 임명한 후 실무를 담당(임명직분: 비전2020추진 부장/차장/위원)하여 군인신자 연결 업무가 차질 없도록 하는 것이다.

라. 4단계 전략 : 군인신자 실천(일반)교회 연결

이 전략은 군목 파송 10개 교단에서 추천한 약 3천여 교회 중 본 운동에 참여하기로 등록한 교회를 비전2020운동 실천교회로 정하여 군인신자를 연결토록 한다(연결통지서 월 1회 송부).

실천교회는 전국을 지역별로 골고루 선정(시는 구 단위, 군은 읍, 면 단위에 1개처 이상)하고 군선교에 관심 있는 교회나 대학, 청년부 조직이 있는 교회 그리고 청·장년 평균 출석 300명 이상된 교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연결 기준은 거주지 주소 최 근거리에 있는 실천교회로 연결(전산시스템 운용)하고 일반 신청교회는 월 1회 심의하여 등록한다.

마. 5단계 전략 : 미래 출석교인(연결된 군인신자) 관리(양육)

첫째로 연결된 군인신자를 관리함에 있어서 세워진 방침은 다음과 같다.

- 사랑의 10대 실천 프로그램 실시
 - 전역 후 반드시 본 교회 등록 영접을 확인(종결)
 - 21세기 한국 교회 성장 프로그램으로 발전(이론 체계화)
 - 군인신자 관리 기록카드(표준양식부록)에 의하여 약 25개월 양육 기록 유지
 - 실천교회 관리 기록카드에 의하여 본부에서 관리
- 둘째로, 사랑의 10대 실천 프로그램 실행한다.²⁴⁾
- 사랑의 등록 : 군인신자를 미래출석교인으로 등록
 - 사랑의 청지기 : 1:1 집중 관리자 선정 및 전담부서 조직
 - 사랑의 기도 : 1:1:1 기도 실천, 공식집회시 기도
- 매일(1'), 그 영혼, 그 부대(1')를 위해서 1분(1') 이상 기도

24)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본부, 「비전2020운동 실천자료집」(1999), p. 75.

- 사랑의 편지: 매월서신, 주보, 책자 등 우송
- 사랑의 선물: 절기별 기호품 선물 전달
- 사랑의 심방: 연1회 부대 방문 심방
- 사랑의 초청: 휴가 외박시 교회로 초청
- 사랑의 영접: 전역시 영접환영 예배
- 사랑의 전도: 가족 전도의 기회로 활용(평소)
- 사랑의 헌금: 전도, 세례 경비 후원(1명 세례 - 3천 원)

5. 비전 2020실천운동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

가. 군인교회의 역할

(1) 진중세례식 진행

목표는 매년 22만여 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이는 민간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군인교회만이 갖는 유일한 축복이라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군인교회는 이 선교의 장이 세계 선교의 마지막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신중하게 세례식을 진행하여 좋은 씨를 뿌려야 할 것이다.

(2) 전입병 교육

중요한 것은 세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세례된 이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공동체 훈련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병사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우수 부대는 포상 외출을 시켜 주도록 지휘관으로부터 결재를 얻는 등의 동기부여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병사의 신상을 파악하여 지역별로 선정된 민간 군 선교 회원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사실을 병사에게도 알려 주어 기대감을 가지도록 해야 하며, 이것 때문이라도 교회에 착실히 참석하는 단순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전입병의 연약함을 명심하여 늘

배려해 주고 교육해야 할 것이다.

(3) 전역 감사 예배

24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전역 감사 예배를 매월 드리면서 그동안 자매결연을 맺은 교회에 출석할 것을 마지막으로 종용하고 신상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차후 전역자 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날에 자매결연을 맺은 교회에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나. 비전2020운동을 위한 기독 간부의 역할

(1) 적극적으로 복음을 선포 및 증거해야 한다.

성경공부 그룹을 형성하여 참가하고 지도할 수 있으며 선교 관련 자료 등을 부대에 배포하고 전도 및 양육 프로그램(찬양경연대회, 성경암송대회, 전도왕 선발, 모범 십자군 선정 표창)을 개발하여 부대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입병 환영, 환자 방문, 초소 방문, 교도소 방문 등 봉사활동을 통하여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며, 교회의 요청에 의거하여 신앙 간증을 실시하고 복음밴드를 구성하여 참가 혹은 지원하고, 가정으로 장병을 초청하여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며, 가족이 교회 활동에 봉사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등 그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2)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군목의 지도에 순응하고 공적 예배에 참가하며 기타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지원할 수 있고 교인들에게도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 성경연구, 찬송, 가정예배, 헌금생활 등 사적 신앙생활에 충실하고 MCF활동에 적극 참가하며, MCF 및 신우회 활동을 지원하는 등 모든 언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3) 모범적으로 군복무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하들에게 헌신, 사랑을 실천하고 동료들에게 신의, 협조를 실천하며 상관에게 충성, 존경을 실천하고 업무에 정통하고 근면하며 부대의 지휘 관리에 우수하고 성실히 하는 등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4) 군(軍)선교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기 위해 각자의 직책과 영향력을 활용해야 한다.

기독교 장병들이 신앙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일예배, 수요일 저녁예배, 새벽기도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선교 활동에 중요한 직위에 기독교 장교 및 부사관을 보직하며 취침 전 명상의 시간을 기도 시간화하고, 모든 행사·집회·회의시에 군종목사의 축도를 포함하여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 비전2020운동을 위한 민간교회의 역할

(1) 육군 훈련소 및 사단 신병교육대의 진중 합동 세례식 소요경비 지원

(2) 군인교회 성전 개축 및 건축비 지원

(3) 군인교회 장병 위문예배 및 찬양예배 지원

(4)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선교후원금 지원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 곧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귀한 모습이기 때문에 군(軍)선교에 관련된 기관의 각자의 역할과 연합은 참으로 중요하다.

제3절 군인신자 연결과 양육 관리에 대한 이해

1. 진중세례 군인신자 관리 목표

진중세례자는 연간 20만 명에 달하므로, 이 진중세례자를 전국의 군

선교 회원교회²⁵⁾에 연결하여 전역 후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그 목표이다.

2. 진중세례 군인신자 관리 방침

입대 후 신병교육 기간²⁶⁾ 중 군인교회에 초청하여 예비 세례신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신병훈련소 퇴소 이전에 진중세례식을 거행하고, 세례자 명단을 주거지 민간교회(군선교 회원교회)에 통보하여 연결하고, 전역시까지 사랑의 10대 실천프로그램 중심으로 양육하고, 전역 후 교회출석 및 모범 기독교신자로 사회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3. 진중세례 군인신자 연결 체계

진중세례 군인신자 연결 체계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군인교회	군선교연합회 (비전2020본부)	군선교회원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도/진중세례(침례) · 군인 신자카드 작성 및 전산 입력 · 군인신자카드 송부 (실천본부) · 군인신자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신자 카드 접수(전산 디스켓) · 분류/전산처리 · 명단 - 군선교 회원교회 송부 · 군선교 회원교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지회) - 수도권(본회) · 종합점검 및 정책 개발 · 전산시스템 개발 및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의 10대 실천 · 입영 전 기독교 청년 교육 · 관계자 교육과 지역 내 교육 협조

26) 현역은 6주, 공익근무요원은 4주를 받는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 복무 연한 단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이 없어지고 모두 현역입영 대상자가 되고 교육기간도 5주로 짧아진다.

4. 연결 군인신자 양육 체계

우선 연결 군인신자는 미래 출석교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 하여야 한다. 연결 군인신자 양육 체계는 크게 본인 접촉과 가족 접촉으로 나눌 수 있다.

본인 접촉의 대상자는 장병,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이 되며, 사랑의 10대 실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회별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전술 개발을 하고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 접촉의 대상자는 훈련병으로, 그 양육 전략으로는 본인의 최종 배속된 부대주소를 파악하고 접근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족들 대다수가 불신자이거나 타종교인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자가 세미나에 참석하여 현장의 음성을 들어 보았는데, 부모 입장에서 군에 간 아들이 기독교인(세례신자)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족들은 대단히 놀라며 부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않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종교적 차원의 접근을 하기보다는 아들의 성공적인 군 생활을 위해 정성껏 돌본다는 차원의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접근하는 방법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부대주소 파악 후에는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랑의 실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겠다.

5. 연결 군인신자 양육 관리

진중세례 군인신자는 전담자를 임명하여 군인신자의 자료를 검토하고 가족사항 등을 수집 분석하며, 주변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가족을 접촉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가족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협조를 구하고 전도 운영 체제를 만들어 관리하며, 세례자를 대상으로 접촉을 시도하여 휴가시나 면회의 기회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다.

6. 연결 군인신자 심방(면회)

연결 군인신자에 대한 면회를 심방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육군 규정상 신병 면회 허가 시점은 부대 전입 후 100일 경과 시점으로 잡고 있으며, 면회 시간은 토요일은 13시-18시(동절기 17시까지)로, 일요일은 08시부터 18시(동절기 17시까지)로 잡고 있다. 또한 국경일, 경축일, 명절날은 면회 가능 시간으로 잡고 있으며(시간은 일요일에 준함), 평일 면회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섭외 후 일과 마친 후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²⁷⁾

제4절 군선교 전략에 있어서 민간 교회의 역할

1.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마 10:16).

군선교의 법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다. 일관성 결여, 임기응변식, 각 교회별로 산발적인 후원은 효과 면에서 절대 반감 현상이 나타난다. 전략이 있어야 한다. 연출자에 의해 종합 전술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은 전문시대이다. 전문기관과 협의 또는 의뢰하여 분석되고, 확인된 전체 상황의 바탕 위에서 실행할 때 결과는 갑절이 될 것이다.

군대는 전략과 전술이 생명이다. 군선교도 종합 전략과 전술이 실제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각 교단, 교회, 개인이 전문기관과 함께 상황 여건과 능력과 목적에 알맞은 전술이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 그야말로 군선교

27) 육군본부, 「병영생활지도지침서」, 1999.

는 망원경적 상황 인식과 현미경적 상황 분석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비전2020운동은 군인교회, 군선교연합회 비전2020실천운동본부, 민간 후원교회가 함께 그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군인교회는 전도와 세례, 일반교회는 기도와 물질 후원, 실천운동본부는 연결, 관리 등 그야말로 종합 작전을 실현해야 한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단점 중 하나가 단독 드리블이다. 군인교회는 교단도 교파도 없다. 영적 전쟁을 하는 야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균등한 재정 지원과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일 내에 후원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무엇보다 군선교에서만큼은 연고지를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연고지를 내세우다 보면 종합 전술은 적용되지 않는다. 군선교만큼은 목적지향이 되어야 한다. 한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3.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해야 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요 12:24).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

매 혹 백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마 13:3-9).

한 알의 밀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원리는 그리스도인이면 꼭 기억해야 한다. 각 교회와 성도들은 한 알의 밀처럼 죽는 심정과 자세로 인생의 옥토인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군선교 현장에서 물질과 기도로 심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다.

군선교는 한 알의 밀, 즉 씨앗이 필요하다. 그 씨앗은 물질과 기도이다. 연간 진중세례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장 군종목사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수고가 있기에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물질이 필요하다.

특별히 훈련받는 병사들은 단 음식을 먹고 싶어 하기 때문에 초코파이, 콜라, 스넥, 초콜릿 등 입을 즐겁게 하는 것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말씀을 통한 영의 양식과 선호하는 육의 양식인 간식거리가 효과를 나타낸다. 예수님께서도 빈들에 모인 청중들을 위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베푸셔서 굶주린 그들에게 배부르게 먹도록 복을 주셨다(마 14:13-21).

모든 선교와 전도에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다. 적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두는 효율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의 유익보다 미래를 보고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성경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와 같이 선교도 투자한 만큼 두 배, 다섯 배, 그 이상으로 남겨야 한다. 군선교는 불신 영혼 한 명을 전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일반교회에서 투자되는 비용보다 몇 갑절 저렴하다. 한 예로 진중세례식에 소요되는 1인 비용은 평균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이다. 즉,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하는 것이 곧 군선교이다.

나가는 말

군대는 적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황금어장이라고 불려진다. 마치 고기떼를 가두어 놓은 양어장과 같아서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것처럼 군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해마다 35만여 명이 입대하고 전역해 나가는 현실 속에서 이들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군선교 활동은 민족이 복음화되는 지름길이다. 문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비전2020실천운동이라는 민족 복음화의 실제적인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 비전2020실천운동의 핵심은 군인교회와 군선교연합회, 그리고 후원 민간교회와의 연합에 있다. 특별히 군선교에 있어서 민간교회의 역할에 대한 본 연구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선교 회원교회의 담임목사의 관심과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담임목사의 관심은 곧 교회의 관심사이다. 그러므로 담임목사가 군선교에 관심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온 교회도 군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둘째, 전담 교역자 및 담당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군선교에 대한 전문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전담 교역자나 담당자가 되다면 군인교회나 군선교연합회와 보다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보다 더 원활한 협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비전2020실천운동 관련 자료의 보존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연결 군인신자 카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중요한 신상정보가 들어 있다. 그러므로 카드 한 장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며 담당자가 바뀔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함으로써 한 명의 대상자도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넷째,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을 위한 유기적인 지원 능력이 구축되어야 한다. 사랑의 양육 10대 실천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최소의 배려이기에 전 교회적인 지원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다섯째, 무엇보다 전교인의 기도와 성원이 필요하다. 군선교를 통한 민족 복음화를 이루려는 열의는 온 성도들의 기도와 성원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군선교를 위한 민간교회의 역할이 민족 복음화의 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군선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청중에의 적응에 관한 연구

-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설교를 중심으로 -



최석환 군종목사



I. 서론

1. 문제 제기

「지루한 설교를 듣는 동안 할 수 있는 101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다.¹⁾ 또한 「설교가 전달되지 않는 18가지 이유」라는 책도 있다.²⁾ 이러한

■ 최석환 목사

-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8학기(실천신학)
- 육군 제71사단 선승교회 담임목사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제목의 책들은 설교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제이 애덤스(Jay E. Adams)의 경고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보수주의자들이 가장 비참하게 실패하고 있는 바로 그 점은 전달의 영역 속에 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적응의 부족에서 기인하였다.”³⁾

여기서의 ‘적응’이란 ‘청중에의 적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⁴⁾ 설교자들이 현대의 청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황성철 교수는 “21세기를 대비한 설교문화”라는 글에서 21세기 설교자들이 의식에 있어서(틀거리 전환 혹은 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지 수용이 문자 수용보다 쉬운 세대인 지금보다도 더 진보해 있을 21세기의 설교자들에게는 이미 전통을 운운한다는 사실 자체가 설득적일 수 없다는 것이 본 소고의 주장이다. 멀티미디어 세대인 만큼

1) Tim Sims and Dan Pegdda, *101 Things to do During a Dull Sermon*(Bastbourne: Minstrel, 1988)

2) 박영재, 「설교가 전달되지 않는 18가지 이유」(서울: 규장문화사, 1998). 박영재 교수는 공감대 형성을 방해하는 요인들, 진부함에 빠지게 하는 내적 요인들, 전달과 소통을 가로막는 방법상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설교가 잘 전달되기 위한 18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감대를 형성하라. 2. 공감대 형성의 원리를 활용하라. 3. 창문 너머 사물(진리)을 보라. 4.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라. 5. 긴장을 유지하라. 6. 청중의 수준을 뛰어넘어라. 7. 평범한 본문을 독특하게 만들라. 8. 힘을 불어 넣어라. 9. 들리게 말하라. 10. 감정에 파도를 치게 하라. 11. 귀납법적 접근을 하라. 12. 주입하려 하지 말고 설득하라. 13. 예화를 정확히 사용하라. 14. 예화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라. 15.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라. 16. 감각 있는 설교를 위해 커뮤니케이션의 7대 원리를 적극 활용하라. 17. 설교 감각을 키우기 위해 5단계 기초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익숙해지라. 18. 무릎으로 설교의 힘을 키우라.

3) Jay E. Adams, 「설교연구」, 정양숙·정삼지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p. 158.

4) *Ibid.*, p. 88.

각종 정보와 음악 및 온갖 류의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가 집약된 매스 미디어에 익숙해지고 있는 시대의 아들들에게 구태의연한 방법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인터넷을 통하면 당장이라도 출처 불명의 새로운 신화사상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세계의 정보가 손에 잡힐 듯이 물려오는 판국인데, 어찌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설교의 형태는 종래와 다를 바 없이 획일적이고, 판에 박은 듯 봉어뿔처럼 양산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본 설교자라면 자신의 설교 형태에 여러 번의 숙고와 변화를 시도해 보지 않은 이는 적지 않을 것이다.”⁵⁾

설교의 내용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포이다.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설교의 형태는 청중과의 접촉점을 위하여 다양할 수 있다.⁶⁾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는 청중에게 시대적으로 상응하는 형태의 설교를 해야 된다. 설교자는 설교를 받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분석해야 한다.⁷⁾ 설교자가 청중에게 맞는 적절한 설교를 준비

5) 황성철, “21세기를 대비한 설교 문화,” 『한국 교회』, 2(1)(1997), p.15.

6) 라이튼 포드(Leighton Ford)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신다.……신약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규정된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한 가지 기술을 사용하시는가? 융통성 없고 틀에 박힌 방식으로 전파하시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예수님은……각 개인들을 그에 맞는 독특한 방법으로 다루셨다.” Leighton Ford,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 이숙희 역(서울:조이선교회, 1993), pp.149~150. 같은 책 pp.106~107과 p.117도 참고하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표준적인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셨다. 주님께서 우물가의 여인과 함께 계셨을 때 생수에 대해 말씀하셨으며, 어부들과 함께 계셨을 때 고기 잡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으며, 농부들과 함께 계셨을 때 씨 뿌리는 일에 대해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가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각양 각색의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7) 청중은 급변하는 기술사회에 살고 있다. 1776년 제임스 와트(James Watt)에 의해 증기기관차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인간이 최대로 낼 수 있는 속도가 16Km이었고, 마차와 뚝단배의 속도가 최대의 속도였다. 이 세대에 서울에서 파리를 마차로 가게 되면 논스톱으로 달려도 900일이 소요된다. 그러다가 증기기관차가 나오면서 최고 속도가 시속 104.5Km이었고 서울에서 파리를 6일 안에 갈 수 있게 되었다. 1950년대에는 프로펠러 비행기가 나오면서 속도를 시속 500Km로 끌어올렸고, 서울에서 파리를 30시간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시속 900Km의 제트 여객기로 10시간이면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에 청중의 적응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 않는다면 “악하고 게으른 중”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연구 목적

필자는 고린도전서 9장 20-23절의 말씀이 바울의(바울의 증언이 그의) 설교에도 적용되었음을 증명해 보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설교자의 청중의 적응에 관한 확고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의 설교들은 각각 다른 청중에게 행해졌다. 바울은 변하지 않는 복음을 색다른 청중에게 여러 모양으로 전파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청중의 적응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21세기의 한국 교회 청중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내려고 한다.

3. 연구 방법

첫째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설교들을 중심으로 ‘설교자의 청중의 적응’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세우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릭 워렌, 스펄전, 박영재 등의 청중의 적응 방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청중들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적합한 적응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 설교자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4. 설교에 대한 정의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잘 표현하여 양떼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끼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⁸⁾ 보다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설교’란 만남이다. 설교란 “구속주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만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⁹⁾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함으로써 청중이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깨닫게 하고 은총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

본 소논문의 주제인 ‘청중의 적응(audience adaptation)’이라는 말은 두 국면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했다. 첫째 국면은 청중이다. 청중이란 설교를 했을 때 설교자와 그의 메시지에 심리적으로 적응된 사람들을 가리킨다. 둘째 국면은 청중에게 향하는 설교자의 적응이다. ‘적응’이란 말은 직접적이거나 근본적인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분석함으로 메시지를 제시하는 설교자의 능력을 의미한다.¹⁰⁾

II. 청중의 적응에 관한 성경(의 본보기들)적 근거

제이 애덤스(Jay E. Adams)는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청중의 적응”이라는 글에서 바울의 설교의 단면인 ‘청중의 적응(audience adaptation)’을 다루었다.¹¹⁾ 그는 바울이 의식적으로 그의 설교를 포함한 선교활동에서 적응에 관한 원리를 사용했다고 단언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9장

8) 박희천, 「나의 설교론」(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6), p. 29. 이 정의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의 내용과 재료, 조리 있게 잘 표현하는 전달 방법, 양떼들의 마음에 감동을 끼치는 결과 또는 효과가 그것이다.

9) 정성구, 「한국 교회 설교사」(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6), p. 1. 휴즈 올리펀트 올드(Huges Oliphant Old)는 설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에 신앙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이다(Preaching is the instrument (that) God uses to produce faith in the human heart)”. Huges Oliphant Old, “The Reading and Preaching of the Scriptures in the Worship of the Christian Church”, volume 1 The Biblical Period(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p. 182.

10) Jay E. Adams, *op. cit.*, p. 88. 일반적으로 ‘청중에 관한 연구’라는 말은 ‘청중 분석’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주제인 ‘청중의 적응’이라는 말은 설교자의 전달 능력을 포함한다.

20-23절에 바울의 적응의 원리가 나온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전 9:20-23).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바울의 설교에도 적용되었는지를 안디옥에서의 설교, 루스드라에서의 설교, 아덴에서의 설교, 밀레도에서의 설교, 예루살렘에서의 연설, 공회 앞에서 행한 변명, 벨릭스 앞에서 행한 변명, 베스도와 아그립바 앞에서의 청문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청중의 적응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다. ‘설교(preaching)’와 ‘연설(speaking)’이라는 용어는 바울이 설교를 할 경우와 자신의 변호를 할 경우를 구별하려고 사용한 것이다.¹²⁾ 바울은 법정을 단지 변호만을 위한 곳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로도 생각했었다.

11) *Ibid.*, pp. 83-189. 제이 애덤스는 여덟 개의 본문 즉 안디옥에서의 설교, 루스드라에서의 설교, 아덴에서의 설교, 밀레도에서의 설교, 예루살렘에서의 연설, 공회 앞에서 행한 변명, 벨릭스 앞에서 행한 변명, 베스도와 아그립바 앞에서의 청문회를 중심으로 논지를 펴고 있다. 사도행전에는 다른 두 연설이 있다. 첫째는 바울이 로마인에게 한 호소(행 25장)이며, 둘째는 로마에 있는 그의 친척들에게 한 말(행 28장)이다. 그러나 제이 애덤스는 그 본문들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그의 연구에서 생략했다. 또한 바울의 서신들은 그의 설교 원칙에 관한 많은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것 자체에는 설교나 연설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제이 애덤스는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여덟 개의 본문만을 연구하기로 했다(*Ibid.*, p. 89).

12) *Ibid.*, p. 88.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변호 속에는 많은 설교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함께 연구하기로 한다.

1. 안디옥에서의 설교(행 13:13-43)

설교의 내용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돌보심,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음 등이다. 물론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형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기쁜 소식이 설교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설교의 심장부를 위해 바울이 청중에게 적용한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바울은 청중을 분석했다. 청중은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로서 두 부류가 있었다(행 13:26).¹³⁾ 바울은 청중이 혼합된 단체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둘째, 회중 가운데서 인정되고 아주 권위 있는 성경과 세례 요한의 말을 근거로 설명했다(행 13:25). 셋째, 바울은 그의 청중에게 자신을 동질화시켰다. ‘형제들’, ‘우리의 조상’ 등의 말이 그 예가 된다(행 13:26, 38).¹⁴⁾ 넷째, 바울은 설교를 하는 동안 헬라의 웅변가의 몸가짐을 취했다. 유대 선생처럼 앉아 있지 않고 서 있었다(행 13:16). 누

13) 첫째 부류는 어느 정도 헬라화하였으나 신앙의 신조를 기억하며 흩어져서 시리아와 예베스로 연결되는 주요 도로에 위치한, 군사와 행정의 중심지인 남갈라디아, 즉 세계적인 로마의 식민지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다. 둘째 부류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과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과 안식일에 성전에 출석할 것과 안식일과 음식에 관한 율법을 준수하기로 했으나 그들의 신앙을 결코 정식으로 선포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다. 이들은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온다(*Ibid.*, pp. 97-98). 사도행전 13장 16절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26절의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라고 호칭한 것을 보면 바울이 청중을 두 부류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설교의 처음 3분의 1(행 13:16-25)에서 ‘우리의 조상들’, ‘저희들’, ‘저희가’ 등의 3인칭을 사용하였고, 두 번째의 3분의 1(행 13:26-37)에서는 1인칭을 사용하며, 마지막 3분의 1(행 13:38-41)에서는 그의 청중들이 개인적인 결정을 하도록 요청하면서 2인칭을 적용했다. 이러한 인칭의 변화와 함께 사도행전 13장 26절의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38절의 “형제들”이라고 호칭하며 바울은 그의 청중과 동질화시켰다.

가가 이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는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바울은 청중들 중에 헬라인들이 있다는 점을 뚜렷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여 설교할 때에 서 있는 자세를 취하였다고 생각된다.

2. 루스드라에서의 설교(행 14:6-18)

설교의 내용은 우상에게서 떠나 자연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다.¹⁵⁾ 청중은 농부들이었다. 원주민들로서 교육 수준이 낮아 많은 사람들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바울은 청중들에게 자신을 적응시키면서 일반계시로 루가오니아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도록 설득했다. 바울은 자연을 화제로 삼아서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께서 계시를 증명하였다(행 14:15-17). 바울이 설교의 출발점으로 자연계시를 사용한 것은 바울의 청중에의 적응 방식에 대한 하나의 예가 된다.¹⁶⁾

3. 아덴에서의 설교(행 17:16-34)

설교의 내용은 심판과 회개와 속죄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이다. 청중은 에비구레오(Epicurean)와 스토이코(Stoic) 철학자들이었다. 바울의 첫 말은 “아덴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행 17:22)이다. 이 말은 우상숭배에 대한 동정심이나 칭찬이 아니다. 바울이

15) 루스드라에서 행한 설교는 아주 짧지만 창조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기에 아주 훌륭한 설교라고 제이 애덤스는 주장한다(*Ibid.*, p. 89).

16)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집에서 뛰어나가면서 청중들에게 소리치며 그들의 옷을 찢었기 때문에 그들의 청중에의 적응은 아주 부정적이었다고 제이 애덤스는 주장한다(*Ibid.*, p. 110).

17) 소크라테스는 ‘이상한 신들을 소개하는 자’로서 아덴 시민들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었다. 바울이 아레오마고 의회(the council of the Areopagus)에 불려가서 말하게 된 것은 그가 상이한 신들을 소개하는 자로 오해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설교 도입 단계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언급한 것과 그 신에 대한 제단을 사용함으로 ‘상이한 신들’을 소개한다는 오해를 제치 있게 피했다고 제이 애덤스는 말한다(*Ibid.*, pp. 118-119).

내적인 감정을 절제하며 접촉점을 만든 것이다.¹⁷⁾ 바울은 그리스 시인들의 시를 인용했다.¹⁸⁾ 바울은 시인들의 사상이 아덴 시민들의 우상 숭배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하여 인용한 것이다. 그리스 시인들의 시를 인용한 것은 그리스인들에게는 그리스인이 되려는 바울의 청중에의 적용이었다. 바울은 철학적인 청중들에게 호소하는 것이다.¹⁹⁾

4. 밀레도에서의 설교(행 20:16-38)

설교의 내용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과 미래에 부딪힐 문제에 관하여 장로들에게 행하는 경고와 훈계이다. 청중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다. 이들은 바울이 개입시킨 자들이며, 바울과 삼 년 동안 동역한 가까운 성도들이었다. 바울은 이러한 청중들에게 감정적인 호소로 적용하고 있다. 바울은 두 번이나 ‘눈물’을 말하고 있다(행 20:19, 31).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 하던 것을 기억하라”(행 20:31)고 말하며,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행 20:35)고 따뜻하게 말한다. 그들은 함께 기도한 후 다 크게 울었다(행 20:36-37).

18) 두 개의 인용 구절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뻐하며 있느니라”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행 17:28)이다. 첫 번째 구절은 그리스 신화 에피메니데스(Epimenides)에 나온다. 그는 “모르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을 아덴 시의 안과 주위에 세우도록 말했다고 전해진다. 두 번째 구절은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 클리엔스시(Cleanthes)의 “쥬피터에게 바치는 성가”에서 인용한 것이다. 같은 말이 아라투스(Aratus)의 파노메나(Phaenomena)에도 나온다. 바울은 그렇기에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행 17:28)라고 말한 것이다. 바울은 두 시인들의 시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아덴 시민들 자신의 터전 위에 세운 우상 숭배를 정죄하였다(*Ibid.*, p. 121).

19) 윌리엄 블랙(William Black)은 사도행전 7장 22-31절의 본문을 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말하고 있다. 설교자는 청중의 영적 수준을 파악한 다음,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하나님의 기본 진리를 담대하게 설교해야 한다는 것이다(William Black, 「강해 설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0), pp. 197-204.

5. 예루살렘에서의 연설(행 21:27-22:22)

연설의 내용은 개인적인 간증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다.²⁰⁾ 청중은 유대인들이었다. 바울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고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청중은 호전적이었다. 청중들은 바울을 죽이려고(행 21:31), 바울을 때리기 시작했다(행 21:32). 로마 군인들이 급파되었을 때에도 청중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갔다(행 21:35). 로마의 호민관은 바울이 애굽의 자객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그는 헬라어를 하는 바울을 보고 변호의 기회를 주었다. 청중은 바울이 아람어(히브리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듣고 더욱 경청했다(행 22:2). 여기서 나타나는 바울의 청중에의 적용은 언어의 현명한 사용과 동일시이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임을 강조할 뿐 아니라 그들의 모국어인 아람어(히브리어)로써 말했다. 또한 바울은 이방인 문제로 청중이 화가 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을 복음화하는 그의 사명에 대한 언급은 연설 후반부로 보류해 놓았다(행 22:21). 그러므로 청중들

20)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회심과 소명을 가리키는 그의 많은 직간접적인 언급들은(고전 9:1, 15:5-10; 갈 1:13-17; 빌 3:4-11; 고후 3:4-4:6, 5:16-21; 행 26:4-18) 바울의 복음과 사도직을 변호하는 논쟁적인 맥락에 등장한다. 그러나 이 구절들만 아니라 다메섹 사건을 예시하는 다른 구절들에서도 바울은 그의 복음과 사도직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만 근거하며, 그는 그 빛에 비추어서만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메섹 사건은 바울 신학과 사도로서의 그의 실존의 근거이다(김세훈, 「바울 복음의 기원」(서울: 엠마오, 1994, p.57).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예루살렘에서 자랐으며 그곳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랍비로서 탁월한 학식의 소유자였으며 바리새파,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 계열이었던 샴마이 학파에 속해 있었다. 율법과 이스라엘 선조들의 유전에 지나치게 열심이었던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로 하여 교회를 심하게 압박하였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에 의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메시아라고 선포하였기 때문이었다. 둘째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나사렛의 예수를 메시아로 선포하고 또한 율법과 성전의 의식을 비판하는 일은 율법과 조상들의 유전을 위협하고, 그것들로부터 배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바울은 비느하스나 마타디아스 및 그 외의 하나님, 율법, 이스라엘의 순결에 ‘열정을 가진 자들(Zealots)’의 본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하였던 것이다(*Ibid.*, pp. 547-548). 이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이 바울의 말을 끝까지 듣도록 했다. 청중의 적응에 있어서 말해야 할 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필요하지만 말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보류의 지혜도 필요한 것이다.

6. 공회 앞에서의 변명(행 23:1-11)

변명의 내용은 바울이 심문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라는 것이다(행 23:6). 청중은 극단적으로 반대가 되는 두 개의 당파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 바울은 그들의 신학적인 차이를 이용했다.²¹⁾ 이 본문은 바울의 상세하고 정확한 청중 분석이 돋보이는 연설이다. 이러한 청중 분석을 토대로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증거했다. 이것은 청중의 의견의 불일치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는 매우 날카로운 청중의 적응이었다.

7. 벨릭스 앞에서 행한 변명(행 24:1-27)

변명의 내용은 세 가지 고소 사항인 난동과 파벌주의와 성전 모독에 대한 바울의 부인이다. 청중은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들, 벨릭스 앞에 탄원할 직업적인 웅변가 더블로, 총독 벨릭스이었다. 그러나 주된 청중은 벨릭스이었다. 바울은 벨릭스를 알고 있었다. 재판장 벨릭스는 기독교에 대해 상당히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공회가 기독교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²²⁾ 그렇기에 바울은 간증 없이 곧바로 접근했다.

21) 제이 애덤스는 바울 자신이 이 회원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그 당시 살아 있는 사람 중에 바울 이상 그 조직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Jay E. Adams, *op. cit.*, p.136).

22) *Ibid.*, p.143.

특별한 청중에게는 직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8. 베스도와 아그립바 앞에서의 청문회(행 25:13-26:32)

연설 내용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이다. 청중은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이었다.²³⁾ 물론 바울은 아그립바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바울은 세련된 헬라어를 구사했다. 낱말의 선택에까지 신경을 썼다.²⁴⁾ 경우에 합당한 연설체와 어휘가 바울의 청중의 적응을 잘 보여 준다.

9. 소결론

이상의 연구는 바울이 설교에 있어서 청중을 분석하여 청중에게 적응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참으로 다양하게 적응하는 융통성과 유연성이 바울의 설교에 있음을 알게 된다. 고린도전서 9장 20-23절의 말씀이 바울의 설교에도 적용된 것이다. 권위로서 성경과 세례 요한의 말을 사용하며, 이방인에게 향한 그의 사명을 말하는 것을 설교 후반부로 보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되었다. 또한 일반계시를 사용하고, 헬라의 시들을 인용하며, 청중에게 적합한 연설체와 어휘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이 되었다.

III. 청중의 적응 방법들

23) 아그립바는 그 당시 33세의 나이였으며, 10년 동안 요단 동쪽의 트라코니투스(Trachonitus)라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 있어 왔다(*Ibid.*, p.147).

24) *Ibid.*, p.148.

마틴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Jones)는 그의 책 「설교와 설교자 (Preaching and Preachers)」에서 고린도전서 9장 20-2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바가 설교자들은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우리 설교자들은 전통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에서 율법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It is obvious that there is clear teaching here to this effect, that as preachers we must be flexible: we must not be traditionalists, we must not be legalists in this matter.)”²⁵⁾

마틴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Jones)는 계속해서 말한다.

“사도가 거듭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견지하고 있어야 하는 반면 하찮은 일에도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그가 더 약한 형제들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형제의 연약한 양심을 짓밟지 않아야 하며 그를 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²⁶⁾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는 실제적인 설교 전달 양식에 있어서는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원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즉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The end does not justify the means)”는 것이다.²⁷⁾ 또한 설교자들의 방법들은 언제나 성경의 메시지와

25) D. Martyn Lloyd-Jones, *Preaching and Preachers*(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71), p. 136.

26) *Ibid.*, p.137.

일치하며 조화되어야지,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²⁸⁾ 즉 방법이 메시지를 충동되는 점까지는 가지 말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충고하기를 설교자가 세상 사람들과 거의 같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려는 생각은 신학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볼 때 하나의 깊고 넓은 실책이라고 말한다.²⁹⁾

필자는 지금까지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청중의 적응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성경적인 근거를 찾았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히 붙들면서 청중에 적응하는 방법들을 위해 도전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아보려고 한다.

1. 릭 워렌(Rick Warren)의 낚시 원칙

릭 워렌(Rick Warren)은 다섯 가지의 낚시 원칙으로 효과적인 청중의 적응 방법들을 제시한다.³⁰⁾ 첫째, 낚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리는 것이다. 놓어나 메기, 연어를 잡는 것은 모두 서로 다른 도구, 미끼, 시기를 필요로 한다. 청새치류의 고기인 말린을 잡는 방법은 송어를 잡는 방법과 다르다. 각 고기를 낚을 때는 독특한 방법을 요한다. 둘째, 고기가 무는 곳을

27) *Ibid.*, p.138.

28) *Ibid.*, pp.139-139.

29) 마틴 로이드 존스는 하나의 예를 들고 있다. 1차 대전이 끝날 무렵, “막연초 겹쟁이(Woodbine Willie)”로 알려진 유명한 영국 국교 교구 목사 이야기이다. 그는 군목으로 일하면서 친근감 있게 참호 속에 있는 병사들과 어울렸다. 그는 그들과 같이 담배를 피웠다. 그는 값이싼 “막연초”로 불리는 담배를 피웠다. 이 담배는 일반 병사들이 피우는 것이었다. 스투더어트 케네디(Studdert Kennedy) 목사는 병사들을 편안하게 하고 군목으로서의 자기의 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연초를 피운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병사들이 하는 모든 욕설을 따라 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그 사람들을 얻기 원한다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모든 면에서 병사들과 같아야 한다는 견해 때문이었다.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목사는 속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Ibid.*, pp.139-140).

30) Rick Warren,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박경범 역(서울: 디모테, 1996), pp. 210-231. 다음 책을 참고하면 릭 워렌의 설교 열 편을 볼 수 있다. 김의중, 「릭 워렌의 설교 분석 리포트」(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1999), pp. 141-343.

로 가리는 것이다. 고기가 물지 않는 곳에 가서 낚시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현명한 낚시꾼은 자리를 옮겨 다닌다. 그들은 하루의 각 시간에 따라 고기가 각각 다른 곳에서 먹이를 찾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셋째, 고기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다. 고기를 잡기 위해선 고기들의 습관, 선호도, 먹이를 먹는 방식 등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어떤 고기들은 부드럽고 잔잔한 물을 좋아하고, 다른 고기들은 세차게 흘러내리는 강에서 헤엄치기를 좋아한다. 어떤 고기들은 바닥에 붙어 다니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다른 고기들은 바위 사이에 숨기를 좋아한다. 낚시에 성공하려면 고기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넷째, 고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다. 그들의 문화(물 속)는 우리의 문화(공기)와 매우 다르다. 고기와 접촉하기 위해서는 우리편에서의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가 잡고자 하는 고기에게 맞는 미끼와 바늘을 사용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1950년대의 미끼를 21세기에도 여전히 쓰려고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바늘을 하나 이상 사용하라는 것이다. 바늘을 하나 이상 사용하는 것을 “주낙(longline)”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한 줄에 여러 개의 바늘을 다는 것이다. 더 많은 바늘을 물에 담그면 더 많은 고기가 잡힐 것이라는 생각이다. 성장하는 교회들은 다양한 프로그램, 다

31) 캘리포니아 주의 허모사 해변에 있는 소망교회는 해변에서 예배를 드리는 해변 교회로서 시작했다. 그 교회는 이제 쇼핑센터식 교회로 변모해서 조깅, 스키, 약물 남용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이혼 치유사역, 장애인을 위한 예배 등을 포함한 60여 개의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다. 미국의 쇼핑센터식 교회에서 제공되는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과 사역의 목록은 훨씬 더 많다. 노인들을 돌보는 간호 프로그램, 청각 장애자들을 위한 통역, 카운셀링 센터, 에이즈 호스피스, 약기를 배우거나 노래를 배우는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학교, 운동 모임과 클럽, 선교나 방학 중 여행을 위한 여행 프로그램, 바른 예산을 가르치는 경제 프로그램, 암 환자를 위한 자원 그룹, 모든 세대들을 위한 캠프 프로그램, 미취학 아동들을 갖고 있는 부모들의 모임,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화 봉사, 오디오 비디오 서비스, 책방, 체육 시설을 갖춘 레크레이션 센터, 볼링, 수영장, 그리고 음식 서비스 등 아주 다양하다. 활동적인 쇼핑센터 교회는 복음과 사역을 위한 강력한 동기로부터 그러한 다양성이 나온 것이다. 쇼핑센터식 교회들이 방법에 치우친 것처럼 보이는 위협은 있으나 동일한 위협이 이런 특별한 사역들을 삼가고 예배와 목회 심방과 그리고 주일학교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전통적인 교회에서도 일어난다(Leith Anderson, 「21세기를 위한 교회」, 황성철 역(서울: 솔로몬, 1997), pp. 216-220).

양한 예배를 제공한다.³¹⁾ 그들은 온갖 종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선 온갖 종류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바울의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낚시 원칙들은 설교자가 청중에게 적용하려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스펠전(Spurgeon)의 감각에의 호소(sense appeal)

현대 설교의 실패 원인 중 하나는 ‘감각에의 호소(sense appeal)’의 결핍에 있다. 찰스 H. 스펠전(Charles Haddon Spurgeon)은 청중의 감각에 호소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는 청중에게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이 애덤스(Jay E. Adams)는 스펠전의 감각에의 호소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감각에의 호소는 귀한 복음의 내용물을 제시하기 위한 보자기였다. 그것은 복음 자체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으나 복음에 알맞았고, 복음에 손상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였다. 그는 감각에의 호소 없이는 설교의 왕자라는 말을 듣기에 부족했을 것이다.”³²⁾

32) Jay E. Adams, *op. cit.*, p.18. 제이 애덤스는 「The Memorial Library」에 포함된 스펠전의 425편 설교를 중심으로 ‘스펠전의 설교 속에 있는 감각에의 호소’라는 제목의 연구를 했다(*Ibid.*, pp.9-82). 제이 애덤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가에 대한 호소의 실례가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른 나머지의 호소력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자주 나타났다. 청각에 대한 호소는 나머지 세 가지의 감각 모두보다 훨씬 자주 나타났다. 후각과 미각에 대한 호소는 거의 같은 비율인 반면 촉각에 대한 호소는 이 두 가지를 합친 것만큼 자주 나타났다(*Ibid.*, p.24). 스펠전의 설교 “한밤의 노래”를 하나로 예를 든다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총 26개의 문단 중 시가 25문단, 청각 20문단, 촉각 7문단, 미각 3문단, 후각 미언급으로 나타났다(*Ibid.*, pp.79-80).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C. H. Spurgeon, *Spurgeon's Sermons, The Memorial Library*(New York: Funk and Wagnalls Co., n. d.). 이 책에 있는 425개의 설교 제목 중에서 적어도 135개는 확실히 감각에의 호소를 사용했다. 이것은 거의 3분의 1이 되는 분량이다. 몇 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황홀한 땅”, “한밤의 노래”, “하나님의 영광을 봄”, “황혼의 빛”, “그리스도의 핏소리”, “꿀로 가득 찬 두 손” 등이다. 스펠전은 제목을 정하는데도 감각에의 호소를 사용한 것이다.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19세기 후반의 변하는 청중에게 전하기 위하여, 스펠전은 청중의 적응 방법으로 ‘감각에의 호소(sense appeal)’ 사용법을 활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감각에의 호소’란 설교에서 외적인 자극의 사용 없이 오관(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을 활동시키는 기술을 뜻한다.³³⁾ 스펠전은 감각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를 다음과 같은 명령들을 대범하게 사용함으로써 활용하였다. 즉, “주의하여 보라, 바라보라, 주시하라, 사모하라, 관찰하라, 눈을 돌려 보라,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마셔라, 맛 보라” 등이다.

‘감각에의 호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지각(Perception), 상상(Imagination), 묘사(Description)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감각에의 호소’가 되는 것이다. 지각은 감각의 영역 그 자체를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상상은 제시된 진리와 감각 자료들을 연관시키기 위한 종합하는 능력을 말하며, 묘사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받은 동일한 감각적인 감화를 다른 사람들도 역시 경험할 수 있도록, 언어 자체만을 수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명하게 묘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³⁴⁾ 감각의 지각과 종합적인 상상과 사실적인 묘사가 조화되어 센스 어필을 이루

33)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시각: “갈보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는 손에서 자비가 떨어집니다. 깃새마네 동산, 구주의 피 흘리는 자국에 용서가 맺혔습니다. 부르짖음이 들립니다.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곳을 보십시오.……당신을 위해 못 박힌 두 손, 당신을 위해 피를 뿜어 낸 두 발, 그 품이 당신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어떻게 자비를 구해야 할지 모른다면, 자 여기 있습니다. 보십시오!” (C. H. Spurgeon, *Spurgeon's Sermons, The Memorial Library*(New York: Funk and Wagnalls Co., n.d.), Vol. 1, pp. 14~15). 2. 청각: “저주 받은 자들이 고통의 불타는 쇠사슬 소리를 찢렁찢렁 낼 때 그들은 “영원히”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Vol. 1, p. 190). 3. 촉각: “마음은 매우 미끄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모든 복음의 낚시꾼들이 잡기에 피로움을 주는 고기입니다.……뱀장어처럼 미끈둥하여,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갑니다.” (Vol. 1, p.123). 4. 미각: “당신이 내게 꿀이 쓰다고 말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나는 “아니오, 확실히 당신은 그것을 맛보았을 리 없습니다. 그것을 맛보십시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Vol. 1, p.62). 5. 후각: “복음의 귀한 향기가 대기를 향기롭게 하기 위하여 밖으로 쏟아져야만 합니다.” (Vol. 19, p.323). 이상의 인용은 제이 애덤스, *op. cit.*, p.22, 35, 40, 41, 43에서 재인용.

34) *Ibid.*, pp.65-66.

는 것이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치게 강조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세 가지는 꾸준한 독서와 연습을 통하여, 특히 문학 작품을 연구함으로써 훈련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박영재의 청중 욕구 순서를 따른 설교 구성법

청중이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받아들일 때 무작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나름대로 일정한 법칙과 통로를 거쳐서 받아들인다. 청중에게 익숙한 통로란 청중이 우선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욕구의 순서이다.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청중이 알고 싶어 하는 순서에 따라 들려 줄 수 있을 때 청중은 가장 자연스럽게 또 가장 부드럽게 그 내용을 받아들일게 되며 가장 오래 기억하게 된다.³⁵⁾ 박영재 교수가 소개한 것은 부정 문제 해결형, 긍정 문제 해결형, 방송뉴스 보도형, 이유 모색형, 주제목적 강조형, 소명 강조형, 육하원칙 제시형, 논리 연결형, 단계적 논리 전개형, 논리 심화형, 논리 대비형, 전통적 삼대지형, 수사학적 변증형, 일관적 논리 순서형, 합

35) 박영재, 「청중 욕구 순서를 따른 16가지 설교 구성법」(서울: 규장문화사, 2000), pp. 26~27.

36)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부정 문제 해결형: 부정적 문제를 제기한 후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다. 서론에서 부정적 문제가 제기되면 사람들은 매우 놀라고 걱정한다. 그러면 설교자는 청중이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나도록 해결책을 제기한다. 결국 이런 설교는 청중에게 유익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 2. 긍정 문제 해결형: 긍정적 문제를 제기한 후에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다. 이런 설교는 청중을 신앙의 영웅으로 만든다. 3. 방송 뉴스 보도형: 기자들은 사건의 결과와 원인에서 출발하여 해결책을 다루는 순서로 뉴스를 설명해 나간다. 그 전개 방식이 청중들에게 매우 편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4. 이유 모색형: 결과를 밝히고 이유를 찾는 방법이다. 설교 주제가 청중들에게 행동 촉발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할 때, 혹은 본문이 동기를 부여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면 우선 결과를 밝힌 다음에 이유를 찾아야 한다. 5. 주제 목적 강조형: 설교할 주제의 목적과 방법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 방법이 적절하다. 6. 소명 강조형: 목적과 방법을 밝힌 후 누가 질문하는 방법이다. 어떤 일을 해야 할 목적과 방법 등을 먼저 설명한 후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누가”는 영웅이 될 것이며, 청중은 그 일을 하고 싶은 자극을 받게 된다. 7. 육하원칙 제시형: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했는가를 질문하는 방법이다. 육하원칙은 대표적인 정보 분석법 중 하나이다. 8. 논리 연결형: 사람은 한번 알기 시작한 어떤 내용을 완전히 알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은 진리를 깊이 있게 파헤쳐서 청중을 만족시키는 방법이다. 9. 단계적 논리 전개형: 계단을 밟고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것을 상상해 보라. 계단을 밟을 때마다 힘이 들어간 다리가 계단을

일점 도출형, 문학적 감동 제시형 등 16가지이다.³⁶⁾ 이러한 청중 욕구 순서를 따른 설교 구성법은 청중의 적응 방법들 중 하나이다. 불변의 복음을 청중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교하는 전개 방식을 습득해야 한다.³⁷⁾

합치게 밝으며 올라선다. 결국 정상에 이른다. 바로 이것이 '설교에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라'의 구성이다. 10. 논리 심화형: 가벼운 것에서 비중 있는 것으로 옮겨 가는 것이다. 청중들에게는 충격의 강도가 세질수록 그 설교가 잘 들리는 경향이 있다. 11. 논리 대비형: 비본질과 본질의 차이를 선명히 밝힘으로 본질을 이해시키는 방법이다. 12. 전통적 삼대지형: 삼대지 설교는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정도의 핵심 개요를 끄집어 내어 청중에게 주입하려는 의도가 담긴 설교 구성법이다. 감동을 주기보다 가르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경우에 활용한다. 13. 수사학적 변증형: 일반적인 주입보다는 변증을 통한 설교 구성법이다. 14. 일관적 논리 순서형: 단계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사실은 순서가 있다. 그 순서를 바꾸면 그림을 망치기 쉽다. 논리를 전개해 나갈 때도 이러한 전개 순서가 필요하다. 15. 합일점 도출형: 논쟁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을 맺는 방법이다. 처음에는 딱딱한 논쟁으로 설교가 시작된다. 청중들은 논쟁에 휘말리게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동의를 이루고 합일점을 찾게 된다. 16. 문학적 감동 제시형: 시적 특성을 살리는 방법이다. 머리보다 감정이 먼저 반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시적 특성을 살리는 것이 좋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책을 참조하라. 박영재, 「청중 욕구 순서를 따른 16가지 설교 구성법」(서울: 규장문화사, 2000).

37) 기타 방법으로는 워렌 W. 위어스비(Warren W. Wiersbe)의 「상상이 담긴 설교, 구성법이 있다. 이 방법은 설교를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강단에 출주는 해골과 좌석에 늘어진 송장이 가득하다는 표현은 설교자들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엄중한 경고이다. 설교자들은 거룩한 상상력을 다 끌어 내어 그들의 설교를 돕게 해야 한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상상력이라고 하는 설교자의 연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식을 창조해 내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행위가 말씀을 보는 행위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웨인 브래들리 로빈슨(Wayne Bradley Robinson)의 「이야기식 설교 구성법」이 있다. 이야기식 설교는 여러 설교 방법들 중에서 효과적인 것이 될 잠재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며, 설교자로서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야기(story)'라는 단어는 역사(history)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서 나왔으며, 꾸며낸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생각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풍부한 의미를 지닌다. 다음 책을 참고하라. Warren W. Wiersbe, 「상상이 담긴 설교, 이장우 역(서울: 요단출판사, 1997), 웨인 브래들리 로빈슨(Wayne Bradley Robinson) 외, 「이야기식 설교를 향한 여행, 이연길 역(서울: 장로교출판사, 1998), 유진 로우리(Eugene L. Lowry), 「설교자여 준비된 스토리텔러가 돼라, 이주엽 역(서울: 요단출판사, 1999).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부르스 모하니가 설교 내용의 개선을 위해서 제안한 사항들이다. 1. 요점을 찌르는 강력한 도입을 하라, 2. 가능한 곳에서는 놀람의 능력을 사용하라, 3. 질문이나 수수께끼, 퍼즐과 같은 것을 사용하여 내적 대화를 하게 하라, 4. 상기시키기, 같은 말로 반복하기, 다른 말로 반복하기를 사용하라, 5. 적절한 예화를 들라, 6. 주중 기도 모임을 가져라. 청중에게 적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 7. 잘난 척하지 말고 쉼스 어필을 하라, 8. 필요한 경우에는 음향 효과를 사용하라, 9. 직유와 은유를 사용하라, 10. 2인칭(여러분) 설교를 하라, 11. 진부하지 않은 자연스런 유머, 과장과 허풍을 사용하라, 12. 최종 목적지로 이끌기 위한 강력한 결론을 내려라, 13. 저수지의 능력을 체험하라. 적절한 학문적 탐구, 충분한 기도, 성령의 기쁨 부으심, 말씀의 충만이 있는가 확인하라, 14. 주제에 대해서 청중에게 조사하라. 더 자세한 것을 위해 다음의 책을 참고하라. 부르스 모하니, 「복사님 설교가 아주 신선해졌어요,」, 오태용·김광점 역(서울: 베다니출판사, 1995).

IV. 제언

필자는 지금까지 논한 설교자의 청중의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의 설교자들에게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언이 한국 교회 설교학 분야에 작은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1.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리차드 메이휴(Richard L. Mayhue)는 완전한 강해 설교에는 네 단계가 포함된다고 말했다.³⁸⁾ 그것은 설교자의 영적 준비, 성경 본문의 연구, 강해 설교의 작성, 강해 설교의 전달이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생략될 때는 설교자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과 유용성에 심각한 위협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필자의 첫 번째 제언은 설교자의 영적 준비에 관련된 것이다. “균형 잡힌 설교자는 기도하면서 본문을 선택하고 기도하면서 본문을 연구한다.”³⁹⁾ 알파한 기도를 한 설교자는 알파한 설교를 만들 수밖에 없다. 기도는 설교를 강하게 만든다. 기도(祈禱)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삶의 열쇠인 동시에 설교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교자로 사용하신다. 기도의 우선 순위를 지키는 자는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설교자가 될 것이다. 피터 와그너(Peter Wagner)는 ‘전투적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38) Richard L. Mayhue, “강해 설교의 재발견,” John F. MacArthur, Jr. 외, 「강해 설교의 재발견」, 김동완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pp. 40~48.

39) James E. Rosscup, “기도와 강해 설교,” *Ibid.*, p. 114.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다. 복음 전파가 하늘의 영들과의 영적 전쟁의 결과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원수를 물리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전투적 기도(warfare prayer)임을 확증하고 있다.”⁴⁰⁾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대로 기도해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엡 6:18).

2.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인 계시와 영감과 조명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계시(revelation)’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을 알려시는 행위를 말한다. ‘자연계시’는 자연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보이지만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할 만큼 구체적이거나 온전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하고 명백한 ‘특별계시’를 주셨다. ‘영감(inspiration)’이란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인간에게 주어지도록 한 통로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으로 기록되도록 했던 수단이다. 영감은 문자적(verbal)이며 축자적(plenary)이다. ‘조명(illumination)’이란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닫도록 신자의 영안을 여는 성령의 역

40) Peter Wagner, 「기도는 전투다」, 명성훈 역(인천: 나눔터, 1994), p. 53.

사를 말한다. 거기에는 설교자와 청중이 포함된다.⁴¹⁾ 조명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성경의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적용하시는 것이다. 조명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이나 도그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며, 성경 연구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이 있게 하며, 기쁨을 생산한다. 능력 있는 설교는 오직 성령에 의해 조명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에 의해 영감된 계시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 조명된 청중을 향해 명백하고 권위 있게 강해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다.⁴²⁾ 설교자들은 설교 전체의 과정에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령님께 강하게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설교할 때에도 성령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그 말씀이 청중들에게 불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설교의 전 과정에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필요한 것이다.⁴³⁾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설교의 주도자이시며, 설교의 전략가이시며, 설교자의 위로자가 되시는 것이다.

3. 성경을 다독하고, 석의에 힘을 써야 한다

한국 교회 설교자들은 다른 어떠한 책보다도 성경을 다독해야 한다.⁴⁴⁾ 김익두 목사는 세례를 받기 전에 구약과 신약을 백 번 읽었으며, 길선주 목사는 구약과 신약을 수백 번 읽고, 특히 요한계시록은 일만 번 읽었고, 최원초 목사는 빌립보서를 삼천 번, 요한계시록을 일만 번 읽었다.⁴⁵⁾ 또한

41) John F. MacArthur, Jr., “성령과 강해 설교,” John F. MacArthur, Jr. 外, *op.cit.*, p. 164.

42) *Ibid.*

43) 김서택, 「건축술로서의 강해 설교」(서울: 홍성사, 1998), pp. 507~510.

44) 부르스 모힌니는 광범위한 독서를 위해 육중 독서를 말했다. 소설, 역사, 전기, 일기/저널, 시, 시사성 관심의 주제의 책을 한꺼번에 읽는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이다(부르스 모힌니, *op.cit.*, p. 336).

45) 박희천, *op.cit.*, pp. 263~264.

설교자들은 성경 원어의 실력을 쌓아서 석의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⁴⁶⁾ 설교자는 성경 원어에 대한 지식과 본문 분석을 위한 조직적인 방법을 갖춘 훈련된 석의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수준이 되어야 설교자는 성경 저자가 의도한 원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도구 중 하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석의가 없는 청중의 적용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다. 잘못된 해석은 다양한 청중의 적용 방법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결론을 낳을 뿐이기 때문이다. 회를 칠 한 무덤이 되는 식이다. 그렇기에 필자에게는 강해 설교가 매력이다.⁴⁷⁾ 물론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석의는 잘했는데 청중의 적용이 변변치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듣지 못하게 하는 경우이다. 한국 교회 설교자들은 석의와 청중의 적용이라는 면에서 모두 승리하기를 바란다.

4. 청중을 분석해야 한다

46) '석의'란 강해할 목적으로 성경 본문에 해석 원리를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정확한 석의는 궁극적으로 석의자의 연구에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존한다. 석의는 성경 원어, 곧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다룬다. 석의는 건전한 해석학의 원리 위에 기초한다. 석의는 또한 원문비평에 의해 정해진 본문을 전제한다. 석의는 개개 단어의 배경, 용법, 동의어, 반의어, 비유적인 용법, 그 밖의 다른 어휘적인 요소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며 구문론을 포함한다.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교회사, 변증학, 실천신학도 석의 위에 기초한다. 그러나 강단에서 석의를 해서는 안 된다. 말씀의 사역자는 그가 전할 내용을 청중의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Robert L. Thomas, "석의와 강해 설교," John F. MacArthur, Jr. 外, *op. cit.*, p.216).

47) 존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 347~407)은 주석식으로 설교를 했다. 종교개혁 시대의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와 존 칼빈(John Calvin, 1509~1564), 청교도 시대의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 1558 ~1602), '참 목자상'이라는 책을 쓴 리처드 박스터(Richard Baxter, 1615~1691), 존 번연(John Bunyan, 1628~1688), 19세기 후반의 '강해 설교자의 왕'이라고 불린 존 브로드루스(John A. Broadus, 1827~1895), '다윗의 보화'라는 강해 설교 작품을 쓴 찰스 H. 스펀전(C. H. Spurgeon, 1834~1892), 매일 히브리 성경과 헬라 성경을 한 장씩 평생토록 읽었던 맥클렌(E. T. MacLaren, 1826~1910), 20세기의 캠벨 목간(G. Campbell Morgan, 1863~1945), 마틴 로이드 존스(D. Martyn Lloyd-Jones, 1899~1981)와 존 스토틀(John R. W. Stott, 1921~)등은 모두 강해 설교자이다.

콕안런(A. C. Clark)은 "교인들 중에는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진 자가 많다. ……만일 설교자가 항상 같은 종류의 설교를 한다면 그런 것을 좋아하는 자에게는 과식이 될 것이고, 그 외의 모든 사람은 굶주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청중을 분석하고 그에 합당하고 다양한 설교를 할 것을 강조했다.⁴⁸⁾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청중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분석해야 한다. 청중의 신앙 수준, 지적 상태, 경제적 여건, 공통된 관심사, 삶의 문제 등이 무엇인지를 훤히 알고 있어야 그들의 수준에 적절히 대응하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다.⁴⁹⁾ 설교자는 청중의 슬픔, 좌절, 고통, 불안, 두려움, 기대감, 성취감 등을 함께 느껴야 한다. 그러할 때 설교자는 청중과 쉽게 '정신적 접촉(mental contact)'이 이뤄진다.⁵⁰⁾ 오늘날의 한국 청중은 문자 세대를 거쳐 영상세대로 가고 있다고 본다. 급변하는 기술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절대적 가치가 상대적 가치로 대치되는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청중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설교자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5. 청중에 적응하는 방법들을 활용해야 한다

48) 콕안런, 「설교학」(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pp. 52~56. 콕안런은 설교 분류표를 작성했다. 그것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중에 의한 구분: 유년, 장년, 새신자, 구신자, 유식자, 무식자, 회개자, 반대심이 있는 자. 2. 처리 형식에 의한 구분: 명제체 설교, 해석체 설교, 관찰체 설교. 3. 심리작용에 의한 구분: 이지적 설교, 감성적 설교, 의지적 설교. 4. 주제에 의한 구분: 교리적 설교, 논리적 설교, 경험적 설교, 역사적 설교, 철학적 설교. 5. 창의적·인위적 방법에 의한 구분: 기술적 원고 설교, 암기 설교, 임시적 즉석 설교. 6. 사용된 성경에 의한 구분: 구약 설교, 복음 설교, 서한 설교. 7. 본문에 의한 구분: 본문 설교, 제목 설교, 해석 설교.

49) 정성구 교수는 설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서 설교 속에서 그 당시 사회의 문제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설교는 그 시대와 교회의 거울이다. 그 시대의 설교를 연구해 보면 당시의 신학과 신앙과 사회의 문제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설교사는 사회사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설교사는 사상사라고도 할 수 있다." 정성구, *op. cit.*, p. 1.

50) 박영재, 「설교자가 꼭 명심할 9가지 설득의 법칙」(서울: 규장문화사, 1997), p.58. 아홉 가지 법칙은 다음과 같다. 1. 수사학의 기본 원리를 활용하라. 2.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라. 3. 설득의 법칙을 몸에 익히라. 4. 회중을 면밀히 파악하라. 5. 논리의 뼈대를 세우라. 6. 이성과 감정에 동시 호소하라. 7. 생생한 화법을 사용하라. 8. 적극 긍정적 언어를 활용하라. 9. 그림 언어를 구사하라.

존 맥아더(John F. MacArthur)는 “강단에서의 드라마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가?” 라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내 생각으로는 이러한 연기는 목발과 같다고 생각한다. 오직 빈약한 설교자만이 그런 목발이 필요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어떤 인간적인 연극이나 의사 전달을 위한 속임수보다 더 효과적이다. 능력 있는 설교를 통한 진리의 폭발만큼 극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⁵¹⁾

이러한 생각은 황성철 교수와 완전히 다르다. 황성철 교수(그)는 설교 형식을 혁신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기적인 정보 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세대들에 걸맞은 영상 및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전도 전략을 수용하여 나아가는, 즉 그들에게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접근해 가는 능동적 형식이 필요한 때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원리이듯이 기성 세대는 지나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다가오는 세대를 위해 열린 마음과 유연한 자세로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를, 마치 쓴 약을 당의정(糖衣錠)에 싸서 먹이듯이, 전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 앞에서 형식에 연연함이 없이 수용성의 원리를 살펴봄은 매우 현명한 결정이 되리라고 믿는다. 드라마면 어떻고, 컴퓨터 매니아에게 컴퓨팅으로 다가서면 어떻고, 음악광에게 복음의 열린 음악회면 어떤가. 다만 복음의 진진이 방해받지 않고 진

51) John F. MacArthur, Jr., “강해 설교에 관한 질문,” John F. MacArthur, Jr. 外, *op.cit.*, pp.474-475.

52) 황성철, “21세기를 대비한 설교 문화,” 『한국 교회』, 2(1)(1997), pp. 20-21. 황성철 교수는 복음의 진수를 번개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의 변화의 예를 들어 창세기 22장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장면을 드라마로 일부 전환한 설교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등장 인물의 상이한 목소리와 그에 맞게 세밀히 연출된 인물들의 각 배열을 통해서 이미지 세대인 청중들에게 실감 있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Ibid.*, p. 15.).

리의 왜곡이 전무하다면 모두가 바람직한 변화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⁵²⁾

필자는 황성철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청중예의 적응력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청중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상황을 모른 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존 맥아더(John F. MacArthur)는 컴퓨터를 다룰 줄 몰랐다.⁵³⁾ 그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 사용을 권했으나 자신만의 편한 시스템, 즉 직접 설교 노트를 작성했다. 이러한 면은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는 적응력이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설교자들은 청중에 적응하는 방법들에 있어서는 성경적 벤치마킹(benchmarking)을 해야 할 것이다.⁵⁴⁾ 청중에 적응을 잘했던 많은 사람들의 성경적 원리에 근거한 방법들을 배워야 할 것이다.

V. 요약과 결론

우리는 지금까지 청중예의 적응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울은 청중을 분석했다. 둘째, 회(청)중 가운데서 인정되고 아주 권위 있는 성경과 세례 요한의 말을 근거로 설명했다(행 13:25). 셋째,

53) *Ibid.*, p.475.

54) 벤치마킹(benchmarking)이란 자기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최고의 회사를 모델로 삼아 그들의 독특한 비법을 배우면서 자기 혁신을 꾀하는 것이다. 시조는 일본 기업에 밀려 고사 상태에 놓여 있던 미국의 제록스사가 경쟁사인 일본 업체의 경영 노하우를 캐기 위해 직접 일본에 건너가 조사 활동을 벌인 뒤 조사 결과를 경영 전반에 활용하여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면서부터이다. 벤치마킹은 상대와 비교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의 수준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고 극복해야 할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나서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조직원들의 공감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바울은 그의 청중에게 자신을 동질화시켰다. ‘형제들’, ‘우리의 조상’ 등의 말이 그 예가 된다(행 13:26, 38). 넷째, 바울은 설교를 하는 동안 헬라 웅변가의 몸가짐을 취했다. 유대 선생처럼 앉아 있지 않고 서 있었다(행 13:16). 바울은 청중 중에 헬라인들이 있다는 점을 뚜렷이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다섯째, 바울은 자연을 화제로 삼아서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께서 계심을 증명하였다(행 14:15-17). 바울이 설교의 출발점으로 자연계시를 사용한 것은 바울의 청중의 적응 방식에 대한 하나의 예가 된다. 여섯째, 그리스 시인들의 시를 인용한 것은 그리스인들에게는 그리스인이 되려는 바울의 청중의 적응이었다. 일곱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는 바울이 감정적인 호소로 적응하고 있다. 여덟째, 바울은 언어를 현명하게 사용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임을 강조할 뿐 아니라 그들의 모국어인 아람어(히브리어)로써 말했다(행 22:2). 아홉째, 바울은 이방인 문제로 청중이 화가 나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을 복음화하는 그의 사명에 대한 언급은 연설 후반부로 보류해 놓았다(행 22:21). 그러므로 청중들이 바울의 말을 끝까지 듣도록 했다. 청중의 적응에 있어서 말해야 할 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도 필요하지만 말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보류의 지혜도 필요한 것이다. 열 번째, 바울은 청중의 신학적인 차이를 이용했다. 이것은 청중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지식을 사용하는 매우 날카로운 청중의 적응이었다. 열한 번째, 특별한 청중에게는 직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준다. 열두 번째, 바울은 세련된 헬라어를 구사했다. 낱말의 선택에까지 신경을 썼다. 경우에 합당한 연설체와 어휘가 바울의 청중의 적응을 잘 보여 준다.

바울은 설교를 할 때 여러 청중에게 잘 적응했음이 밝혀진 것이다. 그가 다양한 방법을 취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55) Juan Carlos Ortiz,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유정숙 역(서울:만나, 1993), pp. 111~112.

를 알게 하고자 했던 그의 일념 때문이다.⁵⁵⁾ 제이 애덤스(Jay E. Adams)의 조언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고 생각이 된다.

“바울이 행한 기독교인의 설교가 현재에 필요로 하는 풍부한 융통성에 대한 한 본보기이다. 그 융통성은 설교자가 타협함 없이 적용할 수 있으며 본질을 바꾸지 않고 형태만 바꾸는 그런 융통성이다.”⁵⁶⁾

설교자들은 복음의 본질을 고수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설교자들이 청중에 적응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다. 설교자들은 청중에 대하여 지적(logos), 감성적(pathos), 의지적(ethos) 접근을 해야 한다.⁵⁷⁾ 필자가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한국 교회 설교자들은 기도예 목숨을 걸어야 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경을 다독하며,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석의해야 하며, 청중을 분석하며, 스피치의 감각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 등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야 하며, 삶의 변화를 창출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청중에게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필자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며 본 연구를 마치려고 한다. 미네소타주 레주어에 통조림 공장이 있었다. 그 공장의 판매고가 경영자들이 생각한 것만큼 높지 못했다. 그 때문에 그들은 판매 상황 분석을 의뢰했다. 결과는 그 회사의 야채가 다른 상품들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야채는 바꿀 필요가 없었다. 대신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 작은 회사는 캔의 형태를 바꾸었다. 그 캔은 결국 슈퍼마켓의 진열대에서 보다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리고 1991년에 줄리 그린 자이언트 상품이 그 나라

56) Jay E. Adams, *op.cit.*, p.159.

57)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 설교」(서울: 요단출판사, 1990), pp. 173-174.

에서 첫 번째 판매 상품이 될 정도로 판매고가 급성장했다. 이것이 보여주는 요점은 그들이 안을 바꾼 것이 아니라 단지 바깥으로 나타나고 있는 방식을 바꾼 것이다.⁵⁸⁾

이 이야기는 21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국 설교자들에게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교회 설교자들은 복음의 본질은 바꾸지 않으며 청중에 적응하는 설교 방법들을 활용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에도, 군선교의 현장에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 준 청중예의 적응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Lloyd-Jones, D. Martyn. *Preaching and Preachers*.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71.

Old, Huges Oliphant. *The Reading and Preaching of the Scriptures in the Worship of the Christian Church*, volume 1 The Biblical Period.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8.

Sims, Tim and Pegdda, Dan. *101 Things to do During a Dull Sermon*. Bastbourne: Minstrel, 1988.

Adams, Jay E. 「설교 연구」. 정양숙 · 정삼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4.

Anderson, Leith. 「21세기를 위한 교회」. 황성철 역, 서울: 솔로몬,

1997.

Ford, Leighton.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 이숙희 역, 서울: 조이선교회, 1993.

Lowry, Eugene L. 「설교자여 준비된 스토리텔러가 돼라」. 이주엽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9.

MacArthur, Jr., John F. 외 「강해 설교의 재발견」. 김동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모하니, 부르스. 「목사님 설교가 아주 신선해졌어요」. 오태용 · 김광집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5.

Ortiz, Juan Carlos.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유정숙 역, 서울: 만나, 1993.

Robinson, Wayne Bradley 외. 「이야기식 설교를 향한 여행」. 이연길 역,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8.

Wagner, Peter. 「기도는 전투다」. 명성훈 역, 인천: 나눔터, 1994.

Warren, Rick. 「새들백교회 이야기」. 김현희 · 박경범 역, 서울: 디모데, 1996.

Wiersbe, Warren W. 「상상이 담긴 설교」. 이장우 역, 서울: 요단출판사, 1997.

김서택. 「건축술로서의 강해 설교」. 서울: 흥성사, 1998.

김세윤. 「바울 복음의 기원」. 서울: 엠마오, 1994.

김의종. 「릭 워렌의 설교 분석 리포트」.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1999.

박영재. 「설교가 전달되지 않은 18가지 이유」. 서울: 규장문화사, 1998.

박영재. 「청중 욕구 순서를 따른 16가지 설교 구성법」. 서울: 규장문화사, 2000.

58) Leith Anderson, *op. cit.*, pp. 52-53.

박영재. 「설교자가 꼭 명심할 9가지 설득의 법칙」. 서울: 규장문화사, 1997.

박희천. 「나의 설교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6.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 설교」. 서울: 요단출판사, 1990.

정성구. 「한국 교회 설교사」.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6.

곽안련. 「설교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Black, William. 「강해 설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0.

황성철. “21세기를 대비한 설교 문화.” 「한국 교회」, 2(1) (1997).

기독교 장병의 신앙 정도에 따른 자살 위험성 예측



박기영 목사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중요한 문제는 ‘자살 신드롬’이다. 국가적으로 국제구제금융(I.M.F)으로 인한 외환 경제 위기 사태 이

■ 박기영 목사

-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D.C.C)
- 전) 육군 군종목사(중령 예편)
- 항공작전사령부 1항공여단 항공교회 담임목사
-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회 연구위원

후 구조 조정의 여파로 인한 실직자의 증가,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박탈감, 청소년들의 경우 대학입시와 같은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자살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사람이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 자살하거나 죽었을 경우, 그 사람과 스스로를 동일시해서 자살 시도를 따라하는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로 인하여 청소년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자살 증가 현상은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군대의 특수 환경 속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살의 위험성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군 조직은 다른 사회 조직에 비해 규율이 엄격하고, 명령에 대한 복종이 강요되며, 일반 사회와는 달리 폐쇄적인 환경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들이 자살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군 전체 사망 인원 대비 자살 인원 비율을 보면 아직도 다른 사망 사고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¹⁾ 군 당국에서는 장병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군종장교를 중심으로 비전 캠프(Vision Camp)²⁾를 통해 관심 장병들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개인 상담활동을 강조하는 등 장병들의 자살 사고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 예방 업무를 위해 군종장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일부 군종장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군종장교인 목사가 종교 활동이 아닌 상담 활동에만 지나치게

1) 2005년도 육군본부 사망 사고 분석에 의하면 전체 사망 사고 92명 중에 자살로 인한 사망 사고 인원은 45명으로, 지난 5년간 전체 사망 사고 전체 평균 122명 중 자살로 인한 사망 사고 평균 인원 60명에 비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자살사고 사망률이 육군 전체 사망 사고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Vision Camp는 군종장교들이 관심 장병들을 대상으로 3박 4일(총 30시간) 동안 실시하고 있는 육군의 사고 예방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 그 내용은 심리검사, 의사소통훈련, 개인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 치중하게 되어 사고 예방 장교로 전락했다고 하는 목소리가 팽배해 있다. 더 나아가 대부분의 지휘관들은 군종장교들에게 종교 활동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한 상담 활동에 더 관심을 가져 주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신교의 목적을 지향하는 군목들의 종교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현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집단 상담활동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장병들의 신앙심을 향상시키는 종교 활동을 통해서도 군내 자살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본 연구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장병(신앙정도가 좋은 장병)들이 그렇지 못한 장병들보다 자살 위험성이 적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자의 가설이 입증된다면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군목들이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데에만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 아니라, 군목 본인의 임무인 종교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도 자살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바라는 본 연구의 결과가 그동안 상담 활동에 편중된 나머지 다소 위축되어 있는 종교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신앙 전격화를 통한 군복음화 실현에 미력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기독교 장병들의 신앙 정도에 따라 자살 위험성 예측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 1) 세례 여부에 따라 자살 위험성 예측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 2) 구원의 확신 여부에 따라 자살 위험성 예측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 3) 예배 출석 빈도에 따라 자살 위험성 예측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 4) 신앙 체험 정도에 따라 자살 위험성 예측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 5) 천국에 대한 소망 정도에 따라 자살 위험성 예측에 차이가 있을 것인가?

3. 연구의 제한점

- 1) 기독교 신앙을 소유한 사병만을 대상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기독교 장병이라고 할 수 있는 장교나 부사관에게 적용하는 데는 제한이 따른다.
- 2) 신앙의 정도를 다섯 가지 요인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다섯 가지 요인이 장병의 신앙 정도를 완벽하게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

II. 이론적 배경

1. 관련 선행 연구

이정화(1986)는 대학생 가운데서 종교인이 비종교인보다 삶의 의미와 목적 수준이 우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종교가 인생의 의미를 긍정적이며 가치 있는 것으로 파악하게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인격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없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또한 종교적인 사람 즉,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항상 보람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실존에 직면하는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보았다(R. Leslie, 1974).

이러한 결과는 신앙이 없는 장병들의 집단보다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장병들의 집단이 군 생활에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박기영(1991)은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신앙의 정도에 따른 장병들의 자아 개념 차이에서 기독교 신자 장병의 집단이 비신자 장병의 집단보다

자아 개념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장병의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자아 개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례 받은 장병의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자아 개념이 더 높게 나타났고, 신앙생활을 한 경력이 오래되면 될수록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자아 개념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예배 참석 빈도가 높은 장병의 집단이 그렇지 못한 장병의 집단보다 자아 개념이 높게 나타났다.³⁾

이와 같이 신앙이 좋은 기독교 장병들의 집단이 그렇지 못한 장병들의 집단보다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장병들의 신앙 정도가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순천(2002)은 기독교 청소년들의 신앙생활 정도의 차이가 자살 생각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았는데, 구원의 확신 여부에 따른 자살 생각 차이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집단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 모르겠다는 집단보다 자살 생각이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배 참석 빈도에 따른 자살 생각 차이에서는 매주 빠짐없이 참석하는 집단이 월 1회 이하 출석하는 집단보다 자살 생각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러한 연구 논문 결과를 종합해 볼 때에 비종교인보다는 종교인이 그리고 신앙의 정도(세례 여부, 구원의 확신 여부, 예배 출석 빈도 등)가 낮은 기독교인보다는 신앙의 정도가 높은 기독교인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살 생각을 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자살의 정의

3) 박기영,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신앙의 정도에 따른 장병들의 자아개념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pp. 46-48.

4) 진순천, "기독교 청소년의 자살 위기 인식 분석,"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대학원, 2002), pp. 48-53.

자살은 '자신이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생활 상태를 피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고의적인 행동,'⁵⁾ 또는 '고통스러운 문제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처절한 시도,'⁶⁾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죽음과 명확하게 구분된다.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은 자살을 "그의 행위가 장차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알면서, 희생자 자신이 자신에게 행하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동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죽음의 형태를 띠고 있는 자신에 대한 살인 행위이다"⁷⁾라고 정의했다. 또한 그는 자살이 사회와 개인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고 했으며,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과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가 자살의 주요한 영향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자살을 이기적 자살(egoistic suicide), 이타적 자살(altruistic suicide) 자살, 아노미적 자살(anomic suicide) 등의 유형으로 나누었다.⁸⁾

'이기적 자살'은 사회적 유대가 끊어진 결과 오게 되는 사회적 격리나 지지를 잃게 됨으로써 빠지게 되는 고립감이나 소외감, 그리고 가족과의 융합 결핍으로부터 온다. 즉, 사회적 통합이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될 때, 이러한 유형의 자살이 발생할 확률이 커지는데, 육체적, 정신적 병에 의한 자살, 또는 희망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후의 자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타적 자살'은 개인이 사회에 지나치게 통합된 나머지 자신보다도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될 때 초래되는 자살의 유형이다. 전쟁터의 육탄돌격부대, 일본 가미가제, 이라크 전투에서의 자살

테러, 할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지나친 사회의 통합력이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이타주의와 의무감 때문에 자기 파괴를 초래한다.

'아노미적 자살'은 자살로 사회적 통합이 약화되어 사회가 개인을 규제할 힘을 잃은 일종의 무규범 또는 가치 혼란의 상태를 말한다. 사회가 개인의 행동을 제어, 규제하지 못하면 사회는 일종의 아노미(anomie—무규율, 무통제, 무질서 상태)가 되어 행동의 일상적인 기준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자살은 급작스런 사회적 변동 기간이나 사회가 극도로 혼미할 때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자살의 정의에 의하면 현재 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병들의 자살은 평시에는 '이기적 자살'의 형태를 띠며, 전시에는 '이타적 자살'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3. 자살의 원인

1) 사회적 요인

뒤르켐(Durkheim)은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 집단에서 그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을 자살의 중요한 원인으로 제시했다. 즉, 사회학자들은 자살의 결정적인 원인을 사회 통합의 정도에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사회통합이 잘 될수록 자살 가능성이 줄어들고 그 반대가 되면 자살이 늘어난다고 본다. 그래서 자살 빈도는 사회 구조에 중대한 결함이 생겼을 때, 즉 사회 통합력이 약해졌을 때 높아지고, 대가족이나 종교 등 사회 집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구성원들에게서는 낮아지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사회적 지지의 결여는 자살 행동과 많은 관계가 있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자살 행동에 대한 가장 좋은 예측 변인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Morano, Cisler, & Lemerond, 1993).

군 조직은 다른 사회 조직에 비해 규율이 엄격하고 명령에 의한 복종

5) Henri Blocher, *Du Suicide*,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역, 「자살」(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1986), p. 4.

6) 김미영, 「자살충동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서울: 나침반사, 1990), p. 5.

7) E. Durkheim, *Le Suicide*, 김중선 역, 「자살론」(서울: 청아출판사, 1997), p. 20.

8) Durkheim, pp. 147~254. 사회적 통합(social integration)은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에 대한 자발적인 애착을 말하며, 사회적 규제(social regulation)란 사회가 소속된 개인의 행동에게 강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강요되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개방되어 있지도 않은 특수한 환경이다. 이와 같이 사회와 엄격히 구분되는 자유롭지 못한 조직 속에서 장병들은 가족 구성원들과 격리되어 생활을 해야 한다. 게다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사회에서 인정받던 전문 지식과 기술 등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단지 계급에 의해서 강요된 생활을 하게 되므로 군 조직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⁹⁾

이와 같은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병들이 갈등을 겪거나 부적응을 할 경우, 부모나 동료들로부터 직접적인 사회적 지지나 격려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로부터의 도피 수단으로 자살 생각을 할 수도 있다.

2) 생물학적 요인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의 경우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뇌척수액 중에서 낮은 것으로 보였으며, 이들 가운데 20%가 일 년 이내에 자살한 사례를 통해 자살의 생물학적 요인을 설명하기도 한다.¹⁰⁾

프랑스 정신의학자 에스퀴롤(D. Esquirol)도 생물학을 통해 자살을 유전적인 요인으로 설명하려고 했으나, 근래 과학에 따르면 자살 기도 성향은 유전적 요인이 없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쉽게 우울해지는 성향이나 충동적인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성격은 유전될 수 있다.¹¹⁾

대부분 장병들의 연령은 십대 후반에서 이십대 초반이다. 이들은 청년기에 속하는 자들로서 넓은 의미로는 청소년 후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남녀 모두 성 기능의 발달이 왕성하므로 남녀 간의 신체 형태나 기능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이차 성징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자신의 신체적, 성적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를 몰라 당황하고 수치감

과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신체 각 부분의 불균형적 발달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것이 심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침으로 부적응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 심각한 정서불안 현상을 보일 수 있다.¹²⁾ 또한 남자는 20대까지 상당히 긴박한 성욕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성 개방과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풍조 때문에 쉽게 성적 타락에 빠져들고, 도덕적 갈등과 죄책감에 시달리며, 우울증에 빠지게 될 위험성도 있다.¹³⁾

3) 심리학적 요인

심리학적 요인에 의한 자살의 견해는 프로이트(Freud)의 정신 역동적 접근 이후 이해되어 왔다. 즉 프로이트는 자살을 우울증과 연관시켰다. 그는 대부분의 자살자들이 우울증적인 정서 상태를 지닌다고 보고,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에 집착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했다.¹⁴⁾

프로이트는 인간의 본능을 성(性) 본능인 리비도(libido)와 삶의 본능이며, 자기 보존 본능인 에로스(eros)로 보았다. 그는 이러한 견해를 발전시켜 '죽음의 본능(thanatos)' 이라는 이론을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자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특히 장병들은 군 입대를 위해 부모와 헤어지게 되면서 지금까지 의존했던 대상을 상실하는 데 따르는 내적 갈등으로 인해 정서불안 또는 우울증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애인과 떨어지게 되면서 군 생활하는 동안에 이성교제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이 작용하기도 하며, 종종 애인의 변심으로 인해 우울감이 심해질 경우 탈영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다.

9) 이창훈, "군내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p. 17.

10) 이정균 · 김용식, 「정신위생」(서울: 일조각, 2000), p. 471.

11) Gerd Mischle, *Von Der Freiheit, Das Leben Zu Lassen*, 유혜자 역, 「자살의 문화사」(서울: 시공사, 2002), p. 16.

12) 권이중 외 5인, 「청소년교육론」(서울: 양서원, 2001), pp. 18~19.

13) 정정숙, 「기독교교육학」(서울: 배다니, 2000), p. 265.

14) 박상철 · 조용범, 「자살, 예방할 수 있다」(서울: 학지사, 1998), pp. 76-85.

4. 자살에 대한 신학적 이해

자살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신학자 어거스틴(Augustine)의 영향력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는 자살은 자기 살해이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여섯 번째 계명을 어긴 것으로 자살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했다.¹⁵⁾ 6-7세기에 교회는 자살에 반대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성문화했고, 13세기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자살은 항상 죽어 마땅한 죄이며, 도덕법과 자비에 상반되는 것이다”라고 했다.¹⁶⁾ 또한 교회는 자살자를 파문했고, 기독교식 장례를 금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회 역사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살은 회개할 가망이 없기 때문에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라고 생각해 왔다.

본회퍼(D. Bonhoeffer)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완전한 회개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급작스럽게 죽는다”고 했다.¹⁷⁾ 그런데 데이비스 맥코히(J. Davis McCaughey)는 “자살만이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도 회개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죽을 것이다”¹⁸⁾라고 하면서, 자살이 분명한 죄이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회개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알버트 쉬(Albert Y. Hsu)는 기독교의 구원은 죽는 순간에 인간이 ‘오점 하나 없이 깨끗하게 회개’할 수 있었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걸어왔는가에 좌우된다고 했다.¹⁹⁾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살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죄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절망을 극복하는 소망을 갖게 한다. 특히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사람에게 내세의 존재와 부활과 구원 등의 신앙적, 성경적 미래 인식을 통하여 소망을 회복시킬 수 있다.²⁰⁾ 기독교의 가장 큰 생명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점이다. 신구약 성경 안에 수많은 위기 상황이 역전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소망 때문이다.²¹⁾

이밖에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에 불가능할 것이 없다고 하는 긍정적인 믿음, 또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말씀으로 인한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자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군목들의 종교활동의 활성화는 장병들의 자살 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005년 11월 6일 ○○부대에 입대한 전입 이등병 중에 기독교 장병 230명을 무선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군에 근무하고 있는 군목에게 의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군목을 통하여 연구 대상자들에게 검사의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뒤에 설문에 응하

15) Robert N. Wennberg, *Terminal Choices*(Grand Rapids, Mich: Eerdmans, 1989), p. 56~57.
16) Albert Y. Hsu, *Grieving a Suicide*(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2), p. 97.
17) Dietrich Bonhoeffer, *Ethics*(New York: Macmillan, 1955), p. 169.
18) Davis McCaughey, “Suicide: Some Theological Considerations,” *Theology* 70(1967): p. 67.
19) Albert Y. Hsu, p. 99.

20) 전요섭, “기독교 상담과 소망,” 전요섭 외 11인,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4), p. 119.
21) 오윤선, “기독교 상담과 위기,” 전요섭 외 11인,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4), p. 150.

도록 설명하였고, 검사는 군인교회에 출석한 장병들을 대상으로 저녁 예배를 드린 후에 실시하였다. 검사 시간은 2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총 23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33부를 제외한 197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신앙 정도	N	%
부모 신앙	온 가족이 믿는다	105	53.3
	두 분이 기독교이다	9	4.6
	한 분만 기독교이다	29	14.7
	나 혼자 기독교이다	54	27.4
세례 여부	유아세례를 받았다	43	21.8
	받았다	89	45.2
	받을 예정이다	34	7.3
	받을 생각이 없다	31	15.7
구원 확신	있다	121	61.4
	없다	5	2.5
	잘 모르겠다	71	36.0
예배 출석	매주 참석한다	88	44.7
	월 1회만 참석한다	33	16.8
	거의 참석 못한다	76	38.6
신앙 체험	있다	72	36.5
	없다	83	42.1
	잘 모르겠다	42	21.3
천국 소망 확신	있다	137	69.5
	없다	13	16.6
	잘 모르겠다	47	23.9
합	계	197	100

2. 연구 도구

1) 기독교 신앙 정도 확인 검사지

기독교 신앙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는 1992년 전요섭이 제작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부모의 신앙 배경, 세례 여부, 구원의 확신, 예배 출석 빈도, 신앙 체험(기도의 응답, 병 고침의 경험, 방언의 은사 등), 천국에 대한 소망 정도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자살 위험성 예측 척도 검사지

본 연구에 사용된 검사지는 Cull과 Gill(1988)이 자살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개발한 Suicide Probability Scale을 모형으로 고효진, 김대진, 이홍표(2000)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청소년 자살 위험성 예측 척도이며, 여기에는 부정적 자기평가, 절망감, 자살 생각, 적대감 등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요인 중에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은 자살 시도의 위험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일반적으로 자살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실행으로 옮기지 않은 경우로 타인에게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으로 보여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²²⁾

이에 대해 일부 경험적 연구들은 심각한 자살 생각을 경험한 대상이 그렇지 않은 대상보다 자살 시도를 하기 쉬운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Lewinsohn et al., 1994; Wichstrom, 2000). 그러므로 자살 위험성 척도에서 자살 생각 요인이 들어가는 것은 자살 위험성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²³⁾

22) 우선유, "청소년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1999), p. 5.

23) 이은숙,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 생각에 관한 구조 모형,"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대학원, 2002), p. 14.

본 검사지는 Likert 타입의 측정 도구로 문항이 제시하는 반응을 취하는 정도에 따라 4점 척도(1-거의 그렇지 않다, 2- 가끔 그렇다, 3- 자주 그렇다, 4- 대부분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 요인 중에 부정적 자기평가의 10개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살 위험성 예측 척도 검사지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자살 위험성 예측 척도 검사지 요인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 α
부정적 자기평가	10	2, 6, 10, 15, 20, 23, 24, 25, 27, 31	.6959
적대감	5	1, 4, 5, 8, 22	.6935
절망감	12	7, 9, 11, 12, 13, 16, 17, 19, 21, 26, 28, 29	.8048
자살 생각	4	3, 14, 18, 30	.6848
전체 문항	31	1번부터 - 31번까지	.8510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수집된 자료는 SPSS 11.5를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하였고, 연구문제 검증에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이 사용되었다. 일원변량분석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é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VI. 연구 결과 및 논의

연구대상자는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이등병(19세 - 22세)이며, 부모의 신앙 배경, 세례의 여부, 구원의 확신, 예배 참석 빈도, 신앙의 체험, 천국에 대한 소망 여부에 따라 자살 위험성 예측도를 알아보았다.

장병들의 신앙 배경 요인 중에 부모의 신앙 여부에 따른 장병들의 자살

위험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도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군대에 입대할 나이가 된 19세 이상의 장병들의 경우 이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서 부모의 신앙적인 배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 세례 여부에 따른 자살 위험성 예측

<표 3> 세례 여부에 따른 자살 위험성 예측도

자살 위험성 하위 요인	세례 여부	N	M	SD	F	scheffé
부정적 자기평가	유아 세례	43	20.19	6.31	1.044	
	받았다	89	19.69	7.77		
	받을 예정	34	20.74	5.43		
	받을 생각 없다	31	22.16	6.11		
적대감	유아 세례	43	6.84	2.49	.860	
	받았다	89	6.46	2.03		
	받을 예정	34	6.71	2.24		
	받을 생각 없다	31	7.23	3.12		
절망감	유아 세례	43	19.95	6.15	2.977*	b<d
	받았다	89	18.69	4.81		
	받을 예정	34	19.24	4.38		
	받을 생각 없다	31	22.00	6.84		
자살생각	유아 세례	43	5.09	2.04	5.611**	b, c<d
	받았다	89	4.65	1.33		
	받을 예정	34	4.85	1.54		
	받을 생각 없다	31	6.29	3.23		
자살 위험성 예측도	유아 세례	43	52.06	13.09	3.195*	b<d
	받았다	89	49.48	12.38		
	받을 예정	34	51.56	10.46		
	받을 생각 없다	31	57.68	15.19		
	합계	197	51.69	12.93		

*p<.05, **p<.01

〈표 3〉에 의하면 장병들의 세례 여부에 따라 절망감(*p<.05)과 자살생각(**p<.01), 그리고 자살 위험성 예측도(*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사후 검증에 의하면 세례를 받을 생각이 없는 장병들이 세례 받은 장병들보다 자살 위험성 예측 하위 요인인 ‘절망감’ 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세례 받을 생각이 없는 장병들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군 생활의 위기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것을 극복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다가 쉽게 절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세례를 받을 생각이 없는 장병들은 세례를 받았거나 세례를 받을 예정인 장병들보다도 자살 위험성 예측 하위 요인인 ‘자살 생각’ 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도 역시 세례 받을 생각이 없는 장병들은 세례를 받은 장병들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신앙적으로 해결하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나머지 좌절감을 느껴서 자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생각이 없는 장병들이 세례를 받은 장병들보다 ‘자살 위험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세례를 받을 생각이 없는 장병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응답한 장병들보다 ‘자살 위험성’ 의 하위 요인인 ‘절망감’ 이나 ‘자살 생각’ 이 높기 때문이다.

2. 구원의 확신 여부에 따른 자살 위험성 예측

〈표 4〉 구원의 확신 여부에 따른 자살 위험성 예측도

자살위험성 하위 요인	구원의 확신	N	M	SD	F	scheffé
부정적 자기평가	있다	121	19.60	5.93	2.360	
	없다	5	24.20	3.96		
	잘 모른다	71	21.39	8.21		
	합계	197	20.37	6.86		

적대감	있다	121	6.39	1.94	4.373	
	없다	5	9.00	5.19		
	잘 모른다	71	7.07	2.64		
	합계	197	6.70	2.37		
절망감	있다	121	18.90	5.25	6.037**	a, c(b)
	없다	5	26.80	11.17		
	잘 모른다	71	20.23	5.02		
	합계	197	19.58	5.49		
자살생각	있다	121	4.87	1.83	8.039***	a, c(b)
	없다	5	8.40	4.21		
	잘 모른다	71	5.09	1.91		
	합계	197	5.04	2.00		
자살위험성 예측도	있다	121	49.77	12.00	6.839**	a, c(b)
	없다	5	68.40	20.99		
	잘 모른다	71	53.80	12.86		
	합계	197	51.69	12.93		

p<.01, *p<.001

〈표 4〉에 의하면 장병들의 구원의 확신 여부에 따라 절망감(**p<.01), 자살 생각(***p<.001) 그리고 자살 위험성 예측도(**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사후 검증에 의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장병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 장병들보다 자살 위험성 하위 요인인 ‘절망감’ 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장병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구원해 줄 것이라는 확신으로 소망을 갖는 반면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장병들은 이러한 신앙적 확신이 없기 때문에 쉽게 절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장병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장병들보다 ‘자살 위험성’ 하위 요인인 ‘자살 생각’ 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구원의 확

신이 있는 장병들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며, 자살은 최악이라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생각을 금기시하는 반면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장병들은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적 확신이 없고, 자살에 대한 죄책감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쉽게 자살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장병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장병들보다 '자살 위험성' 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4>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장병들이 그렇지 않은 장병들보다 '자살 위험성' 의 하위 요인인 '절망감' 이나 '자살 생각' 의 정도가 낮기 때문이다.

3. 예배 출석 빈도에 따른 자살 위험성 예측

<표 5> 예배 출석 빈도에 따른 자살 위험성 예측도

자살 위험성 하위 요인	예배 출석 빈도	N	M	SD	F	scheffé
부정적 자기평가	매주일 출석	88	19.04	6.01	3.387*	a<c
	월 1-2회 출석	33	20.82	5.99		
	거의 참석 못함	76	21.74	7.84		
	합계	197	20.36	6.85		
적대감	매주일 출석	88	6.27	2.01	3.025	
	월 1-2회 출석	33	6.79	2.44		
	거의 참석 못함	76	7.17	2.64		
	합계	197	6.70	2.36		
절망감	매주일 출석	88	18.41	5.23	3.870*	a<c
	월 1-2회 출석	33	20.12	5.37		
	거의 참석 못함	76	20.71	5.65		
	합계	197	19.58	5.49		
자살 생각	매주일 출석	88	4.74	1.61	2.422	
	월 1-2회 출석	33	4.96	2.05		
	거의 참석 못함	76	5.42	2.33		
	합계	197	5.04	2.00		

자살 위험성 예측도	매주일 출석	88	48.43	11.92	5.701**	a<c
	월 1-2회 출석	33	52.70	12.47		
	거의 참석 못함	76	55.03	13.48		
	합계	197	51.69	12.93		

*p<.05, **p<.01

<표 5>에 의하면 예배 출석 빈도에 따라 부정적 자기평가(*p<.05), 절망감(*p<.05) 및 자살 위험성 예측도(**p<.01)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사후 검증에 의하면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못하는 장병들이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장병들보다 '부정적 자기평가' 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주일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못하는 장병들은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장병들보다 위로와 격려 그리고 자존감을 높이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접할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못하는 장병들이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장병들보다 '절망감'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들이 매주 교회에 참석하는 장병들보다 절망감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적인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장병들이 그렇지 못한 장병들보다 '자살 위험성' 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5>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매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장병들이 그렇지 않은 장병들보다 '자살 위험성' 의 하위 요인인 '부정적 자기평가' 나 '절망감' 의 정도가 낮기 때문이다.

4. 신앙 체험 여부에 따른 자살 위험성 예측

〈표 6〉 신앙 체험 여부에 따른 자살 위험성 예측도

자살 위험성 하위 요인	신앙 체험	N	M	SD	F	scheffé
부정적 자기평가	있다	72	19.04	6.17	2.692	
	없다	83	21.57	7.73		
	잘 모른다	42	20.24	5.76		
	합계	197	20.37	6.86		
적대감	있다	72	6.42	1.74	1.145	
	없다	83	6.99	2.81		
	잘 모른다	42	6.64	2.31		
	합계	197	6.70	2.36		
절망감	있다	72	18.81	4.64	3.771*	a(b)
	없다	83	20.81	6.53		
	잘 모른다	42	18.47	4.05		
	합계	197	19.58	5.49		
자살 생각	있다	72	4.75	1.22	1.719	
	없다	83	5.34	2.45		
	잘 모른다	42	4.95	2.08		
	합계	197	5.04	2.00		
자살 위험성 예측도	있다	72	49.01	10.69	4.194*	a(b)
	없다	83	54.72	15.11		
	잘 모른다	42	50.31	10.57		
	합계	197	51.69	12.93		

〈표 6〉에 의하면 신앙 체험 여부에 따라 절망감(* $p < .05$) 및 자살 위험성 예측도(* $p <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é 사후 검증에 의하면 신앙 체험이 없는 장병들은 신앙 체험이 있는 장병들보다 ‘절망감’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도 응답이나 방언, 그리고 병 고침과 같은 신앙의 체험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곤고한 상황에서도 신앙 체험이 있는 장병들이 그러한 체험이 없는 장병들보다 쉽게 절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신앙적 체험이 없는 장병들은 인생의 크고 작은 고통 가운데서 혼자서 극복해 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신앙적 체험이 있는 장병들보다 쉽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게 된다고 본다.

또한 신앙 체험이 없는 장병들은 신앙 체험이 있는 장병들보다 ‘자살 위험성’ 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신앙 체험은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며, 미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갖게 한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 체험이 없는 장병들은 위기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거나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어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자살 위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천국 소망의 확신 여부에 따른 자살 위험성 예측

〈표 7〉 천국 소망의 확신 여부에 따른 자살 위험성 예측도

자살 위험성 하위 요인	천국 소망의 확신	N	M	SD	F	scheffé
부정적 자기평가	있다	137	19.23	5.76	6.803**	a(b, c)
	없다	13	24.08	6.32		
	잘 모른다	47	22.66	8.88		
	합계	197	20.37	6.86		
적대감	있다	137	6.46	2.19	2.854	
	없다	13	7.77	2.56		
	잘 모른다	47	7.13	2.70		
	합계	197	6.71	2.36		
절망감	있다	137	18.75	5.11	5.447**	a(c)
	없다	13	21.00	5.07		
	잘 모른다	47	21.62	6.16		
	합계	197	19.58	5.49		
자살 생각	있다	137	4.93	1.99	.859	
	없다	13	5.61	2.59		
	잘 모른다	47	5.19	1.86		
	합계	197	5.04	2.00		

자살 위험성 예측도	있다	137	49.37	11.96	7.878**	a(b, c)
	없다	13	58.46	11.38		
	잘 모른다	47	56.59	14.2		
	합계	197	51.69	12.93		

**p<.01

〈표 7〉에 의하면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응답에 따라 부정적 자기평가, 절망감 그리고, 자살 위험성 예측도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p<.01)가 있었다.

scheffé 사후 검증에 의하면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장병들의 ‘부정적 자기평가’가 천국의 소망을 확신한다고 응답한 장병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장병들은 영생뿐 아니라, 천국의 상급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범사에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반면, 그렇지 않은 장병들은 미래와 내세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죽은 후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장병들이 천국의 소망을 확신한다고 응답한 장병들보다 ‘절망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들이 내세의 삶에 대한 소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이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미쳐 쉽게 좌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장병들이 천국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장병들보다 ‘자살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살 위험성’의 하위 요인인 ‘부정적 자기평가’와 ‘절망감’이 낮기 때문이다.

V. 결론 및 제언

장병들은 군에 입대함과 동시에 부모나 동료들로부터 격리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직접적으로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며, 군대 사회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환경적, 심리적인 요인들 때문에 군대 문화에 적응하는 데 정서적으로 불안할 수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하여 장병들은 심한 경우 자살이라는 위험한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으며, 실제로 군에서는 매년 복무 부적응이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자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당국에서는 장병들의 자살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자살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독교 신앙의 활성화를 통해서도 장병들의 자살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기독 장병들의 경우 그들의 신앙 정도에 자살 생각 위험성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 처리한 후 이를 검증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첫째, 장병들의 세례 여부에 따라 자살 위험성 예측도(*p<.05)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세례를 받은 장병이 세례를 받은 생각이 없는 장병들보다 자살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병들의 구원의 확신 여부에 따라서 자살 위험성 예측도(**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장병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응답한 장병보다 자살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배 출석 빈도에 따라 자살 위험성 예측도(**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예배 출석을 매주 하는 장병들이 그렇지 않은 장병들보다 자살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신앙 체험 여부에 따라 자살 위험성 예측도(*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신앙 체험이 있는 장병들이 그렇지 않은 장병들보다 자살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죽은 후 천국에 대한 소망 여부에 따라 자살 위험성 예

측도(**P<.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죽은 후에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는 장병들이 그렇지 않은 장병들보다 자살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컨대 기독교 장병들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 즉 세례를 받았거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장병들이 세례를 받을 생각이 없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장병보다 자살 위험성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예배 출석 빈도가 높을수록, 신앙 체험이 있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 장병일수록 자살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병들의 자살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관심 장병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고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실행도 필요하겠지만, 신앙이 없는 장병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을 갖게 할 뿐 아니라, 기독교 장병들의 경우는 그들의 신앙심을 높이는 종교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서 자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동시에 이는 군목이 군선교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신앙 전력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휘관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자살사고 예방 차원에서 신앙이 없는 장병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을 갖도록 권면할 뿐 아니라, 기독교 장병들에게는 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군목들은 지휘관의 협조에 의해 교회에 나온 장병들에게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신앙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군복음화와 사고 예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적인 연구를 위한 제안을 한다면 군 특성에 맞는 장병 신앙 성장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일정기간 동안 실시한 후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신앙성장의 정도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자살 생각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기독교의 신앙적 접근으로 제작

된 성경공부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에 대한 검증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연구들은 군 장병들의 무형 전력 극대화는 물론 신앙 전력화를 위한 소중한 자원들이 될 것으로 믿는다.

※ 본 글은 2006년 "제3회 한국군선교신학 일반논문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논문입니다.

참 고 문 헌

권이중 외 5인. 「청소년교육론」. 서울: 양서원. 2001.
김미영. 「자살 충동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 서울: 나침반사. 1990.
박상철 · 조용범. 「자살, 예방할 수 있다」. 서울: 학지사. 1998.
이정균 · 김용식. 「정신위생」. 서울: 일조각. 2000.
전요섭 외 11인.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학」. 서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2004.
정정숙. 「기독교교육학」. 서울: 베다니. 1997.
박기영. "기독교 신앙의 유무와 신앙의 정도에 따른 장병들의 자아 개념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우선유. "청소년 자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1999.
윤주태. "군 조직 내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이은숙.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 생각에 관한 구조 모형".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이창훈. “군내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4.

진순천. “기독교 청소년의 자살 위기 인식 분석”. 석사학위논문: 성결대학교 대학원. 2002.

Beck, Aron T. et al.,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원호택 외 6인 공역. 「우울증의 인지치료」. 서울: 학지사. 2001.

Blocher, Henri. *Du Suicide*.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역. 「자살」. 서울: 한국기독교학생출판부. 1986.

Durkheim, E. *Le Suicide*, 김충선 역. 「자살론」. 서울: 청아출판사. 1997.

Mischle, Gerd. *Von Der Freiheit, Das Leben Zu Lassen*. 유혜자 역. 「자살의 문화사」. 서울: 시공사. 2002.

Bonhoeffer, Dietrich. *Ethics*. New York: Macmillan. 1955.

Garrison, C. et al., The assessment of suicide behavior in adolesc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Vol. 21. 1991.

Hsu, Albert Y. *Grieving a Suicide*. Downers Grove: InterVarsity. 2002.

McCaughey, Davis. “Suicide: Some Theological Considerations.” *Theology* 70. 1967.

Wennberg, Robert N. *Terminal Choices*. Grand Rapids, Mich: Eerdmans. 1989.

기독교장비 신앙 정도에 따른 자살 위험성 예측 설문지

안녕하세요? 본 질문지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 배경과 여러분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이 귀중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되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될 뿐 아니라 본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이나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 문항도 빠짐없이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결대학교

1. 나이는? 만()세
2. 본인의 신앙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3. 부모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온 가족 기독교(), 두 분이 기독교(), 한 분만 기독교()
나 홀로 기독교()
4. 세례를 받았습니까?
유아세례(), 받았다()
받을 예정이다() 받을 생각이 없다()
5.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6. 예배 출석은 어느 정도 하십니까?
매주일 반드시 참석() 월 1-2회 정도 참석()
거의 참석 못함()
7. 신앙적 체험이 있습니까?(기도 응답, 방언 혹은 병 고침 등의 신비한 체험 등)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8. 죽은 후에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V표 하세요.

거 의	가 끄	자 주	대 부 분
그 령 지			
않 다	그 령 다	그 령 다	그 령 다

1. 나는 흥분하면 물건을 집어 던진다.

1.....2.....3.....4

2.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1.....2.....3.....4

3. 주위 사람들을 벌주거나 혼내 주고 싶을 때면 자살을 생각한다.

1.....2.....3.....4

4.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느낀다.

1.....2.....3.....4

5.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

1.....2.....3.....4

6. 나는 나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1.....2.....3.....4

7.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1.....2.....3.....4

8.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적대적인 것 같다.

1.....2.....3.....4

9. 내가 죽어도 아무도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1.....2.....3.....4

10. 내가 하는 일들이 그런 대로 잘 되는 편이다.

1.....2.....3.....4

11. 계속 살아갈 만큼 세상에 가치가 없다고 느껴진다.

1.....2.....3.....4

12. 나는 되는 일이 없다.

1.....2.....3.....4

13.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더 잘 살 거라고 느껴진다.

1.....2.....3.....4

14.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덜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느껴진다.

1.....2.....3.....4

15. 나는 나의 어머니와 가까운 사이였고 지금도 그렇다.

1.....2.....3.....4

16. 일이 잘 되어 가리라는 희망이 거의 없다.

1.....2.....3.....4

17. 내가 한 일이나 나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

1.....2.....3.....4

18. 어떻게 자살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1.....2.....3.....4

19. 돈 걱정을 많이 한다.

1.....2.....3.....4

20. 무슨 일이든지 잘해 나갈 수 있다.

1.....2.....3.....4

21. 피곤하고 기운이 없다.

1.....2.....3.....4

22.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순다.

1.....2.....3.....4

- 23. 나는 나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으며 지금도 그렇다.
1.....2.....3.....4
- 24.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1.....2.....3.....4
- 25. 사람들이 내 속마음을 잘 이해해 준다.
1.....2.....3.....4
- 26. 다시 시작한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것이다.
1.....2.....3.....4
- 27. 나는 재수가 좋은 편이다.
1.....2.....3.....4
- 28.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것을 계속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다.
1.....2.....3.....4
- 29.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1.....2.....3.....4
- 30. 자살 생각이 든다.
1.....2.....3.....4
- 31. 내 주변 사람들은 대체로 나를 좋아한다.
1.....2.....3.....4

우리나라 군내(軍內)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침투 포교(布教)와 예방론(豫防論)고찰



김광호 목사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군(軍)내의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침투와 예방책(豫防策)에 대해서 기독교회의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적 입장에서 고찰하려고 한다. 그리고 최근 군내에서 물의(物議)를 일으키고 있는 주요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을 선별하여 그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연

■ 김광호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교 대학원 졸업
- 국제청교도학술원 졸업
- 한국기독교이단종파연구소 총무
- 대한예수교장로회 중곡중앙교회 부목사

구의 배경은 일부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종교 자유와 행복권 추구하고 소수 종교들의 군중장교 파송 진정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복무에 대한 권고 안에 있다.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에 대해서 미국 칼빈신학교의 안토니 A. 헤케마(Anthony A. Hoekema) 교수는 “현대의 바벨탑을 쌓은 집단”이라고 했고,¹⁾ 벤 바아렌 교수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교회에 미 지불된 잔고 (The cults are the unpaid bills of the church)”라고 했고,²⁾ 한국기독교이단종파연구소의 박영관 교수는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에 대해서 비유적 표현으로 말하였다. 즉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은 의학적(醫學的)으로 암(癌)적 존재이며, 약리학적(藥理學的)으로는 독약(毒藥)과 독초(毒草)라고 했다. 그리고 신학적(神學的)으로는 적 그리스도의 무리라고 했다.³⁾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은 군내의 신앙적 간첩(間諜)들이요, 적군(敵軍)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140종류의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이 있고, 그들의 추종자는 약 2백만 명이며, 그 중에 군내에 포교적 대상으로 약 20종류가 직간접으로 침투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⁴⁾

1. 연구 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군내의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침투와

1) Hoekema, Anthony A., *The Four Major Cults*, Grand Rapids, Eerdmans, 1956, p. 1. 헤케마 교수는 그의 저서에서, 미국에서 발생한 중요한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 가운데 물론교, 안식교, 크리스찬 사이언스, 여호와의 증인을 취급하면서, 기독교회의 이단들은 “현대의 바벨탑을 쌓은 집단”이라고 했다.

2) Van Baalen, J.K., *The Chaos of Cults*, Grand Rapids, Eerdmans, 1972, p. 390.

3) 박영관, 「이단종파비판 제1권」,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95, p. 367.

4) 한국기독교이단연구소, 계간: 「이단종파」,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2005년 겨울호, pp. 23-27. 최근 한국기독교회의 이단종파 현황: 문선명 집단계 9개, 박태선 집단계 11개, 이유성계 4개, 김기동계 5개, 권신찬계 4개, 토요일계 2개, 시한부 종말계 12개, 기타 70개, 국외 15개 등이다. (cf: 인력개발연구센터, 장병 종교활동 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방부, 2003년)

예방책에 대해서 주요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을 선별하여 그 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군내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침투 현황

현재 군내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침투 현황은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그들의 추종자들은 약 635명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중에 제철일 안식일예수재림교는 186명, 원불교는 157명, 남묘호랑계교 52명, 문선명 집단은 50명, 여호와의 증인은 40명, 기타 150명이다. 그러나 군소종단의 추종자들은 사생결단하고 포교하고 있고, 군내에서 종교의 자유와 행복권 추구를 내세우고 있다.

둘째, 군내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예방책

군내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예방책 가운데 초대 기독교회의 사도들의 이단들에 대한 성경적 예방책(豫防策)이다. 그 중에 사도 요한의 예방, 사도 베드로의 예방,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예방 등이다. 반면에 군내외의 군소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예방책으로 전후방 기독교회의 공동전선, 군내의 병영 생활과 신앙의 인격화, 각 군 군중감실의 대 내외의 정책, 그리고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2020비전적 예방 등등이다.

2. 연구 배경

본 논문의 연구 배경은 최근에 일부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과 군소 종단들 혹은 소수 종교들이 군을 그들의 포교(布教)의 대상으로 삼고, 군내에 침투하기 위해서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에게 로비 활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 기쁜소식선교회는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복무에 대한 권고 안을 해당 부처에 제기하는 부당함이 있다.

첫째, 최근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의 군내 법적 사건

최근 기쁜소식선교회의 박옥수의 사건이 군내에서 발생하였다. 그들

은 2005년 2월 4일에 <군복음화> 발행인과 공군 군종목사와 공군 군종감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하였다. 그들은 군선교연합회의 군복음화보가 2004년 12월 25일 2면에 월간 「현대종교」에서 기고한 기획 기사를 실은 것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또한 「군복음화보」의 발행인 박선희 목사님과 공군 군종목사, 공군 군종감실에서 발행한 「이단. 사이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각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기쁜소식선교회는 2006년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당했고, 공군감실의 책자에 대해서만 국가에게 책임을 물었다.⁵⁾

둘째, 최근 토착 불교의 원불교의 진정(眞情)

최근 토착 불교의 원불교가 당국과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원불교의 군종장교 파송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원불교의 신자가 군내에 1,500명 이상이니 군종장교를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원불교는 원광대학교에서 장병들을 위한 연예인 위문 공연을 하였다. 그들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당국과 군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 현재 군종장교는 군내 신자가 2만 이상인 종단에 허용하고 있어, 기독교, 로마 가톨릭, 불교 등은 허용되고 있다. 현재 원불교의 추종자는 불과 몇십 명 정도이기에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⁶⁾

셋째,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복무 권고(勸告)

지난해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양심적 병역 거부 권고안을 상정하였다.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약 3,100명에 이르고, 대부분 여호와의 증인 추종자들이 전부이다(3,081명). 본 논문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대체복무제도를 절대 반대한다. 그 이유는 대체복무제도가 병역기피와 기독교회의 이단종파인 여호와의 증

5)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복음화보」, 서울, 2006년.

6) 기독교연합신문, 2006년 1월 22일(cf: 국군방송, 2006년 2월 7일 원광대학교에서 장병들을 위한 연예인 위문 공연).

인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⁷⁾

특히 극히 소수 신앙집단이며, 기독교회의 이단종파인 여호와의 증인의 일부 추종자들이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양심보다는 그들의 교리 혹은 원리 때문이기에 더욱 잘못된 처사로 여기는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의 추종자들에게 일종의 군복무의 면죄부를 주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II. 본 론

우리나라 군내의 몇몇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침투와 예방책에 있어서, 먼저 성경적으로 기독교회의 이단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또한 기독교회의 이단종파에 대한 군내의 신앙적 입장에서 정의를 하였다.

1. 기독교회의 이단종파에 대한 정의

기독교회의 이단종파에 대한 정의를 성경적 정의와 군내의 신앙적 입장에서 하려고 한다.

첫째, 기독교회의 이단종파에 대한 성경적 정의

지금까지 일부 기독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이단(異端)이란 용어를 자기 입장에 편리한 대로 사용했다. 박영관 교수는 그의 기독교회의 「이단종파 비판 제1권」에서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로 기독교회의 이단종

7)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Ibid.*

한국기독교이단종파연구소의 박영관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대체법 수용 권고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고,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기독교신문, 제 1819호, 2006년 1월 15일자, 경향교회 원로 목사 식원태 박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권 불인정, 기독교연합신문, 제859호, 2006년 1월 15일, 한국기독교개혁운동 대표 한성진 목사는 양심적 병역 거부 아닌 종교적 병역 거부라고 했다. 기독교회의 보수주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파들에 대해서 정의한 것을 간추린다.⁸⁾

성경을 가감(加減)하면 기독교회의 이단이라고 하였다(계 22:18-19).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66권으로 된 하나의 책으로서 완전 영감(靈感)된 것이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신앙과 생활의 규범인 것이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성경 자체가 자증하고 성경의 내적인 역사로 입증된 것이다. 역사적 기독교회는 초대 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가감하면 기독교회의 이단으로 엄단하여 왔다고 했다. 또한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특별계시와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했다. 예를 들면, 문선명 집단의 「원리 강론」, 박태선 집단의 「오묘」,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 이유성의 「말세비밀」, 양도천의 「영약」, 몰몬교의 「몰몬경」, 토요일교의 「교리문답집」,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과학과 건강」, 여호와의 증인의 「새세계번역 성경」,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성서」 등등을 열거하였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救贖事役)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면 기독교회의 이단이라고 했다(행 4:12). 우리는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고 한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구원의 방편이며, 구속의 사역을 하신 것이다. 기독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증거한 유일한 유형교회(有形教會)이며 백성들이인 것이다. 그렇기에 이에서 벗어나면 기독교회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定罪)하였다. 예를 들면, 문선명은 ‘채립주’, 박태선은 ‘천부’, 김백문은 ‘대제사장’, 양도천은 ‘한남’, 정명석은

8) 박영관, *op. cit.*, 머리말, 그는 성경적 정의를 했다. 그리고 계간 (이단종파)에서는 매호마다 성경적, 신학적 목회학적 정의를 하고 있다. 신홍종교문제연구소의 탁명환은 「한국의 신홍종교 제1권」, 서울, 신홍종교문제연구소, 1975. pp. 59-61.)에서 신홍종교의 발생원인을 기성교회에 대한 반발, 정치, 사회, 경제의 불안정, 사상적, 문화적 빈곤, 대중의 무지 등으로 여겼다.

‘JMS’, 조희성은 ‘정도령’, 요셉 스미스 2세는 ‘예언자’, 엘렌 화이트 (Ellen G. White)는 ‘말세의 여중’, 에디 부인은 ‘어머니’, 그리고 찰스 러셀은 ‘여호와와 중’ 등등이다. 또한 지금도 계속적 계시(revelation)와 영감(inspiration)을 주장하면 기독교회의 이단이라고 했다(딤후 3:16-17). 성경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계시와 영감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이제는 주어진 계시를 성령의 조명(illumination)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계시와 영감을 직접 받는다고 하면, 기독교회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삼각산, 청계산, 한얼산, 보현산, 용문산, 무등산, 팔영산 등에서 계시를 받았다는지, 또 제주도, 울릉도, 그 외에 외딴 섬에서 영감을 받아 사도행전 후편이나, 요한계시록 속편을 썼다는 것 등등이다.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반국가적인 집단은 기독교회의 이단이라고 했다(마 24:12-13). 역사적 기독교회는 이 땅 위에서 성경적인 윤리와 도덕을 가지며, 더 나아가서 일반 은총에 의한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져 그들에 대한 철저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선적인 신앙의 원리를 주장하면서, 퇴폐적이고, 세속적이며 부도덕한 윤리를 조장하거나, 사회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에 대한 정당한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은 신앙집단은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선명 집단의 합동결혼식, 박태선의 신앙촌, 양도천, 이유성의 계룡산의 도피성, 몰몬교의 유타주 솔트레이크,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의 피수혈과 짐총 거부 등등이다. 끝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을 주장하면 기독교회의 이단이라고 했다(살전 4:16-17).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은 잘못된 종말론에서 출발하여 비성경적인 종말론에서 꽃을 피우고, 끝내는 혹세무민의 종말론에서 말썽을 빚어 스스로 자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계룡산과 지리산, 삼각산과 용문산 등이 말세의 도피성이라든가, 박명호와 안상홍, 이장립과 박옥수, 박무수와 류광수 등의 사람과 같이 소위 천년성의 자기 집단화의 울타리를 쌓고 있는 것 등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가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제한 혹은 부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영감을 받는다고 하면 기독교회의 이단인 것이다.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인 집단과 흑세 무민을 주장하면 기독교회의 이단이다.

둘째, 군내 기독교회의 이단종파에 대한 군의 신앙적 정의

군내 기독교회의 이단종파에 대한 군의 신앙적 정의를 하려고 한다. 그것은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추종자들이 일반적으로 전통적 기성(既成) 신앙을 부인하고, 광적 신비주의에 빠지고, 종말론적 예언을 하고, 비윤리와 도덕적 행위를 하며, 패쇄적이고, 비밀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들 가운데 몇 가지를 중심해서 정의하려고 한다.⁹⁾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은 군내의 전통적 신앙들을 부인하고 있다. 그들은 군내의 기독교, 로마 가톨릭, 불교 등이다. 이것은 군내의 전통 정신 문화를 배격하는 것이다. 군내의 신자들은 다종교와 다문화에 있고, 그들은 전통 신앙과 문화에서 병영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통 신앙과 문화를 부인하는 신앙집단은 군내의 신앙으로 이단이다.

또한 군내의 장병들은 국토 방위의 의무를 하고 있고, 군은 상하의 엄격한 군의 규율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내의 광적신비주의에 빠져서 군의 지휘 계통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군내의 신앙으로 이단이다. 그리고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을 추종하는 장병들은 시한부 종말론, 신적 계시와 영감을 주장하여 군의 명령과 국가의 제도보다 그들의 원리와 교리를 내세우는 것이다. 이것은 군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로 군내의

9) 인력개발연구센터, 「장병 종교활동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울: 국방부, 2003), p. 14

신앙에서도 이단이다. 군의 장병들은 신성한 국방 의무를 하면서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에 방어하는데, 집중을 거부하는 행위는 군내의 신앙으로 이단이다. 우리 군내의 장병들은 누구나 자기의 신앙을 가지며, 국토방위의 의무를 하고 있다. 특정 신앙적 교리나 원리를 내세워 국방 의무를 저해하는 행위들은 군내의 신앙으로 이단이다.

2. 군내의 군소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침투 방법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군내의 침투 방식 혹은 포교(propagation) 방식은 다음과 같다. 대인방어식 혹은 맨투맨식(Man to Man), 게릴라식(Guerilla), 마호메트식, 대중집회식, 문화보급식, 그리고 복지식 등이다.

첫째, 맨투맨식 혹은 게릴라식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군내 침투는 대부분이 맨투맨식과 게릴라식이다. 이것은 숙달된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추종자들이 개인 대 개인의 포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게릴라(guerilla)전은 현대 전쟁에서 사용하는 하나의 작전이다. 이것은 구약에서 여리고 성 탐색과 함락을 위해 정탐꾼을 보낸 것에서 유래되고(수 2:1),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막 6:7) 보낸 것에 기인하고 있다.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은 이것을 착안하여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맨투맨식 혹은 게릴라식은 기독교회의 보편적인 전도 방식이기도 하다. 다만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다. 하나의 예로서, 문선명 집단의 게릴라전은 젊은 신도들을 짝을 지어 농촌에 투입시킨다. 그들은 농촌의 바쁜 일손을 도와주면서 간접적으로 포섭의 대상자를 물색하며, 밤에는 그들이 일시적으로 거처하는 방에 초대하여 문선명의 원리를 세뇌하는 것이다.¹⁰⁾

둘째, 마호메트교식

다음으로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은 맨투맨식의 전법에서 마호메트교식으로 하고 있다. 마호메트교식은 마호메트가 한 손에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검을 들고 포교 활동을 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신앙적인 전도라기보다는 무력적인 강압 정복인 것이다. 최근에 덴마크의 한 신문사가 내보낸 마호메트의 만평으로 중동 아시아의 이슬람교 추종자들이 대대적인 항의 집회를 하는 것이 하나의 본보기이다.

셋째, 대중집회식(大衆集會式)

최근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은 대중집회를 통해서 침투를 하고 있다. 이것은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폭발적이고 전격적이며 일시적인 포교의 전략을 의미한다. 그들은 매스컴을 동원하여, 홍보활동을 최대로 이용하며, 많은 추종자들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세(勢)를 과시하고 있다. 그 중에 문선명 집단의 '희망의 날' 포교는 20세기 후반의 사단적 발악이었고, 기쁜소식선교회의 박옥수와 한국예루살렘교회의 이초석 등은 매년 잠실학생체육관을 임대하여 정기적으로 대중집회를 하고 있다. 그 밖의 군소 이단종파들은 여름철에 기도원을 임대하여 대중집회를 하면서 자신들의 포교에 전력 투구하고 있다.

넷째, 문화보급식(文化普及式)

최근에 일부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은 연말연시에 군내의 지휘관들과 개인적 친분을 이용하여 사사로이 접근을 하고, 군장병들의 사기(士氣) 고조를 위한 명목으로 각종 위문행사를 한다. 그들의 추종자들 가운데 소위 유명한 연예인들을 동원하고, 심지어 물량 공세를 가지고 각종 엔터테인먼트의 행사를 자처하여 포교적 침투를 하고 있다. 최근에 원불교는 장병들과 지역 주민을 위한 연예인 위문 공연을 자신들이 경영하는 원광대

10) 박영관, *Ibid.*, pp. 211, 304-307. 박영관 교수는 문선명 집단의 포교 방법을 게릴라식, 마호메트식 그리고 쿠데타식이라고 했다.

학교에서 열었다.

다섯째, 복지식(福祉式)

최근에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은 군 장병들의 복지를 명목으로 연대나 독립 대대를 교섭하여, 군부대에 텔레비전(TV), 냉장고, 오디오, 각종 의류, 부식 등을 제공하여 침투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은 저명한 인사들이 하는 금주와 금연 세미나, 성(性) 범죄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3.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포교와 침투로 인한 피해

군내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포교와 침투로 인한 피해는 군의 규율과 장병들의 복무 사기 저하, 군의 국토 방어와 전투력 약화, 그리고 군의 정신문화 혼란 등이다.¹¹⁾

첫째, 군의 규율과 장병들의 복무 사기 저하

군내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포교와 침투로 인한 피해는 군의 규율과 장병들의 복무 사기 저하에 있다. 그 이유는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을 추종하는 극소수의 장병들이 기성 기독교회와 다른 신앙 집단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행위로 군의 규율을 흐뜨리고 있고, 군내에서 집총과 전쟁을 거부하는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군장병들의 군복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군의 국토 방어와 전투력 약화

군내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포교와 침투는 군의 국토 방어와 전투력 약화를 초래한다. 일부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추종 장병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원리 때문에 지휘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군사 훈련을 거부한

11)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op. cit.*

다. 이것은 군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는 것이다. 오늘의 군의 목표는 절대적인 정신 무장과 훈련을 통한 전투력 강화에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추종 장병들이 자신들의 신앙적 원리를 내세워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군의 정신 문화의 혼란

군내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포교와 침투로 인한 피해에는 군의 정신 문화의 혼란도 있다. 일부 극단적인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추종자들이 종교의 자유와 행복권 추구라는 명목으로 자기들의 신앙행위로 기성종교들의 신자들과 갈등을 초래하고, 심지어 신앙적 불화를 조성하며, 전통적인 군내의 정신 문화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군내의 군소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침투

군내의 군소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정체와 침투 수법들에는 집총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문화 보급과 복지의 기쁜소식선교회, 토착(土着) 불교의 원불교, 외색(外色)의 남묘호랑계교, 그리고 혼음(混淫)의 문선명 집단 등이 있다.

첫째, 여호와의 증인의 정체와 침투 수법

여호와의 증인은 1884년 찰스 러셀에 의하여 미국에서 발생한 기독교회의 이단종파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국가의 제도를 부인하고, 피의 수혈을 거부하고, 그리고 군 복무시에는 집총을 거부한다. 그들은 이것들이 마귀적 혹은 사단적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1914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재림하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새로운 천적 정부인 여호와의 왕국을 시작하였다고 하며, 지금은 사단의 영향을 받는 인간 정부들의 마지막 때라고 하여, 모든 국가

의 제도들을 부인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반 국가주의이며, 반사회적인 신앙 집단이다.¹²⁾ 또한 피의 수혈을 거부한다.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 레위기 17장 14절의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물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의 말씀 때문에 수혈(輸血)을 거부한다. 그러나 레위기의 법이 금지하는 피는 인간의 피가 아니고, 짐승들의 피다. 그리고 의학상의 수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먹는 피를 금했다.¹³⁾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 복무시에 집총을 거부한다. 그것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들은 성경의 이사야 2장 4절과 미가 4장 3절의 전쟁을 연습하지 마라는 말씀을 곡해하여, 병역 거부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 성경 구절은 세상 왕국이 끝나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면 전쟁 연습 혹은 군사 훈련이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군내의 집총을 거부하는 병사에 대해서 군내의 인격 교육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군대의 무기는 살상의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의 무기라고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내에 그들의 책자를 다량으로 보급하고 있다.

둘째, 기쁜소식선교회의 정체와 침투 수법

최근 기쁜소식선교회의 박옥수가 매년 복음대전도집회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하고, 군내의 문화 보급, 정신 교육, 군내의 복지를 돕는다는 수법으로 침투하고 있다.¹⁴⁾ 그들의 정체는 다음과 같다. 기쁜소식선교회의 박옥수는 1944년 6월 2일 아버지 박재득과 어머니 최수만의 사이에서 4남 1녀 중 세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본적은 경북 선산군 선산면 노량

12) *Ibid.*

13) 박영관, *op. cit.*, p. 175.

14) 한국기독교이단종파연구소, 계간 「이단종파」(서울: KICCC, 2003년 여름호), pp. 71-77.

동 105이며, 그곳에서 선산장로교회를 다녔고, 선산중학교 3학년을 중퇴하였다고 한다. 그는 화란인 선교사 디육이 주관하는 금오산 집회에서 감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 후에 한국기독교복음침례회 권신찬의 소위 구원파(救援派)에 소속되었다. 그러나 그는 구원파의 소속했음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박옥수는 현재 나이 60세로, 1962년 대구시 삼덕동에 미국인 디 육과 영국인 데릭 얼 그리고 미국인 말론 베이커 등이 설립한 방패신앙선교회(Shield of Faith Mission)의 선교학교를 1964년에 나왔다고 하며, 1971년에 디 육(Dick York) 선교사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1976년에 ‘한국복음선교회’ 및 ‘기쁜 소식선교회’를 조직했고, 1985년 아세아 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 1990년 이후로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의 TV 및 라디오 방송을 했으며, 1995년 국제 청소년 연합을 조직하였다.

박옥수는 현재 매년 대도시 전도집회, 전도책자 발행과 보급, 월간 <기쁜소식>, 인터넷과 방송 및 영상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저서로는 「죄 사함 거듭남의 비밀」 1, 2, 3권과 그의 “말씀 시리즈” 10권 등, 여러 권의 소책자들이 있다. 그리고 대전 한발중앙교회의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기쁜소식선교회의 대표로 총지휘하고 있다. 기쁜소식선교회의 박옥수는 소위 한국복음침례회의 권신찬파에서 나온 여러 개의 분파 가운데 하나이며, 한국 교회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은 기독교회의 이단종파인 것이다.

그는 구원을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사함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4-6).

박옥수는 죄 사함을 자력적인 결단과 인위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인본주의이며, 알미니안적 구원관이다. 그리고 박옥수는 죄 사함을 소위 구원의 확신으로 말하고 있다. 성도의 구원의 확신은 신앙적 인격의 변화이다. 성도의 원죄와 행위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으로 단회적으로 사함 받는 것이다.

기쁜소식선교회의 죄악관은 박옥수의 소위 “말씀 시리즈”에 잘 나타나 있다. 그의 첫 말씀 시리즈 「나뭇잎의 옷과 가죽 옷」과 그 밖의 것에서 잘 나타나 있다.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과정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뭇잎 곧 무화과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리웠다. 박옥수는 그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행위죄를 아무리 회개하고 씻으려고 해도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반면에 그들은 가죽 옷을 입음으로써 죄에 대해서 온전해졌다고 했다. 이와 같은 그의 성경 해석은 너무나도 비유적이다.

기쁜소식선교회의 교회관은 기독교회의 유형교회보다는 기쁜소식선교회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독교회는 죽은교회, 구원이 없는 교회라고 비판하고, 자신들의 집단만이 참 구원이 있다고 한다.¹⁵⁾

박옥수의 교회관은 기독교회의 예배당을 부인하고 소위 구원받은 자기 집단의 모임만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무교회주의적 원리이다. 그러면서도 자신과 자신의 집단은 유형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 정기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기쁜소식선교회는 한국 기독교회에 강하게 도전하고 있고, 일부 군내의 군종장교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

15)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op. cit.*

훼손으로 법정 투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법정 투쟁의 이면에는 자신들이 기독교회의 이단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회는 기쁜소식신교회를 기독교회의 이단으로 이미 정죄하였고, 그들은 법정 투쟁도 패하고 있다. 그들의 침투는 군의 지휘관과 개인적인 관계, 각종 세미나를 자원 지원하고 있다.

셋째, 토착 불교의 원불교의 정체와 침투 수법

원불교의 군내 침투는 지역 출신의 국회위원들을 동원하여 침투한다.¹⁶⁾ 원불교는 전통 불교에서 파생된 소위 우리나라의 토착화(土着化)된 불교의 이단종파(異端宗派)이다. 원불교는 박중빈이 1916년에 법신불(法身佛)로서 하나의 동그라미상(一圓相)을 깨닫고 창설하였다. 그는 1891년 5월 5일 전남 영광에서 태어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며, 보천교(普天敎)의 도통천자(道通天子)라고 자칭하던 차천자의 추종자였다. 그의 호(號)는 소태산(少太山)이며, 1943년 6월 1일 53세로 죽었다. 박중빈의 사후에 송규(宋奎)시가 제 1대 종법사가 되었다. 그에 의하여 오늘의 원불교라는 교명을 가지게 되었다.

박중빈은 소위 산중 불교와 은둔 불교를 개혁하여 생활 불교, 대중 불교를 만들었다. 전통 불교에서 자유주의 불교를 지향했고, 하나의 혼합불교를 이룩했다. 원불교에는 법신불 일원상, 인과보응(因果報應) 신앙문,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수행문 등이 있다. 그들은 우주의 궁극적 진리를 일원(一圓)의 진리라 이름하고, 일원의 진리를 O로 표현하며, 이것을 법신불 일원상이라 하여 신앙의 대상이요,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원불교는 어느 법당에나 내외각에 O를 표시하며, 법당의 중앙에 O를 붙인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형상수배(形像崇拜) 혹은 우상숭배(偶像崇

拜)에 지나지 않는다. 원불교의 인과보응 신앙문은 신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다. 원불교의 진공묘유(眞空妙有) 수행문에는 3학과 8조가 있다. 3학은 정신수양(精神修養), 사리연구(事理研究), 작업취사(作業取舍)이다. 그리고 8조는 신분(信忿), 분발(分發), 의문(疑問), 불신(不信), 탐욕(貪慾), 나태(懶怠), 우치(愚癡) 등등이다. 원불교의 수행문으로 사람은 해탈(解脫)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를 그들은 비존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원불교는 국내에 15개 교구와 450개 교당이 있으며, 추종자는 약 10만 명 정도이다. 그리고 미국, 일본, 캐나다, 독일, 호주, 남아프리카, 독립국가연합, 프랑스, 중국 등 국외에 4개 교구와 13개국 30여 개 교당이 있으며 추종자는 3-4천 명에 이른다고 한다. 원불교는 전통불교의 이단종파이며, 유교, 불교, 천도교, 증산교 등의 원리와 사상을 혼합한 하나의 혼합불교이다. 원불교는 산중불교, 은둔 불교에서 소위 생활불교와 대중불교로 나타났다. 원불교는 정통주의 불교에서 보면 자유주의 불교이다. 그들은 군대를 그들의 포교의 대상으로 여기고, 지역의 정치인들을 동원하여 국회에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

넷째, 남묘호랑계교의 정체와 침투 수법

최근 일본의 이교종파들이 세계 도처에서 성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연의 일연법화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일연의 일연법화종은 일명 ‘호랑이교’, ‘호랑교’, ‘남녀교’, 일본어 발음으로는 ‘남묘호랑계교’가 도시의 저소득층과 농어촌에서 소위 치병(治病)과 구복(求福)을 내세워 포교를 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에서 발생한 불교의 이단종파요, 혼합불교이다.¹⁷⁾ 소위 남묘호랑계교(南無妙法蓮華經) 혹은 일연법화종(日蓮法華宗) 또는 일연정종(日蓮正宗)은 일체의 다른 신

16) Ibid.

17) 박영관, Ibid., pp. 244~246, 300~306.

양 집단을 사교(邪教)라고 하는 독선주의이다. 그들은 일본의 국조 천조대신(天照大神)과 일본의 수호신 팔번보살(八幡菩薩)이 들어 있는 본존(만다라, 曼荼羅)을 모시며, 동방요배(東方遙拜)를 하는 신앙 집단이다.

정부 당국은 일연법화종을 반국가적 반민족적인 일본의 국수주의 신앙 집단으로 규정하고, 1964년 1월에 문교부에서 일연법화종의 포교 금지를 시켰다. 우리나라에는 1963년 2월에 들어왔고,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656에서 박소암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는 일연종교학회를 조직하였다. 박소암은 1910년 생으로 8·15 해방 직후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왔고, 경찰에 투신하여 경위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1950년 6·25 한국 전쟁 때는 동양통신사 기자로 인천에 주재하기도 했다. 그는 1969년 2월 5일에 죽었다. 그의 후계자는 동생 박성일이 되었고, 그 후에는 6개 파로 분파되었다.

일연법화종의 남묘호랑계교는 일본어 발음(發音)으로 남무묘법연화경(南無妙法蓮華經)이며, 7자로 된 하나의 기도 주문이다. 일연법화종에 의하면, 남무묘법연화경은 말법시대(末法時代)인 오늘날에 와서는 일체 중생이 성불득도하여 현세안온(現世安穩)과 후생선처(後生善處)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라고 한다. 그들은 아침, 오후, 저녁에 3번씩 이 주문을 외운다. 남무묘법연화경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들의 능생(能生)의 법이며, 우주 생명의 근원을 말한다고 한다. 남무(南無)는 범어(梵語)이며, 우리말로는 귀명(歸命)이라는 뜻이고, 귀명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귀의(歸依)한다는 것이다. 일연법화종의 신앙적 문제점은 일연을 본존(本尊)이라고 하고, 또한 광적 신비주의이다.

일연법화종은 불교의 이단종파이며, 혼합불교인 것이다. 그리고 일연법화종은 동방요배와 교정 일치론을 주장하고, 일종의 흑세무민(惑世誣民)의 신앙 집단이다. 그들은 왕불명합(王佛冥合)이라는 교리를 내세워, 일본의 공명당(公明黨)이라는 정치 단체를 만들었고, 종교적, 정치적 야심

을 가지고 세계 포교를 하는 것이다. 그들은 국립계단(國立戒壇)으로 일본의 일연법화종이 국교(國教)가 되고, 일본의 일연법화종이 동양의 삼국,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을 통일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군장병들에게 미신적인 치병과 교정일치라는 원리로 침투하고 있다.

다섯째, 문선명 집단의 정체와 침투 수법

문선명 집단의 정체와 침투 수법은 다양하다. 그들은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침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문선명 집단은 1954년에 문선명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를 발족하여, 일본과 미국 등 세계 도처에 포교를 하고 있다. 문선명 집단의 교주인 문선명은 1920년 1월 6일 평안북도 정주군 덕언면 상사리 2221번지에서 태어났다. 현재 문선명은 87세로, 그는 1945년 4월 28일에 최선길 여인과 결혼하여 문진(1946년 4월 7일)을 낳았다. 그리고 그 후에 이혼하고 1954년에 김명희 여인과 관계를 가져 문희진(1955년 8월 17일)을 낳았다. 그리고 현재 부인 한학자 여인과 1960년 4월 11일에 결혼하여, 6남 6녀를 낳았다. 문선명 집단의 원리는 그들의 원리 강론에 자세히 있다. 문선명 집단의 성경관은 성경은 진리 자체가 아니고, 과정적 교훈집으로 여긴다. 그리고 새 계시의 원리 강론이 진리라고 한다. 그러나 원리 강론은 문선명의 추종자 유효원이 초안(草案)했고, 그것은 문선명의 스승인 김백문의 「기독교 근본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문선명 집단은 기독교의 정경성(正經性)을 부인하고, 계속적 신적 계시를 주장하고, 성경을 가감하고 있다. 문선명 집단의 신은 이성(二姓) 성상(性相)의 중화적(中和的) 존재자로 믿는다. 다시 말하면 신은 남성과 여성의 중화적 존재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문선명이 중화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문선명은 자칭 재림주, 메시아라고 한다. 문선명 집단의 인죄론은 천사(天使)와 하와의 성적 관계를 영적 타락이라 하고, 아담과 천사와 성적 관계를 맺은 하와 관계를 육적 타락(肉墮落)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문선명 집단은 인간의 타락을 성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것은 김백문의 에로스적 성(性) 원리를 체계화한 것에 불과하다.

문선명 집단의 기독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로마 당국에 의해서 실정법(實定法)을 위반하여 십자가에 처형된 실패자로 여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문선명을 두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선명 집단은 구원론에 있어서 탕감(蕩減, Indemnity) 복귀 원리(復歸原理)를 말하고 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죄는 노아가 탕감했고, 노아 이후의 모든 죄는 다윗이 탕감했다고 한다. 그리고 다윗 이후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탕감했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모든 죄는 문선명이 탕감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인간에게는 더러운 피가 있어 죄를 짓기 때문에 깨끗한 피를 받은 자기와 혈연적 관계를 맺으므로 정결케 된다고 한다. 이것이 문선명 집단의 피가름의 구원이다. 문선명 집단의 교회론은 무형교회를 믿지 않으며, 지상의 유형교회 곧 문선명 집단만을 유일한 교회로 여기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식구, 가정, 집단으로 여기고 있다. 문선명 집단의 종말론은 문선명이 이미 재림주로, 동방의 나라 곧 한국에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상낙원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특정한 지역에 재림하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고, 지상의 어느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에 재림하신다. 문선명 집단의 그릇된 주장은 비성경적, 비윤리적,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것들이 많다.

문선명 집단은 혼음(混淫) 혹은 피가름을 주장한다. 그들은 인간의 타락을 천사(天使)와의 성적 타락으로 간주하고, 모든 인간은 타락한 천사의 피가 몸 속에 있어 죄를 짓는다고 한다. 인간의 몸 속에 있는 타락한 천사의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위 신으로부터 깨끗한 피를 받은 문선명과 성적 관계를 맺어야 깨끗하게 된다고 한다. 이것이 소위 피가름이며, 성경적으로 니골당이며, 섹스주의이다.¹⁸⁾

문선명 집단은 테러와 폭력 집단이다. 문선명 집단은 국내외에서 그들의 광적인 추종자들로 하여금 기독교회의 교회와 집회를 방해하며, 기물을 파괴하는 일이 비밀비재하다. 민주주의 사회와 국가에서는 테러와 폭력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은 것이다.

문선명 집단은 합동결혼식(合同結婚式)을 그들의 유일한 포교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문선명 집단의 합동결혼식은 각국의 결혼에 대한 미풍양속(美風良俗)을 해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외교 망신까지 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소위 통일교회(統一教會)에서 가정교회(家庭教會, 세계평화통일가정운동)로 명칭을 바꾸었고, 문선명 왕국 혹은 교황청(敎皇廳)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일부 군대에게 문화 보급과 복지를 통해서 포교하고 있다.

우리는 이상에서 군내에 침투하고 있는 주요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을 고찰하였다. 그들은 소위 군소 종단들로서 군내에 침투하여, 자기들의 포교 근거지로 삼고자 하고 있고, 군내 장병들의 군 복무에 있어서 사기 저하를 일으키고 있다.

5. 군내의 각 종단별 신자 현황

우리나라 군내의 각 종단별 신자수는 다음과 같다. 국방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군내 장병은 총 약 69만 535명이다. 그 중에 기독교는 약 32만 명, 불교는 15만 명,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8만 명이다. 반면에 군내 군소 종단 추종자는 약 635명이다. 그 중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는 186명, 원불교는 157명, 남묘호랑계교 52명, 문선명 집단은 50명, 여호와의 증인

18) *Ibid.*, p. 318.

은 40명, 기타 150명이다.¹⁹⁾

첫째, 군내의 각 종단별 신자 현황

우리나라 군내의 각 종단별 신자수는 다음과 같다. 국방부 통계에 의하면, 현재 군내 장병신자는 기독교는 약 32만 명, 불교는 15만 명, 그리고 로마 가톨릭은 8만 명이다. 반면에 군내 군소종단 추종자는 약 635명이다.²⁰⁾

둘째, 군내의 군소 종단의 추종자 현황

우리나라 군내의 소위 군소 종단, 소위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추종자들은 약 635명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중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는 186명, 원불교는 157명, 남묘호랑계교 52명, 문선명 집단은 50명, 여호와의 증인은 40명, 기타 150명이다. 그러나 군소 종단의 추종자들은 사생결단으로 포교하고 있고, 군내에서 종교의 자유와 행복권 추구를 내세우고 있다.

셋째, 군내의 각 종단별 군종장교의 현황

우리나라 군내의 각 종단별 군종장교에 있어서, 기독교회는 진중교회가 1천여 동이며, 군종장교는 290명이며, 신자는 약 32만 명이다. 로마가톨릭의 군종장교는 80명이며, 신자는 10만 명이다. 그리고 불교의 군종장교는 120명이며, 신자는 15만 명이다. 기독교회는 부족한 군종장교를 국방부 훈령 제 691호에 의해 군종활동 지원 민간 성직자로 대치하고 있고, 로마 가톨릭과 불교 역시 민간 성직자를 활용하고 있다.²¹⁾

19)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복음화보」, 제 171호(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3), 1월 25일.

20) *Ibid.*

6. 군내의 군소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에 대한 사도적 예방책

군내의 군소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에 대한 예방책은 초대 기독교회의 사도적 예방책으로, 사도 요한의 예방, 사도 베드로의 예방,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예방 등이다.

첫째, 기독교회의 이단종파에 대한 사도 요한의 예방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은 기독교회의 이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했다(요일 4:2-3).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은 자들이라 했고(요이 7, 9, 11),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임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요일 2:22)고 했다.²²⁾ 사도 요한은 헬라의 철학적 혼합주의(混合主義)인 그노시스주의와 율법적 에비온파를 배격하였고, 광적 신비주의(狂의神秘主義)인 몬타누스주의를 비판하였다.

사도 요한은 헬라 철학적 혼합주의인 그노시스주의에 대해서, 그들은 인간의 타락한 지식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고 했다. 그리고 구원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그노시스주의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하나님은 영계를 다스리고, 수십 개의 아이온 가운데 마지막 아이온이 지식이 세상으로 떨어져 데미우르그스(Demiurgos)가 되었고, 그는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것으로 본다 고 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

21) 인력개발연구센터, 「장병 종교활동 제도 개선방안 연구」(서울: 국방부, 2003년).

22)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 제3권(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5), pp. 212-215.

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고 했다. 또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고 했다. 이 구절들은 그노시스주의를 비판하고, 기독교회의 신앙적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한 것이다.

광적 신비주의 몬타누스주의는 소아시아 브루기아(Phrygia)의 알다보아(Ardaboa) 출신의 몬타누스에 의해서 형성된 기독교회의 비성경적 성령주의이다. 그는 과거에 시벨레(Cybele)의 신비종교 사제(司祭)였다. 그 후 주후 156년경에 기독교회로 전향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기독교회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것은 자신이 성령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려면 자신을 통하여 받아야 하고,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으니 새에루살렘 브루기아에 피신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여자 제자인 브리스카(Prisca)와 맥스밀리아(Maxmillia)에게 성령을 안수로서 주고 자신을 선전케 하였다.

당시는 기독교회가 신앙적 박해를 받고 신앙적 미온 상태에 있을 때여서 몬타누스주의는 종말 의식을 고취하고, 성령의 체험적 은사를 강조하는 데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지금은 보혜사의 강림과 함께 열려졌다고 했고, 영적 은사의 시대요 특히 예언의 시대라고 고취시켰다. 기독교회는 몬타누스주의를 거절하였다. 그 이유는 신약의 계시보다 더 고도의 계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몬타누스주의는 광적 신비주의로 전락하였고, 율법적 금욕주의 때문에 동방의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말았다. 그들은 신약의 요한복음을 많이 애독하였다.

기독교회는 자신을 성령이라고 주장한 몬타누스주의를 반대하고 기독교회의 이단으로 정죄하였다. 사도 요한은 기독교회의 이단들과 접촉하는 것을 일체 금하였다. 사도 요한은 이단자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고 했다(요이 10).

둘째, 기독교회의 이단종파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예방

사도 베드로는 기독교회의 이단들을 단호하게 척결하였다. 사도 베드로는 기독교회의 이단들과 타협을 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을 돈으로 살려는 마술사 시몬을 엄히 책망하였고,²³⁾ 색욕과 호색, 행음과 간음을 하는 거짓 선생들, 곧 니콜라당을 멀리하였다.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했다. 마술사 시몬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랐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하매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자신도 권능을 받게 해 달라고 했다. 사도 베드로는 시몬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사려는 것을 보고, 마음 속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고 하며, 혹 주님께서 악독을 사하여 주실 줄 모르니 기도(祈禱)하라고 했다(행 8:18-24).

사도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최후의 신앙적 방법을 제시하여 주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술사 시몬은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마술사 시몬은 일시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방인에서 기독교회로 개종한 개종자(改宗者)였을 뿐이다. 그는 본래의 마술과 요술 그리고 요행수를 행하는 자가 되었고, 자칭 큰 자, 곧 신(神)이라 하였다. 그 후에 그는 기독교회의 혼합주의(混合主義)와 절충주의(折衷主義) 그노시스주의를 만들어 냈다.

사도 베드로는 호색과 색욕, 그리고 행음과 간음을 행하는 거짓 선생들, 곧 니콜라당을 배격하였다. 니콜라당은 그노시스주의의 분파이다. 니콜라당의 행위는 구약의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모압 여

23) *Ibid.*, pp. 218~220.

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인하여 바알브올에게 제물을 바치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하였다. 그들은 이방신의 여자 사제들과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기독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의 음란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을 기독교회에서 추방하였다. 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기독교회의 이단 집단을 교회 안에 용납하지 않았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율법주의, 이방인의 관습 등을 혼합하는 신앙을 배격하였다.

셋째, 기독교회의 이단종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예방

사도 바울(St. Paul)은 기독교회의 이단의 특징을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 했고(고후 11:4), 사람의 유전(遺傳)과 세상의 초등학문(初等學文)을 좇는 것이라 했다(골 2:8-23). 그리고 기독교회의 이단들은 변론(辯論)과 언쟁(言爭)을 좋아한다고 했다(딤후 6:4-5).

사도 바울은 기독교회의 이단에 대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했다(딤후 3:10).²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 유대교에 대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변증하였다. 그 중에 유대교주의 금욕주의이며, 신비주의인 에세네파에 대해서였다. 에세네파는 주전 150년경부터 사해(死海) 부근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그들은 청빈한 독신생활(獨身生活)과 수도원적인 은둔생활(隱遁生活)을 하였다. 에세네파는 구약성경만 믿고, 율법을 사색하였다. 사도 바울은 에세네파의 금욕주의를 인위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신적 수양과 극기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유대교적 잔존(殘存)이며 하나의 마귀의 유혹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

²⁴⁾ *Ibid.*, pp. 224-227

씀에 집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하기 위하여 독신생활과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찬성하였다. 사도 바울 자신도 독신생활과 세속적인 것을 버렸다(고전 9:27; 딤후 2:35). 그리고 에세네파처럼 육체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영혼만 귀하게 여기는 것도 잘못이라고 했다. 사도 바울은 육체와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니며, 자신적 수양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다. 에세네파는 이신칭의(以信稱義)의 신앙에 배치된다고 했고, 그는 유대교의 율법의 행위로 구원과 의롭게 되지 못함을 말하였다.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적 혼합주의 그노시스주의에 대한 변증을 하였다. 그노시스주의는 헬라어 그노시스로서 지식을 말한다. 그노시스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구원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7. 군내 군소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에 대한 군내의 예방책

군내 군소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에 대한 예방책은 전후방 기독교회의 공동 전선, 군내 병영 생활과 신앙의 인격화, 각군의 군중감실의 대내외의 정책적 예방, 그리고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2020비전 등이다.²⁵⁾

첫째, 전후방 기독교회의 공동 전선의 예방

군내의 군소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예방책(豫防策)은 전후방 기독교회의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군내의 군소 기독교회의

²⁵⁾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 제1권(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4), pp.50-55.

이종윤 목사는, 「21세기를 향한 한민족 교회의 사명」에서, 매년 22만 명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양육하면 복음화된 통일조국이 성취된다고 했다. 군선교 사역 10대 중보기도 제목 가운데, 300여 군중목사와 1천여 군인교회의 한 생명 살리기 5대 실천이 있다. 오덕교 교수가 「군복음화 50년의 역사」에서, 1968-1987년의 성장기에서 지적한 것은 전군 신자화 운동을 통해서 군복음화와 군정신력 함양이 있었다고 했다(cf. 박영관, *Ibid.*, pp. 39-40).

이단종파들의 문제는 군내의 문제만 아니라, 전후방의 기독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군 장병들 가운데 대부분이 후방 기독교회의 신자로서, 군복무를 하고 있다. 그렇기에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문제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고, 전 기독교적이다.

둘째, 군내 병영 생활과 신앙의 인격화의 예방

군내 군소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예방책은 군내 병영 생활과 신앙의 인격화에 있다.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은 특수 포교적 훈련을 받고 군내 기독교회의 장병들의 신앙적 허점을 노리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의 장병들은 신앙과 생활의 인격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다.

셋째, 각군 군종감실의 대내외의 정책적 예방

군내 군소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예방책은 각군 군종감실의 대내외의 정책에 있다. 각군의 군종감실은 정부 당국, 기독교인의 국회의원, 각군 기독교회의 신자 지휘관, 그리고 예비역 장성들과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특별히 각군 군종감실은 상호유대 강화를 가지고, 군내 군소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에 대한 사전 사후의 예방책을 가져야 한다.

넷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2020비전

군내 군소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예방책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2020비전이다. 지금까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군내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조명하였고, 법적 대응도 하였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군선교에 더욱 활성화하므로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침투를 자연적으로 방어하게 된다. 그리고 예방될 것이다. 특별히 2020비전의 애국애족운동, 신앙 전력화운동 그리고 21세기 기독교운동을 통해서 하고 있다.²⁶⁾

III. 결 론(結論)

우리나라 군내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계약적 포교의 침투와 예방책에 있어서, 각종 운동 경기에 있어서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듯이, 한국 기독교회와 각 군내 기독교회의 신자들이 철두철미하게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정체를 알고, 그들의 비성경적 비윤리적,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것을 비판해야 한다. 그리고 군내 병영 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닦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전후방 기독교회의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위선적인 관습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한다. 군내 기독교회의 장병들은 군 생활과 신앙의 인격화를 형성하여, 군복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병영생활을 해야 한다. 또한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추종자들에게 신앙적 배타주의가 아닌 인간적 포용주의로 대해야 한다. 그렇다고 그들과 신앙적으로 혼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논과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지만 추수 때에는 부지런하

26)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 제3권(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5), p.385. (cf: 군선교연합회 이사장 박선희 목사님은 “비전2020과 한국 교회의 역할”에서, 군복음화의 중요성을 말하였고, 비전2020의 실현으로 우리나라는 복음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역설하였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 제1권(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4), pp. 18~19. 또 2020에서 한국 교회 군선교와 비전 가운데, 군선교 5대 비전 실천 3단계 전략에서 군입대전, 군입대, 그리고 군 전역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 제3권(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5), pp. 384~387)

고 지혜로운 농부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추수하는 것같이, 군내 기독교회의 장병들은 국토 방위라는 입장에서 기독교회의 이단종파 추종자들과 함께 복무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초대 기독교회의 사도들같이, 그들이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을 대치한 방법대로, 성경적으로 국내외의 군소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도전과 포교에 대해서 방어하며, 예방해야 한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답변하고, 그들에게 한두 번 훈계하고 멀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들과 접촉을 피하는 것이다. 초대 기독교회의 사도적 예방책으로, 사도 요한의 예방책, 사도 베드로의 예방책, 사도 바울의 예방책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군내외의 예방책은 전후방 기독교회의 공동전선이다.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에 대해서 특정인의 학문적 연구와 일부 교회와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기독교회가 함께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군내의 병영 생활과 신앙의 인격화, 각 군종감실의 대내외의 정책 등이다. 특별히 일부 소수종교들이 합법적으로 군내에 침투하고자 군내 신자수를 국민 신자수 0.2%에 이르게 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로마 가톨릭, 불교 등이 공동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며, 만일의 경우 이렇게 되면 군은 군의 소수 종교들,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의 포교의 각축장이 되고 마는 것이다. 군은 포교의 대상이 아니고, 군 장병들의 정신문화 함양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2020비전 등이다. 특별히 군내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책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의 2020비전의 실현이다. 그것은 군복음화로 인해서 기독교회의 이단종파들이 자연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 본 글은 2006년 “제3회 한국군선교신학 일반논문 공모”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논문입니다.

참고문헌

Atkins G.C., *Modern Religious Cults and Movements*, New York, Revell, 1923.

Braden, Charles S., *These Also Believe*, New York, Macmillian, 1951.

Dalies, Horton, *The Challenge of the Sects*, Philadelphia, Westminster, 1961.

Gerstner, John. H, *The Theology of the Major Sects*, Grand Rapids, BakerBookHouse, 1960.

Hoekema, Anthony A., *The Four Major Cults*, Grand Rapids, Eerdmans, 1956.

Hutten, Kurt, *Seher, Gruebler, Enthusiasten*, Stuttgart, Quellverlage, 1960.

Martin, Walter R., *The Rise of the Cults*, Grand Rapids, Zondervan, 1955.

Martin, Walter R., *The Christian and the Cults*, Grand Rapids, Zondervan, 1956.

Rhodes, A.B., ed., *The Church Faces the Ism*, New York, Abingdon, 1958.

Senders, J.O., & Wright, J. Stafford, *Some Mordern Religions*, London, Tyndale Press, 1956.

Van Baalen, J. K., *The Chaos of Cults*, Grand Rapids, Eerdmans, 1972.

Young Kwan Park, *The Unification Church-A Criticism of Moon's Movement-Seoul*, CLC, 1980.

김경래, 「사회악과 사교 운동」, 서울: 기문사, 1957.

박영관, 「이단종파 비판」,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99.

박영관, 「기독교회 신앙과 역사」,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95.

세계통일신령협회, 「원리 강론」, 서울: 성화, 1973.

신사훈, 「이단과 현대의 비판과 우리의 생로」, 서울: 새싹교회, 1960.

안병무 편, 「신학사상」,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75.

엄요섭,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이해」, 서울: 신교출판사, 1950.

조승제, 「목회 일화(나의 목회생활 40년의 백서)」, 서울: 향린사, 1965.

주영흠, 「성서에 비추어 본 통일교 원리의 비판」 Vol. 2, 서울: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출판부, 1975.

탁명환, 「한국의 신흥 종교」, 서울: 성청사, 1975.

최신덕, 「신흥 종교 집단에 관한 비교 연구」, 서울: 참빛사, 1965.

한철하, 「통일교의 섹스 모티브」, 「월간중앙」 제35호, 서울: 중앙일보사, 1971.

한국기독교이단종파연구소, 계간 「이단종파」, 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2004.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 제1권,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4.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 제2권,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4.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선교신학」 제3권,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5.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군복음화보」, 서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2005.

홍의표, 「현대 교회의 동향」, 서울: 은성문화사, 1971.

森山論, 「統一協會」, 동경: C. L. C., 1975.

군선교가 10

이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행진곡풍으로

작사 군선교연합회
작곡 김 민 식

1. 빛 으 로 감 옷 입 은 순 결 한 젊 은 이 들 을 보 소 서
 2. 힘 차 게 행 진 하 며 노 래 하 는 청 년 들 을 보 소 서
 3. 믿 음 의 백 성 들 아 주 님 이 추 수 궤 을 부 르 신 다

오 주 여 저 들 의 심 령 에 임 하 시 읊 소 서
 당 신 의 것 이 니 양 처 립 기 르 시 읊 소 서
 내 게 말 겨 주 신 생 명 과 불 질 을 다 바 처

당 신 의 강 한 팔 이 저 들 을 불 드 시 면 -
 승 리 의 대 장 예 수 저 들 을 통 치 하 사 -
 복 음 의 햇 불 되 어 아 낱 없 이 타 리 라 -

민 족 이 경 성 하 리 이 다 세 계 가 진 동 하 리 이 다
 교 회 를 뜨 겁 게 하 소 서 사 회 를 깨 끗 케 하 소 서
 주 님 다 시 오 시 기 전 에 인 류 구 원 밀 알 되 리 라

이 땅 위 에 태 어 나 서 할 일 도 많 다 만

예 수 의 - 이 름 으 로 십 자 가 군 병 만 드 시 어

어 들 을 몰 아 내 소 서 세 상 을 정 복 하 소 서
 문 화 를 정 케 하 소 서 비 전 을 품 게 하 소 서
 군 대 를 축 복 하 소 서 민 족 을 구 원 하 소 서

새 천 년 참 된 평 화 의 방 패 삼 아 주 소 서
 통 일 된 조 국 의 빛 과 소 금 되 게 하 소 서
 인 류 가 하 나 되 는 날 큰 영 광 받 으 소 서

비전 2020을 이루라

작사 군선교연합회
작곡 김민식

이민족 - 을 향하신 - 하나님의 계획 중심에 -
수백만 - 의 생명을 - 우리 통해 살리신 주님 -

청년을 - 살리라는 - 소중한 부르심이 있어 - 선
불타는 - 가슴속에 - 억만민족을 품고서 - 죽

교의 큰 물결이 - 군대를 뒤덮었도다 - 그 -
도록 충성하라 - 심령을 인도하시네 - 성도

역사를 위하여 - 기도가 하늘을 - 찢 - 렸도 다
여교회들이여 - 영적인 전쟁에 - 너를 부르다

이 귀한 영혼들을 깨워 내음성을 듣게하라 -

저 젊은 영혼들을 살려 내백성이 되게하라 - 오

(남성) 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 가

(여성) 비전 20 - 20을 이루라 -

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

비전 20 - 20을 향하여 -

아, 비전 2020이여!

빠르고 힘차게

작사 군선교연합회
작곡 김민식

나라와민 - 족을 사랑하라는 소명을 안고 바른
사랑과 섬김으로 미래성도를 잉태하면서 빛나

신앙으로 - 필승의 군대를 - 만들어왔네 군과민
청년들 - 수없는 세례로 - 구원하였네 온백성

주인류복음화를 향한 - 비전 2020
이 환웃입고 두손드는 - 이 - 천이십년

복음으로 통일된 조국을 꿈꾸며 우리는 달린다
가슴 박찬 그날을 심장에 새기며 우리는 일한다

믿음의 - 반석을 딛고 소망의 기를 높여라 담대하
믿음의 - 반석을 딛고 소망의 기를 높여라 전진하

라 -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신다
라 - 함께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다

비전 2020 위하여 기도하라 생명을 걸
비전 2020 위하여 충성하라 생명을 걸

고 아 - 아 비전 2020이여

관
소
권
유

군선교신학 4

•
2006년 6월 10일 인쇄

2006년 6월 15일 발행

발행처/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서울 종로구 효제동 45번지 군선교연합회관

TEL/02-744-2661~4, 02-3675-2020

홈페이지 : [http : //www.v2020.or.kr](http://www.v2020.or.kr)

E-mail : meak@v2020.or.kr

제작처/ 콤란출판사

서울 종로구 이화동184-3

TEL/745-1007, 745-1301, 747-1212, 743-1300

영업부/747-1004, FAX/745-8490

본사평생전화번호/0502-756-1004

홈페이지 : [http : //www.qumran.co.kr](http://www.qumran.co.kr)

E-mail : qumran@hitel.net

qumran@paran.com

등록/제1-670호(1988. 2. 27)

•
값 15,000 원

